

부평의 산업과 사회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제 3
1
2 권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목차

제 1 장 1960~1970년대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

제1절 _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수출주도공업화	013
1.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	
2.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과 수출공단 지정	
제2절 _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028
1. 수출공단 유치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2.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 부평지구인가 서곶지구인가	
제3절 _ 부평제1수출공단의 위기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강제 해산	047
1.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과 성장	
2.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강제 해산과 수출공단 일원화	

제 2 장 부평의 오래된 주요 기업

제1절 _ 한국GM(주)	069
1. 한국GM의 역사	
2. 한국GM의 주요 시설	
3. 한국GM의 사회공헌 활동	

제2절 _ 인천택주합동제조회사	091
1. 인천의 택주 변천사	
2. 소성주의 특징	
3. 인천택주의 사회공헌 활동	
제3절 _ 동서식품(주)	100
1. 동서식품의 역사	
2. 주요 생산제품	
3. 사회공헌 활동	
제4절 _ 부평을 떠난 기업 : 삼익악기, 로얄앤컴퍼니	109
1. (주)삼익악기	
2. 로얄앤컴퍼니(주) : 옛 로얄TOTO금속(주)	

제 3 장 역사를 만들어 간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

제1절 _ ‘공도(工都)’ 부평의 탄생	117
1. 군수산업과 자동차 공장	
2. 부평공단의 변천	
제2절 _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121
1. 1950~1960년대 노동운동	
2. 1970년대 부평 지역 노동운동	
제3절 _ 1980년대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	127
1. 본격적 노학연대의 시작	
2. 부평에서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 199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의 성장	
제4절 _ 1990년대 지역 노동운동의 변화	143
1.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위기	
2. 1996년 민주노총 인천본부 출범과 지역 연대 투쟁	
3. 1996~1997년 총파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5절 _ IMF외환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하 노동운동	148
1.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하고 반대 투쟁	
2. 성모자애병원 노조 정리하고 반대 투쟁	

제 4 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망의 확충

제1절 _ 토지구획정리사업	165
1. 광복 후 도시 정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부평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절 _ 안팎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182
1. 경인국도의 확장	
2.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3. 그 밖의 주요도로	
제3절 _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시대로	197
1. 경인철도에서 수도권 전철로	
2. 지하철 시대의 도래	

제 5 장 공동주택의 변화 : 아파트 등장과 정착, 확산

제1절 _ 부평구와 아파트	218
제2절 _ 1970년대 : 주택의 집단화와 아파트의 등장	221
1. 분포	
2. 공동주택 밀집지	
제3절 _ 1980년대 :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등장과 정착	237
1. 분포	
2. 공동주택 밀집지	
제4절 _ 1990년대 : 아파트 단지의 확산과 신시가지 조성	257
1. 분포	
2. 공동주택 밀집지	
제5절 _ 부평 아파트의 등장, 정착, 확산	269

제 6 장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1절 _ 해방 이전 상권 형성과 변화	276
1. 전통시대 부평부의 장시	
2. 근대 부평의 중심지 이동과 상권 변화	
3. 공설시장 설립 논의	
제2절 _ 해방 후 부평의 시장	290
1. 양키시장(블랙마켓)의 호황	
2. 공설시장의 설치와 외면	
3. 청과물 도매시장	
4. 새시장과 구시장	
제3절 _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	298
1. 부평자유시장	
2. 진흥종합시장	
3. 부평종합시장	
4. 부평깡시장	
5. 부평 문화의 거리	

제 7 장 부평 문화의 거리와 지하도상가

제1절 _ 부평 문화의 거리	324
1. 현황과 특성	
2. 조성 과정	
3.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친 절반의 성공	
4. 영원한 미완의 공간으로	
제2절 _ 부평 지하도상가	346
1. 현황과 특성	
2. 조성 과정	
3.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과 활성화 사업	
4. 상생을 통한 새로운 도약	

제 8 장 부평의 오래된 가게

제1절 _ 남창문구사	377
1. 복이 들어오다	
2. 택한 길은 끝장을 봐야겠다	
3. 오래 남는 것이 가장 강한 것	
제2절 _ 희락춘	382
1. 1억원을 벌어들이는 가게	
2. 모임이 즐거운 가게, 봄을 잇다	
3. 세월을 이겨온 가게, 그리고 재개발	
제3절 _ 용방앗간	387
1. 부평에 자리 잡은 ‘용’	
2. 평범하지 않은 방앗간	
3. 부평의 방앗간	
제4절 _ 성안상회(삼천리자전거 대리점)	391
1. 황해도 피난민의 자전거 가게	
2. 모두가 필요했던 자전거	
3. 생계를 위해 이어받은 가게	
4. 항상 자전거와 함께하는 가게	
제5절 _ 차밍	396
1. 매력적인 앙퐁점의 탄생	
2. 개성을 찾아주는 매력적인 가게, 차밍	
제6절 _ 신일상회	400
1. 어려웠던 시절 행상으로 시작한 장사	
2. 진흥종합시장에 뿌리 내린 신일상회	
3. 신일상회 오늘도 문을 엽니다	
제7절 _ 영광상회	405
1. 운명과도 같았던 건어를 장사	
2. 최고의 건어물로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3. 영광상회의 오늘	
제8절 _ 봉다방	409
1. 미군부대 앞 세탁소에서 다방을 열기까지	
2. 손님들의 아지트	
3.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제 1 장

1960~1970년대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

제1절 _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수출주도공업화

제2절 _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제3절 _ 부평제1수출공단의 위기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강제 해산

제1장

1960~1970년대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



박인옥(사)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등과 함께 인천의 산업화 1세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실업 및 빈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물적 토대인 산업단지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의 강한 리더십과 행정 관료의 합리적 판단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 경제를 논의할 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강조되고는 한다. 그러나 도시의 특정 공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회 세력들 간 이해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 충돌하고, 갈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협의, 배제 등의 행위를 공간에 반영하며 형성된 산물이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판단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부평국가산업단지 등 1960~1970년대 조성된 공업단지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천의 산업단지를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는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화 1세대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농지와 염전을 매립해 일구어낸 산물이요, 인천의 자산이다. 이 공간에는 토지와 염전, 갯벌을 삶의 터로 살아온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매립 과정에 생명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부족한 부지 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자발적 운동이 있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개발 과정의 환경문제는 지역 경제의 자립, 빈곤 극복을

위해 모두가 희생해도 무방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수출공단이 인천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핵심 성장 동력이었음에는 분명하다.

부평국가산업단지는 1963년 6월 정부의 수출공단 조성계획 발표 후 1966년 4월 착공식까지 3년, 그리고 수출공단 유치와 조성을 위해 설립한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구로공단 조성을 주도한 (사)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 및 통합되어 강제 해산되는 1971년 11월까지 5년 반, 총 9년 정도 부평제1수출공단으로 불리었다. 인천의 성장 역사에서 부평국가산업단지를 국가 차원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은 지역 차원의 역사성, 즉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행위가 있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설립한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수출공단 유치 전략을 세우고, 부평지구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지정지 작업 등 공사를 거쳐 부평제1수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가 수출공단의 경영 효율화 및 합리적 관리를 명분으로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사)한국수출산업공단에 강제 통합하여 제4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기까지 무슨 이유에서, 어떤 사회 세력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초기 조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 제1절 |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수출주도공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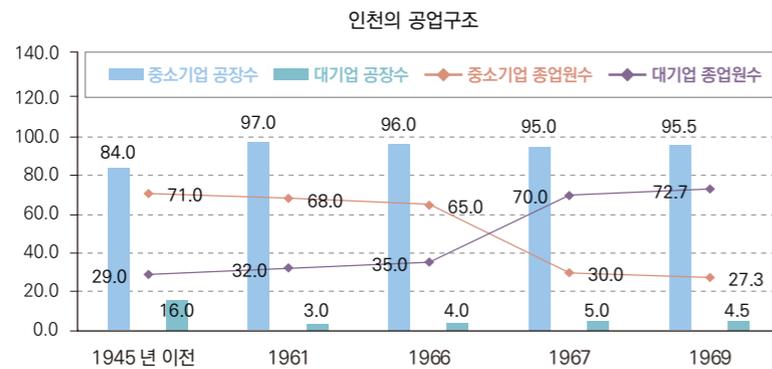
1.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

1945년 해방을 맞은 조선은 기쁨도 잠시, 정치적·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전력의 92%가 북한에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 통화팽창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식량 및 원료 부족, 노후화된 기계설비, 운영자금의 결핍, 기술자 부족, 귀속재산의 위탁 운영 및 불하와 관련한 사회 전반의 좌우익 갈등과 충돌, 설비시설이나 원료의 횡령 및 도난 등 악화된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인천에 입지해 있는 상당수 공장 역시 조업단축이나 휴업을 하여 1948년 정부 수립 후 인천의 공장 가동률은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위기에 처하였다.

한국전쟁 후 시설 복구 및 무상 원조가 본격화하며 생산 활동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 무상 원조에 의존해 과잉설비투자가 초래한 축적 위기,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은 원조경제에 의존하여 성장을 주도해온 소비재 생산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의 방향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자립경제 달성, 실업 및 빈곤 극복 등을 위해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1950년대 민간기업 활동을 경제원조 형태로 지원한 것과는 달리 1960년대는 국가 주도의 대외지향적인 자본축적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 전략이 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다. 국가의 개발 전략은 민간자본이 진출하기 어려운 자본집약적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비료, 전력 등을 외국자본에 의존해 공기업화하고, 중화학공업을 주력산업으로 각종 재정 지원과 금융 특혜 등 수출지원금을 늘려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1 광복 후 1960년대 인천의 공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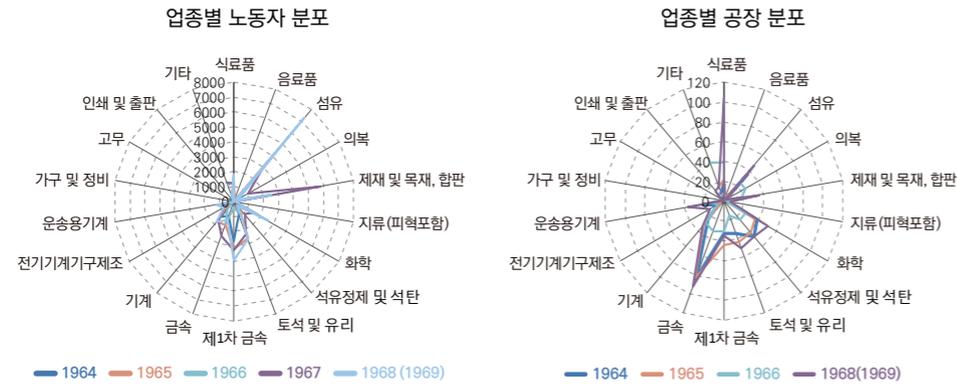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의 공업구조는 1961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97%, 3%, 1969년 95.5%, 4.5%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상당수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1967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각각 70%, 30%, 1969년은 73%, 27%를 차지하여 중소형 공장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는 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대기업이 기술 개발 및 생산력 향상을 토대로 성장하기보다 원조 자본, 차관 등 국가의 각종 특혜를 기반으로 투자를 증대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중소기업과의 분업화·협업화를 어렵게 한 결과였다. 그 때문에 인천 도심에 분산된 중소 규모의 공장들은 집단화·계열화·협업화를 위한 공업단지 건설의 필요성을 크게 하였다. 부평수출공업단지가 일본 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하였다면 인천기계공업단지(제1·2·3기계공단), 비철금속공단 등은 인천 도심에 분산되어 공해, 소음 등 민원 해결, 대기업과의 계열화 구축 등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으로의 전략적 수정은 눈에 띄는 투자 증대로 나타났다. 1965년 인천의 총대출액 15억 9,000만 원 중 70.8%, 1968년 총대출액 58억 9,660여만 원 중 67%가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집중될 정도로 투자가 늘었다. 그 결과 1964년 생산액 124억 7,500만 원에서 1969년에는 578억 7,700만 원에 성과를 낳았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1950년대 섬유와 기계금속에서 1960년대는 식료품, 섬유, 1차 금속, 기계금속, 화학, 제재 및 목재 등 업종의 다각화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업구조의 차이가 있음에도 생산액 비중은 대기업 59%, 중소기업 41%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몫을 차지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1960년대 인천 제조업 업종별 분포



❖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1965;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 비교 : ① 10인 이하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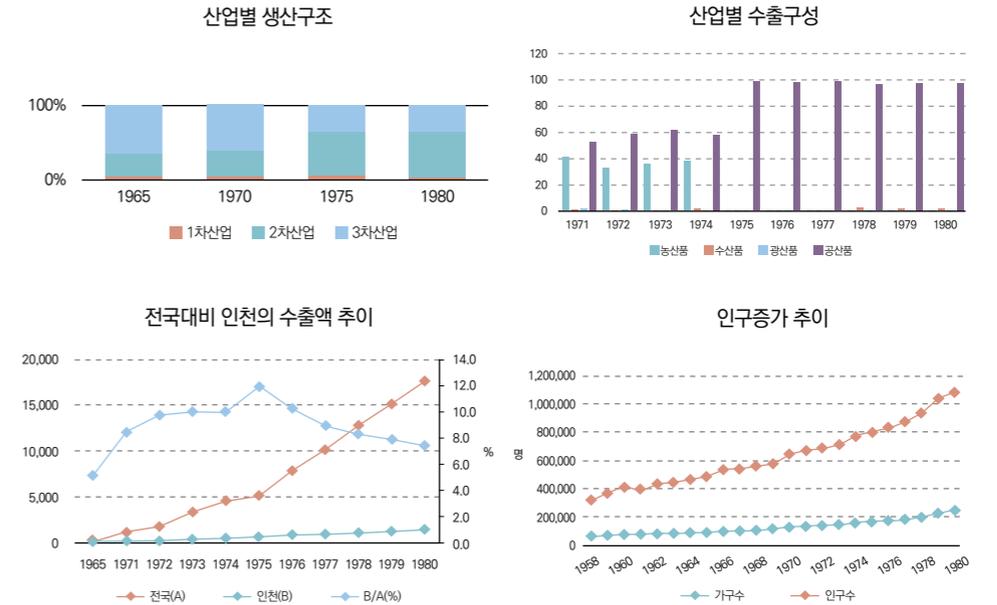
- ②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주물 및 주철 등, 철근, 철선, 강괴, 알루미늄, 드럼, 삼 및 곡괭이, 석유난로, 볼트, 너트, 라이더, 미싱부속, 계중시계, 식기류, 베어링, 탈곡기, 다리미, 농기구, 프레스, 양수기, 제빙기, 철전주 등.
- ③ 화학: 탄산마그네슘, 유산, 양초, 비누, 성냥, 농약, 가성소다, 유황분말 등.
- ④ 식료품: 통조림, 소맥분, 과자 및 사탕, 청량음료, 조미료, 장류 등.
- ⑤ 요업: 타일, 벽돌, 연화, 판유리, 토기 및 도자기 등.
- ⑥ 섬유: 직물제조, 수건, 메리야스, 스웨터, 로프 및 어망 등.

생산구조 측면에서 1964년 경공업 50.1%, 중화학공업 49.9%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1969년 각각 56.2%, 43.8%로 경공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¹ 수출품도 1969년 공산품 82.8%, 수산물 0.6%, 광산물 1.6%로 1950년대 공산품 중심의 수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² 그러나 대부분 단순 소비재 생산에 머물러 생산재 생산 부문으로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크다. 1950년대 수입대체공업 효과가 공업의 구조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은 원자재부품, 기계설비 등 중간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 생산력 향상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생산재 생산 부문을 담당하는 기계금속공업은 1969년 총 525개 제조업체 중 133개로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생산력 향상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생산재 생산 부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1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인천상공회의소, 1966;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현황』, 인천상공회의소, 1974-1978.

2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인천시, 1970.

그림 3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



❖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그럼에도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의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은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부문의 성장을 크게 하였다. 제조업이 1965년 30.7%, 1975년 59.1%, 1980년 62.3%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³ 중화학공업은 1964년 56.4%에서 1981년 58.4%로 전국 평균 51.1%를 상회하였다. 수출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 중 공산품이 19주요 통계지표 경제 71년 53.4%에 불과하던 것이 1975년에는 98.3%, 1980년에는 97.5%를 차지했다.⁴ 1965년 전국 대비 5.1%에 불과하던 인천의 수출은 1975년 11.8%로 두 배 이상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평균 8%대를 유지했다.⁵ 1965년에서 1970년 연평균 28.3%, 1970년에서 1980년 30%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8.1%,

3 인천직할시, 『인천도시기본계획(안)』, 1991.9; 인천직할시, 『지역경제백서』, 1990;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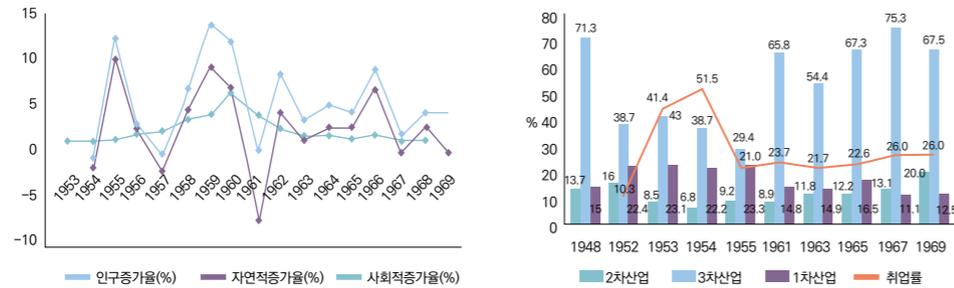
4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인천시, 각 연도

5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인천시, 각 연도; 관세청, 『경제통계연보』, 1990.

29.5% 성장을 앞서는 것이었다.⁶ 전국 평균 성장률을 초과하는 인천의 경제성장은 인구 유입을 크게 하였고, 늘어나는 인구는 부두와 공업단지 주변에 주로 밀집하여 값싼 노동력 공급처 역할을 하였다.

인천 인구 유입의 특성은 사회적 증가율이 인천의 전체 인구증가율과 유사한 속도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농촌 등 주변 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자연증가율을 앞서 인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의미한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유입된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 모두 고용되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인구 유입 속도가 일자리 및 주택 공급 속도를 능가하여 저임금 노동과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4 인천의 인구증가율과 산업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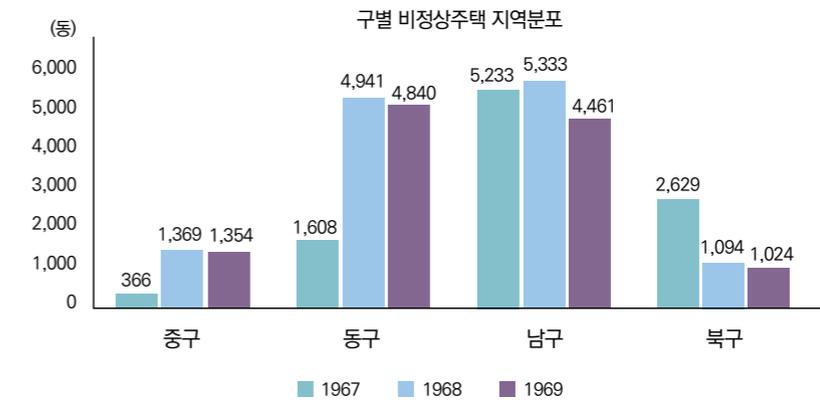
출처 : 인천시, 『인천시세일반』, 1947·1948·1956·1958;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유입된 인구는 주로 화수동, 만석동, 송현동, 송의동에 밀집하였고, 일부는 가주택에 이주하여 공장노동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가주택은 일반 주택 거주지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지역에 지어졌고, 무허가 주택이 늘면서 새로운 빈민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5>와 같이 1968, 1969년 비정상적인 주택이 동구와 남

6 인천직할시, 『지역경제백서』, 199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구에 집중된 것은 주택 공급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허가 주택이 늘어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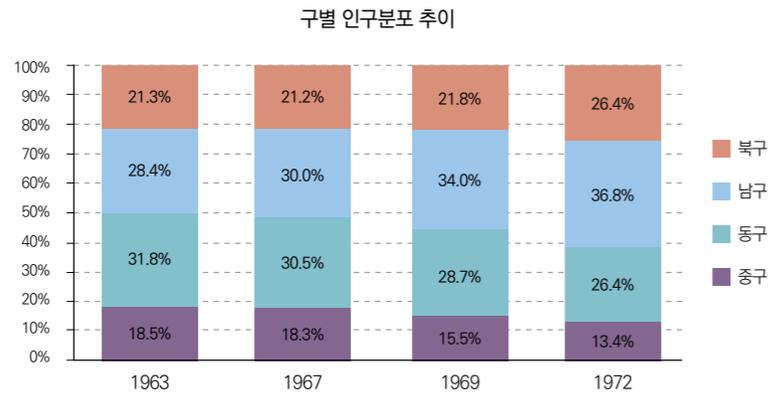
그림 5 비정상 주택의 지역별 분포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그렇다면 왜 동구와 남구에 인구가 밀집하였는가? 또 인구 밀집을 유인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지역은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해 주안과 부평 지역 공단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인접한 중구에 시장, 음식점, 유흥시설, 교육, 의료 등 소득을 지출할 수 있는 소비 부문이 넓게 형성되어 경제활동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허가 주택 등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의 증가는 정상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의 생존 수단으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점차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구와 동구 인구 분포가 감소한 반면에 점차 인구가 남구와 북구로 이동하여 1963년 남구와 북구 각각 28.4%, 21.3%, 1969년 34.0%, 21.8%, 1972년 36.8%, 26.4%로 인구 분포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남구와 부평지구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도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이 늘어 인구가 이동한 결과이다.

그림 6 1960년대 인천의 행정구별 인구 분포 추이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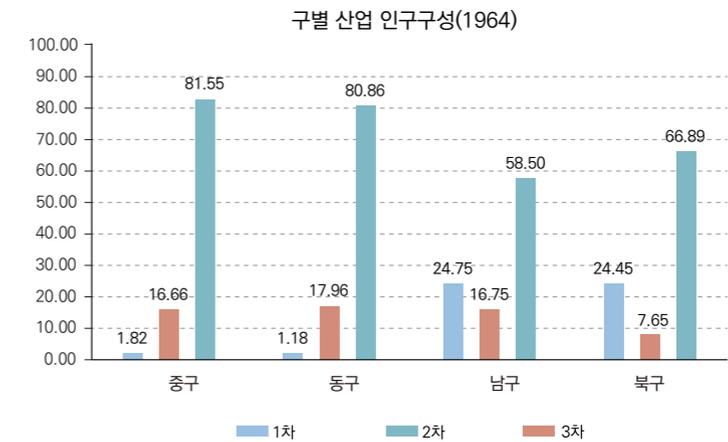
한편 유입된 노동인구는 모두 노동시장에서 고용으로 이어지기보다 잠재적 실업 상태로 존재하여 실제 취업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대부분의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및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19세 미만 노동자가 1969년 4,600여 명이 넘어 전체 노동자의 13%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여성 미숙련 노동자로 방직공장, 인천상공명감식모, 접객업소 등에 종사하였다. 앞서 제시한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인천의 산업별 노동 분포 중 3차 산업이 6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장이나 공업단지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입지해 있는 식당, 술집, 접객업소, 잡역 등 노동 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노동력이 밀집하여 나타난 결과다. 또 1960년대 3차 산업이 6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이 같은 경향은 부평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64년 부평 지역은 농업 등 1차 산업 25.5%, 2차 산업 7.7%, 3차 산업 66.9%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여 상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⁷ 중구, 동구, 남구와 달리 부평은 농업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그림 7> 참조). 3차 산업 부문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은

7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인천시, 1965.

부평의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 Army Service Command)가 공급하는 단순 노동직과 상업 부문, 즉 하역 작업, 차량 정비 등 군사 임무와 취사, 세탁, 이발 등 미군 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 노무자, 미장공, 벽돌공, 운전사, 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등 기능직 일자리, 그리고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출납원, 경비원 등 일자리 공급이 노동인구 이동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⁸ 1969년 부평수출공업단지에 공장이 입주하며 생산 활동이 시작된 후 주변에 3차 산업 부문의 노동인구 비중은 더욱 높아져 72%를 상회하였다.

그림 7 구별 산업별 인구 비중(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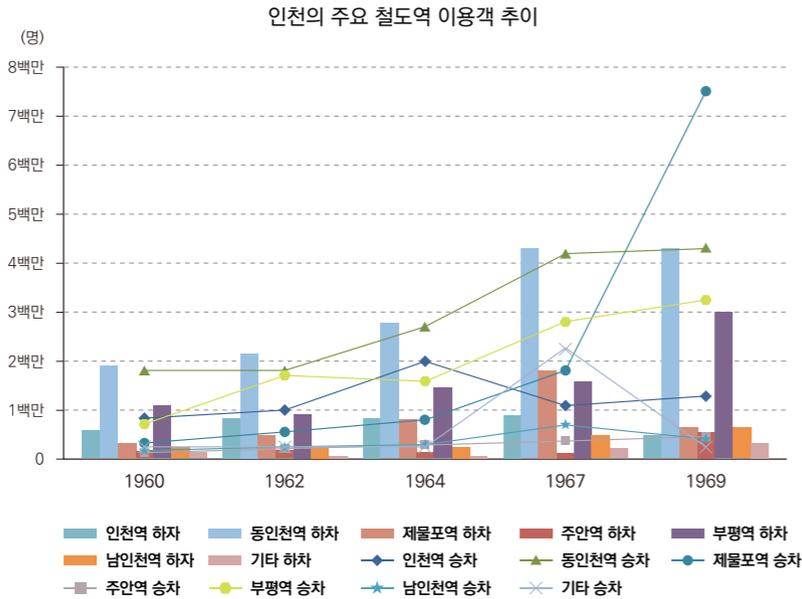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1965.

북구 노동인구의 집중은 철도 이용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철도 교통 외 이동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구와 북구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후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철도를 이용한 노동력 이동이 증가하였다(<그림 8> 참조).

8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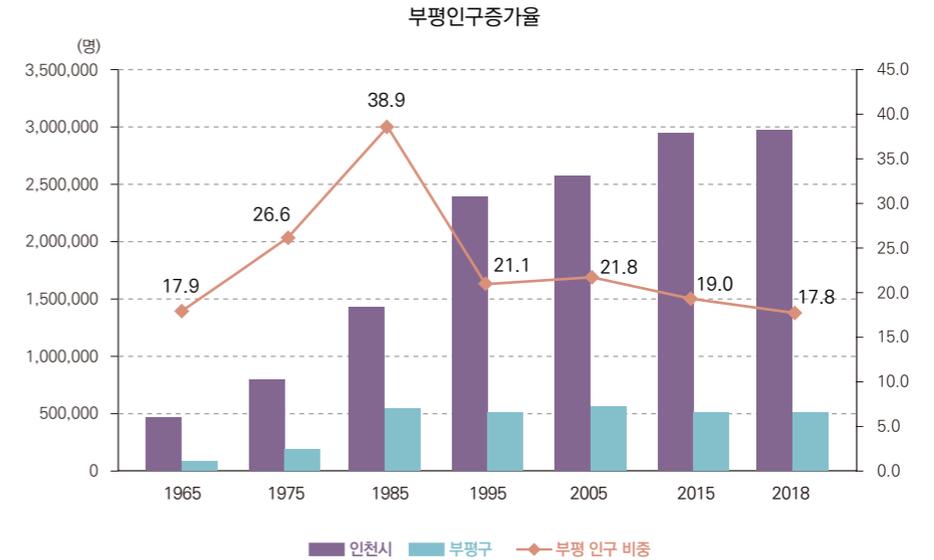
그림 8 1960년대 인천의 주요 철도역 이용객 추이



출처: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부평 지역에 미군수지원사령부, 부평수출공단, 새나라자동차(현 한국GM) 등의 규모가 큰 생산 공간이 입지하고, 주변에 중소 규모 공장 및 소비 공간이 형성되어 각종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65년 인천의 총인구 대비 17.9%에 불과하던 것이 1975년에는 26.6%, 1985년에는 최고조에 달해 38.9%에 이를 정도로 부평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인천의 산업은 정체기에 들어서고, 부평의 인구 증가도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하였다(<그림 9> 참조). 부평의 인구가 인천의 총인구 증가 속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인천 인구의 증가는 산업인구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성장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으며 후퇴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남동국가 산업단지 개발, 배후지구로 남동 및 연수지구에 대단위 공동아파트 건설 등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산업 및 주거 공간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9 부평 지역 인구증가율 추이



출처: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2. (주)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과 수출공단 지정

공업단지는 수입대체공업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공간이다.

1950년대 무상 원조에 의존해 설비투자를 증대한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은 국내 소비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재생산 부문의 과잉 생산으로 위기를 초래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의장은 과잉 축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멘트, 비료, 제철, 정유 등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자본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당시 박정희 의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국가재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⁹ 부정 축재 기업인 모두를 석방, 정치자금 공제액에 대해 세액의 5%의 벌과금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¹⁰ 재벌기업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재건축진회’는 이렇게 국가 차원의 개발정책의 절실함과 각종 특혜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경제재건축진회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으로 재벌기업 13인이 발기하여 구성되었다. 이정림, 최태섭, 허정구, 이동준 등이 예비회담을 가진 후 1961년 7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경제재건축진회는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이정림, 부회장에 조성철을, 나머지 11인을 이사로 선임했다.¹¹ 1961년 8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였고, 회장에 이병철, 부회장에 조성철을 선임하였으며, 1968년 8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경제재건축진회는 군사정권의 과도기 1개월 시한부 임시기구로 활동하였다. 이 조직은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자본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

쿠데타 정권에서 조직된 한국경제인협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점적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구체적인 경제개발정책이 부재한 군사정권에 그들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 건설,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 자본 투자 유치, 특히 재일교포 자본 유치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군사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1차 사업으로 「기간산업 건설계획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투자방식을 지양한 공동투자 형식의 기간산업 건설계획안을 제안하였다.¹²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종합제철공장, 정유공장, 인조화학섬유공장 등 5개 분야 7개 기간산업으로 수입대체 공업 부문의 공장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건설자금은 외자 전액과 차관으로 추진하고, 내자 조달은 은행

용자 또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었다. 5개 공장 3개 부문의 공장 설계도, 건설 소요자금, 건설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안서는 자립경제를 명분으로 시장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컸다.¹³

이러한 때 재일교포 전용 수출공단을 조성하여 경공업 부문의 가공수출로 외화 획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 제기된다. 이 계획은 1963년 군부 세력과 재계의 신년 간담회에서 제안되었다. 이원만(한국나일론, 현 코오롱) 회장이 서울 변두리 100만 평가량의 토지를 매입, 수출공단을 조성한 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재일교포 자본을 유치, 보세가공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투자 업종은 단추프레스, 안경테, X-MAS 장식, 낚시대, 비닐장갑, 밍크, 훈제장어양식, 미싱부속품, 구두바닥, 비닐, 금속양식기 등 경공업 중심의 25개 업종이었다. 이들 업종은 일본의 경제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구조 고도화하여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양산업이었다. 사양길에 들어선 재일교포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토대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원만 회장의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 재벌기업 중심의 수출촉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국가 행정 관료와 재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수출촉진위원회가 1963년 10월 12일 (주)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하고, 이후 대한양회공업, 한국유리공업, 대한제분, 한국철강, 동양시멘트 등 25개 재벌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수출공단 조성사업을 주도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신으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통합 관리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수출공단 조성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공단부지를 지정,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첫 사례가 이원만 회장이 제안한 구로수출공단이었다. 1964년 9월 공단 조성

9 전국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전경련20년사(全經聯二十年史)』, 전국경제인연합회, 1983, 395쪽.

10 「부정축재 조세법 처벌요령」, 『경향신문』, 1961년 8월 10일자.

11 이정림, 조성철 외 이병철(삼성), 박흥식(화신), 설경구(대한산업), 정재호(삼호), 이한항(대한제분), 남궁련(극동해운), 홍재선(금성방직), 이양구(동양시멘트), 최태섭(한국유리) 등이고, 감사에 김지태(조선건설), 성창희(동림산업)를 선임하였다.

12 「기간산업 건설계획을 작성,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요로에 제시」, 『동아일보』, 1961년 9월 15일자.

13 제3 비료공장은 삼성물산이 건설 기간 1962~1964년까지 규모 30만 생산에 소요자금 외화 6,500만 달러, 원화 100억 환, 시멘트 공장은 건설 기간 1962~1964년까지 대한양회(영월공장) 규모 연 36만, 소요자금 외화 500만 달러, 내자 20억 환, 중앙산업(시흥공장)이 1962~1964년까지 규모 30만 톤에 소요자금 외화 400만 달러, 내자 15억 환, 동양시멘트가 1962~1964년까지 연 20만 톤 생산에 외자 220만 불, 내자 20억 환, 삼화제철이 1962~1964년까지 선철을 연 24만 5,000톤, 강회 16만 4,000톤 생산에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200억 환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을 지원하는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이 마련되자 국가는 12월 부지 착공을 시작했다. 공단 건설을 위한 관련 법률들은 단순히 공단의 지역적 배분을 통해 서울의 인구 및 공장의 분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구로공단 착공식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토지 매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과 경제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 하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공단 예정지로 지정(1965년 4월)되기도 전에 추진되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단 조성은 이후 토지를 불허받아 생활하는 거주민의 저항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¹⁴ 구로수출공단 조성사업은 국익(國益)을 우선하는 정부의 논리와 시장지배를 위해 수단화하고자 한 사익(私益)이 결합하여 공익(共益)을 짓밟으며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수출공단 예정부지 내 거주민의 저항과 고통은 자립경제 달성을 우선하는 국가의 성장 전략에 묻혀 부수적인 문제로 인식된 채 수출공단 조성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국가는 인천을 비롯해 12개 지구, 1970년대에는 37개 지구를 지정하여 공단을 조성했다. 인천에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7개의 공업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정, 개발되었다. 부평지구에 제1수출공단, 주안지구에 제2수출공단, 그리고 주안지구에 제1·2·3기계공단, 비철금속공단, 제재공단 등 7개의 공업단지가 총 154만 8,000평 부지에 조성되었고, 4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입주하였다(<표 1> 참조). 공업단지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증가하였다. 인천항 제2도크(1966), 경인고속도로(1967), 경인전철 복선화(1974), 배후지구 지정과 주택 건설 등 국가 주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업화 거점기지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4 구로지구의 국유지 일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들에게 불허되어 농사를 짓는 민간 보유 농지였다. 불허된 농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 18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며, 2010년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에서 40년 만에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표 1 1970년 인천공단 조성계획(1973년까지 추진 사업분)

(단위: 개·㎡·평)

구분	업체수	공업부지	업종	비고		
수출 공단	제1단지	45	697,520	섬유, 기계, 식품 등	부평지구	
	부평					211,000
	제2단지	50	677,690	정지 작업공사 30%	주안지구	
	북가좌					205,000
기계 공단	제1단지	51	327,470	주물, 선반용기계, 산업용기계, 정밀기계	주안지구	
	주안염전					99,060
	제2단지	100	691,000	정지 작업공사 30%	주안지구	
	북가좌염전					209,026
	제3단지					654,900
도화동염전	198,109					
비철금속공단 (남구주안동)	48	321,210 97,167	신입업체 48개 100% 매립공사작업 80%	주안지구		
한국제재공단 (북구가좌동164-1)	30	692,470 209,470	나왕제재 18개(준공 8개) 미송제재 12개(준공 2개) 기초공사 10%	주안지구		
경인에너지 (북구, 원창, 석남동)		1,057,860	화력 18%	서곶지구		
		320,000	정유 38%			
합계	424	5,120,120	-	-		
		1,548,832	-	-		

❖ 출처 : 인천시, 「인천시종합개발계획보고서」, 1970.8.

❖ 비고 : 입주업체 예정 수는 인천시와 각 관리공단의 계획 및 조성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 조성된 공업단지는 인천의 상공계 1세대들이 만든 산물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 아래 조성된 공업단지는 지역의 토착지주 및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행정 관료, 정치인,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피와 땀이 배인 연대의 산물로 전국의 노동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까지 노동자 운동의 치열한 투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 제2절 |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1. 수출공단 유치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정부의 수출공단 조성계획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치 운동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1963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는 “광나루나 인천에 약 50여 만 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제일교포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하고, …… 20여 개 경공업 공장을 세우고, 생산품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여 약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 서울 근교에 수출산업공단 설정 예정 기사(출처: 『동아일보』, 1963년 6월 24일자)

이 사업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3년 한국나일론 이원만 회장이 제안한 제일교포 전용 수출공단 조성사업을 수용하여 구로와 인천에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수출공단 조성계획에 지역 상공계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인천상공회의소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7월 공단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결의하고 고속도로 하단 20만 평을 최적지로 선정하여 공단을 부평지구에 설치해 줄 것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상공부 등 정부기관과 각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8월에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

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¹⁵

인천 상공계의 신속한 대응에 수출촉진위원회는 구로와 부평지구를 수출공단 후보지로 지정하고, 1963년 10월 1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¹⁶ 건설부는 부평에 3억 원을 투입하여 공장시설 대지(22만 평), 부대시설 대지(50만 평)를 마련하고, 상하수도 및 도로 및 기술조사비 등에 1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입, 28,000만 달러의 외화 획득을 목표로 제일교포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교포 재산 반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 기업만으로 공단을 조성한다는 대안까지 마련하는 등¹⁷ 수출공단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구로공단과 달리 부평공단 건설을 정부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¹⁸ 정부사업으로 할 경우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공단 조성 방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구로와 부평지구 수출공단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한 셈이었다. 결국 부평공단은 구로공단과 달리 정부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1966년 4월에 착공식을 갖게 된다.

「수출공단조성법」이 1964년 9월 국회를 통과하자 부평에 수출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1965년 3월 수출산업촉진위원회 산하 공단심의위원회가 부평지구를 후보지로 지정하고, 6월 부평지구 21만여 평을 지정 공고하게 된다. 수출공단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의 공장 및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의 입지 환경에 주목하였고, 인천은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시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부평수출공단 유치 및 조성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부평수출공단 유치 및 조성의 국가의 강한 리더십과 행정 관료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되어 실현되었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부평수출공단은 국가뿐만 아니라 인천의

¹⁵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의보(축쇄판)』1, 1969;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1994, 186쪽.

¹⁶ 「한국수출공업단지 10월 1일 기공」, 『경향신문』, 1963년 9월 3일자.

¹⁷ 「시범공업단지 연내로 부평에 착공」, 『경향신문』, 1963년 9월 24일자.

¹⁸ 「시범공업단지 연내로 부평에 착공」, 『경향신문』, 1963년 9월 24일자.

유승원·오학진 국회의원,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을 비롯한 인천 및 경기도의 중소도
작기업체들, 언론사, 부평 지역 지주와 농민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여 구체화
된 공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천의 수출공단 유치가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인천항 독(dock), 경인운하,
경인 복선 전철,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출공단
조성 역시 그 틀 속에서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때문에 경인지구종합개발은 주변 도시들
로부터 인천이라는 특정 도시의 스케일을 넘어 경기도(京畿道) 단위의 거시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 받는 견제 대상이었다.¹⁹ 개발사업이 경기도가 아닌 인천을 중심으로 계
획되고 있는 데 대해 경기도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인천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
이요 국가의 성장,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점이 될 것임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이 중
요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부평지구에 수출공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넘어 국
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 부평지구 경공업단지 건설 확실 기사(출처: 『인천신문』, 1964년 10월 18일자.)

19 『인천신문』, 1964년 1월 12일자.

오학진 의원, 유승원 의원은 부평지구가 수출공단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
의 개발정책 차원에서 부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64년 2월 22일 국회 상공위
원회 간사인 오학진 의원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가 구로공단과 함께 부
평공단 조성을 적극 찬성하여 조속히 추진하라고 언급하였다”며 9월경 기공식도 가능
할 것이라 밝혔다.²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수출공단조성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평지
구를 수출공단 후보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1964년 8월 부평과 주안을 중심축으로 개발하는 「인천도시종합정비계획안」이 건설
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²¹ 공단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커졌다. 유승원 의원
은 국회에서 부평지구를 수출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공단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정부의 조속한 보조금 지급, 제반 부대시설 구축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단 유치에 앞장섰다.²² 건설부 장관은 특정지역 지정공고 절차에 따라 부평지구를 경
공업단지, 서부연안지구를 중공업단지 지정하게 될 것임을 확실시켰다.²³

한편 인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평지구의 수출공단 유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데 비해 인천 지역 상공계가 지역사회 공감대나 적극적 결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 상공위원회 권오석 의원(화성, 공화당)은 “인천
지구의 지역 발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부평의 공업단지 설치를 위해 인천지구 주
민의 단지 유치를 위한 실효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자 유치를 목표로 일부 지역에서도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광범위한 절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 지역에서는 특정인의 노력 외에 균형 잡
힌 시민의 활동을 전개치 못함으로써 ……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²⁴ 오
학진 의원(웅진, 공화) 역시 “공업단지 조성은 누가 갖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력을 통해 끌어와야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공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공업단지 위치

20 『경기매일신문』, 1964년 2월 22일자.

21 『경기매일신문』, 1964년 8월 5일자.

22 『인천신문』, 1964년 10월 16일자.

23 『인천신문』, 1964년 10월 18일자.

24 『인천신문』, 1964년 10월 15일자.

에 부평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상 인천 지역민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정치 세력의 힘만으로 수출공단 유치 명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실상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지역구 세력의 연대와 힘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인천상공회의소는 부평 지역의 ‘부평진흥회’의 동향을 살피고, 이들을 설득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 기반을 형성해 나갔다.

지역의 정치 세력에 힘입어 1965년 3월 수출산업촉진위원회 산하 공단심의위원회가 부평지구를 후보지로 지정하고, 6월 부평지구 21만여 평을 지정 공고하였다. 부평지구가 수출공단 조성지로 지정되자 1965년 6월 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유승원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산하에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이하 기성회) 설치를 결의, 정식으로 발족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을 기성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기성회 사무실은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공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두었다. 기성회는 경기도, 인천시, 언론사 대표, 그리고 토착 기업 대표 등 23인으로 구성되었다. 임원 명단은 <표 2>와 같다.

표 2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 임원 명단

소속	이름	소속	이름
경기도건설국장	이병균	제물포철공소 대표	이봉운
경기도내무국장	백태신	형제상회 대표	김정옥
경기도산업국장	홍순항	동양방직상무	최정환
경기도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한국화공(주) 대표	용이식
경기도지사	강신익	한국소다 대표이사	이덕근
인천시	김정임	경원기업(주) 대표	김경원
인천시장	윤갑노	인천도시관광(주) 총무이사	김용해
이학박사	정광섭	대한연공업(주) 대표	김중하
인천신문사 사장	하합	한국피혁공업 회장	심현구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채호	경기교통(주)	김두영
일신산업(주) 대표	김영배	인천도시계획위원	김영길
송의직물공장 대표	윤종구		

❖ 출처 : 『인천신문』, 1965년 6월 3일자.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 채호 회장은 10월 말 사단법인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을 목표로 입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기업인 약 10명, 재일교포 5명의 입주가 예정되는 등 최소한 20개 이상의 입주업체 확보를 목표로 조정해 나갔다. 1965년 6월 16일 드디어 부평지구 효성동, 갈산동, 작전동의 21만 3,000여 평이 수출공단으로 지정되자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유승원 위원장 등이 경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력을 쏟았다. 10개 대공장의 약 2억 원 투자가 예상되는 부평공단은 총면적 중 75%는 공장부지, 9%는 공공용지, 나머지 16%는 도로 면적으로 분할하고, 1개 공장에 소요되는 면적을 2만 평에서 3만 평 규모로 제한했다. 소요자금은 1965년 4,900만 원, 1966년 4,890만 원, 1967년도 6,71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연간 3,000만 달러에서 3,600만 달러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부지 조성 과정에 8만 명 노동자 취업과 완공 후 9,850명의 고용 증대를 계획했다.

부평수출공단 유치는 이제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을 필요로 하였다.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의 지원 속에서 논의되고 있던 기성회를 새로운 법인체 형태의 (사)인천수출산업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구로공단 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호 기성회 회장은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유승원 위원장과 유기적인 접촉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1,000만 원 출자 규모의 법인체 설립을 추진했다. 수출공단 조성 주체가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의 부속기구 형태에서 법인격의 독립된 조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965년 10월 5일 기성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출산업공단 설립에 수반되는 자체 기금 확보안을 논의했다.²⁵ 10월 1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관계 당국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수출산업공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채호, 상임이사에 정광섭, 이사 김영배, 이봉운, 김경원, 용이식, 김정복, 김정옥, 홍윤표, 최정환, 이하선 등 13인, 감사에 김재길, 윤종구, 상무이사에 윤갑노 등 2인을 선출했다.²⁶ 부평수출공단 조성 소요자금과 관련해 상공부가 1966년 1억 6,000만 원(공단 조성 보조금 5,000

25 『인천신문』, 1965년 10월 7일자.

26 인천수출산업공단, 『임원명단철』, 1966.

만 원, 장기용자 산업은행 1억 원, 인천수출산업공단 자체 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1965년 11월 10일 상공부 수출공단심의위에서 결정한 후 11월 23일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인가를 승인하였다.

상공부의 승인을 받은 인천수출산업공단은 용지취득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실을 경기도청에서 인천상공회의소로 이전했다(1966.2.1). 그다음 부지 감정 및 매입을 위한 측량에 착수하고, 사유지 17만 1,000여 평의 매수를 완료하여 1966년 4월 8일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표 3 부평수출공단 유치 및 조성 과정

연도	내용
1963.3.7.	한국경제인협회 주도로 수출산업촉진위원회 설치
1963.6.25.	인천상공회의소가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거, 한국경제인협회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설치하려는 공단을 인천지구로 유치하기 위한 사무 착수
1963.7.11.	인천상공회의소가 경인지구를 수출산업 공업지대로 선정해 줄 것을 최고회의 및 상공부 등 각계 요리에 건의
1963.8.3.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원 일동이 인천 공단 설치를 위해 정부기관에 건의서 제출
1963.8.20.	정부 수출산업육성위원회 구성
1963.9.26.	공단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법인체로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1963.10.31.	재일교포 일행 8명이 부평 후보지 시찰하기 위한 인천 방문
1963.11.10.	수출공단 유치 추진 부평수출산업공단 준비위원회 조직
1963.12.20.	경기지구 종합개발추진준비위원회에서 단지 지정을 건의
1964.1.6.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발족
1964.1.12.	서곶지구 공유수면 60만 평 매립 예정,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박차
1964.2.20.	수출공단을 인천지구에 설치토록 재차 관계 요리에 건의
1964.3.1.	구로지구가 수출공단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
1964.3.7.	정부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 국회에 제출
1964.8.12.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개편 설립
1964.9.2.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 국회 통과
1964.9.8.	유승원 의원 국회에서 부평지구에 공단 유치 입장
1964.9.14.	동법 공포 시행
1964.10.12.	경인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공단 유치를 위해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사임
1964.10.13.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및 당국이 회합을 갖고 부평지구 공단 유치 관련 의견 교류

연도	내용
1964.10.18.	유승원 의원의 질의에 건설부 장관 “경인 지역의 특정지역지정공고에 의해 부평지구를 경공업공단 후보지로 확정” 답변
1964.10.23.	1차 단지 구로동 지구 수출산업공단 지정 확정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구 수출공단으로 설정기 위해 신청서 제출
1964.11.7.	재일교포 산업시찰단 일행 부평 후보지 시찰
1964.11.18.	수출산업공단 개발조성법 시행령 공포
1965.1.11.	대통령 공고 제1호로 경인지구가 특정 지역으로 공고
1965.2.5.	인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재일교포 공단 입주 희망자 15명 시찰단 처음 인천 방문
1965.3.10.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 건의단 상경
1965.3.12.	구로동 공단 기공
1965.3.24.	경인지구 종합개발추진위원회에 수출산업공단 조성분과위원회 설치
1965.3.30.	공단심의위원회에서 부평지구공단 후보지 지정 통과
1965.4.12.	재일교포 입주희망 시찰단 인천 방문
1965.4.21.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 재일교포 기업 유치 위해 일본 방문
1965.5.24.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공단조성분과위원회에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기성회를 두기로 결의
1965.6.2.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기성회 총회 개최, 정식 발족
1965.6.14.	동 사무소를 경기도청 내에 두고 업무 시작
1965.6.16.	부평수출산업공단 후보지 효성동, 갈산동, 작전동 작전동 등 21만 2천 150평 지정공고(건설부)
1965.10.17.	경기도지사, 산업국장, 채호 회장 등 재일교포 기업 유치 위해 일본 방문
1965.10.20.	인천수출산업공단 사업계획서 및 정관, 정부 및 상공부에 제출
1965.11.23.	인천수출산업공단 인가 승인(상공부)
1965.12.8.	용지 매수 실무자회 구성(회장 김동순, 부회장 김경원)
1965.12.13.	인천수출산업공단 용지취득위원회 조직(위원장 채호)
1965.12.31.	서울민사지법 인천지원에 공단 등기
1966.1.19.	경기도, 인천시가 공단 후보지를 부평에서 서곶지구로 변경할 것을 결정, 22일 기자회견에서 서곶 가좌동 매립지 결정을 발표
1966.1.24.	수출공단을 부평에서 서곶으로 변경한 데 대해 부평 지역 유지들 공단에 항의 방문
1966.1.26.	부평 지역 유지 30여 명이 부평공단 유치를 위해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단 후원회’ 구성
1966.2.1.	인천상공회의소에 인천수출산업공단 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는 경기도청에 설치
1966.2.11.	인천시, 수출공단 서곶지구에서 다시 부평지구로 변경
1966.2.14.	토지감정 및 분할 측량 착수
1966.2.17.	서곶 주민들 “농토는 농민에게, 공장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를 슬로건으로 석남초등학교 교정에서 주민궐기대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불허로 무기한 연기
1966.3.4.	토지세목 공고
1966.3.8.	인천수출산업공단 조성 특별회계 설치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음
1966.3.31.	사유지 17만 1,876평 매수 완료

연도	내용
1966.4.8.	부평수출공단 기공식 거행
1969.8.5.	주안 제2수출공단 예정지 20만 5,388평 지정
1969.10.22.	주안 제2수출공단 조성공사 착공
1969.10.30.	부평 제1수출공단 준공

❖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의회소(축쇄판)』1, 1969; 『인천신문』; 『경기매일신문』.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공단의 부평지구 유치는 국가와 행정 관료, 정치인의 판단에 의해 유치 여부가 결정된 듯 보인다. 그리고 인천시는 행·재정적 지원 역할을 하거나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부평 지역 지주, 언론 등 인천의 사회 세력들은 마치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보조적 역할을 한 것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특정 공간의 형성은 국가의 리더십이나 행정 관료의 판단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정치권력을 기반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면 인천수출산업공단은 지역의 토착 세력인 인천상공회의소 등 상공계가 적정 부지를 제안하고, 부지 매입 및 공사 비용을 직접 조달하였다. 그리고 1965년 인천시가 도시개발5개년계획²⁷을 수립하여 부평과 주안을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상공계는 수출공단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수출공단 유치는 지역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상공계와 정치권, 중앙정부 등 지역과 국가 내 이해 세력들이 추진한 수출공단 유치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수출공단을 부평지구로 할 것인지 서곶지구로 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충돌한 사건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땅값이 싼 서곶지구에 수출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부평

27 인천의 도시개발계획은 북쪽에 부평과 서곶을 공장지대로 하고, 동쪽은 남동 주거지대, 남쪽은 송도와 논현동을 관광 및 공장 지대로 하는 부도심 정비계획을 추진하였다.

지구에 수출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참여했던 부평진흥회(또는 금요회,²⁸ 부평지주회²⁹)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진흥회는 부평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인천시에 건의하는 등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평 지역 유지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절에서는 수출공단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갈등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2.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 부평지구인가 서곶지구인가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의 핵심 사업인 수출공단의 부평지구 유치를 확실시했던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서곶지구 변경 소식에 대해 부평진흥회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부지 선정 변경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은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아니라 부평진흥회이기 때문이다.

수출공단 예정지로 지정된 부평지구의 갈산동, 효성동, 작전동 일대 21만 2천여 평 중 약 77.1%(16만 4,725평)는 사유지이고, 7.2%는 국유지(이 중 국방부 소유 10.3%), 경기도가 15.7%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토지소유 구성은 조성 부지의 약 90%가 국유지인 구로공단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갖는다. 부평지구 토지소유 구성에 대해 서상민 국회의원은 부평지구가 공단으로 확정(1965.3.30.)되기 1년 전인 1964년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구로 지역이 군용지인 반면에 부평은 민간용지, 귀속재산으로 호조건을 지니고 있어 부평이 수출공단으로 구체화될 때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제1후보지가 될

28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仁川商工會議所 九十年史)』, 인천상공회의소, 1979, 997-999쪽. 금요회는 부평진흥회가 매월 첫 주 금요일에 회합을 가져 붙여진 이름이다.

29 부평지주회는 1961년 1월 21일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2007, 450-451쪽). 1960년 인천시가 부평지구 41만 평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주택 철거를 결정하자 토지의 환지처분을 둘러싸고 인천시, 철거민, 지주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부평지주회는 지주 20여 명이 관련 부지의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인천시의 방침인 토지 환지처분을 지지하며 결성된 조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것”³⁰이라 밝혀 부평 지역의 공단 지정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농업용지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값싼 농지가 넓게 분포해 있는 지리적 입지 조건을 주목한 것이다. 수출공단 유치는 해방 전 일제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공급해 온 기업들이 밀집하여, 풍부하게 잠재해 있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한 값싼 농지, 농업용수 공급, 인천항 독 건설을 통한 항만의 정비와 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입지 조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였다. 부평수출공단 조성 과정에 대해 조기준은 수출공단이 지역 발전의 기여는 물론 그동안 소외된 북구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주는 지역개발임을 강조하여 토지의 매각 및 보상절차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그러나 조기준이 기록한 것처럼 토지의 용도 전환이 순조롭게 가능하였을까? 우선 앞서 서상민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지의 상당수는 일제가 소유했던 귀속재산이고 농민에게 불하된 땅을 농업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강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을 촉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을 명분으로 농지를 수용하여 공단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자들은 공단 유치가 곧 지역 발전을 의미하며, 균등한 분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을 것이다. 조기준과 같은 인식은 국가 차원의 개발정책이 부평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전제로 부평지구의 공간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촉발된 투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는 삶의 터이고, 생존 수단이다. 구로지구와 달리 부평지구는 사유지가 77% 이상을 점하고 있어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농민 등 거주민의 이해를 간과한 채 특정 세력의 이해만을 고려한 해석이다. 애초 공단 조성사업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토지 보상 문제는 구성원 간 민감한 사안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때문에 조기준의 해석처럼 토지소유주나 농민들의 저항 없이 순조롭게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유지 또는 불하된 농지가 대부분인 부평공단 예정부지 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

30 『인천신문』, 1964년 2월 28일자.

31 조기준, 『부평사 연구』,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4, 89쪽.

다는 조기준의 주장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첫째, 농민과 거주민 의요구를 충분한 보상 수준으로 만족시켰을 경우, 둘째, 정치적 압력과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거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였을 경우 등 둘 중 하나일 때 설득력을 갖는다. 그들은 군사정권하에서 토지소유주나 농민 및 거주민 등은 군부 엘리트 및 이들과 결합되어 있는 지역의 권력에 대응할 만큼 세력화되어 있지 못해 국지적인 저항으로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군사정권하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의사를 표출하기 어려웠을 터이고, 권력자들은 공익(公益)을 국익(國益)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지역개발을 정당화하며 농민의 희생을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또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하였을 것이다.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가 법인체로 전환된 것은 부평지구에 수출공단 조성이 확정되기 불과 1개월 전에 이루어졌다(1965.10.13). 법인체 전환은 수출공단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특정 세력의 계급적 이익에 제한되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대응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방편이었다. 기성회가 법인체로 전환되었지만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체 기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곶지구로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66년 1월 22일 윤갑노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공단 부지를 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서곶지구로 수출공단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한차례 논의가 있었다. 1964년 10월 (재)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회가 인천에 수출공단을 조성하기로 하며 검토한 내용이 뒤늦게 재차 표출된 것이었다.³² 그리고 1966년 1월 19일 한국수출산업공단과 경기도, 인천시 당국이 경기도청에서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고 부평지구보다 서곶 가좌지구가 용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개발 지역을 변경해 사업에 착수기로 결정하였다.³³ 부평지구에 수출공단을 조성하기로 논의하면서 정치

32 (재)한국수출산업공단, 「제6회 이사회 회의록」, 1964.10.31.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발간한 『부평사』(2007)는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이사회 논의가 부평 지역 지주들의 '수출산업공단 부평유치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바로 이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추진위원회는 1966년 1월 윤갑노 인천시장이 수출공단 부지 변경을 발표한 이후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명칭도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 후원회'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33 『인천신문』, 1966년 1월 21일자.

권과 재벌기업이 뒤에서 서곶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 수출공단 예정부지 변경 기사(출처: 『인천신문』, 1966년 1월 22일자)

서곶지구는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매립 중인 32만 평 중 이미 42%가 매립되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공단 조성이 용이한 지역이었다. 인천시장은 부평지구가 ①경작지가 많아 3월 이내에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 ②묘지가 있어 그 명도가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③대지 값이 평당 1,050원으로 가좌동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 ④조성사업을 착수할 경우 새롭게 매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좌동 서곶지구는 ①가격이 평당 534원으로 싸고, ②이미 부지의 일부가 매립되어 있으며, ③부평지구 주민들이 가좌동이 멀다고 하나 공업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부평과 가좌동 간의 직통도로를 만들면 불과 1km 지점이라는 점을 들어 서곶지구가 수출공단 조성 지역으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공단 조성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소요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천이 수출공단 후보지로 지정되었지만 국가 보조금은 물론 산업은행이 용자에 난색을 표하고, 1억 원의 장기융자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서 취한 선택인 셈이다.

부평수출공단 후보지 변경 소식이 알려지자 부평 지역 지주들의 모임인 '부평진흥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공단 변경 소식을 접한 부평진흥회의 유지 30명이 인천시 부평출장소에서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들은 시장에게 서곶지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 후원회'(이하 후원회)를 구성하여 1966년 1월 26일 발족 후³⁴ 수출공단을 부평지구에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³⁵



❖ 부평진흥회와 부평수출공단후원회 기사(출처: 『인천신문』, 1966년 1월 27일자)

후원회는 회장에 김석기, 부회장에 김정복, 김경원, 김영길, 간사에 우상근, 이종록 등을 선출했다. 후원회의 강경한 입장에 김동순 인천부시장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³⁴ 인천수출산업공단, 『임원명단』, 1966.

³⁵ 『인천신문』, 1966년 1월 27일자.

서곶지구의 부지 매입 비용이 부평지구보다 훨씬 적다며 지주들을 설득하였다.³⁶ 그러면서 그는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천시와 경기도,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후원회는 부평 용지 매입에 따르는 부족자금을 모금하여 토지 매입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66년 2월 1일 부평진흥회의 유지 38명은 공단 용지 매입에 필요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후원회 임원을 다시 선출했다. 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숙현,³⁷ 강한성, 윤병일, 심일운 등 9명을 선출하고, 가좌동보다 부평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부평지구 부지매입자금 중 차액 1,500만 원을 확보하여 무이자로 대여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 서곶지구에서 부평지구로 번복 기사(출처: 『인천신문』, 1966년 2월 11일자)

36 서곶은 33만 5,095명에 855만 2,859원이 필요한 데 비해 부평 지구는 11만 338명에 6,465만 원으로 사업비의 큰 차이가 있었다.

37 김숙현(1917~2003)은 서곶 지구에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나온 후 부평 지구를 다시 공단부지로 되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인천시의 공단부지 변경 발표 직후 부평 유지들을 신속하게 소집하고 부평공단 유치 후원회를 조직했다. 『인천인물 100인』(경인일보사, 2009)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국회의원, 변호사, 학자로서 인천에서 주목받는 유력한 인물이었다. 1960년대 초 미군부대(캠프마켓) 외국인 노동자 노조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부평과 인연을 맺었다.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김숙현이 관여하여 부평 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71년 북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8대,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0년대 말 부평동중, 부평여중, 부평고 설립에 참여하고, 서인천고등학교 재단이사, 인천교육대학교(현 경인교육대학교) 유치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김숙현이 정치·경제적으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평의 유지들을 동원하고, 부평공단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이미 폭넓게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회의 강한 반발과 1,500만 원 후원금 지원에 인천시의 태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서곶지구 주민들이 인천시의 무계획성을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지역사회 여론이 양극으로 치달자 2월 11일 경기도지사 박태원이 개입하면서 결국 윤갑노 인천시장은 종전의 서곶지구 부지 선정 입장을 번복, 부평 지구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변경한다. 수출공단 조성 부지 변경 사태와 관련해 조기준은 서곶 지구를 공단부지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유승원 의원의 빨랫줄 같은 정치기반이 이면에 깔려 사실상 가좌동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했다.³⁸

수출공단 부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유승원 의원이 왜 서곶 지구로 변경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윤갑노 인천시장을 설득했는지, 채호 이사장은 부지 변경 방침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승원 의원과 채호 이사장, 그리고 윤갑노 인천시장은 수출공단의 부평 지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유승원 의원이 어떤 연유로 공단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서곶 지구를 매립하여 경인운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경인지구종합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부평 지구를 공단 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인천수출산업공단 채호 이사장은 경인지구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출공단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잠시 참여했을 정도로 유승원 의원과 긴밀한 관계였다. 때문에 유승원 의원과 채호 회장이 처음부터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수출공단 유치가 최우선 목표이고, 유치가 결정된 후 부지 선정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절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부평진흥회의 부지 매입비 지원 약속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원회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부족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후원회 모금은 180여 명이 1인당 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출자하여 약 1억 원을 모금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모금액은 부풀려졌거나 잘못 기록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³⁹ 1억 원은 부평수출공단 조성 사업비와 맞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원회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용지 매입 부족액

38 조기준, 『부평사 연구』, 백암 문집간행위원회, 1994, 90쪽.

39 경인일보사, 『인천인물 100인』, 다인아트, 2009, 429-432쪽.

15,000만 원으로 1차 750만 원을 모금하여 2월 11일 수표로 인천시장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3월 2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정서를 교환⁴⁰함으로써 수출공단 부지는 부평지구로 재조정되기에 이른다.



❖ 부평수출공단 유치후원회 후원금 모금 기사(출처: 『인천신문』, 1966년 2월 12일자)

1966년 부평의 인구는 인천의 총인구 중 18.4%이고, 총 1만 82,000여 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00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⁴¹ 부평진흥회는 단기간에 181명의 후원자로부터 농지 매입비 15,000만 원을 모금하였다. 모금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2,000여 가구 농업 종사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권력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평진흥회가 자신들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평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부평의 개발을 단순히 지역 차원의 개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으로 정당화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

40 『인천신문』, 1966년 2월 12일자.

41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인천시, 1967.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장의 부지 선정 번복 행위에 서곶지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966년 2월 17일 그들은 석남초등학교 교정에서 서곶지구 공업단지 유치를 위한 주민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농토는 농민에게, 공장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였다.⁴² 하지만 인천시가 집회를 불허하면서 서곶 주민들의 집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 연기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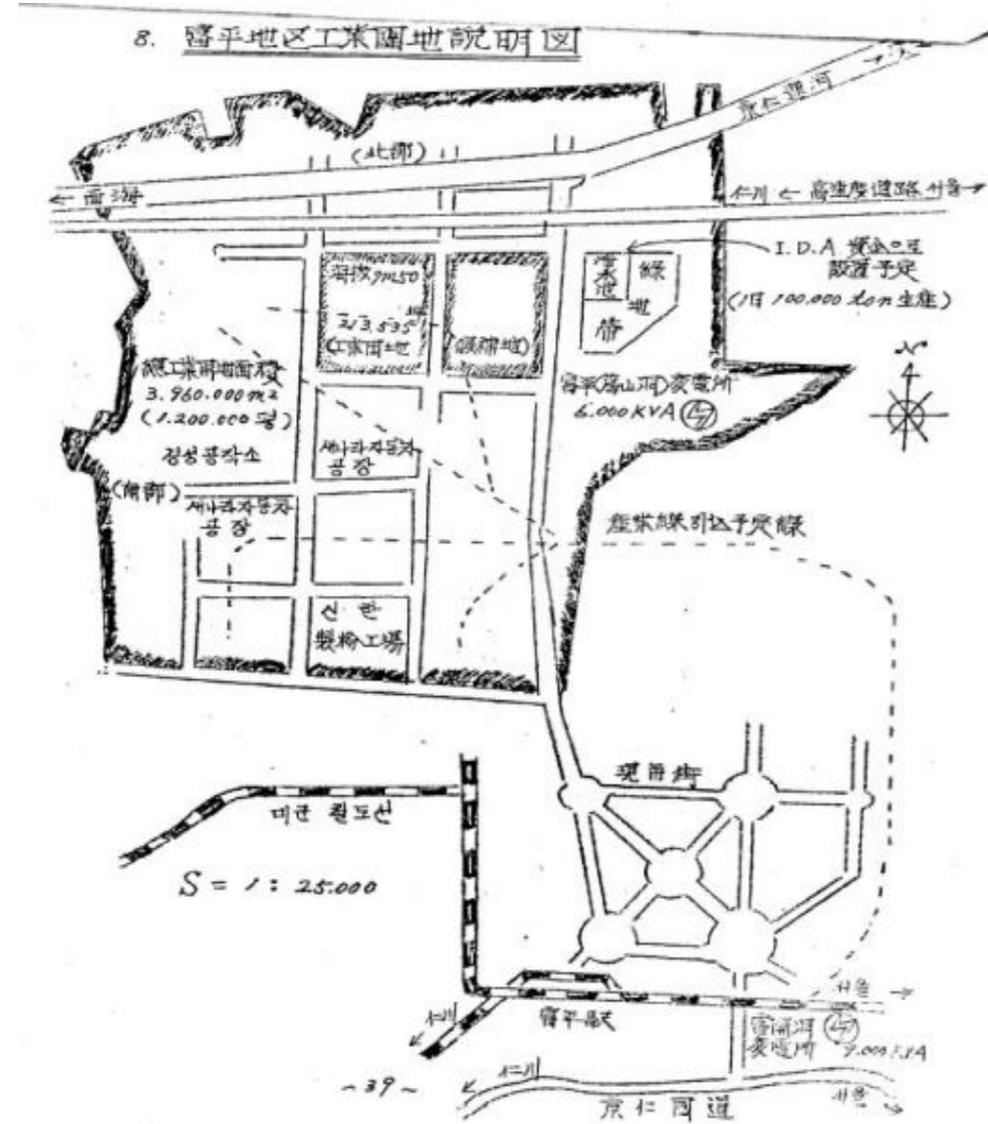
부평지구가 수출공단 조성지로 확정되자 부지의 매각 및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부평지구 사유지 약 16만 4,000여 평을 평당 325원에 계약을 했다. 국유지 1만 5,000여 평은 평당 670원에 매입해 군사령부와 협의하여 불용재산으로 용도 폐기한 후 국세청에 이관하고, 동인천세무서와 평당 63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여지 9,782평과 도유지 3만여 평은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양도받아 계획도로와 교환 조치키로 하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과 교환하여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공단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공사를 인천시에 위탁하고(1966.2.24), 현황 측량, 상하수도 시설, 도로, 울타리 시설 등 설계공사는 (주)도진종합설계(대표 강두기)가 맡아 추진했다.⁴³ 조성된 부지는 평당 2,585원으로 책정되어 입주기업들에게 5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을 결정하고 재일교포 기업 및 국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게 된다.⁴⁴ 21만 평에 이르는 부평수출공단 개발사업은 주변에 경성공장소, 새나라자동차, 신한제분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배수지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부평 지역은 물론 인천의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였다.

42 『인천신문』, 1966년 2월 18일자.

43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1994, 189-190쪽. 도진종합설계는 1967년 5월 인천항 제2선 건축조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다.

44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1979.



❖ 부평지구 공업단지 설명도(출처: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지구수출산업공단지개발조성 사업계획서」, 1966)

제3절 | 부평제1수출공단의 위기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강제 해산

1.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과 성장

수출공단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시장과 지주 중심으로 구성된 후원회(부평진흥회), 서곶 주민 간 발생한 갈등은 부족한 조성 비용을 충족하고, 서곶 주민의 저항을 압박함으로써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회 세력들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사태가 진정되면서 부평지구에 수출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66년 4월 8일 청천동에서 기공식을 갖고 그간 구상에 그쳤던 조성사업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⁴⁵



❖ 청천동에서 개최한 부평수출공단 기공식(좌)과 기공식 공사 발파 장면(우)
(출처: 『인천신문』, 1966년 4월 8일자;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 홍보물(발간일 미상))

45 권영구 인천시 공보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공식은 윤갑노 인천시장, 채호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 김숙현 부평진흥회 회장(부평공단유치후원회 상임이사), 제일교포 박진혁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부평지구가 공단부지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숙현, 김영길, 윤병일 등 부평 유지 상당수가 표창장을 받았다. 인천시가 부평지구 농지 매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총 소요비용을 1억 6,000만 원(정부 보조금 5,000만 원, 산업은행 용자 1억 원, 인천수출산업공단 자체 자금 1,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1968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실제 준공은 1년 연장되어 1969년에 이루어졌음). 입주업종은 기계금속, 전기, 고무, 비닐, 미싱부속, 의류 등 20여 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일교포 기업과 국내 수출 기업 30여 개를 유치하여 연간 약 3,000만 달러 수출실적 계획을 세웠다.

부평수출공단 부지 정지 작업은 하루 약 300여 명의 실업자를 동원하여 총 8만 5,000여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미8군 제2공병 단장 아노히저 대령이 신속한 부지 조성을 위해 건설장비를 지원하였이다 이로써 착공 4개월 만인 1966년 8월 30% 부지 정지 작업률을 달성하는 등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아래 사진 참조>).⁴⁶



❖ 부평공단 부지 정지 작업에 동원된 주한 미군(좌)과 실업자(우)(출처 : 인천시, 「인천시도시개발5개년계획」, 1967)

하지만 1966년도에 반영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평공단 조성은 출발부터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시, 공단 자체 자금과 후원금 등 5,000여 만 원으로 우선 착공부터 하면 이후 정부보조금 5,000만 원, 산

46 『인천신문』, 1966년 5월 22일자; 『인천신문』, 5월 27일자; 『인천신문』, 7월 14일자; 『인천신문』, 10월 30일자. 미 제2공병단장 아노히저 대령이 박태원 경기도지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아노히저 대령은 미군 장비 동원 등 공단 조성에 공헌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민증과 행운의 열쇠를 받았으며, 7월 14일 정일권 국무총리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업은행 용자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1965.12.23.).

1966년 4월 착공 2개월 후인 6월 대통령 박정희가 인천항 독 기공식을 끝내고 부지 정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장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국가는 부평수출공단 조성 과정에 깊게 개입하는 행위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부평수출공단은 구로수출공단 개발과 달리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부평지구 수출공단 지정과 공고가 지연된 것도 사업방식을 최종 결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 때문에 인천수출산업공단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부평 지역이 수출주도공업화의 주역이 될 것임을 강조해 온 지역의 사회 세력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공단부지 정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임금은 구호양곡으로 대신 지급해야 하는데 구호양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로부터 200톤(720만 원)의 구호양곡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배정받은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2톤에 불과할 정도였다.⁴⁷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승원 의원(공화당)은 국회에서 상공부의 국고 지원 약속 이행 및 지원을 촉구했다.⁴⁸ 유승원 의원이 1967년 예산에 정부보조금을 받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상공부 차관은 보조금 5,000만 원, 산업은행 장기용자 5,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답변했지만 정부보조금 지원은 계속 지연되었다. 1966년 10월 용역매수 및 용역 설계를 끝내고 9만 4,000여 평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8,7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57%(전체 22.4%)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만 세웠다.⁴⁹

1968년 완공을 앞둔 부평공단은 그해 5월 말 65%가량 진척되자 연말까지 공동이용 시설 등 100%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입주희망업체 신청을 받았다.⁵⁰ 입주업체의 지정 및 취소는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닌 상공부 장관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관

47 『인천신문』, 1966년 8월 6일자.

48 국회, 「제6대 국회 상공위원회 제57회 7차 회의록」, 1966년 7월 4일자.

49 『인천신문』, 1966년 10월 30일자.

50 『인천신문』, 1968년 6월 3일자.

보』에 공고되면 입주할 수 있었다.⁵¹ 국내 기업체의 입주 지정 기준은 ①중소 규모 업체이고 동일업종의 수출실적이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수출 전망이 확실하며, ②외화가 득률 40% 이상, ③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소유, ④타인 자본 의존도 50% 미만, ⑤가급적 국내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존재하는 업종이 아닐 것, ⑥가급적 연과효과 또는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 ⑦가급적 시설이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을 것, ⑧가급적 고용효과가 높을 것, ⑨둘 이상의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교포 기업체를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 공단입주기업 신청서(상공부)

입주자격 취소는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①입주기업체로 지정된 후 2개월 내에 해당 개발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②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 완료 후 6개월 이내

51 상공부, 「상공부고시」 제1987호, 1965.6.25.; 「상공부고시」 제3598호, 1968.3.9.

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③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 안에 반입한 시설기재나 원료 또는 제품을 부당하게 국내에 유출한 때에는 상공부 장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기업체가 위에 열거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동법 제24조제1항 단서).

1960년대 외국의 원조 자본 외에 국가의 경제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일교포 기업 유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국가수출공단의 제1차 목표는 재일교포 자본 유치와 기술도입에 있었고,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체를 우선 지정하여 수출 증대 및 수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부평공단 역시 재일교포 자본 유치를 우선 사업으로 계획했다. 부평수출공단 착공도 하기 전인 1965년 4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임했다가 재취임한 채호 회장이 재일교포 기업인 유치를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한 것은 수출공단 조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⁵²

첫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은 1966년 국가가 지정하여 추천한 재일교포 기업 한국크리스탈공업사(대표 홍대희)와 상공부 지정 5개 업체, 1967년에는 재일교포 기업 한국인테리어화학(대표 박진혁)이 지정되어 그해 4월 기공식을 가졌다(<아래 사진 참조>).



❖ 1966년 한국크리스탈공업사 공장신축 기공식(출처 :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1994)

52 『인천신문』, 1965년 4월 29일자; 『인천신문』, 5월 7일자.

그러나 부평공단 재일교포 입주희망업체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68년 50개 공장 유치 계획으로 29개 업체(교포 6개, 나머지 국내)가 지정되고, 13개 업체가 상공부의 심사를 기다렸다.⁵³ 1966년 부평공단 착공 후 1971년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통합되기 직전까지 총 72개가 지정되었고, 재일교포 기업은 그중 14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 국내 신청 기업 59개 중 22개 업체가 자진 취소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어 총 47개, 1971년에는 총 51개 국내외 업체가 확정되었다. 재일교포 기업 유치를 제1차 목표로 한 것에 비해 실적은 10개 업체에 불과했다(<표 4>).

표 4 부평수출공단 입주업체 현황(1971)

	구분	업체명	대표자	업종	기타
1	교포	범양합성화학	김요라	합성수지	1969. 지정 취소
2	교포	한진합성화학(주)	정한영	합성수지가공	-
3	교포	우보산업	최부성	의류제조	-
4	교포	한국크리스탈공업사	임호	특수초차제조	1968.2. 지정 취소된 후 대표자 변경
5	교포	신우상사	임진곤	특수의류제조	1970.3. 지정 취소
6	교포	동양전자공업	신학균	전기통신부분품조립가공	-
7	교포	세정실업	김종정	약기류제조	-
8	교포	동양규소공업	이현명	특수건축재료	1969.3. 지정 취소
9	교포	한국인테리어화학	김요라	플라스틱	-
10	교포	서울마이크로시스템(주)	에니최	전자기기부품제조	-
11	교포	삼아전자공업	유봉식	전자기기제조	-
12	교포	씨-부러더스 섬유(주)	배순홍	봉제업	-
13	교포	부평산업	박상능	자동차부속품제조	-
14	교포	평화교역	유순규	쉐타제조	-
15	국내	근대주물공업	장석원	주물제조	-
16	국내	삼송산업	성병림	쉐타제조	-
17	국내	중원염직(주)	강재영	직물 및 쉐타류 제조	-
18	국내	동흥물산(주)	정인수	봉제품제조	-

⁵³ 『인천신문』, 1968년 7월 10일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업종	기타
19	국내	대영섬유산업	김노성	합성섬유	1969.3. 지정 취소
20	국내	범양상공	권상을	의류제조	1970.1. 지정 취소
21	국내	동남아기업사	조동연	합성수지가공	1970.3. 지정 취소
22	국내	대원강업	허주열	자동차부분품	1969.5. 지정 취소
23	국내	동산유지공업	김정관	유지제품	1969.5. 지정 취소
24	국내	몽철사	송창주	금속주물	-
25	국내	태아실업	이순한	섬유제품 가공	-
26	국내	명성산업	박영익	우모 및 조화가공	1971.3. 자진 취소
27	국내	고려전자	최치영	전자기기	-
28	국내	용천산업	곽응수	농산물가공업	1970.1. 지정 취소
29	국내	한국로아(주)	홍원서	가발제조	-
30	국내	한남섬유산업	양재범	섬유제품	1969. 지정 취소
31	국내	유신흥업(주)	김정태	골프도구제조	-
32	국내	승아물산(주)	유응식	제화마귀석가공업	-
33	국내	오리진	김봉길	세타제조	1969.3. 지정 취소
34	국내	경기농산가공	정택수	농산물가공업	-
35	국내	신성전기산업	민중기	전자기기조립가공	-
36	국내	한국유리공업(주)	최태섭	X-MAS 장식용전구	1969. 지정 취소
37	국내	미성개발양행	지종상	가발 및 지대제조	1969.5. 지정 취소
38	국내	동성타올공업사	노경환	타올제조	-
39	국내	대양화학	조영일	합성수지제품	1969.2. 명의 변경(이창수)
40	국내	대흥제재소	김창진	합판가공	1969.3. 지정 취소
41	국내	제일화학	박성엽	합성수지가공	-
42	국내	고미산업	이석우	전자공업	-
43	국내	천마공예사	김영숙	완구제조	-
44	국내	동양밸브	이창남	밸브제조	1969.5. 지정 취소
45	국내	대월부레키공업(주)	홍구표	차량부분품	-
46	국내	동서식품	신원희	식품	-
47	국내	사무엘리(주)	이용순	통신기기조립	1970.3. 지정 취소
48	국내	한독산업(주)	조명흠	가발제조	-
49	국내	양덕산업	김승찬	직물제조	-
50	국내	동초산업	이종원	합성수지제품	-
51	국내	삼의물산	이효익	약기 및 공예품	-
52	국내	한송산업	윤양	자동차부속	1969.6. 지정 취소
53	국내	태평특수섬유(주)	방용학	합성섬유가공	-
54	국내	동양냉동(주)	송세환	냉동기기부속품제조	-

구분	업체명	대표자	업종	기타	
55	국내	순흥금속공업(주)	안동순	비철금속제조	-
56	국내	민우(주)	이근영	쉐타제조	-
57	국내	유미실업	최상호	쉐타제조	1969.6. 지정 취소
58	국내	뉴코리아전자	김인	전자기기	-
59	국내	연방물산양행	장상범	장식용 양초	-
60	국내	평화금속산업(주)	이갑수	금양류제조	-
61	국내	천부산업(주)	최호	가단주물제조	1970.7. 지정 취소
62	국내	반도상사(주)	허준구	가발제조	-
63	국내	삼부벨브공업(주)	박순선	주물제조업	-
64	국내	한국마이크로전자공업	김종길	전자기기제작	1970.1. 지정 취소
65	국내	한국가구공업	최기곤	가구 및 목재	1969.6. 지정 취소
66	국내	신진편물사(주)	오성용	편물제조	1970.1. 지정 취소
67	국내	공도산업(주)	공근초	쉐타제조	-
68	국내	킹전자공업(주)	김곤	전기, 전자,통신기기제조	-
69	국내	동진가발(주)	박노철	가발제조	1971.8.21. 지정 취소
70	국내	세경산업	박윤구	세타제조	-
71	국내	삼양전기공업(주)	김영두	트랜지스터, 라디에이터	-
72	국내	삼원통상(주)	이영호	쉐타 및 봉제	1971.3. 자진 취소

❖ 출처 : 대한민국정부, 『관보』, 1968~1971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의보(축쇄판)』1, 1969.

❖ 비고 : 원문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작성하였으나 '쉐타'로 통일하여 명시함.

재일교포 기업 유치는 부평공단보다 먼저 착공한 구로공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65년에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총 15개(재일교포 기업 10개), 1966년 14개, 1967년 11개 등 공단 준공식까지 40개 업체 입주가 확정되어 애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재일교포 기업은 전체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18개 업체에 불과했다.⁵⁴ 구로공단은 재일교포 전용수출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관련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착공하여 국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공간이지만 재일교포 기업 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정부는 재일교포 기업만으로 수출공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내국인 대상으로 입주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함으

54 장세훈 외, 『산업경관의 탄생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단』, 안트, 2014, 67~68쪽.

로써⁵⁵ 사실상 재일교포 기업 전용수출공단으로서 의미는 약화된다. 재일교포 기업의 모국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조적 제약이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재일교포 기업 투자는 정정 불안과 정경유착에 따른 높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 투자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제조업의 토대 부실로 인한 취약한 산업 연관성은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도 있었다.⁵⁶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조업 단축 및 휴업 사태가 속출하며 도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평공단은 내국인 기업과 재일교포 기업 입주로 수출실적을 쌓았다. 부평공단은 1969년 수출 목표 500만 달러를 초과하여 703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고, 1970년 47개 중 20개 업체 가동에 4만 6,000명 노동자가 고용되어 수출 목표액 1,000달러의 2배가 넘는 약 23,056만 달러를 달성했다. 1970년 부평공단의 수출실적은 그해 인천 전체 수출실적 5,960만 달러의 약 40%를 차지하여 1971년 부평공단의 3,000만 달러 수출 목표를 낙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인천의 전국 대비 수출 비중은 1970년 5.9%로 기계화된 5.7%를 0.2%나 초과하여 목표를 달성했다. 예상치 못한 인천의 수출 증가는 부평공단이 기여한 바가 크고, 인천의 수출산업 입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 부평공단의 입지는 성공적으로 굳혀지는 듯했다.

표 5 인천의 수출 실적

연도	구분	업체수	목표(A)	실적(B)	비율(B/A)	수출	군납
1966		19	12,280	12,320	100.3	12,320	-
1967		23	16,312	17,532	107.5	17,532	-
1968		15	26,368	24,532	91.6	20,203	3,950
1969		48	34,631	33,550	96.9	28,513	5,037
1970		80	44,536	59,643	133.9	54,544	5,099
1971		91	67,640	91,379	135.0	83,997	7,382

❖ 출처 :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1971.

55 이상철, 『수출산업단지의 형성과 변모: 구로공단(1963~1987년)』, 『동향과 전망』85,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233~234쪽.

56 장세훈 외, 『산업경관의 탄생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단』, 안트, 2014, 69쪽.

표 6 인천과 전국 수출 실적 비교

(단위: 년·천 달러)

구분 \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기계획
인천시	12,320	17,532	24,154	33,550	59,643	76,600
전국	255,751	358,592	500,408	702,811	1,000,808	1,350,000
대비	4.8	4.8	4.8	4.8	5.9	5.7

❖ 출처: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1971.

2. (재)인천수출산업공단의 강제 해산과 수출공단 일원화

부평공단의 3,000만 달러 수출 실적 목표를 눈앞에 둔 시점인 1971년 11월 2일 상공부 이낙성 장관이 부평공단 관리기구인 인천수출산업공단(이사장 김인식)과 구로공단 관리기구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최명헌)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지역 상공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⁵⁷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공단 통합 방침은 부실기업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수출공단의 경영합리화와 경비절감을 위해 인천수출산업공단을 1971년 11월 16일 해체하고, 17일 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합병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⁵⁸ 당시 인천수출산업공단의 경영 상태는 5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수출산업공단의 부채는 인천보다 더 심각한 11억 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가의 경영합리화 및 경비절감은 형식적인 통합 명분일 뿐 그 이면에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힘의 논리를 반영한 강제 흡수, 통합이었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1월 16일 올림포스호텔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서 선출한 후 강경 대응을 결의하였다.⁵⁹ 그러나 양 수출공단의 통합 방침은 이미 정부 각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대책위원회는 6개 항목의

57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2일자.

58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12일자.

59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17일자. 대책위원장에 최정환을 선출하고, 이봉운, 김영배, 오준섭, 조명흥, 이상윤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조건부 통합에 따른 해체 안을 의결하고, 24일 통합 총회에 합의하여 설립 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⁶⁰

양 수출공단의 통합총회에 대해 이낙성 상공부 장관은 “인천수출산업공단을 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인천수출산업공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⁶¹라고 했다. 수출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인천수출산업공단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공부가 막상 통합을 결의한 총회의 결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상공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의 모종의 합의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24일 양 공단의 통합회의 개최에 대해 언론이 ‘석연치 않은 여운’⁶²이라 비판한 것은 양 수출공단을 둘러싼 기류가 정치적 힘의 세력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양 공단의 통합 총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 수출공단 강제 통합과 인천수출산업공단 해산 기사(출처: 『매일경제』, 1971.11.22.; 『경기매일신문』, 1971.11.25.)

60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20일자; 『경기매일신문』, 11월 19일자. (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마지막 총회나 다름없는 제2차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회는 ①1:1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 ②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제출, ③가칭 '경인수출공단'으로 개칭, ④주식지분의 명확한 조치, ⑤ 임원동수, ⑥동시 해산 등을 의결하며 인천수출산업공단이 7년 만에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다.

61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20일자.

62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25일자.

우선 양 공단의 통합 총회는 정관 개정 사항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에 관해 7인 전형위원회를 구성, 의안을 위원회에 위임 처리하고 각각 10명의 이사와 감사 1인을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수출공단의 명칭은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요구한 ‘경인수출산업공단’이 아닌 ‘한국수출산업공단’ 명칭을 논란 끝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대신 인천에 출장소를 두기로 합의하면서 통합 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총회 개최 직후 양 공단이 진행 방식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요구한 통합총회가 아닌 제10회 임시총회로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인천수출산업공단 이봉운 이사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임시총회라면 인천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수출공단 강제 통합과 인천수출산업공단 해산 기사 > 참조). 그렇지만 통합총회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의도한 제10회 임시총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이 같은 행위는 인천 지역사회와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통합이 아닌 일방적 흡수·통합이라 주장하는 근거다. 결국 상공부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강제한 양 공단의 통합은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의견상 적자경영 개선과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 통합 방침이지만 그 이면에는 박정희 등 쿠데타 세력의 권력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수출공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공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적자운영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사회가 송석하 이사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모색했다.⁶³ 후임으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최명현⁶⁴이 1971년 3월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으로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 자

63 송석하 이사장 경질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직면한 적자재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해진 조치였다. 구로공단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은 구로 3단지를 조성하면서 1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기업 유치 실적도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매일경제』, 1971년 3월 19일자). 송석하는 박정희와 사관학교 동기로 한국국방연구원장,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했으며,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 1971년 4월 27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4 최명현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과 김인식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은 쿠데타 세력으로 깊은 인관계를 맺으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명현은 1963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 1970년 체호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으며 그 후임으로 온 군 출신 박태원이 몇 개월 뒤 국회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는 11대, 12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1988년에 잠시 노동부 장관을 지내는 등 오랜 동안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리를 옮겼다. 그리고 김인식⁶⁵이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인천의 상공인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체로 출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이사장 선임 문제는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최명현 이사장이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지 8개월 후 상공부가 양 공단의 통합을 결정하고, 김인식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이 이사회나 입주업체들의 동의 없이 통합 결정에 합의한 행위는 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들이 부평공단 유치를 성공시킨 지역의 다양한 이해세력들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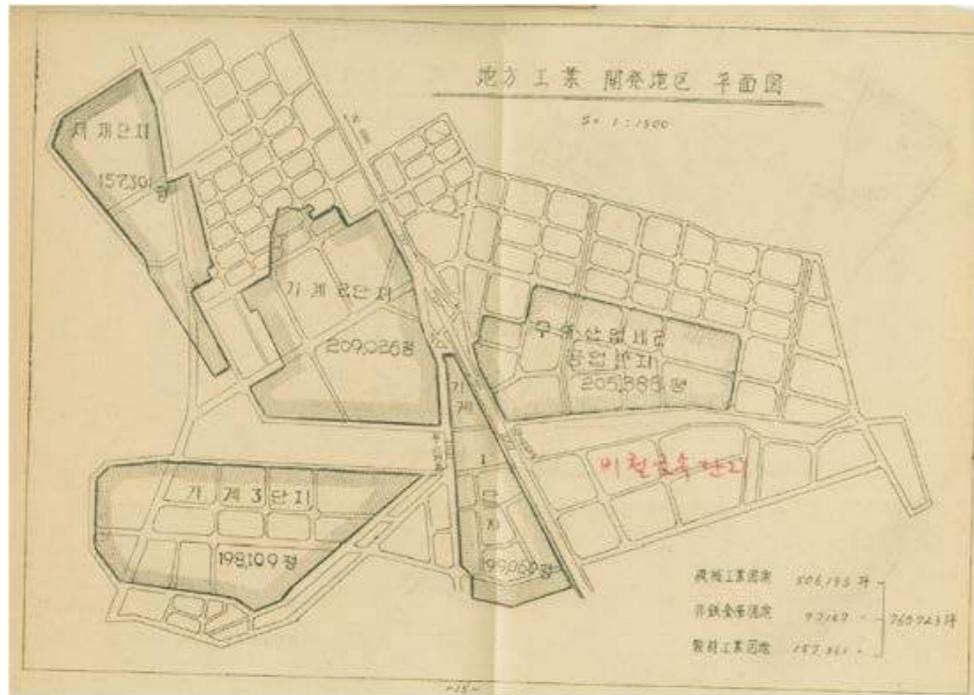
군부 엘리트들이 주도한 인천수출산업공단과 한국수출산업공단 통합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는 19개의 공단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상공부 산하에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 전국의 공단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아래 사진 참조>).



❖ 정부의 공업단지관리청 신설 검토 기사(출처 : 『매일경제』, 1971.11.22.)

65 김인식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 청와대경호실 차장을 지내다 최명현 이사장 후임으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직후 양 공단 통합에 참여했다. 통합된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둘러싸고 최명현과 김인식이 경합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두 사람이 인간적 친분이 있어 김인식 이사장이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김인식 이사장이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회를 구하지 않은 채 양 공단 통합을 주도한 일로, 통합 총회 자리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과 이사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71년 해체되기 전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안지구에 제1·2·3기제공단, 비철금속공단, 주안제2수출공단 조성을 목표로 주안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주)대한염업공사와 염전 매입 범위 및 방식 등을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아래 도면 참조>). 이 사업은 1967년 인천도시개발 5개년 계획(건설부 공고 제266호)의 일환으로 송림동, 간석동, 도화동의 60여 만 평(주안 폐염전 45만 평 포함)에 총사업비 3억 4천여 만 원을 투입하여 196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주안지구의 공단 조성사업은 부평수출공단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71년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흡수, 통합되어 해산되면서 주안제2수출공업단지는 제5수출공업단지로, 1974년에는 비철금속공단이 공장 건립도 하지 못한 채 제6수출공업단지로 흡수된다. 이후 제7수출공업단지로 제1기제공업단지 흡수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되어 현재 인천기계공단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 인천시 주안공업단지 평면도(출처: 인천상공회의소, 「주안공업단지조성계획」 관련 철, 1969)

이상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자립경제 달성, 빈곤 및 실업 해소 등 국가의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된 부평수출공단의 초기 형성 및 조성 과정을 살펴본다. 부평수출공단을 포함해 1960~197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인천의 7개 공단은 1980년대 말 조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검단·강화 산업단지와 함께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조성된 지 50여 년이 넘는 이들 산업단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쇠퇴기에 접어들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60~1970년대 굴뚝산업이 더 이상 인천의 성장을 주도하거나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에 입지해 있는 총 17개의 산업단지는 각각의 조성 시기, 입지 환경과 조건, 인천의 성장 역사의 특성 등에 따라 조성 배경과 목적, 기능 등 차이를 갖는다.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으로 끊임없이 확대, 팽창하며 기존의 생산 공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도시 공간의 확장, 팽창은 결국 기존의 산업단지를 ‘섬’처럼 고립시키고 있는 문제다. 즉, 새로운 산업 공간은 기존의 산업 공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공단은 해체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고정 공간으로 아파트에 둘러싸여 본래 조성 목적 및 기능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 중심으로 전개되는 도시 외곽으로의 지속적인 팽창과 구도심 개발이 새로운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선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문제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농지, 갯벌 또는 염전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개발정책은 실업 및 빈곤 문제 해소, 자립경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환경 파괴나 오염 등은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 감수해야 하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바다와 농지, 산림 등을 해치는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또는 지방정부의 권리라는 새로운 이슈와 이해관계에 얽혀 시민사회 저항에 직면하며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셋째, 산업단지는 어떤 특정한 영웅적 인물이나 집단의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형성된 산물이다. 앞서 부평수출공단 유치 및 초기 조성 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공간은 국가와 지역 단위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 즉 정치인, 행정 관료, 기업 및 상공 단체, 지주 및 농어민, 노동자, 언론, 학자 등이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갈등하고 충돌하며,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반영하며 나타난 결과다. 최근 부평공단, 주안공단, 기계공단, 남동공단 등 쇠퇴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산업 공간을 다시 한 번 인천의 성장과 발전 축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등과 공유하며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간절한 때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인천인물 100인』, 다인아트, 2009.
 박인옥,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인천의 공업단지』, 보고서, 201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현황』, 인천상공회의소, 1978.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업단지소개』, 인천상공회의소, 1973.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람』, 인천상공회의소, 1971.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200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1979.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의보』1(축쇄판), 인천상공회의소, 1969.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홍보물), 발간일 미상.
 인천시, 『인천시세일반』, 인천시, 각 연도.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인천시, 각 연도.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인천시, 각 연도.
 장세훈 외, 『산업경관의 탄생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단』, 알트,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 1983.
 조기준, 『내 고향의 뿌리를 찾아 부평사 연구』,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신문

- 『경기매일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인천신문』





기타

- 1966년 국회 상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1966. 11. 1.
1966년 국회 상공위원회 제57차 회의록, 1966. 7. 4.
1968년 국회 상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1968. 9. 27.
1968년 국회 상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1969. 12. 3.
대한민국정부, 『관보』, 1968~1971.
상공부고시 제1987호, 1965. 6. 25.
상공부고시 제3598호, 1968. 3. 9.
인천상공회의소, 「주안공업단지조성계획」 관련 철, 1969.
인천상공회의소, 「지방공업개발법」, 1973.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지구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 사업계획서」, 1966.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수출공단 「사업계획서」, 1966.
인천시, 「인천시도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1967.
인천시, 「인천시종합개발계획보고서」, 1970.





제 2 장 — 부평의 오래된 주요 기업

제1절 _ 한국GM(주)

제2절 _ 인천탁주합동제조회사

제3절 _ 동서식품(주)

제4절 _ 부평을 떠난 기업 : 삼익악기, 로얄앤컴퍼니

제2장 부평의 오래된 주요 기업

김 재 식(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부평 지역 산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인천 지역 등록공장 1만 1,770개 중 1,556개, 2018년 기준)이며,¹ 특히 청천동 일원의 부평국가산업단지에는 940여 개의 업체에 1만 3,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1930년대 일제의 공업 정책에 따라 경인공업지대를 이루는 부평과 계양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1930년 말 부평에는 동양제강과 디젤자동차공업, 홍중상공 등 군수공장들이 들어섰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에는 부평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인천은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부평 지역경제는 물론 인천 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부평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주요 기업들의 성장·변천 과정을 통해 부평이 발전·변화하는 모습과 부평 지역이 인천 경제와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¹ 인천광역시, 『2018년 인천 경제백서』, 인천광역시, 2019, 110쪽.

| 제1절 | 한국GM(주)



❖ 1962년 새나라자동차 부평공장 준공식(출처 : 국가기록원, CET0029282)

한국GM(주)(GM Korea Company, 대표이사 : 카허 카젠) 부평공장(부평구 부평대로 233, 면적: 99만 1,740㎡)은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으로서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주력 공장이다.

부평 지역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서막을 연 시발지(始發地)이다. 1962년 1월에 새나라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이후 신진자동차, 미국GM코리아,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한국GM 등으로 상호가 바뀌는 동안에도 부평이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라는 명성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GM의 연원은 1962년 부평공장 위치에 새나라자동차의 조립공장(승용2공장) 준공으로 시작된다. 1971년에 엔진공장을 준공하고 1986년에는 승용1공장을 준공하였다. 1985년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디젤승용차를 생산하고, 1986년에 월드카 르망을 생산한 데 이어, 1993년에 아시아 업계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한국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였다.

한국GM은 3개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부평공장은 말리부, 캡티바 등 가솔린·디젤 엔진차량을 생산(생산능력: 연간 최대 44만 대)하고 있다. 경남 창원공장은 라보, 스파크, 다마스 등 경승용차와 경상용차를 생산(생산능력: 연간 최대 21만 대)하고, 충남 보령공장은 차량은 생산하지 않고 변속기와 엔진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령공장에서 생산된 변속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GM공장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특히 부평공장은 2020년 현재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 트래버스(Traverse), 말리부(Malibu), 트랙스(Trax)를 생산하는 승용 1·2공장과 엔진 및 변속기를 생산하는 엔진구동 공장 및 KD(Knock Down: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수출을 위한 KD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로 숙련된 생산 인력과 고효율의 생산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GM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차량구매 캠페인, 정책건의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GM은 인천의 부평공장을 비롯해 창원과 보령 등 3개의 공장에서 완성차 90만 대 및 KD 90만 대를 생산하여 전 세계 15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 청천동에 기술연구소와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청라동에 주행시험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GM이 지역경제, 특히 부평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나라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가지는 비중이 10% 이상이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한국GM 부품업체의 지역 내 매출액과 전방·후방 산업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한국GM의 역사

한국GM은 1962년에 새나라자동차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한 업체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주가 바뀌기도 하고 회사명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새나라자동차

새나라자동차는 1962년 1월 29일 재일교포 박노정에 의해 5년 후 완공을 목표로 부평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1962년 8월 설립 당시 연간 6,000대의 조립·생산능력을 갖췄다. 새나라자동차는 1962년 3월에 일본 닛산(Nissan)과 시설차관 및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닛산의 1,200cc급 소형차 ‘블루버드 P301’을 SKD(Semi Knock-Down: 부품을 반제품 형태로 도입하여 조립함) 방식으로 생산해 ‘새나라’라는 모델명으로 1962년 11월부터 1963년 5월까지 2,700여 대를 조립·판매했다.

조립공장 준공 후 1962년 9월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화된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당시에는 양산 체제를 갖춘 공장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창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외환사정 악화로 부품 도입이 불가능해져서 1963년 7월 12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신진 코로나(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 신진자동차

신진자동차는 본래 자동차 수리·제작 업체인 신진공업사가 전신인데, 1965년 7월에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다음 해 1월에 신진자동차공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신진자동차는 1966년 1월 일본 도요타(Toyota)자동차와 기술제휴 계약을 맺고 차관을 들여와 현대화된 조립공장을 세웠다. 또한 기존의 부품공장과 자회사로 부품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조립공장을 정점으로 한 계열화를 이루었다. 이같이 양산 체제를 확립함에 따라 연간 1만 4,400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신진자동차는 1966년 5월에 1,500cc급 코로나(Corona)를 처음으로 생산한데 이어 1967년 5월에는 중·대형급 크라운(Crown)을 생산한다. 그리고 1968년 8월에는 800cc급의 공랭식 퍼블리카(Publica)를 생산하게 된다.

4기통 엔진에 배기량이 1,490cc의 소형 차량인 코로나는 당시 가격이 83만 7,000원으로 택시요금이 6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쌌지만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총 4만 4,248대가 생산됐다. 6기통 엔진에 배기량이 2,253cc의 중형차인 크라운은 주로 자가용이나 경찰순찰차 등 관용으로 공급되었고 1967~1972년까지 총 3,840대가 생산됐다. 퍼블리카는 일본 도요타 퍼블리카를 국내에 들여와 조립·생산한 2기통 엔진에 배기량 추가 697cc,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소형 차량으로 1971년까지 총 2,005대가 생산됐다. 국민차시대를 열고자 했던 퍼블리카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 상용차 부문에서는 1968년 1월에 반트럭인 랜드크루서(Landcruiser), 4월에 8톤 카고트럭, 7월에 소형 버스인 신진에이스 등을 차례로 출시하였다. 이렇게 신진자동차는 소형 승용차부터 중·대형급 승용차, 각종 트럭 및 승합차를 생산하는 종합 자동차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 1970년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전경(위)과 생산라인(아래)(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신진 퍼블리카(출처 : 인하대학교박물관)

그러나 도요타자동차는 1970년 12월 중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철수² 하는데, 이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의 4원칙³이 발표된 직후이다. 당시 신진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 합작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요타자동차가 외자 도입 수속만 남긴 상태에서 1972년 2월에 일방적으로 신진자동차와의 제휴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도요타자동차는 우리나라와 절연하였고 2001년 렉서스(Lexus) 브랜드로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 우리나라에 정식 진출을 선언했으며 현재 렉서스, 캠리(Camry), 프리우스(Prius), 시에나(Sienna), 아발론(Avalon), 라브4(Rav4) 등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²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도요타자동차의 조치이다.

³ 중국 공산당 총리인 저우언라이가 내세운 4대 원칙은 대만 및 한국과 거래 및 투자를 하는 기업과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1항과 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한국GM의 회사명 변천 과정

회사명	설립연월	존속 기간
새나라자동차	1962. 1.	3년 6월
신진자동차공업(주)	1965. 7.	6년 11월
미국GM 코리아	1972. 6.	4년 5월
새한자동차(주)	1976. 11.	6년 2월
대우자동차(주)	1983. 1.	19년 7월
GM대우오토헤크놀로지(주)	2002. 8.	9년 7월
한국GM(주)	2011. 3.	~현재

3) 미국GM코리아



❖ 1974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GM코리아 공장 시찰 모습(출처 : 국가기록원, CET0042581)

신진자동차는 도요타자동차가 철수한 후 1972년 6월에 미국GM을 새로운 파트너로 삼아 50 대 50의 비율로 지분을 출자한 한미합작법인 미국GM코리아(미국GM KOREA)를 설립하였다.

미국GM코리아는 내자 35억 원, 외자 30억 원으로 총 65억 원을 들여 1972년 6월에 엔진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74년 5월에 1만 2,000톤 규모의 주물공장과 연산 5

만 대 규모의 가공조립 공장을 준공하였다. 하지만 1973년에 오일쇼크로 인한 판매 부진 때문에 부채가 누적되어 미국GM코리아의 신진자동차 보유 지분을 산업은행이 인수하게 된다.

미국GM코리아가 4년여 동안 생산한 차종은 1972년에 미국GM과 기술제휴한 후 처음 선보인 시보레(Chevrolet) 1700, 1973년에 레코드(Rekord), 1974년에 새한 새마을트럭, 1975년에 레코드로얄(Rekord Royale) 등이다. 이 중 새한 새마을트럭은 픽업트럭인데, 새마을운동에서 차명을 따와 소달구지나 리어카를 대체하려고 만든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종으로 1978년에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수출되기도 했다.

4) 새한자동차

1976년 11월에 GM코리아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하면서 회사 명칭이 새한자동차(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1977년에는 제미니(Gemini)를 생산하는 등 생산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후 1978년 6월에 대우에서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1980년에 로얄(Royal)시리즈, 1982년에 맵시(Maepsey)를 생산하는 등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등 다양한 차종을 개발·생산하였다. 특히 로얄시리즈는 1980년대 국내 중형차와 대형차시장을 장악하였다.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기술센터와 주물·엔진·프레스·데크 공장 및 승용차·버스·트럭 조립공장까지 일관 생산공장을 갖추고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종합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부평 지역에 자동차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도 속속 부평 및 인근 지역에 들어섰다. 주요 기업으로 한즈코퍼레이션(주), (주)동보, (주)에스에이치글로벌, 동광리어 등이 있다.

5) 대우자동차

새한자동차는 1983년 1월에 미국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사 명칭을 대우자동차(주)로 변경하게 된다. 이후 1986년에 프린스(Prince), 살롱수퍼(Salon Super), 르망(Lemans)을, 1990년에는 에스페로(Espero)를 생산하였는데, 에스페로는 대우자동차가 처음 개발한 고유모델로 2,000cc급 중형 모델이다. 1996년 말까지 생산된 뒤 단종됐

고 후속 모델로 누비라가 나왔다. 특히 르망은 미국GM의 월드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차종이며, 1987년에 대우의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이 7만 8,000대, 31.1%를 나타내는 등 호조를 보이기도 했다.



❖ 대우자동차 리플릿(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1991년에는 국민차 티코(Tico), 경상용차 다마스(Damas)와 라보(Labo)를 출시하였다. 이 중 다마스는 2020년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데 다마스 II (2003년 7월~2008년 4월), 뉴 다마스(2008년 4월~2021년 12월)로 개선을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안전 규제 및 배기가스 규제 기준 미달로 2021년 말에 단종될 예정이다.

1992년 12월에 대우자동차는 미국GM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 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1993년에 자동차 판매 부문을 대우자관(주)(1994년 우리자관(주)로 상호 변경)로 분리·설립하고, 1994년에 대형 세단 아카디아(Arcadia), 씨에로(Cielo), 1995년에 넥시아(Nexia)를 생산하였다. 씨에로와 넥시아는 르망의 파생형 승용차인데, 이 중 씨에로는 대우가 미국GM과 결별 후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차종이며, 1995년에는 국내 생산차

로는 처음으로 국제자동차연맹이 공인하는 케냐 국제펠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르망과 씨에로의 통합 후속 차종인 라노스(Lanos)를, 1997년에는 프린스의 후속으로 중형 세단인 레간자(Leganza)와 누비라(Nubira)를 생산·시판하였다. 레간자는 대우자동차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의 중형 승용차이다.

1998년 1월에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경차 마티즈(Matiz)를 생산하였다. 티코(Tico)의 후속 모델로 등장한 마티즈는 이전의 기화기(Carburetor) 형식의 엔진이 아닌 SOHC(Single Over Head Camshaft)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 마티즈Ⅱ, 2005년에 올 뉴 마티즈, 2009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2011년에 쉐보레 스파크로 이름을 바꾸면서 향상된 모델을 선보였다.

1999년에는 누비라Ⅱ와 매그너스(Magnus)를 개발·생산하는 등 매년 신차를 생산하였으며, 대우중공업의 국민차, 트럭, 버스 사업부를 흡수·통합하여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SUV(Sport Utility Vehicle), 미니밴(RV; Recreational Vehicle), 고급 세단까지 아우르는 풀 라인업(Full Line-up) 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선언 이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현지 법인·공장의 설립과 인수·합병을 통하여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영국과 독일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공격경영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미니밴 레조(Rezzo), 라노스Ⅱ, 마티즈Ⅱ 등 후속 모델을 개발 및 개선하였으나 11월에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대우자동차는 1999년 이후 확장 경영을 통하여 2000년 세계 10대 글로벌 종합 자동차메이커의 목표를 실현하는 듯하였으나 급격한 사세 확장에 따른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대우그룹의 해체와 워크아웃(Work Out: 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를 겪으며 독자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 GM과 현대자동차 등이 인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누적된 부채와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 매각 지연으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여 2000년 11월 3일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이듬해 2001년 2월 경영난이 악화되어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직 근로자 1,750명을 정리하고 과거 사업파트너였던 미국GM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다.



❖ 1996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전경(출처 : 부평구청)

6)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2001년 9월에 대우와 미국GM과의 양서각서가 체결되고 이듬해인 2002년 10월에 GM대우가 공식 출범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라세티(Lacetti)를 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GM은 대우자동차(주)의 승용차 부문만 인수하여 2002년 10월에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GM Daewoo Auto & Technology)를 출범시켰고, 버스 부문은 대우버스(주)로 이관하였으며, 상용차 부문은 타타대우상용차(주)로, 부평공장은 대우인천자동차(주)로 각각 분리하였다.

이로써 대우그룹은 1978년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새한자동차 지분을 인수한 이후 2002년에 미국GM이 인수할 때까지 약 25년간 자동차산업을 경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2003년에 뉴 칼로스(Kalos), 2004년에는 뉴라세티를 생산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대우인천자동차(부평공장)를 인수하고, 젠트라(Gentra)를 생산·시판하였다.

2006년에는 토스카(Tosca)와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가 처음 만든 SUV인 윈스톰(Winstorm), 2007년에 라세티 디젤, 젠트라-X, 2008년에 토스카 프리미엄6, 2010년에 대형 세단인 알페온(Alpheon)을 생산·시판하였다.

7) 한국GM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는 2011년 3월에 한국GM(주)(General Motor Korea Company)로 상호를 변경하고 브랜드 이름도 쉐보레(Chevrolet)로 통일했다. 쉐보레란 이름으로 미니밴인 올랜도(Orlando)를 비롯해 아베오(Aveo, 대우자동차가 개발한 칼로스와 같은 차종), 캡티바(Captiva), 말리부(Malibu)를 출시하였다. 2013년에는 트랙스(Trax), 2014년에 말리브 디젤, 2015년에 스파크(Spark), 임팔라(Impala), 2016년에 볼트(Volt), 2017년에 크루즈(Cruze), 볼트EV, 2018년에 이퀴녹스(Equinox), 2019년에 콜로라도(Colorado), 트래버스(Traverse)를 출시하였다.

❖ 한국GM 부평공장 전경(사진 홍승훈)



스파크는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서 한국GM으로 회사명이 바뀌면서 2011년 3월에 마티즈의 이름을 변경한 것인데, 2012년에 국내 경차 최초로 북미 수출을 하기도 했다. 2008년에 경차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이 800cc에서 1,000cc로 늘어났으며, 고 RPM에서 출력 증대를 위해 DOHC(Double Over Head Camshaft)엔진을 장착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더 넥스트 스파크를 출시하기도 했다.

부평1공장에서는 소형 세단 아베오와 소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고 부평2공장에서는 중형 세단 말리부와 SUV 캡티바를 생산했다.

2020년에는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SUV인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를 출시하였는데 국내 수요와 수출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며 효자 차종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한국GM의 생산차량 대수가 급감함에 따라 경영 불안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 수립 및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차량 생산이 급감하고 경영 불안,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협력업체들은 납품물량이 더욱 감소하여 최악의 경영난을 겪기도 하였다.



❖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결기대회 결의문

우리 인천은 자동차 도시이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태어난 곳이고, 자동차산업을 키워온 도시이다.
완성차 생산업체인 한국GM은 인천 자동차산업의 표상이다.

최근 한국GM의 위기로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5만 3천 종사자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20만 인천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GM 500개 협력업체들이 고통에 울고 있다.
한국GM과 한 몸인 대리점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운송업체, 인천항 근로자들은 실직의 불안에 떨고 있다.
지역 상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인천 지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인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나서야 한다.
인천을 대표하는 62개 경제단체·시민사회단체는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인천 지역 자동차산업과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하고자 한다.

범시민협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관련당사자인 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선 지원, 후 경영 실사로 한국GM을 조기에 정상화하라!
- 하나, 한국GM 협력업체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 하나,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상생 협력하라!
- 하나, 대한민국 최대 외국인기업, 한국GM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범시민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한국GM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예전처럼 인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날까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정부 탄원, 서명운동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중앙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 4. 17.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결기대회 참가자 일동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⁴ 2017년 말 현재, 한국GM 차량 생산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고용 인력은 5만 2,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GM 본사와 부평공장, 기술연구소 등에 1만 1,500명, 사내 도급업체 1,100명, 520여 개에 달하는 1·2·3차 협력업체에 3만 9,500명으로 이는 인천 지역 제조업 취업자 35만 3,000명(2018년 1월 기준)의 14.7%를 차지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GM과 관련 있는 후방산업인 대리점(17개, 280명), 정비센터(23개, 300명), 항만 및 운송 관련 부문(카 캐리어 100명, 항만 종사자 70명)까지 합하면 약 5만 3,000명에 이른다.

표 2 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 중 한국GM의 비중

한국GM의 비중(고용) : 20.8%	
52,000명	한국GM 관련 종사자 ⁵ (인천상공회의소 추정)
250,000명	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2017년)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한국GM은 물론 협력업체와 관련업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자 인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 이강신)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 유필우)를 중심으로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결기대회(2018년 4월 17일자 결의문 참조)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기대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남동구 구월동) 야외광장에서 열렸는데 업계 및 시민 그리고 인천광역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 3,000여 명이 모여 한국GM 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등 한국GM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4 인천상공회의소, 「한국GM이 인천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도 자료, 2018. 3. 8.

5 한국GM: 1만 2,000명, 1차 협력업체: 2만 7,000명, 2차 협력업체: 8,000명, 3차 협력업체 외: 5,000명



❖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勞使政 관계자. 우측 다섯 번째부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카허 카젠 한국 GM 대표이사 등(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2. 한국GM의 주요 시설

1) 기술연구소

한국GM 기술연구소는 차량 개발의 기간, 비용, 품질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아 미국GM의 글로벌 R&D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결기대회(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미국GM의 4개 글로벌 권역 중 아·태(亞太) 지역에서 중추적 엔지니어링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GM 북미(北美), GM 파워트레인, 오펔 등 GM 산하 R&D그룹과 차세대 아키텍처(architecture) 및 파워트레인(power train: 자동차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차세대 글로벌 경차 및 소형차 아키텍처 개발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를 특화하여 설립된 연구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체 및 금형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장 설계와 새로운 생산공법 개발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 등 최적의 생산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술연구소 내 충돌실험실에서 세 번째 말리부 충돌테스트를 공개해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와 동일한 조건을 구현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1.5톤 무게의 쇠팅으로 말리부 측면을 강타하는 실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연구소 내에 GM의 아태(亞太) 지역 생산기술 본부가 위치하여 앞선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GM 그룹의 아태 지역의 모든 소속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생산능력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2) 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는 1983년 1월에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내에서 시작됐으며, 2002년에 인천 부평 본사에 독립적인 디자인센터를 확장·이전하였다. 차량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과 모델링,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모델실, VR(Virtual Reality) 프레젠테이션 룸 등 최신 설비를 보유한 복합 건물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1만 6,640㎡ 규모로 GM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지역별 디자인센터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GM의 글로벌 소형차 및 경차 개발본부 역할을 맡고 있는 기술연구소와 함께 GM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스파크와 아베오, 트랙스 등 경·소형차와 SUV, 볼트 전기차(EV)를 개발하였다.

한국GM은 디자인센터를 보유함에 따라 글로벌 GM 내에서 디자인, 연구 개발 및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사업장 중 하나가 되었다.

3) 주행시험장

청라 주행시험장은 47만 5,000㎡ 규모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가 2004년부터 30년간 무상 임대 20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임대했다. 한국GM은 2007년에 사업비 1,000억여 원을 투입하여 준공 및 운영하고 있다.

주행시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한국GM은 신차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시험이 가능해졌다. 주행시험장에는 36종에 이르는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주행 시험로와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시험실 안에서 사계절의 온도와 습도, 태양빛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를 두루 갖춘 시험연구동이 있다. 특히 시험연구동은 2만 2,530㎡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사무동을 비롯한 6개의 시험실과 시험차량 정비실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GM은 청라 주행시험장 준공을 계기로 향후 신차의 주행성능, 소음·진동, 안정성, 편의성 등 제품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 개발이 가능해졌고, 혹한·혹서 등 특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 신차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주행시험장은 GM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 폐기물 없는 친환경 4단계 사업장⁶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에 주행시험장은 배터리, 플라스틱, 철판, 부품, 시너 등 화공재료까지 차량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GM은 2003년에 부평공장이 매립 폐기물이 없는 4단계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이후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군산·보령·창원 공장이 인증을 받았고, 비제조시설인 주행시험장까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 대상 전 사업장이 친환경 사업장이 되었다.

6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단계가 높을수록 매립 폐기물이 적은 사업장이며, 4단계는 매립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다.

3. 한국GM의 사회공헌 활동

1) 한마음재단 활동의 특징

한국GM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시절인 2005년 6월에 GM대우 한마음재단(현 한국GM 한마음재단, 이하 한마음재단)을 설립하였다. 한국GM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한마음재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마음재단은 한국GM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기초로 설립한 재단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한마음재단은 여타 기업재단과는 다른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국GM은 매년 6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임직원이 3억여 원의 후원금을 더하여 재단 목적 사업으로 사용된다.

설립 초기 임직원 1,767명의 기부로 시작하여 2019년 현재 3,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는 전체 임직원의 35%에 해당된다. 또한 매월 기부금액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특히 2018년에는 한국GM의 유동성 위기로 비상경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후원금액은 변함없이 기부되었고, 개인 기부자인 임직원 역시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부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자발적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설립 초기 942명으로 시작된 봉사 활동 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한국GM이 위치한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아동과 장애인들의 나들이봉사, 노인돌봄봉사,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장폐쇄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 군산 지역의 임직원 중 일부는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GM의 노사 대표가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매우 드문 모범적 사례로 한마음재단의 사업 방향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후원자가 주인이 되는 모습을 실천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 한국GM 임직원의 김장 담그기 나눔(출처 : 한국GM)

2) 한마음재단의 주요 봉사 사업

한마음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첫째, 소외계층 지원이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비영리민간단체(NGO)와 함께 협력하여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소외계층 지원의 대표적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탄배달사업, 소외계층 김장나눔사업은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인천 지역 재개발 밀집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연탄도 배달하고, 김치도 만들어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후원자들이 자신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대상자를 직접 만나면서 이웃들의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5~2018년까지 김장지원에 총 6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연탄 지원에 1억 8,4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소외계층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의 아동들에게 수학과 과학 분야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잠재력을 초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225명의 아동들을 지원하였고 누적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천과 서울 지역의 25개 지역아동센터에 5,000만 원의 코딩 교육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정규 교육에 편성될 교과교육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둘째, 사회복지공익단체 지원사업이다. 한마음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차량기증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한국GM이 생산하는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 경차를 지원하여 도시락 배달, 병원 동행, 방문 상담 등 사회복지 일선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2005년에 재단 설립 후 2019년까지 총 615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 쉐보레 네버 기브 업 캠페인 차량 기증식(출처 : 한국GM)

특히 2018년에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Never Give Up!’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도전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30대, 사회적 기업 30대, 소외계층 가족 30대 등 총 90대의 경차를 지원하기도 했다.

끝으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지원이다. 힘든 주야간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2018년 말 기준 누적 1만 6,752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한마음재단은 직원들이 봉사 활동을 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복지기관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한마음재단은 인적 지원과 더불어 프로그램 비용까지 지원받게 하는 등 임직원의 자원 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GM은 지역사회의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 군산, 창원, 그리고 정비사업소가 위치한 곳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였는데, 2011년에 12억 원, 2013~2017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62억 원을 전국의 461개 기관에 지원했다. 사회공헌기금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영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 및 노후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협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3) 한마음재단의 교육사업

한마음재단은 사회복지사업 외에도 한국GM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안전 교육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인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와 ‘사각사각 캠페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는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10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자동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캠프이며, 이 캠프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각사각 캠페인’은 2013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박람회,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등에 참여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자동차 사각지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있다. 인천에는 ‘소성주(郡城酒)’가 있다. 인천탁주합동제조회사(대표이사 : 정규성, 이하 인천탁주)는 부평구 안남로433번길 26에 있다. 제1공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의 상품명은 소성주인데, 이는 인천의 옛 이름인 소성현에서 유래한다. 소성현은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시대인 신라 757년(경덕왕 16), 신라가 행정제도를 개편할 당시 인천의 지명인 매소홀(買召忽)현(백제시대 미추홀)을 개칭하면서 처음 붙여진 인천의 옛 지명이다.

막걸리는 한국 전통 술의 하나로 쌀, 보리, 밀 등의 원료와 누룩을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후 체로 걸러 내어 만들며 빛깔은 쌀뜨물처럼 희고 탁하다. 막걸리의 명칭은 ‘막 걸러낸 술’이라 하여 막걸리, 색깔이 탁하여 탁주(濁酒)나 탁배기, 농사를 지을 때 먹는 술이라하여 농주(農酒), 거르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은 술이라 하여 재주(滓酒), 신맛을 없애기 위해 재를 섞는다고 해서 회주(灰酒)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배꽃이 필 무렵에 누룩을 만든다고 해서 이화주(梨花酒), 또한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 어머니 노씨가 술지계미를 재탕한 막걸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모주(母酒)라고도 한다. 알코올 성분은 6~7도의 술이다.

막걸리는 삼국시대 이후 막걸리와 유사한 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통 술로 ‘조선양조사’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막걸리는 처음 대동강 일대에서 빚기 시작해 전 국토에 전파돼 민족 고유주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조실록』 1462년(세조 8) 4월 14일에 “내가 젊었을 때 화천군(花川君)의 집에 이르러 막걸리 두어 잔을 마시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⁷

혹자는 막걸리를 두고 청주를 떠내고 남은 술 찌꺼기를 차마 버릴 수 없어 그 찌꺼기를 행귀낸 술이라고도 한다. 이때 찹쌀이 원료이면 찹쌀막걸리,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밥풀이 담긴 채 뜬 것을 동동주라 한다.

막걸리는 우리 민족에게는 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막걸리는 일꾼들의 힘을 돋우는 노동의 벗이었고, 시인을 노래하게 하는 밥이었고, 노인을 봉양하는 우유였다.

⁷ 「방방곡곡 노포기행」, 『동아일보』, 2020년 3월 7일자.



❖ 인천탁주 회사 전경

또한 막걸리는 오덕(五德) 삼반(三反)의 술이라고도 하는데, 오덕은 ①취하되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하지 않는다 ②출출할 때 마시면 요기가 된다 ③힘이 빠졌을 때 마시면 기운을 돋운다 ④마시면서 넉지시 웃으면 안 되던 일도 된다 ⑤더불어 마시면 응어리진 양금이 풀린다는 말한다. 삼반은 ①반유한적(反有閑的)으로 근로지향적이며 ②반귀족적으로 서민지향적이고 ③반계급적으로 평등지향적임을 말한다.

1. 인천의 탁주 변천사

막걸리는 소주와 맥주가 대중화되고 사케, 고량주, 보드카, 양주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술이 범람하는 가운데에서도 100년 가까이 서민과 함께하고 있다. 막걸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술 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던 술이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인 ‘소성주’는 1990년 1월에 출시된 탁주업계 최초의 쌀막걸리로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성주는 인천 지역 탁주제품 중 최고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성주의 매출 90% 이상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1883년부터 1933년까지 인천 역사를 담은 『인천부사(仁川府史)』에 따르면, “조선술에는 2

종이 있으며 탁주(막걸리) 및 약주이다. 둘 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품질에 있어서도 상당 양질의 것이 있었다 … 특히 약주와 같은 것은 타지방에 출선하여 개량 양조에 눈뜸과 동시에 당업자들이 열심과 노력에 의해 오늘날의 진보 향상을 이루어 품질 우수에 있어서는 전 조선에서도 자랑할 만한 정도였다”⁸며 인천의 양조업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6년 일제시대 「주세령(酒稅令)」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술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었을 당시, 1920년대 인천에는 소주와 청주 등을 만드는 한국인 소유의 양조장 14개, 일본인 소유의 양조장 7개 등 21개의 양조장이 있었다.

이 중 인천양조장은 황해도 평산군 평산읍 출신의 상공인 최병두 선생이 24살 때 인천에 정착하여 정미업을 운영하다가 1926년에 양조업으로 전업해서 설립한 공장 중의 하나로 1927년부터 가동하였다. 최병두 선생은 군소 막걸리공장을 합병하여 인천 동구 배다리에 인천양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 막걸리인 소성주를 생산하였다. 이후 최병두 선생은 딸인 최정순 여사와 결혼한 사위 임영균 선생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긴 이래 인천양조장은 후손들이 맡아오다 1996년에 막걸리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하수의 질이 예전 같이 좋지 않아 70년 동안 이어온 가동을 중단하고 청천동 공장으로 이전하게 된다.



❖ 현재의 인천양조장(제2공장) 터



❖ 제2공장 터의 인천 양조주식회사 현판

8 (사)인천문화발전연구원 부설 개항문화연구소, 『(완역본)인천부사』, (주)미래인쇄, 2004, 1060쪽.

한편 인천양조장 자리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건물 일부를 아벨서점의 곽현숙 대표가 인수하였다. 2003년 1월부터 3년간 ‘아벨전시관’을 개관하여 인천 관련 각종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2005년에는 인천 지역 예술단체인 ‘퍼포먼스 반지하’가 청소년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후 활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다가 2007년 초에 지역문화 단체인 ‘스페이스 빔’이 입주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1974년 5월에 정부의 정책으로 심견주조장, 천일양조, 영종양조, 대화양조, 송학양조, 금풍양조, 인천양조, 태안양조, 부천양조, 조일양조, 주안양조 등 인천 지역 소재 11개 양조장이 통합되면서 부평양조장은 제1공장으로, 인천양조장은 제2공장이 되었다. 인천탁주는 합작회사 설립을 마친 다음에 제1대 주주대표로 박영수를 위촉하였다. 현재까지 그 건물이나 터가 보존되고 있는 곳은 동구 창영동의 ‘인천양조장’과 ‘조일양조’ 등 2곳이다.



❖ 1992년 農酒 광고포스터 사진



❖ 農酒 우수포장상품 선정공고 기사(출처: 『경향신문』, 1992년 12월 4일자)

인천탁주는 앞에서 언급한 11개의 양조장이 통합해 운영하는데 인천탁주의 대표는 11개 양조장의 사장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뽑는다. 현재의 정규성 대표는 1997년부터 24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1936년 대화주조 때부터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11개 양조장 중 인천양조는 4대째 가업을 잇고 있고 나머지 9곳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 다양한 막걸리 제품 포장들

(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도록)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2019, 100쪽에서 재인용)

인천탁주는 1990년에 쌀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1992년 8월에 막걸리를 6개월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테트라팩 쌀막걸리 ‘농주(農酒)’를 출시하였다. 같은 해에 약주 ‘향가’를 출시하기도 했다. 인천탁주의 테트라팩은 우리나라 막걸리 용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이를 통해 막걸리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해외 수출까지 도모하였다.

또한 1993년에 미국 LA와 시카고의 국제식품쇼에 출품하고 1994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음료대회 주류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인천을 대표하는 술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그 후 수질이 나빠지면서 1996년에 배다리의 제2공장은 막걸리 생산을 중단했다.

인천탁주는 2001년에 쌀막걸리 ‘청수’와 ‘햇살’을 출시하였고 2005년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하였다. 컴퓨터 제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 제곡기 및 사입실 냉각기, 탱크 등 제조과정의 전반에 걸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인천탁주의 대표 브랜드로 ‘생 소성주’를 만들었다. 2006년 12월에는 ‘쌀 소성주’를 출시하였다.

소성주는 2008년에 GS슈퍼에 입점하였고 2009년에는 막걸리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미니스톱, GS25 등 편의점에도 입점하였다. 이후 병 정렬기 자동화, 쌀 증자용 자동화, 자동화 공기순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품질향상과 소비자 만족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이마트에도 입점하였는데 국내산 쌀로 만든 ‘생 소성주 플러스’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까지 막걸리는 공급구역이 주류제조장 소재의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인천에서 만든 막걸리를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한편으로 다른 지역 막걸리

와 경쟁할 필요도 없는 나름의 보호조치라 할 수도 있었다. 경쟁이 없으니 품질도, 위생도 신경을 덜 쓰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쉬웠다.

하지만 2001년 1월부터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서울 지역 막걸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방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경기도 포천 지역 막걸리가 시장을 장악하며 인천 지역 막걸리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인천탁주는 밀려오는 타 지역 막걸리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 경영과 과감한 혁신을 시작했다. 우선 우물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사용하고 제국기를 교체하는 등 품질 경영에 10년 이상 노력을 기울였다.

2. 소성주의 특징

1990년에 다시 쌀막걸리 제조가 시작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 쌀막걸리인 ‘소성주’가 출시되었는데 첫날 750ml들이 4만 5,000병을 출고하였다. 살균을 하지 않는 생막걸리인 ‘소성주’는 효모를 96시간 증식·배양하고 4~6일이 경과한 뒤 제조한다. 막걸리는 적정한 온도와 숙성기간에 의해 맛이 좌우되는데, 소성주는 최적의 조건에서 발효시켜 생효모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술이다.

인천탁주가 국내 탁주업계 최초로 쌀막걸리를 선보일 때에는 국내 대부분의 양조장은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쌀을 막걸리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양조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내 탁주업계가 쌀막걸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 것은 1996년을 전후해서 정부가 양조장에 수입쌀 사용을 장려하면서부터이다.

예전에 먹을 쌀도 부족했던 시절에는 쌀을 술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1966년부터 밀가루만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빚었고 시기별로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고 옥분(옥수수가루)을 쓰기도 하였으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서 1977년 12월에 쌀막걸리를 다시 허가하였다. 그러나 술 빚는 방법의 규격화 때문에 옛 맛이 나지 않고 값이 비싸서 1년 만에 사라졌고 다시 밀가루만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빚기도 하였다. 그 후 1990년에 인천탁주에서 전국 최초로 쌀막걸리를 개발·시판하였다.

황토방에서 빚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 방법으로 생산하는 ‘소성주’는 다른 지역에서 나는 막걸리와 달리 달착지근한 맛이 거의 없다. 대신 신맛이 강하며 막걸리의 특성인 감칠맛과 상쾌한 청량미가 잘 어우러진 술이다.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이고 뛰어난 맛 그리고 항암효과가 있다는 정보 덕분에 젊은 층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 보존이 어려워 유통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출시 중인 ‘생 소성주’는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생 소성주’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탄산가스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흔들어서 따는 경우가 많다. 간혹 흔들어서 따다보면 샴페인처럼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탄산가스 때문이다. 그래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페트병 입구의 나선형 홈에 수직으로 홈을 만들어 놓아 탄산가스가 수직형 홈을 통해 빠져나오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페트병을 따기 전에 페트병 몸통을 눌러주면 가스가 빠져나가 흔들어도 술이 솟구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표 3 탁약주 원료 규제 변화 과정⁹

기간	재료 비율
1965. 3. 31. 이전	멥쌀 100%
1965. 3. 31.~	멥쌀 80%, 잡곡 20%
1966. 5. 15.~	멥쌀 20% 이하, 잡곡 60% 이상, 고구마전분 20% 이상
1966. 8. 28.~	밀가루 100%, 멥쌀 사용 전면 금지
1972. 1. 1.~	밀가루 95%, 옥수수가루 5% 이상 사용
1974. 1. 1.~	밀가루 50%, 보리쌀 50% 이상 사용
1974. 6. 1.~	밀가루 70%, 옥수수가루 30% 이상 사용
1975. 1. 1.~	밀가루 60%, 옥수수가루 40% 이상 사용
1975. 11. 1.~	밀가루 70%, 옥수수가루 30% 사용
1977. 1. 1.~	밀가루 70%, 옥수수가루 20% 사용
1977. 12. 1.~	멥쌀 100% 사용
1979. 11. 1.~	밀가루 100% 사용
1990. 12. 31.~	곡류, 전분 함유 물료, 전분당

9 허시명, 『막걸리, 넌 누구냐?』, (주)위즈덤하우스, 2010, 45쪽.

표 4 탁주 첨가물료 변천사¹⁰

기간	첨가물료 허가 품목
1990. 12. 31.~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젯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1998. 12. 31.~	위 품목에 인삼 등 식물 약재 추가
2001. 12. 31.~	위 품목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추가
2003. 12. 30.~	위 품목에 산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과실 추가
2008. 2. 22.~	위 품목에 당분 추가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전통주다.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이 여흥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막걸리를 마셨기에 서민의 술로 불렸다. 하지만 이 자리를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750ml 한 병 출고 가격이 수년째 600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 막걸리의 지역판매 제한이 철폐되면서 인천에는 서울의 장수막걸리, 경기도 양평의 지평막걸리,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막걸리, 충북 진천의 덕산막걸리, 경기도 포천의 일동·이동막걸리를 비롯해 수도권 등 전국의 20여 개 종류의 막걸리가 유통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식물 약재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삼막걸리, 더덕막걸리, 좁쌀막걸리, 검은콩막걸리 등이 나오고 2003년에는 과실 재료가 허용되면서 포도막걸리, 복분자막걸리 등도 등장하였다.

인천탁주는 생산하는 막걸리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성주’와 함께 조만간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막걸리 애주가들의 입맛에 맞도록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보급해 제2의 전성기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탁주는 직원들이 소성주와 인천탁주를 비롯한 술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회사 내에 ‘막걸리 박물관’을 만들기도 했다. 막걸리 박물관을 통해 인천의 탁주 이야기와 막걸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10 허시명, 『막걸리, 넌 누구냐?』, ㈜위즈덤하우스, 2010, 45쪽.

또한 인천탁주는 인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가 먹어도 ‘이 술은 좋은 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천의 명주를 빛는 데 전 임직원이 땀을 흘리고 있다.

3. 인천탁주의 사회공헌 활동

우리나라 막걸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역성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막걸리는 그 지역에서 함께했고 소비의 대부분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막걸리 제조업체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탁주는 지역에서 얻은 수익의 10%는 지역에 환원한다는 기업 신념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부평구청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설, 추석)에 인천시의 8개 군·구청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꾸준히 3억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인천에서 8번째로 ‘나눔명문기업’¹¹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탁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및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해 분기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와 시즌 인천 홈경기 때마다 운영해 마련한 프리마켓 참가비와 기부금, 그리고 인천막걸리 소성주에 구단 선수들 사진이 실린 라벨 광고 수익금, 소성주 판매 수익금 등을 모아 기부하였다. 인천유나이티드와는 광고 후원 계약을 맺고 유나이티드 김종길 감독과 인천 출신의 김남일, 이천수, 설기현 등 주요 선수 11명의 이미지를 실었으며 더불어 홈경기 일정도 삽입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인천 관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연평도 주민돕기, 그림구매 기부, 부평풍물축제 등 지역사회의 축제 및 행사 기부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후원,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후원,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인천광역시지사 240호점) 나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사회복지 지원 및 다양한 기부 활

11 나눔명문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열매’ 기부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이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나눔명문기업’이 된다.

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인천탁주는 2020년 11월에 후원금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인천 지역 사회복지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권익 향상을 위해 '제1회 소성사회복지상'을 제정·시상했다. 시상 부문은 대상과 본상, 청년상 등 3개 부문이다.

인천탁주는 인천과 함께한 오랜 세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인정받아 2014년에 '사랑의 열매' 대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분야 금상), 2015년 제1회 행복나눔상(보건복지부)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인천탁주 나눔명문기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패



❖ 인천탁주 희망풍차(대한적십자사) 명패

| 제3절 | 동서식품(주)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는 동서식품(주)(대표이사 : 이광복,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별로 55)는 1968년 5월에 미국의 제너럴 푸즈(현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사와 합작하여 설립되어 선진국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커피산업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동서식품은 다양한 계열의 커피 제품들과 커피크리머, 녹차, 곡물차, 시리얼, 벌꿀, 치즈, 비스킷 등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들로 우리나라 식품문화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동서식품 부평공장 전경(출처 : 동서식품)

동서식품이 제공하는 커피 브랜드인 맥스웰하우스·맥심·카누, 시리얼 브랜드인 포스트, 과자 브랜드인 나비스코·오레오·리츠 등은 세대를 이어 사랑받고 있다.

1. 동서식품의 역사

동서식품 부평공장은 1970년 3월에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현 부평국가산업단지)에 제1공장을 착공하고 8월에 준공되었다. 레귤러 그라인드 커피 제조설비를 갖추고 1970년 12월 10일에 국내 최초로 분말화된 입자의 커피 ‘맥스웰하우스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했다.

1974년 12월에는 커피크림 ‘프리마’를 발매하였고 1975년 12월에는 동서식품 최초로 호주에 인스턴트커피 50톤(30만 달러)을 수출하였다. 1976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시판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직원 복지를 위해 인천 효성동에 사원아파트를 건립하기도 했

다. 1982년 부평공장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크리머 공장을 준공하였고 ‘프리마’가 미국 FDA 공인인증을 획득하였다. 1983년 8월에는 부평에 ‘포스트’ 제3공장을 준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개발에 주력하였다. 한편 1986년 2월에 경남 창원공장을, 1987년 12월에 충북 진천공장을 준공하는 등 생산능력을 증강시켰다.

2002년 6월에는 부평공장이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 7월에 ISO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4년 1월에 해썬(HACCP)¹²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획득 등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시스템화 작업을 이루어냈고, 2008년 7월에는 뉴 맥심 플랜트를 준공하는 등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도 했다.

동서식품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2년 4월 동남아에 프리마를 수출하였고, 이어서 맥스웰 그래놀(1983. 11.), 맥심커피, 커피믹스(1983. 12.)를, 일본에 포스트 벌크(1985. 9.), 중국에 커피믹스(1985. 10.), 호주에 인스턴트커피(1986. 6.), 태국에 커피와 프리마(1986. 7.), 일본에 프리마와 포스트(1986. 11.), 미국에 맥심커피(1986. 12.), 일본에 분무건조 커피(1987. 1.),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탄산 캔커피(1987. 11.), 유럽에 맥심커피(1992. 12., 1998. 2.), 일본에 프리마(2011. 2.)를 수출하는 등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양주 등 전 세계에 걸쳐 수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17년 무역의 날에는 7,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2. 주요 생산제품

동서식품은 50여 년 동안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높은 품질을 통해 국내 커피시장을 선도해 왔고, 소비생활 패턴의 빠른 변화와 글로벌화한 경쟁 속에서 최고의 제

¹² 해썬(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995년 12월에 도입한 제도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 WHO, FAO 등에서도 HACCP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품으로 커피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 안전한 식품

동서식품은 생산하는 전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을 통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생산하는 전 제품에 HACCP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국내에 HACCP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1995년부터 전 제품에 대해 HACCP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안전의 기본 토대를 쌓았다. 2003년에는 맥심 솔로블 커피, 프리마 일부 제품에 대하여 HACCP 지정을 획득하였다. 커피와 프리마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제품이 아니지만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식품안전에 최고의 관리 수준을 추구하는 동서식품의 의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서식품 전 제품에 이물질 혼입 제로화를 목표로 증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두의 입고에서부터 커피추출, 진공건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설비로는 고주파 금속검출기, X-ray 이물(異物)검출기, 색채선별기 등 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 동서식품 공정설비(출처 : 동서식품)

2) 제품 품질관리

동서식품은 생산제품의 품질 및 제품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상품기획, 개발, 구매 단계에서부터 제조, 물류, 영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품질 및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품질 및 HACCP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품질 감사, 프로세스 감사, 실험실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위해물질 분석 및 관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유통제품의 품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평공장은 2020년에 주요 커피제품들의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해 생산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공정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올리고 최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 전 과정을 자동제어하는데, 무인 자동 품질검사 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생산 데이터 수집, 출고, 유통까지 생산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서식품은 협력업체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원료공급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업체, 외주업체 등 제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동서식품의 협력업체 관리기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약 300개 항목의 품질 및 식품안전 평가기준은 단순 품질시스템, 위생관리, 식품안전에 대한 기술 부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력업체 품질관리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글로벌 식품업체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 관련 특수상황 관리를 위해 특수상황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 위해정보 등 식품안전 이슈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는 물론이고 사전에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해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주요 생산제품

동서식품의 생산제품은 크게 커피류(커피, 커피믹스, 인스턴트 원두커피, 원두(분쇄)커피, 커피음료, 타시모, 스타벅스, 커피크리머)와 스낵류(포스트, 비스킷, 치즈), 차(茶)류(타라, 녹차, 핫초코, 아이스티, 벌꿀) 등 다양한 음료제품 및 음료 관련 제품들이다.

(1) 커피류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커피류는 브랜드별로 매우 다양하다. 맥심(Maxim)에는 1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맥심 아라비카100, 맥심 카페 모카라떼,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등이 있다.



❖ 동서식품제조 커피용기 및 관련 제품들(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동서식품의 생산제품(맥심 카누 라떼 8종)(출처 :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Maxwell House)에는 오리지널 커피믹스, 콜롬비아나 스위트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오리지널 골드, 원두분쇄커피 아메리카노·헤이즐넛향 등이 있으며, 맥심 카누(Maxim KANU)에는 마일드로스트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라떼, 카누 라떼, 시그니처 다크로스트, 아이스블렌드 아메리카노 등이 있다.

맥심티오피(Maxim T.O.P)에는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스터라떼,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블랙,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일드 에스프레소라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원두분쇄커피와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의 원두커피와 상품명 ‘타시모’인 캡슐형 커피 및 커피머신, 스타벅스 커피, 커피크리머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스낵류, 차(茶)류 등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스낵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 시리얼과 그래놀라 그리고 쿠키인 오레오와 치즈크래커가 있다. 차류에는 홍차, 녹차, 얼그레이차, 보리차, 옥수수차, 동굴레차, 메밀차, 결명자차, 구기자차, 캐모마일, 아이스티가 있으며 핫초코, 초콜릿 맛 우유, 벌꿀 등을 판매하고 있다.

3. 사회공헌 활동

동서식품은 장학회, 도서관 지원, 문학상 시상, 클래식 공연, 바둑대회, 문화자산 후원과 부평공장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 활동으로 부평 토굴 환경정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1)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은 국내의 권위 있는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 국내 여성 문학인의 등용문이다. 2020년이 15회째로 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등 4개 분야에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맥심상으로 나눠 시상하는데, 2020년에는 대상 1,000만 원 등 총 상금 7,900만 원, 총 수상자 484명을 시상하였다.

1973년에 ‘주부에세이’로 시작해 1989년에 ‘동서커피문학상’으로 제정되어, 2014년 제12회부터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년에 한 번씩 30여 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제14회까지 총 1만 9,017편의 작품이 응모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신인 문학상으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동서문학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 2020년 부평공장의 불우이웃돕기(출처 :동서식품)

회원 간의 생활체험과 문화적 정서를 함께 나누는 문학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까지 회원들이 동서문학회를 디딤돌 삼아 문단에 진출하여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 바둑대회 -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국내 바둑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이다. 국내 프로 바둑 9 단들만 참여하여 ‘입신(入神) 중의 입신’을 가리는 대회로 각종 세계대회와 국내대회 본선에서 성적이 좋은 32명을 초청하여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한다.

2000년에 프로기사 9단 18명이 출전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 제2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최규병, 유창혁, 이세돌, 조한승 등 우수한 역대 우승자를 배출했다.

3) 클래식 공연 - 동서커피클래식

2008년 11월에 호암 아트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로 시작한 ‘동서커피클래식’은 매년 가을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 커피향의 클래식 선율을 전하고 있다. 2019년 제12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2011년 10월 12일에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 바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현악기, 관악기 등의 다양한 협연과 성악, 국악 등이 어우러진 음악회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4) 동서식품 장학회

‘동서식품 장학회’는 1993년 12월에 동서식품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재능을 지닌 성실한 학생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102억 원



❖ 2019년 부평공장의 부평 토굴 환경정화 봉사 활동(출처 : 동서식품)

의 기본재산(2020년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 동서식품 장학회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기성회비 등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는 총 2,513명으로 대학생 276명, 고등학생 2,142명, 중학생 95명이며, 지급액은 4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5) 문화자산 후원 - 맥심 사랑의 향기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자산을 후원하여 사회 전반에 문화·인생의 향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 시작된 ‘맥심 사랑의 향기’는 제1회 부산 소년의 관현악단 ‘알로이시오’의 후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2회를 후원하였다. 주요 후원 내용은 음악회 개최, 오케스트라를 위한 악기 및 단복 지원, 악기연주법 지도·특강 등 재능기부, 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6)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에게 도서를 기증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활동은 ‘꿈의 도서관’을 통한 도서 기증뿐만 아니라 낡은 도서관 시설과 교육기자재 교체 등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동서식품 부평공장 인근의 부평초등학교를 지원하였는데 2,000여 권의 도서 기증과 도서관 시설, 교육기자재 교체 등 총 3,500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기도 했다.

제4절 | 부평을 떠난 기업 : 삼익악기, 로얄앤컴퍼니

1. (주)삼익악기

(주)삼익악기(대표이사 : 이형국)는 1973년부터 2011년까지 부평 지역에 소재했던 국내 최대의 악기종합 전문 생산업체이며, 세계 최대의 피아노 수출회사이다.

1958년 9월에 ‘삼익피아노사’로 창립하여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를 생산하고 있다. 1973년 6월에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현 부평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여 부평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해 왔다. 2011년 6월에 충북 음성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까지 업라이트·그랜드·디지털 피아노, 기타, 전자악기 등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삼익악기는 국내 최초로 1971년 피아노 KS 표시 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1983년에는 독일 클라우스 웨너(Klaus Fenner) 피아노 연구소와 기술제휴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5년에 세계적인 음악 잡지인 프랑스 ‘디아파종’에서 실시한 ‘세계 피아노 품질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1989년 무역의 날에 1억불 탑을 수상하였으며 1990년에는 디지털 피아노 UL 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피아노 업계 최초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기관인 독일의 TUV로부터 1995년 2월에 ‘ISO9002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1998년 2월에 ‘ISO9001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삼익악기는 국제화에 발맞춰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등 3곳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법인은 목재가공공장, 자재공장, 합판공장, 건조설비 등을 갖추고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기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법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피아노 시장인 중국에서 명품 피아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독일 법인은 피아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삼익악기의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다.

2002년 12월에 독일의 세계적 피아노 제조업체인 벅스타인을 인수하면서 세계 5위 권 피아노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급 브랜드 중심의 해외 정통 피아노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1998년에는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법정관리를 받기도 했으나 2002년에 M&A 및 법

정관리를 종료하였으며, 이후 도약기를 맞아 해외기업을 인수하고 아티스트 피아노 시리즈(피아니스트 서혜경·디토·이루마 피아노)를 출시하는 등 세계 최고의 악기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 삼익악기는 부평공장을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하면서 부평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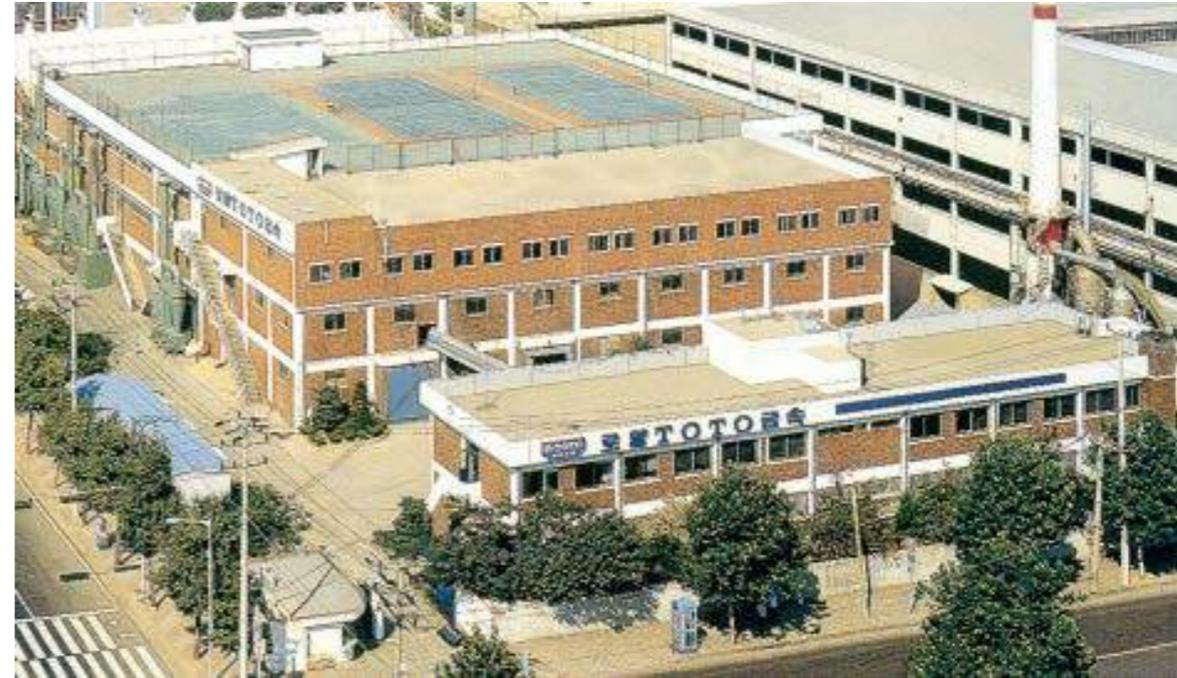
2. 로얄앤컴퍼니(주) : 옛 로얄TOTO금속(주)

수전금구 생산업체인 로얄앤컴퍼니(주)(대표이사 : 박종욱)는 1970년 12월에 '로얄금속기업사'로 창업하였다. 인천 부평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4년 1월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현 부평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부터이다.

1976년에는 로얄금속(주)로 회사명을 개편하고 일본의 욕실용품 전문업체인 동도기기(TOTO)와 합작을 하여 다양한 제품을 내놓았고, 1980년에는 로얄TOTO금속(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 1970년대 로얄앤컴퍼니 부평공장 전경(출처 : 로얄앤컴퍼니)



❖ 1998년 로얄앤컴퍼니 회사 전경(출처 : 로얄앤컴퍼니)

1983년에 국내 최초로 냉·온수를 섞어 자유롭게 온도와 수량을 조절하는 싱글레버수전, 손을 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자동수전, 소변기용 인체감지센서를, 1985년에는 젖은 손을 바람으로 말리는 에어 타월도 시판했다.

2004년에는 로얄TOTO(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2005년부터 욕실용 도기사업 분야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2008년에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고 물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 샤워기도 시장에 내놓았고,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온도조절 써머스타트 샤워는 현재 국내에서는 로얄앤컴퍼니만이 생산 가능한 제품이다.

2009년 1월에는 오랜 기간 기술제휴를 해 왔던 일본 TOTO와 결별하고 회사명을 로얄앤컴퍼니(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스템 욕실 로얄 컴바스(Royal Commbath : 커뮤니케이션 바스의 의미)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다. 이후 2014년 12월에 부평 본사 및 공장을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동서식품(주), 『동서식품 50년사』, 동서식품(주), 2018.
 부평사편찬위원회, 『富平史』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사)인천문화발전연구원 부설 개항문화연구소, 『(완역본)인천부사』, (주)미래인쇄, 2004.
 인천광역시, 『2018 인천 경제백서』,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안녕하세요, 배다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도록)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 이음, 섞임, 그리고 삶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땅 인천: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9.
 하시명, 『막걸리, 넌 누구냐?』, (주)위즈덤하우스, 2010.

웹사이트

- 동서식품(주) 홈페이지(www.dongsuh.co.kr)
 로얄앤컴퍼니(주) 홈페이지(www.iroyalbath.com)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s://www.icbp.go.kr/>)
 (주)삼익악기 홈페이지(www.samic.co.kr)

기타

- 인천상공회의소, 「한국GM이 인천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도 자료, 인천상공회의소, 2018.3.





제 3 장

역사를 만들어 간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

- 제1절 _ '공도(工都)' 부평의 탄생
- 제2절 _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 제3절 _ 1980년대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
- 제4절 _ 1990년대 지역 노동운동의 변화
- 제5절 _ IMF외환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 노동운동

제3장 역사를 만들어 간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

이재성(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은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 현장에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태동과 성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은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시기 구분을 하면 첫째, 1970년대까지의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둘째,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변화, 셋째, 1990년대 후반기 이후 경제위기와 제도화된 노동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오랜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훌쩍 지났다. 과거 소수에 불과하던 민주화운동 그룹은 한국 사회 내의 진보적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나아가 각 분야에서 주류 집단 내부로 편입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노동운동의 기반 자체가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과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분법적 선악 구도는 너무 단순한 관점이 되었다. 변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인천은 중요한 도시였고, 그중에서도 부평은 인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적 현장이었다. 지역과 사회가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겪으며 나아가듯이 노동운동사도 일직선으로 그려질 수 없다. 노동운동 내부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지역’이라는 조건 하나로 묶어 서술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이라는 생활권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운동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다.

| 제1절 | ‘공도(工都)’ 부평의 탄생

1. 군수산업과 자동차 공장

1899년에 부평역이 개통하면서 부평 지역의 중심지는 북쪽의 계양산 인근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부평 지역 남쪽은 주로 논밭이었는데 조선총독부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부터 기계·금속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부평 지역에도 미쓰비시제강, 동양제강, 부평제강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1939년부터 부평역 가까이에 일본 육군조병창이 조성되면서 기지 안과 주변에 초기 공업화 및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조병창 건설 부지는 100만여 평으로 월간 생산 목표는 소총 2만 정, 경기관총 100정, 중기관총 100정, 총검 2만 정, 군도(軍刀) 1,000개였다. 조병창은 해방 후 주한미 육군군수지원사령부(ASCOM; Army Support Command, 이하 애스컴)로 전환되었다.

1940년에 조선총독부는 ‘경인시가지계획’을 수립하여 경인선의 출발점인 제물포와 종착점인 영등포 사이에 있는 서곶, 부평, 계양에 공업단지와 이를 위한 인구 10만 명 규모의 택지계획안을 만들었다. 이 계획의 기초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1965년에 ‘서울·인천 특정지역 개발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부평 지역 공업단지와 노동자 주거지역 형성의 과정이었다. 1970년대에 인천의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1980년부터 인천 인구증가율은 서울의 수치를 웃돌았고 줄곧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산업화 초기 부평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은 에스컴과 신진자동차 공장이었다. 에스컴은 1973년 6월 30일에 한국 국방부로 넘겨질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면서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군부대에는 일반 노무자, 미장공, 벽돌공, 운전사, 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등과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출납원,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에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 말 부평공단이 형성되기 전까지 에스컴은 부평의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를 지탱하고 있었다. 1965년 당시 부평 인구 중 20%는 농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은 3.8%에 불과했으나 서비스업은 52%에 달했는데 에스컴 주변 상권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에 제일동포 기업가가 일본 닛산자동차와 제휴하여 새나라자동차 공장을 부평에 설립했다. 이 공장은 일본에서 전 부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설립과 운영에 정치인과 군부 세력이 개입되어 권력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생산이 중단된 새나라자동차 공장은 1965년에 신진자동차로 합병되었다가 도요타자동차로부터 차관을 빌려 부평에 50만 평 규모의 자동차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1968년 초에 연간 1만 5,000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1972년 도요타자동차가 철수하자 신진자동차는 미국 GM사와 합작하면서 GM코리아가 되었다. 1976년에 경영 부실의 위기를 맞은 GM코리아는 산업은행으로 지분이 넘어갔다가 새한자동차가 되었다. 1978년에 (주)대우는 새한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 50%를 인수하고 1979년에 GM이 가지고 있던 경영권을 가져왔다. 새한자동차는 1983년에 대우자동차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한편 대우자동차의 지분은 대우와 GM이 각각 50%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1992년에 김우중 회장은 GM과 결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세계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부실을 키웠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지만 경영은 더욱 악화되어 2001년에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우자동차는 해외 매각이 추진되어 다시 GM이 인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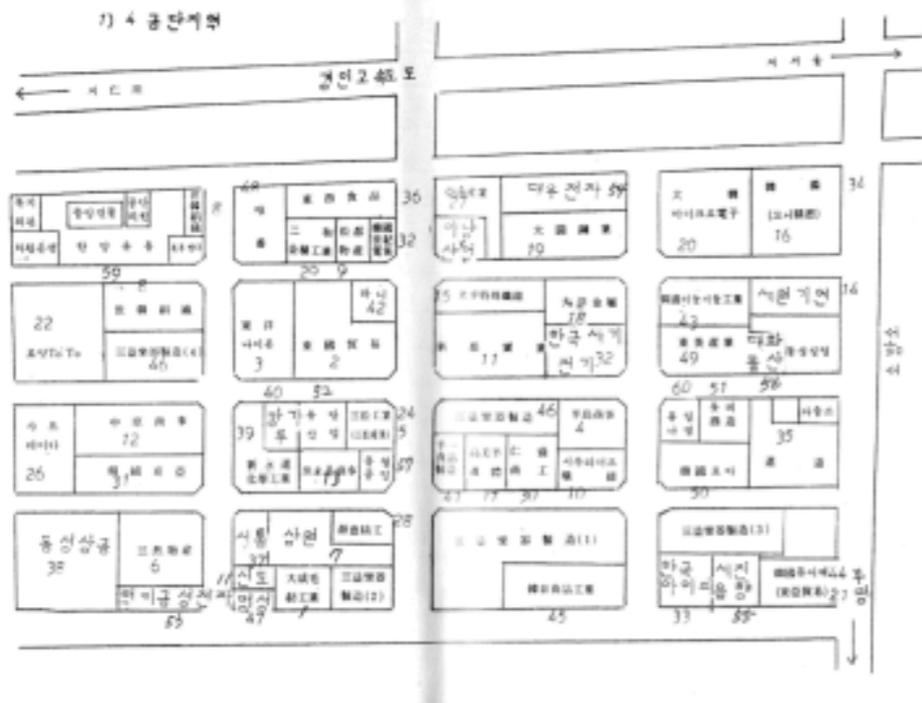
2. 부평공단의 변천

1964년에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이 제정되었고, 1965년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먼저 서울에 구로공단(1~3공단)이 조성되었고, 뒤이어 1968년부터는 인천, 부평, 주안 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논밭이던 효성동, 갈산동, 산곡동, 청천동에는 공장들과 함께 노동자 거주지가 만들어졌다. 4공단인 ‘부평국가산업단지’는 1965년에 조성되어 2015년에 ‘부평단지 조성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부평구에 제조업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인 1990년 전후의 부평 산업지역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대우자동차 공장, 부평산업공단과 인근 지역, 그리고 (구)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IC)를 중심으로 계양구 효성동과 작전동까지 넓게 퍼져 있었고, 경인고속도로 북쪽을 따라서 서운동과 부천 오정동의 공업지대로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갔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던 영세 제조업체들부터 구조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2000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부평 지역에는 4공단 부지에 몇 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민간기업과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산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전면적인 재개발 사업이 쉽지 않았다. 2013년 현재 부평공단에서 경영 악화로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비율이 26%로 증가 추세이고, 전체 입주업체의 38%가 소규모 임차업체로서 이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영세 소기업의 비중이 2005년 84%에서 2012년 92%로 증가했다. 2010년대의 부평공단에는 액정필름, 케이스 등 스마트폰의 부품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전기전자업종 하청기업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부평공단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원하였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노동조건 확보와 하청 구조의 개선 등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지역 재생에 대한 논의에서 대체로 노동계는 배제되어 있다. 많은 연구와 정책들이 기업과 지자체, 공단과 정부 관계자들 중심으로 도입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에도 공업단지 내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알선, 고충 상담, 어린이집 운영 등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고용 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이다.



❖ 1980년대 초반 부평공단(출처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인천지역 제조업 실태 조사 자료집」, 1983)



❖ 1980년대 초반 부평공단 주변 지역(출처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인천지역 제조업 실태 조사 자료집」, 1983)

| 제2절 |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1. 1950~1960년대 노동운동

인천 지역의 미군 부대에는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었다. 1951년 4월에 미 군수 보급품의 입출고 작업을 담당하던 검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1953년 7월에는 전국미군종업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인천에도 1957년 6월에 인천지구 미군 자유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여기에는 주로 부평의 55보급창 44공병대, 37공병대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1959년 3월에는 부평 에스컴 노동자들이 독립하여 노조를 결성했다. 1960년 4·19혁명과 제2공화국, 그리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에 노동운동은 강하게 억압되었다. 짧은 민주화시

기에 인천에서도 부두 노동자, 교사, 금융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이 이어졌으나 1960년대까지 주된 노동운동은 '동인천'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부평에서는 미군부대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쟁의가 벌어졌다. 1963년 8월에는 박정희 정권의 '4대 의혹 사건' 중 하나였던 새나라자동차가 조업 1년이 채 안 되어 자금난으로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해고 소송과 투쟁이 벌어졌다. 당시 노동자 262명 중 198명에게 해고 통지가 갔고 전국금속노조 새나라공장 분회는 투쟁을 벌였다. 점차 부평 지역 산업화가 진척되고 종교계의 활동도 부평으로 확장되어 많은 노동운동가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인천 지역 가톨릭의 노동사목과 개신교의 산업선교 활동은 기업인과 노조 지도자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갈등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조차 조합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잘못된 현장 문화를 파악한 산업선교 담당자들은 1969년부터 철저한 평조합원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래로부터의' 노조 민주화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 1970년대 부평 지역 노동운동

1960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국베어링 부평공장에 입사한 황영환은 70년 대 부평 지역 노동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노동조합과 산업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황영환은 1970년에 평화시장 전태일의 부고를 접하고 동료들과 조의금 모금을 하였으나 노조 지부장이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점차 민주노조운동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에 회사는 '작업 중 졸음'을 이유로 모범노동자 표창까지 받았던 황영환에게 사직을 종용하였고, 1972년 3월에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해고로 이어졌다. 유니온숍 제도를 악용한 노조 활동가 해고는 이후 1974년에 부평공단 삼원섬유 유동우 지부장 해고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황영환은 곧바로 복직 투쟁을 시작했고 이는 1978년까지 지속됐다. 인천 지역 최초로 '해고노동자 투쟁'을 벌이게 된 그는 동일방직 노조 등 지역 민주노조 투쟁을 도우면서 산업선교회 실무자가 되어 이후 평생을 노동운동가로 살았다.

1974년에 발표된 부평공단 내 10개 공장의 92명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따

르면, 연령은 18세 이하가 13%, 18~19세가 31.5%이며, 20~21세가 27.2%로 나타났다. 하루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29.4%였는데 작업 중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4.4%에 달했다. 한편 부평공단 내 삼원섬유에는 약 4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낮은 편직부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10시간 노동에 보통 일당은 200~300원이었다. 따라서 생활을 위해 24시간 철야 노동을 감수하기도 했다. 공단 내의 또 다른 의류업체인 반도상사의 여성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휴일에는 무급이었으며 노조 결성 전 미싱사의 일당은 160원 정도였다. 생활을 위해 야근과 철야를 해야 했지만 그나마 대기업인 반도상사는 상대적으로 수당이 높고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평 지역에서는 선망의 공장이었다. 그렇지만 반도상사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생산직 차별과 '검신(檢身)'과 폭언 등 노동 천시의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노동 현실 속에서 한국노총과 산별노조는 일반 노동자들의 절박한 고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해 강제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한 이후 한국노총은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1972년 유신 헌법 국민투표 전에는 '10월 유신 중앙계몽 유세반'을 구성하여 전국의 지부와 분회를 순방하도록 했고, 1973년에는 '유신과업의 적극 추진과 조직체제 및 운영의 유신적 개혁' 등을 다짐하는 10대 활동 목표를 제시했다.

1) 신진자동차 노동조합 결성

폐업한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한 신진자동차는 정부의 특혜 속에서 국내 유일의 종합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성장했다.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1967년과 1969년에 노조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었다. 그런 흐름이 이어져 1971년 5월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신진자동차 분회가 결성됐다. 이 과정에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지원이 있었다. 회사는 별도의 어용노조(금속노조 부평공장지부)를 만드는 등 방해 공작을 펴서 두 노조가 경합하다가 통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회사 측이 지지하는 인물이 지부장이 되었다.

1971년 8월 16일에 회사는 작업량 감소를 이유로 노조 대의원 13명과 조합원 208명을 일시에 해고하였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회사에 협조적인 지부장을 따돌리고, 집단해

고 반대 및 초대 분회장 김창수의 복직을 주장하는 파업을 조직하였다. 약 800명의 노동자들이 부평공장 2층 옥상에 집결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다음 날에는 노동자 가족 1,000여 명이 공장 정문에 모여 ‘아빠의 실직은 가정의 비극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농성 노동자의 가족들과 산업선교회가 밥을 해 나르며 노동자들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파업 투쟁은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틀간의 파업으로 300% 해고수당과 부분적 복직을 얻어 내었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이끌며 1973년에 지부장이 된 이진엽과 사무장 이성균은 각각 고려대 법대와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신진자동차에 입사했던 사람이었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되어야 했기에 이들이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성균은 이후 지부장이 되었고, 1983년 5월까지 유지된 이성균 지부장 체제는 도시산업선교회와 거리를 두었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개혁성향의 노조였다. 하지만 조합원 중심의 노조는 아니었고 집행부 상층 간부들이 주도하는 노조였다. 1978년 11월에 신진자동차 3개의 지역 공장의 노조들이 통합되었고 1983년 1월에 ‘전국금속연맹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으로 전환했다.

2) 부평공단의 첫 노동조합, 삼원섬유 노조

삼원섬유 노조는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부평공단) 내에서 결성된 부평공단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1970년에 문을 연 삼원섬유는 스웨터를 짜는 일본인 투자기업으로서 노동자 약 450여 명의 규모였고, 1972년부터는 제2공장을 짓고 있었다. 입사 후 도시산업선교회를 알게 된 유동우(본명 유해우)가 1973년에 소모임 ‘동력회’와 ‘폭포회’를 만들어 「노동법」을 학습하면서 본격적인 노조 결성 과정이 시작됐다. 소모임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1973년 12월 1일에 6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12월 12일에 산곡동 감리교회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조 결성 후 소모임은 ‘열매’, ‘조약돌’, ‘기적’, ‘샘’ 등으로 다양하게 증가했다. 이 중 일부는 타 공장 노동자들과 지역 차원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노조 결성 때부터 삼원노조 본조의 일부 간부들도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1974년 3월 25일에는 부평공단 5개의 스웨터 공장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간의 임금 협상이 벌어졌을 만큼

노동자들의 힘이 커지기도 했다. 삼원섬유 노동조합은 황영환(한국베어링 해고자), 김지선(삼원섬유 사무장 출신) 등 지역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섬유 노조 경기지부와 회사와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1974년 8월에 유동우 위원장은 제명당했다. 1972년 한국베어링 황영환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니온숍 제도 안에서 노조의 조합원 제명은 곧바로 회사의 해고 사유로 악용되었다.

삼원섬유 노조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초기 노조 결성을 함께하던 노동자 중 일부는 회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 반노조 세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해고 노동자로서 유동우는 복직 투쟁을 벌이다 구속되어 32일간 구금되기도 하였지만 복직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삼원섬유 노동자들은 노조를 재정비하여 활동하려 했으나, 회사가 1976년에 자본철수를 결정해 버렸다. 유동우에게는 부평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그는 다른 공장의 노조 결성을 돕기도 하고,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와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에서 교육을 받으며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3) 반도상사 노조 사례

반도상사 부평공장은 1969년도에 설립되어 주로 가발을 제작하다가 가발산업이 쇠퇴하면서 1973년 이후로는 의류(청바지) 생산 공장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에 들어 2,000여 명에 달하던 반도상사는 1974년 즈음에는 약 1,400여 명이 일하고 있었고 80% 정도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사무직과의 차별, 그리고 퇴근 시 검신을 하는 것 등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1973년 12월부터 도시산업선교회의 ‘부평 지역 여성지도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한순임은 약 26명의 노동자를 모아 노조를 조직했다. 이들은 산선 실무자인 최영희, 황영환 등에게서 회의 진행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3권 등을 교육받기 시작했다. 1974년 2월에는 검신을 빨리 받기 위해 새치기를 한 노동자를 경비원이 몽둥이로 구타하여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1974년 2월 폭력사건 이후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임금 인상, 폭력 사원 처벌, 강제 잔업 철폐 등 6개의 요구 사항을 내걸고 2월 26일에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당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참여하였다. 14시간 만에 회사 측

과 합의를 작성하고 농성을 풀었으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기 않았고 이에 저항하여 3월 5일에 벌어진 두 번째 농성에서는 전경이 동원되어 노동자를 연행해 갔다. 이후 한순임, 장현자, 옥관점, 김복순 등은 다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도시산업선교회와의 관계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사흘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노조 결성에 비협조적이던 섬유노조 본조를 잘 활용하면서 1974년 4월 15일에 노동조합(섬유노조 반도상사 지부)을 결성하였다. 한순임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지부장이 되었다. 삼원섬유 노조 결성 이후 4공단 내에서의 두 번째 민주노조가 탄생한 것이었다. 민주노조는 회사 측의 강한 방해 공작과 부당 노동행위 속에서도 37% 임금 인상, 기숙사·식당 시설 개선, 사감 처벌, 퇴직금제 확립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갔다.

반도상사 노조는 1980년 4월부터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했다. 5월 18일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8월 2일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장현자(당시 노조 지도위원), 조금분 지부장, 김분겸 부지부장 등을 연행하여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11월 17일에 지부장과 지도위원은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또다시 연행되어 ‘반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라며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했다. 12월 3일에는 다른 간부 2명이, 11일에는 7명이 연행되어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동일한 조사를 받았다.

동시에 섬유노조는 반도상사 지부를 ‘정화’ 조치하였다. 회사에는 경찰관 5명이 상주를 하며 노동조합을 감시하였고 사측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 탈퇴 및 퇴사를 유도하여 1980년 말에 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공장 안에 노조원이 겨우 3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굳게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고 노동조합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 회사는 1981년 2월에 휴업을 공고했고, 3월 13일에 남은 조합원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해산 총회를 개최하였다.

1. 본격적 노학연대의 시작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운동은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남성 노동자들이 많은 중공업 등의 제조업체들은 노동 통제 역시 강했고 기존 한국노총 어용 지도부에 의한 현장 장악력도 강했기에 새로운 민주적 노동운동이 전개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 1970년대에 민주노조 활동을 했던 노동운동가들은 독재 정권과 한국노총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이들은 1985년 2월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노협)를 창립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했다. 인천과 부천 지역을 포괄하는 활동을 전개한 인천노협에는 선배 노동운동가와 더불어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1985년 4월 10일에 부평1동성당에서 한국노협과 인천노협이 공동으로 ‘노동운동 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자, 성당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해고노동자 21명은 농성을 시작했다. 성당 밖의 사람들은 부평역과 부평시장로터리 등에서 부당해고 중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평3동 성당에 사무실을 둔 인천노협은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천주교, 개신교, 야학,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하 인사연) 등 지역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1985년에 대우자동차 파업 농성 때에 인천노협은 파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으로 대거 유입된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보다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면서 인천노협 지도부 중 다수가 1986년 2월에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 결성으로 빠져나가면서 약화되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수도권 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존재 이전’을 시도했고 이는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된 노학연대 흐름이 급진화·활성화된 것이었다. ‘존재 이전’이란 학생의 신분에서 학생운동을 하거나 졸업 이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민중과 연대한다는 방향에서 전환하여, 아예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의 일원이 되어 민중운동을 한다는 결단을 의미했다. 당시 학생운동권이 존재 이전을 실천한 데에는 군부독재 퇴진이라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문

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이 직접적인 저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들의 실천은 단단했던 기존 대공장의 노동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조직과 논리를 갖춘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보통의 노동자들 중에서도 많은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한 노동자로서 코리아스파이서의 박남수가 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1년에 제대하여 안양, 영등포, 군포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1975년에 친구와 함께 부평 코리아스파이서에 입사하였다. 1980년 5월 1일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산별노조 체제를 기업별노조 체제로 재편한 이후, 박남수는 노조 부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1982년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임금 동결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려는 노조 위원장에 반대하다가 이후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로는 승산이 없던 해고 무효 소송을 시작했고 승소하여 9년 만에 복직을 하였다. 오랜 법정투쟁의 경험으로 「노동법」 상담을 하고 산업재해 단체 임원도 역임했다.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흐름 속에서 부평구위원을 역임했고,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도 주도했다.

다른 한편, 인천에서 택시업종의 노조 결성은 1985년부터 이어졌고 1986년 말에는 인천의 61개 택시회사 가운데 약 2/3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택시노조운동에서도 다양한 학생 출신 노동자들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송영길이었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을 함께하던 노회찬이 송영길에게 운수노동운동 일을 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는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이하 민교연)에서 운수노동상담실을 열고 『인천운수노보』를 발행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인천 경기교통 노조 조합장 활동 중에 해고를 당한 김장수가 단식 농성 중에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동자들은 더욱 단결했다.



❖ 1970~1980년대 노동운동가들. 사진 속에는 박남수, 이충각, 최순영, 김문수 등이 있다(출처: 박남수, 『전시도록』인천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333쪽)

1) 대한마이크로 노조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

부평공단 내에 위치한 대한마이크로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이 인근 공장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자들은 부평노동사목, 한국노총 금속연맹 등의 도움과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과의 연계 속에서 1983년부터 노동조합을 준비해 나갔다. 1984년 4월 17일에 결성된 대한마이크로 노조는 1970년대 민주노조가 모두 파괴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등장한 민주노조였고, 6~7월에 등장한 서울 구로공단 가리봉전자, 대우어패럴 노조 등 신규 민주노조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보다 강력한 노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3교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노동자들의 통근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자 노조는 기존 근무시간을 고수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사갈등은 1985년 6월 말에 서울 구로공단에서 전개된 ‘구로동맹파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회사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가하고 정문을 폐쇄한 후, 남성 직원들을 시켜 폭력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집회를 무산시켰다. 구로공단에서처럼 노조가 와해될 것을 예감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1985년 7월 8일에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을 감행하였다. 이는 구로공단을

포함하여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과 이에 굴복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한국 노총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은 71명에 달했다. 점거 농성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원들은 부평공단 공장 앞에서 출근 투쟁을 전개했다.

농성 9일 만에 노총 위원장과 대한마이크로 최만립 사장 등이 합의를 하여 농성이 풀렸지만 징계 무효, 임금 인상, 보복 조치 중단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농성자들은 부평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위원장 등 간부 4명은 구속되었다. 농성 참가자 등 150여 명은 강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회사 지하실에 감금되어 폭력과 협박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로써 노조의 활동도 중단되었으나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또다시 민주노조가 결성되었다.



❖ 대한마이크로 대한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출처 : 대한마이크로 1기 노조 모임)

2) 대우자동차 1985년 파업 투쟁

신진자동차는 1972년에 GM코리아로, 1976년에 새한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8년에 대우가 인수하여 1983년 1월에 대우자동차가 되었다. 1971년에 결성된 금속노조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지부라는 명칭도 1972년에 제너럴·모터스코리아자동차 부평공

장지부로, 다시 1977년에 새한자동차 경인지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3년 1월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으로 변경된 상황이었다. 노조 집행부는 노조 창립 멤버인 이성균이 1976년 이후 위원장직을 맡아오다가 1983년부터는 김영만이 위원장이 되어 집행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는 학생 출신 현장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등이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80년과 1983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정기승급,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다. 회사의 노무관리는 매우 권위적이며 임기응변식이어서,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만 개별적으로 들어주며 문제를 무마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집단적 항의 과정 중 일부가 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송경평이 학생 출신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당시 공장에서 학생 출신의 소위 ‘위장취업자’가 발각되면 현장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활동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해 나갔다.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던 군필 복직자들의 처우가 점차 개선되자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하였다.

노조 민주화 그룹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1984년 12월 26일에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가 구성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합성」을 발간하여 회사와 어용 노조의 문제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사항들을 적극 알려 나갔다. 이 회보는 자발적인 모금으로 제작되었고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함께 「노동법」, 타 지역 노동계 소식 등을 다루어 전체 공단 지역의 노동자 및 활동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추위는 공식 노조와 별도로 1985년에 임금 교섭의 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노조 집행부를 압박했다. 리더십을 잃은 김영만 위원장과 집행부는 점차 무력화되어 갔다.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홍영표 대의원이 노조 교섭위원으로 포함되었지만, 회사와 노조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원 1,500명이 조합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위원장에게 파업을 촉구했다. 김영만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선언했다.

1985년 4월 16일부터 대우자동차 노동자 2,000여 명의 농성과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주말에 경찰의 진압이 예상되어 19일 금요일부터는 350명이 본관 기술센터를 점거하여 투쟁을 이어나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직접 농성

장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를 하는 등, 파업 투쟁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김우중 회장은 공식 노조가 아닌 농성 대표자 홍영표 등과 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서는 5.2%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었던 반면 노조 민주화 세력은 한국노총의 최저생계비와 물가인상률,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흑자 규모와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18.7%를 제시하여 교섭이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성장은 고립되고 노동자들은 지쳐갔다. 회사 측은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었다. ‘빨갱이가 개입했다’,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 소문을 그냥 위협으로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농성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는 매우 강했고, 회사는 기술센터 내 중요한 자료들을 지켜야 했다. 또한 김근태, 방용석, 이소선 등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진영과 학생들이 대우자동차와 연대 투쟁을 전개하려는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은 교섭 타결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결국 파업 10일째인 4월 25일 새벽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의 합의안은 18.2%의 임금 인상, 해고자 3인(송경평, 이용선, 박재석)에 대한 복직 불가 및 이후 ‘3자 개입’ 불가, 파업 및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등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대의원 선거에서 22명 중 18명이 ‘민주파’ 대의원으로 교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985년에 파업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큰 피해를 겪기도 했다. 1985년 4월에 대우자동차 파업 투쟁 이후 해고, 구속, 도피 등으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다. 전체적으로 약 300여 명의 활동가들이 부산공장이나 정비사업소 등 부평공장이 아닌 곳으로 전출을 당했다. 현장의 민주세력이 약화되었고, 회사 측의 현장 통제는 매우 강화됐다. 크게 올랐던 임금과 복지도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출처: 노동자역사 한내 역음,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한내, 2015)

2. 부평에서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 전개 과정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에서는 7~9월의 노동자 대투쟁 이전부터 민주화운동과 결합한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1986년에 주안을 중심으로 전개된 인천5·3민주화운동 이후 인천 지역의 급진적 노동운동은 잠시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1987년 1월부터는 보다 대중적인 노동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1월 14일에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씨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인천의 비공개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¹은 ‘살인, 고문, 강간 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활

1 노회찬 등이 이끌던 인천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은 4월경 인천의 다른 정파 그룹들과 연대하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을 추진했다. 인민노련은 1987년 전국적인 6월 항쟁 와중인 6월 27일에 부평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계기로 공개적인 출범 선언을 하였다.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던 인민노련은 1990년대 초 중국 천안문 사태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와 소멸 이후 ‘신노선’을 채택하였다. 인민노련은 여타의 정치조직들과 연합 및 분열을 반복하면서, 점차 제도 내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갔다.

동을 시작했다.

5월 24일에 인천에서는 지역 내 민주화운동 단체 중 7~8개 조직과 지역 총학생회 조직과의 연합으로 '4·13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이하 인천지역공동대위)'를 결성했다. 5월 27일에 전국적 차원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여기서 6월 10일 오후 6시에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6월 9일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이한열이 최루탄 파편에 맞아 증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10일에 국민운동본부가 예정하고 있었던 전국 대도시에서의 범국민대회는 '6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부평공단 지역에서는 다수의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하였다.

10일 오후 6시 인천시 북구 부평동 부평역 앞에서 인천 지역 재야단체와 민주당 합동으로 가지려던 인천지역대회는 경찰의 대회장 봉쇄로 무산됐으나 부평역 인근 경찰 저지선까지 진출한 1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7백여 명의 시위대는 오후 8시 10분쯤 부평경찰서에 30여 개의 돌을 던졌고 시위대가 8시 30분쯤 부평공단으로 진출하자 마침 퇴근하던 공단 근로자 등이 합세, 1천여 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다.²

인천 지역의 오래된 대기업에는 이미 한국노총 산하 노조(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한 역사와 조직력을 갖춘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존재하는 대기업에서는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이 벌어져도 기존 지도부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에 반해 기존 노조가 없던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신규 민주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7년 6월 이전에 인천 지역에는 107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7~8월 이후로 97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져 노조 수는 총 204개로 증가하였다. 신규 노조의 업종별 분포는 금속 49개, 섬유 2개, 운수 16개 등이었다. 또한 7~8월 중 노동쟁의 발생 사업체 수는 확인된 것으로만 155개에 달했다.

2 「"밤들면서 가열... 경찰, 인력달려 진땀"」, 『조선일보』, 1987년 6월 11일자.

표 1 인천 지역 업종별·규모별 노동쟁의 발생 사업체 수

구분	45~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계
음·식료품	1	5	2			8
섬유	2	8	4	2	1	17
목재	1	5	2		3	11
화학	3	12	1	1	1	18
비금속	3	3	1			7
제1차금속	1	5		5	1	12
조립금속	11	46	6	8	7	78
기타		2			2	4
합계	22	86	16	16	15	155

출처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편, 『87 노동자대투쟁: 7, 8월 인천지역 사례』, 풀빛, 1988, 27쪽.

2)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의 신규 노조 결성

(1) 한독금속, 남일금속, 태연물산 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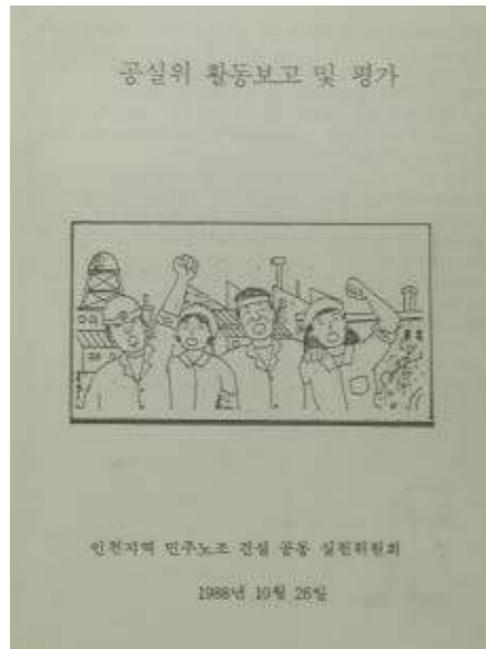
한독금속 노동조합은 1987년에 부평 지역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민주노조였다. 스패너 등 공구를 생산하는 노동자 200여 명 규모의 방위산업체로서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이직률이 50%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1986년에 학생 출신 노동자들이 들어와 간헐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모두 해고를 당했다. 이후 1987년 4월부터 노조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들의 호응이 점차 커지면서 6월 12일에 파업 및 옥상 농성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을 관철시킨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7월 11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조 위원장으로는 황재철이 선출되었고 이후 인노협 초대 의장으로도 추대되었다.

7월 13일에는 남일금속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남일금속은 노동자 600여 명 규모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수출업체였는데, 1985년부터 사내에 '노동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벌여오고 있었다. 1987년 봄에 임금 인상 투쟁을 주도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2명을 포함한 5명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들과 노동위원회 회원들이 복직운동 및 민주노조 결성 투쟁을 전개하여 성공하였다. 8월 19일에 정식 노조 위원장 선거가 직선제로 열려서 위원장에 최승기, 부위원장에 해고자인 최동

식이 선출되었다. 그는 후에 제2대 인노협 의장이 되었다.

7월 말에는 태연물산, 대한마이크로, 신광기업, 서울조구, 대흥기계, 코스모스전자, 금영실업, 흥일산업, 진성전자 등 곳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그러나 신규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공장에서 민주노조 결성 시도가 좌절되었다. 특히 노조 민주화 투쟁은 실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던 대기업에서는 노조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태연물산은 대우자동차 옆,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한 전자완구 업체였다. 1979년에 서울에서 봉제완구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1986년에 업종을 바꾸어 부평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사무직 사원들은 대부분 이전부터 근무한 사람들이었으나, 노동자들은 거의 새로 뽑았고, 규모는 약 150명으로 작은 편이었다. 태연물산은 봉제에서 전자로 업종을 변화한 상태에서 낮은 지역으로 온 상황으로 신규로 노동자를 뽑는 입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운동 출신(학출) 노동자들이 다수 공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약 10여 명이 넘는 학출 노동자가 태연물산 안에 있었다.



❖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자료집(출처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1987년 6월 항쟁 기간에 태연물산 앞 대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대열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공장 내 활동가들은 7월 7일에 3개의 라인에서 총 18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사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서 '휴가 3일, 보너스 6개월 이상 100%, 6개월 이하 3개월 이상 50%, 3개월 이하 3,000원 지급, 근기법 위반 사항 시정, 관리자 욕설과 비인격적 대우 금지' 등의 상당한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노동조합도 없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 투쟁에서 중심이 된 사람들이 노조 결성의 핵심 성원이 되었다. 이들은 노조 결성을 준비하여 7월 26일에 노동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열고, 시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1987년 11월 22일에 신광기업 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공실위) 주최의 인천 지역 '신규 노조 창립 대잔치'에는 69개 노조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이 중 약 15개 노조들이 모여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이하 인노협 준비위)를 발족시켰다.³

3)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노조 민주화 시도

인천 노동자 대투쟁의 마지막 격전지는 대우자동차였다. 1985년 투쟁 이후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고, 1986년 8월에 신차(르망) 생산에 맞춰 새로운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민주노조 세력은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과 7월에 해고자들의 조직인 '대우자동차 부당해고노동자 원직복직추진위원회'(이하 대원추),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인 '대우자동차 민주노조 쟁취위원회' 등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함께 1987년 투쟁을 준비했다. 투쟁 과정에서 (1985년 투쟁 후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 강제 전환배치되었던 인원이 포함) 5급 사무원들이 중심이

3 공실위는 1987년 7월 15일에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 공동추진위원회'로 시작된 지역 노동운동 단체였다.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주간골목집, 민중교육연구소 등이 연대하여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 지원단체로 활발히 활동했다. 여러 정파 조직의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 뒤로 하고 모인 공실위 활동가들은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각 공장 내 민주노조 건설에 크게 기여했고, 다시 신규 노조들을 지역 차원에서 조직화하는 일을 감당했다. 공실위는 동구 화수동 산업선교회, 도화동 인사연 사무실 등을 함께 사용하다가 1988년 3월 5일 심정동 동암역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열었다. 그러나 인노협이 결성되고 조직적 임무를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10월에 해산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된 ‘오동회’도 결성되었다.

민주노조 세력은 8월 10일에 1차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노조 위원장 직선제’와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 ‘부당해고, 부서 이동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휴업과 기숙사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파업은 곧 끝이 났다. 회사는 계속 휴업을 이어갔다.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파업으로 인해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장기 휴업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대오 형성을 막고 있었다. 파업지도부와 대원추는 백마교회를 중심으로 이후 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조업이 재개된 8월 26일에 2차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저녁 6시경 본관 3층 임원실과 기술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성장과 현장 투쟁 관계, 공식 노조와의 협상, 교섭 대표자 선정 등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9월 1일부터 김우중 회장, 송성만 위원장 등과 교섭을 시작하여, 3일에는 ‘조업 재개’와 ‘노조 위원장 직선제’ 실시 여부를 전체 조합원에게 묻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4일 새벽에 폭력적으로 농성 현장을 진압하였고 총 98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이후 9월 25일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선제’를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되어 94%의 지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10월 16일에 진행된 10대 위원장 선거는 민주노조 세력의 분열 속에서 원용복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그는 1985년 투쟁에 참여한 경력은 있었지만 1987년 투쟁과는 관련이 적은 인물이었다. ‘직선 1기’ 위원장이 된 원용복은 곧바로 투쟁 없이 단체교섭 갱신안에 합의함으로써 노조 내 다른 의견 그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3. 199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의 성장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신규 노조 결성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대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1989년 1월 20일에는 인천 지역의 전자업체 노동조합들이 합

계 ‘신년 전자인의 밤’이라는 연대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명성전자, 한국테크레코, 대한마이크로, 아남전기, 아남알렉스, 인일전자, 몬트레스, 진성전자, 대양전기, 협우실업,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이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명성전자 김기자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자업종 민주노조 연대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았다.⁴ 김기자 위원장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 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YMCA 야학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결국 자퇴하고, 목사의 아들이 전해 준 인천 삼원섬유 노동운동을 했던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읽고 공장으로 들어온 노동자였다. 명성전자는 이미 1986년에도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으며, 1987년에는 노조가 생길까봐 엄격하게 노무관리를 했던 곳이었다. 명성전자는 1988년 8월 23일에 민주노조운동이 급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매우 빠르게 인노협의 핵심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한 사례였다. 명성전자는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소형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완성품 제조·수출업체였다. 전체 노동자는 700여 명이었고, 관리자를 제외한 조합 가입 대상인 일반 노동자는 약 450여 명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했다.

민주노조 조직화는 처음부터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조들의 전국 조직인 ‘제 2의 노총’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1988년 2월 29일에 16개 노조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노협 준비위 결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에는 12개 노조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노협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3월 27일에는 ‘인노협 준비위 발족 및 88임투 전진대회’를 열었다. 인천대에서 22개 노조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준비위 발족식에서 황재철(한독금속 노조 위원장)을 초대 인노협 의장으로 추대하였다.

1988년 6월 18일에 인천 효성동성당에서 27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인노협은 부평역, 북인천우체국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얻었다가 1989년 8월에 옛 북구청 옆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1990년에는 동암역 앞으로 이사를 했다. 인노협의 후신인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현재 부평시장 인근에 있을 정도로, 부평 지역은 인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 되어 왔다고

4 『인노협신문』 제10호, 1989년 1월 18일자 『인노협신문』, 제11호, 1989년 2월 1일자 이 대회에는 15개 노조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노동운동 단체의 증가

부평 지역에는 다양한 노동운동 단체들이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부터 활동하던 백마교회(청천동)와 노동사목(새날의 집),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형성된 두렁(민중미술, 산곡동) 등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선 인천노동회관(청천동 사거리), 우리마당(문화패, 옛 북구청 인근), 한국노동연구소(부평시장 사거리), 한권의 책(사회과학 서점, 부평역 앞) 등도 부평 지역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인노협 사무실 이전 안내 광고(좌)(출처: 『인노협신문』 제16호, 1989년 8월 23일자)
 노동단체 중 '우리마당'과 '한국노동연구소' 광고(우)(출처: 『인노협신문』 제4호, 1988년 9월 1일자)

황재철 인노협 준비위 의장이 구속되는 등의 노조 탄압에 공동 대응하고, 「노동법」 개정 등 국가 수준의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단체들의 상설적인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월 25일에 공실위, 인천기독교도 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천가톨릭노동청년회 등 8개의 공개·반공개·비공개 단체들이 인노협을 결성했다. 이어 1988년 6월 7일에는 전국의

노동단체들이 회의를 갖고 전국노운협을 결성했다. 인노협은 사실상 공실위 실무 단위가 하나의 조직으로 확장 또는 확대 개편된 성격이기도 했다. 공실위는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취지대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소임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1년 3개월 만인 10월 26일에 해산식을 열었다. 이후 인노협 사무국의 실무자들은 노동운동단체 활동가들로 상당 부분 충원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15일에 인천 지역 8개의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합법 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소속 3개 단체, 즉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새날상담소, 노동자대학,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진보적 대중정당 결성을 위한 인천 지역 준비모임 조직2국(노동국)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합법적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세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노동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의회에 노동자들의 정치인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제도권 정치인들의 보수대연합(민주자유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진보정당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2) 노동조합의 지역적 연대

1989년 임금 인상 투쟁에서 인노협은 인천 지역을 1~4지구로 구분하였다. 1지구가 주안 지역이었고, 당시 부평 지역(구 북구청 관할)은 2지구(4공단, 부개, 일신), 3지구(작전, 갈산) 그리고 4지구(효성, 청천)였다. 당시 2지구(4공단 지역)에서는 코스모스, 콜트 약기, 대원강업, 명성전자 등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했다. 3지구(작전동, 서운동과 갈산동)에서는 한독금속, 경일화학, 대진정밀, 남일금속 등의 노조가 중심이 되었다. 4지구(효성동과 청천동)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은 대흥기계, 미미양행, 몬트레스, 한국테크레코, 협우, 인일 등이었다.⁵

1989년 11월 12일에 제2회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던 인노협 최동식 의장이 연행·구속됐다. 인노협은 16일에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11월 15일 저녁부터 인천 서운동, 작전동, 효성동 일대에서 '최동식 의장 구출'을 외치며 투쟁이 시작됐다. 지역의

5 『인노협신문』 제12호, 1989년 3월 8일자; 『인노협신문』 제14호, 1989년 5월 18일자; 『임투속보』 제3호, 1989년 4월 6일자.

1.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위기

1990년 한 해에 인천 지역에서는 780여 개 사업장이 휴업·폐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2만 8,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1992년에 인노협과 전국의 중소 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했다. 인노협에 가입했다가 사라진 100여 개 노조들 중에서 40여 개 노조가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탄압으로 와해되거나 탈퇴한 노조가 40여 개에 달했다. 심지어 인노협 의장의 사업장이었던 남일금속도 1992년 말에 부도 처리되었다. 인노협 가입 노조가 가장 많을 때는 1989년 2년차 대의원대회 때였다. 당시 인노협은 82개 노조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6월 현재까지 조합을 탈퇴한 노조들의 사유를 조사해보면, 폐업과 부도가 약 44%, 노조 무력화·해산이 약 16%, 노조 파괴가 14%, 탈퇴가 12%, 공장 이전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도 1989년 하반기부터 영창약기, 인천제철, 대우전자 인천지부, (주)진도 등 대기업 노조의 집행부가 대거 교체됐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대우자동차에서는 1990년 10월에 민주과 집행부가 들어섰다. 이에 인천 지역 대공장노조 대표자들은 모임을 갖고 인천제철 노조 김동교 위원장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인천지역대공장노조연대모임’(대공장연대모임) 구성을 결의한다. 그러나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연대조직이 아니라 위원장 등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결집한 느슨한 연대체였다. 당시 참가 노조는 인천제철, 영창약기, 진도, 대우전자, 한라중공업, 동양철관, 대림통상 노동조합 등 7개 노조였다(소속 조합원 1만 2,000여 명, 1991년 현재). 하지만 1991년 대공장연대모임의 첫 임투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의 ‘교섭권 및 체결권’ 논쟁이 벌어지면서 대공장연대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노조 집행부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인천 지역의 대공장연대모임은 1992년 6월에 해체됐다.

한편 사무금융, 병노련 등 업종별 조직도 ‘업종회의’라는 전국 조직으로 묶여서 민주노조 진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992년 현재 13개 업종에 17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가장 큰 조직이었다. 그러나 제조업 노동자들과의 문화적·실존적 차이 그리고 노동운동 노선

20개 노조 위원장들은 철야 농성을 벌였다. 11월 16일에는 인천의 45개 노조 약 5천여 명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프락치’ 사건이 드러났다. 대흥기계 파업 대장이었고 인노협 파업자위대 제4지구 대장까지 맡았던 변태욱이 스스로 ‘프락치’였음을 양심선언하였다. 그는 여러 회사와 노동청, 치안본부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매수자들과 만나며 여러 노조와 인노협의 정보를 유출했음을 고백했다.

1991년 11월 6일에 인천 부평1동성당에서 약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ILO인천공대위)’가 결성대회 및 가을문화제를 가졌다. ILO인천공대위는 인노협, 노활추, 대공장노조 연대모임, 남동지대위 등 생산직 노조단체와 택시노련, 병원노련, 전교조, 의료보험노조 등 비제조업 노조, 그리고 민중당, 인천노운협, 인대협 등의 단체들이 11월 4일에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결의하여 만들어졌다.

1993년 4월 21일에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인노대 준비위) 체제가 출범하였다. 부평4동성당에서 열린 인노대 준비위 발족식에는 인천 지역 주요 노조 간부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인노대 준비위에는 인노협 가입 20여 개 노조, 전국병원노조 인천지부의 9개 노조(지부), 남동연대회의에 4개 노조, 대공장 및 기타 15개 노조(총 조합원 수 2만 명 이상) 등이 참여하였다. 1994년 10월 29일에는 ‘인노대 발족식 및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1994 인천 노동자 가을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인노협은 1995년 12월 29일에 발전적 해체를 결정하고 공식 해산하였다. 1988년부터 7년간의 역사에서 후반부는 조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대공장 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운동을 비제조업 부문으로 확장시키는 데 인노협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인노협 소속 노동조합들은 1990년 이후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탄압에 대응하면서도, 다른 노조나 연대조직들과의 공동투쟁에 앞장서면서 지역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헌신하였다.

의 차이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도 보이고 있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전국병원노조연맹 인부천지부에 11개 노조 2,0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 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도 있었다. 업종 쪽의 노동조합들은 지역 노동운동보다 상급단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했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출범했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남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그리고 부천시흥지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부천시흥지구에서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천과 가까워서 '인부천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금속, 병원 등 산별연맹들도 인부천지부로 조직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지역본부에 결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인천 병원노조는 1987년 11월에 부평역 남부 지역의 인천성모자애병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2월에는 최초의 업종별 조직인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했다. 1988년에 인천세광병원(대우자동차 앞), 인천안병원 등에서도 노조가 결성되면서 일부는 인노협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한편 인천의료보험 노조는 1989년 5월에 결성되었고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해 나갔다. 1991년 5월에 107일간의 파업 이후 인천의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다가, 해고자들과 현장 내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96년에 조직을 복원하였다.



◆ 인천 ILO공대위(출처: 『공대위소식』 제1호, 1991년 11월 14일자)

2. 1996년 민주노총 인천본부 출범과 지역 연대 투쟁

1995년 10월 10일에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건설을 위한 기획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활동가들은 민주노총을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조직으로 이해했다. 민주노총은 오래된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업종별 공동투쟁으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중앙의 사업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는 지역 조직으로 설정했다. 노조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사안에 대한 독자적 사업내용과 임무를 가질 수 있고,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는 정치적 대응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지역 노동운동은 변화하고 있었다. 1995년 8월 현재 인천 지역의 전체 노동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총 400여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중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노조는 약 200여 개에 불과했다. 전체 조합원 수는 약 13만여 명으로 조합원 조직률은 약 40%, 노조 조직률은 약 11%로,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 중 인노대 가입 및 참관 노조는 39개였고, 조합원 수는 약 1만 6,000명이었다. 인노대의 평균 집회 동원력은 조합원 500~600여 명 수준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건설 조합원 교육이나 기금 납부를 결의한 노조 수는 각 10개에 그쳤다.

1995년 11월 11일에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1996년 1월 31일에는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창립의원대회와 창립기념대회를 차례로 개최함으로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시대가 시작됐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결성된 후 부평공단 내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의 세 번째 민주노조 파괴 시도에 대응하는 지역 연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은 1984년에 결성했다가 1985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 이후 휴면 노조가 됐다. 그 후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 중 두 번째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적극적으로 인노협 활동을 하다가 1990년에 와해되었다.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1993년 6월에 세 번째 민주노조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사측의 집요한 노조 방해 공작으로 조합원 수는 점차 줄어갔다. 제2기 지도부의 김명숙 위원장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운동을 하다가 1995년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1996년 6월에는 김은영 사무국장과 최정진 교육부장이 삭발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20일 동안 지속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천 사회단체가 연대한 ‘대한마이크로 노조탄압 분쇄 및 김명숙 위원장 원직복직 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 인천지역본부 차원에서 처음 벌어지는 지역 연대 투쟁이었다. 최소 100명에서 1,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매일같이 벌어졌다. 집회가 거듭되면서 1996년 7월 5일 현재 106명이 연행되었고 2명이 구속, 8명이 불구속 입건, 22명이 즉결 처분을 받는 등 대결의 양상도 심각해졌다.

1995년 7월 1일에 회사 측과 노동조합은 ‘위원장 복직과 3개월 휴가 및 치료비 지급’, ‘파괴된 노조 사무실 신축’, ‘공개 사과’, ‘민주노총 간부 고소고발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결국 노동조합은 휴면 상태가 되고 말았다.

3. 1996~1997년 총파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 급하게 개정된 「노동법」은 이후 10년 동안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였고, 이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을 해결할 통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전투적인 노사분규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신노사 관계’를 표방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1996년 5월 9일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설치되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참여하였다. 노개위에서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재계는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반대하면서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공익위원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996년 11월 10일에 정부 내에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이하 노개추)가 설치되어, 1996년 12월 3일에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더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노동법」 개정안이 나오고,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1일 제14대 국회 정기회의에 제출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개정안에 대해 항의를 하고 총파업을 경고하였으며, 양 노총 지도부는 항의 시위와 삭발식,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뚫고 12월 26일 새벽 6시에 15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 단 6분 만에 「노동법」과 「안

기부법」을 단독 처리했다. 양 노총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총파업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하지만 1997년 연초부터 한국에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계에서는 1월에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작하여 진로그룹(4월), 대농그룹(5월), 한신공영(6월), 기아그룹(7월) 등이 차례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 여기에는 ‘재벌’ 체제의 전근대성과 ‘정경유착’의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었다.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이 폭락하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노총은 대선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승리21’을 조직했고, 9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의 가진 자들의 나라였지만 앞으로는 땀 흘리는 95%의 국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그토록 노력해 왔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쳐 왔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광범위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노동계는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속 노동자의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더욱 정치세력화에 힘을 쏟았다. 본격적인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노동시장에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에 김영삼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은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나 12월 18일 선거 결과는 약 30만여 표(1.2%)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 결성 운동으로 이어졌고,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는 한국 정치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성장의 흐름은 확연히 꺾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논리가 저변에 자리를 잡았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기존에 부진하던 ‘산별노조 전환’ 시도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기업별노조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1998년 2월 27일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기존의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때 가톨릭대학병원노조(CNC) 등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지역본부에 편재하고 교섭, 투쟁, 정책 활동을 위한 기구를 산별노조 중앙에 설치하였다.

1998년 2월 15일에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출범했다. 규모나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산업적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통합금속연맹은 2006년 11월 23일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또한 경제위기는 공무원들의 정년을 감축시키고 임금을 동결시키는 등 공공 부문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확대되어 공공 부문 노동조합운동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년 3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이하 전공련)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이하 공노준)를 조직했고, 2002년 3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출범했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된 금융 부문의 노동자들도 적극적인 고용 안정 투쟁을 벌였고, IMF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한국통신, 철도, 가스, 지하철, 발전 등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는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 역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다.

제5절 | IMF외환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 노동운동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전부터 본격화된 IMF 체제는 한국의 정치경제를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사실 인천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성장 둔화 추세를 이어왔고, 지역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0년 현재 4.4%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대우자동차와 연관 하청 기업들의 대대적인 해고와 도산 등의 여파가 반영되어 있었다. 1998년에 인천 지역의 생산증가율은 -14%로 전국 평균인 -7.4%의 두 배에 달했다. 다행히 이후 회복과 취업자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천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정위 합의에 의거해 1998년 2월에 「노동법」이 개정됐다. 민주노총은 내부 갈등으로 지도부가 물러났고, 이후 양대 노총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었다. 1996~1997년 총파업의 성과는 완전히 사라졌다. 1998년 4월에 시작된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4,839명의 정리해고 발표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경제위기 시 구조조정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식당 아줌마' 조합원 144명의 정리해고 사건은 2001년 대우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와 2005년 인천성모자애병원에서 유사한 사태로 반복됐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다수가 살기 위해 소수의 '악한 고리'를 쳐 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연대해 왔던 노동자들은 그렇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25일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은구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해 지역본부장으로 선출했다. 1998년부터는 인천, 울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노총 지역 조직에 한국노총 지역 조직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은구 위원장은 산별노조의 시대에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적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지역본부의 위상을 제대로 수립하여 정리해고, 실업,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해고 반대 투쟁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 이후 1999년 8월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가 되고 부평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1999년 8월부터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1998년 2월 15일에 금속 3조직(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한총련)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하였다.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184개 노조 19만 742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금속노조의 초대 위원장에 민주금속연맹 단병호 위원장을 추대하였다.

대우자동차의 비리와 경영 부실로 발생한 위기는 곧 대량 정리해고와 해외 매각 추진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채권단은 부도 협박을 통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했고, 사무직 포함 7,000명에 육박하는 인력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켰다. 또한 워크아웃 이후 잦은 휴무와 휴업, 체불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로 정리해고 통보 이전에 조합원 4,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김대중 정부는 산업발전이라는 차원보다 부실채권 정리라는 차원에서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방향의 정책을 폈다. 사측은 2000년 12월에 3,500명에 대한 의원퇴직(퇴직위로금 없이 통상임금 1개월분을 받고 자진 퇴사하는 것)에 이어 2001년 1월 15일에 1,8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고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그리고 2월 16일에 1,75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1) 2001년 1~3월까지

2001년 1월 11일에 대우자동차 노조는 15개의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자 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분쇄,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한 대우자동차 공동투쟁위원회(이후 대우자동차공투본)’를 출범시켰다. 대우자동차공투본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 김우중에 대해 ‘구속, 도피재산 환수’ 등을 주장하며 서울과 프랑스로 ‘체포결사대’를 보내는 한편, 부평역 광장 집회에서 더 나아가 경인고속도로 점거 농성까지 감행하였다. 2월 말에는 금속산업연맹도 인천대에서 비상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동조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으며, 2월 28일에는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3월에는 민주노총이 인천교대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3,000여 명의 노동자는 부평 대우자동차로 행진을 하다가 가로막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민주노총은 부평 현지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대우자동차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부평역 광장에서 연일 ‘정리해고 분쇄 폭력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신자유주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세계 노동계의 지지를 받았다. 인도노총, 호주금속노조, 독일 MLPD당, 남아공 공공노조, 프랑스노동총동맹, 프랑스금속노조,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등 15개의 노동시민단체는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

았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구조조정의 기초를 밀어붙이려 하였고, ‘부평은 계엄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대중 정권은 인천 모든 지역의 집회를 봉쇄했고, 경찰이 부평역과 계양역 등 전철 역사를 점거하거나, 심지어 산곡동성당에 들어가 성직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전철역을 지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검문하여 2월 21일 하루 동안 40여 명을 연행했다. 이후 매일같이 10명에서 40여 명이 길거리에서 연행되었다.

이러한 노정 갈등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비단 한 지역, 한 공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이 IMF외환위기 이후 계속 수세로 몰리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면 이후 전국적인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민주노총은 3월 7일에 ‘정리해고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파탄내고 3대 개혁 입법을 비롯한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해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조업을 재개하였고 이를 규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서 부평 지역은 전면 통제되었다. 부평역에 전철이 무정차 통과를 하였고, 부평역 광장에는 1,000여 명의 전경이 장악하고 통행을 막았다. 인천교육대학교로 집결한 시위대는 대우자동차로 행진하려 했으나 전경에 막혀 가두투석전을 벌였다.

대우자동차 실사에 참여한 아더 앤더슨의 최종 컨설팅 보고서에서 ‘부평공장 폐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는 3월 26일에 산곡동 신협회관에서 전문가, 국회의원, 노조, 대우대책위 등이 참여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도 ‘30여년에 걸쳐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온 인천 지역은 많은 노하우와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만큼 부평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품협력업체를 대표한 한 노조 지회장은 부품협력업체의 도산과 생존권 문제는 더욱 열악한데도 투쟁이 완성차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아쉬움을 피력하고 대우자동차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2) 2001년 4월 이후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조는 3월 23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교차하며 연일 파업 투쟁을 벌여 주말을 제외한 15일 연속 파업을 기록하였다. 완성차 노조들은 4월 5일에 부분파업을 벌이고 6일부터 12일까지 전면파업의 형태로 연대 투쟁을 전개했다. 6~7일 전면파업에서는 금속산업연맹 소속 235개 노조 간부 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4월 11일에는 경찰의 대대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5,000여 대가 동원됐다. 6일 집회에는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완성차 노조의 연대 파업 투쟁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다.

4월 10일 집회에서는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대우자동차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김일섭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하여 한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를 다쳤다. 다른 조합원 70여 명도 골절과 전신 마비 증상 후유증이 생길 정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날부터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56명에게 오히려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그중 4명은 구속됐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4월 10일 이후 발생한 폭력 진압 영상과 사진 34장이 올려졌고, 이는 하루 평균 접속 건수가 7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4월 18일에 열린 경찰 폭력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비디오로 촬영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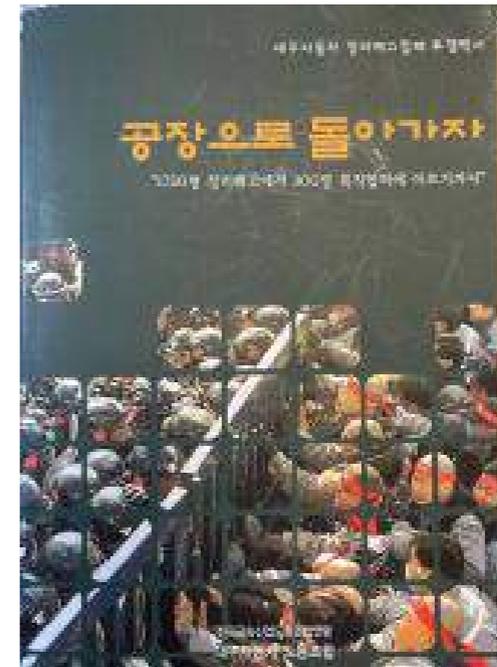
인하대 앞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던졌다.

부평역 집회에 참가하려던 노동자 한 명을 전경들이 구타하여 피가 범벅이 되었다. 옆을 지나던 놀란 노인도 함께 폭행을 당했다.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울먹였지만 경찰은 개의치 않았다. 경찰차 앞에서 전경 한 명이 무방비 상태의 한 시민을 헬멧을 쓴 채 박치기를 해 대었다.

부평역 안에서 전철이 들어오는 동안 플랫폼을 장악한 경찰들이 보이고 '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 다 연행하라면 어떻게 아느냐'고 무명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김대중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안에는 전경들이 장악하여 노조 사무실 등은 완전히 폐쇄가 된 상태였다. 1,700여 명이 떠난 현장에는 '살아남은' 조합원 중 적극적 활동가들은 대부분 한 사람씩 떼어져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현장에서는 노조 이야기를 전혀 꺼내기 어

려운 분위기였다. 경찰만이 아니라 건장한 용역 700여 명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곳곳에서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총선이 끝난 이후 4월 16일에 대우자동차 노사는 연대 정리해고자 300명 복직 등에 합의하여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인천 지역구 후보들을 모두 해외 매각 반대 성명서에 서명을 했었다. 그러나 길고 어려운 투쟁 이후 노조 조직력은 약화되어 있었고, 회사 측은 다각도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었다.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철폐 투쟁백서 표지(출처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노조는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서 고용 보장을 확보하려 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포드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명함으로써 대우자동차의 해외 매각을 돌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포드는 입찰 참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포드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중소형차 중심의 아시아 지역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입찰사무국은 6월 말에 가장

우호적인 인수가격과 발전전망을 제시한 포드를 선정 및 발표하여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는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드는 최종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대우자동차 경영진과 채권단은 GM의 인수를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자구계획과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해 갔다. 결국 2001년 9월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와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인수 조건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를 둔 긴 협상 과정이 이어졌다. 2002년 10월에 출범한 GM 신설법인은 2003년 4월에 지엠(GM)대우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6년 5월 2일에 복직 희망자들이 전원 복직했다. 2006년의 578명을 포함하여 총 1,604명이 복직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지엠대우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어 7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리하여 지엠대우 노동조합은 전국금속산별노조 산하의 지부가 되었다.

2. 성모자애병원 노조 정리하고 반대 투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자애병원(현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에 개원하여 1962년에 가톨릭대 의과대학에 편입되면서 인천 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이 된 인천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1963년부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경영을 하다가 2005년에 천주교 인천교구가 경영권을 이양받았고, 2008년부터 인천성모병원이 되었다.

이 병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후인 11월 14일이었다. 당시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노조가 결성되는 흐름이었다. 창립 당시 노조원 약 40명 중에는 병원 식당 영양과 여성 노동자, 세칭 '식당 아줌마'들 18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병원 내 비의료 직종 노동자들이 조직 결성을 주도했다. 가톨릭 계열로 성직자들이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병원은 노동권을 지키지 않았다. 영양과에 인원이 더 필요해도 사람을 뽑지 않고 기존 인력과 기존 예산으로 두세 배 더 일을 시켰다. 영양사나 직원들의 권위적 태도 역시 심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전국 병원 식당 실태 조사를 하여, 식당에 노동자 7명을 추천토록 했다.

병원 측은 점차 각 부서의 중간 관리자들을 시켜서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에 은밀하게 '노조 불가입' 조건을 달게 하였다. 하지만 1987년 12월에 결성된 전국병원노조협의회(이하 병노협), 1988년 12월에 결성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노련)의 활동과 인천·부천 가톨릭 계열 대학병원들의 연대 활동으로 개별 병원의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었다. 병노협과 병노련은 사무전문직 업종별 노조협의회가 창립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병노련은 한국노총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3년 5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 가능' 판결을 받아 내었고, 6월 9일에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합법화되었다. 병노련은 1998년에 전국 최초로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으로 개편됐다. 산별노조 체제에서 성모자애병원 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성모자애병원지부가 되었다.

2005년 2월에 노조원들은 영양과 반장의 노조 업무 방해 등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양과 문제 전반에 대해 병원장(수녀)과의 면담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반장이 보직 해임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노사 갈등은 2월 20일 '환자용 저염식 물김치'에 다량의 소금이 들어가는 사건 이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병원장은 진상 조사는 하지 않고, 문제가 배식 전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들에 대한 살인이며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5월 1일 노동절에 영양과 노동자 전원을 정리하고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노조는 반대 투쟁을 시작했고, 병원 식당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을 시작했다. 132일에 걸친 투쟁으로 해고 노동자 30명은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아냈다. 이로써 퇴사자를 제외한 해고자 20명이 복직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1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노조 파괴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2006년 6월에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이 발표되어 환자식에 대한 본인 부담이 20~0%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나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도 의료 수가 산정 기준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식당에 기존 용역직 노동자 중 일부를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했다. 이 과정이 불공정하여 용역 노동자와 비정규직화된 노동자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2007년 7월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치였다. 하지만 많

은 노동 현장에서 이것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병원 측은 비정규직 화했던 노동자들에게 다시 용역회사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 현장의 혼란과 근무의 안정성, 환자의 안전과 건강 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조치가 반복될 뿐이었다.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와 울산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반대 투쟁, 그리고 정규직 남성 노조의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인정 사건은 2005년 인천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성모자애병원 노조는 식당 여성 노동자들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고용을 지켜냈다. 이는 비단 고용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밀접한 ‘안전한 영양식 제공’과 기업으로서의 병원이 추구하는 ‘식당 운 영비와 의료 수가’라는 두 가치 사이의 갈등이기도 했다. 의료 공공성과 고용 안정을 지키려는 산별노조의 지원과 지역 노동계의 연대를 통해 2005년의 투쟁은 승리했으나, 이 후 병원 측은 더욱 강한 노조 탄압을 감행했고 노동조합은 크게 약화되었다.



❖ 성모자애병원 영양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100일 차(출처: 『민중의소리』, 2005년 8월 10일자)

역사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서술 방식은 신뢰할 수 있

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단 하나의 부평 지역 노동운동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과 시선에서 다 시 쓰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이다. 이 글은 2010년대까지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을 ‘민주노조운동’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된 상황이라는 관 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상 특정 사례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역사는 논쟁적이다. 오히려 토론과 논쟁을 위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를 찾는 지혜가 생겨날 것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그 이전과 성격을 달리 하며, 정치에서 ‘민주’와 ‘독재’의 이분법이 사라졌듯이 노동운동에서도 고정적인 ‘민주’와 ‘어용’의 이분법은 이 제 통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생략된 ‘중간 노조’들이나 한국노총 사업장의 역사도 이 후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배달 노동자나 플랫폼 노 동에 종사하는 투잡, 쓰리잡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모든 역사를 포함하 여 새로운 관점에서, 민주노조운동 너머의 인천 지역 노동운동사가 재구성될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옛 기업과 공장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플랫폼’과 거대한 물류창고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미 ‘지역’이라는 특성도 산별연맹 또는 산별노조의 전 환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노동운동의 발전은 새로운 지역적 연 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부평 지역 장기 투쟁 사업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현재 13년째, 4,464일에 걸쳐 장기 투쟁을 벌인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있다. 인천 부평 지역에 서 기타 등을 제조하던 콜트(사장: 박영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노조를 회피하기 위해 대전에 콜텍을 세웠고 공장 을 해외로 이전했다. 그리고 콜텍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공 장도 폐업하였다. 이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위장폐업 반대 투쟁이 이어졌다. 이들의 소식은 국내외 음악가들에게도 알려져 많은 음악인들이 노조를 응원했고 투쟁은 국내 외를 가리지 않고 전개되었다. 이들의 투쟁은 2019년 4월에 해고자 복직에 합의함으로 써 13년 만에 승리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법정투쟁을 통해 1·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사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반대 판결이 남으로 써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

부평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장지대로 1980년대 이후 인천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서 역할을 하였다. 부평역 인근에는 다양한 노동단체들의 역사가 담겨 있고 부평대로를 따라 구 대우자동차와 4공단, 주변의 넓은 공장지대가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현재 공업단지는 점차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고 있고 공장 지대 역시 노후화되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공단 리모델링 사업으로 점차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청춘을 바쳐 노동하며 공장의 민주화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들까지 잊혀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귀옥, 「1960~1970년대 의류봉제업 작업장의 성격과 여성 노동자의 실천 : 반도상사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한울아카데미, 2005.
- 김귀옥, 「1960, 19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4.
- 김원 외,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김윤환·신수현, 「확장하는 외지인의 도시 part 1」, 박해천 기획, 『확장도시 인천』, 마티, 2016.
- 김현석,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8.
- 김홍전, 『인천경제사』, 인천일보사, 2006.
- 노동자역사 한내 엮음,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 한내, 2015.
- 박선영·이진숙 외, 『살아숨쉬는 민주노조의 기억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인천의 기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017.
- 박인옥, 「부평수출공단 조성과정의 이해와 역사」, 정진철 발행 총괄, 『부평 -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연구조사보고서』, 부평역사박물관, 2017.
- 박해천, 「인천, 노동자들의 도시 1968~1986」, 박해천 기획, 『확장도시 인천』, 마티, 2016.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안정윤·김나라·정연학 글, 유재형 사진,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인천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8.
- 오유석·이재성,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 유경순, 「여성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 이갑영, 「그들은 희망을 나누었다」, 다인아트, 2020(2009).
- 이범연, 『위장 취업자에서 늙은 노동자로 어언 30년』, 레디앙, 2017.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 이재성, 『지역사회와 로컬리티 : 1980년대 인천의 노동운동과 문화운동』, DETO, 2014.
- 이종구 외, 『동아시아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한국학술정보, 2015.
- 이한수, 「교육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2019.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편, 『87 노동자대투쟁 : 7, 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1988.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 2014.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노협 신문』(축쇄본).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인천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19.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기획, 노동자역사 한내 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연표 (1963~2011)』, 2013.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 『공장으로 돌아가자 - 1,750명 정리해고에서 300명 복직합의에 이르기까지』,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과 세계 : 줄여모음』1·2, 1999.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외기노조 20년사』, 1981.
 정영태, 『개발연대의 노동자계급 형성: 인천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종구 외,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4.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 『대우자동차 파업 농성』, 웨슬레, 1985.

논문 및 보고서

김정후, 「부평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부평구청, 온나라정책연구, 2014.
 박선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 한국지엠(구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유경순, 「한국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 민주노총 인천본부 3·8 세계여성일 기념 강좌 자료, 2019.
 윤지영, 「산업단지에서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정책의 특징과 현황」, 『공단 구조고도화 정책과 노동자의 대응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5.
 윤진호, 「IMF 경제위기와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경상논집』16(2),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2.
 이우재·나준식·노현기,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 인천지역(최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이종구 외,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 -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노동부 정책연구용역과제, 2002.
 이준모, 「인천민중교회연합의 역사와 과제」, 『시대와 민중신학』3,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1996.



임미리, 「학출활동가의 택시노조운동 결합 계기와 과정 -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한국구술사학회, 2018.
 조돈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 매각 반대투쟁: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산업노동연구』9(2),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인천광역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 혁신산업단지 사업계획서」, 2014.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인천지역 제조업 실태 조사 자료집」, 1983.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인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흐름」, 『민주노총 인천지역조직 건설을 위한 기획토론회』, 자료집, 1995.
 임인애, 「노조식당 너희거 아니야. 우리가 투쟁으로 만든거야: 최종희 노조식당 운영위원장 인터뷰」, 『아웃사이더』8, 2002.

기타

「신진자동차 사원 구백명 감원반대 농성, 삼백 가족 합세」, 『동아일보』, 1971년 8월 17일자.
 「무리한 조건에 시달리는 공단지 근로여성」, 『경향신문』, 1974년 3월 8일자.
 「복직투쟁 13년, 아무리 즐거워도 세상은 흑백으로 보여 - 부산영화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의 삶을 그린 <재춘 언니>, 그리고 이수정 감독」, 『오마이뉴스』, 2020년 10월 29일자.
 「인천경제의 뿌리 부평 주안산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상)」, 인천투데이, 2015년 9월 2일자.
 「인천경제의 뿌리 부평 주안산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하)」, 인천투데이, 2015년 9월 2일자.
 「인천에 노동역사관 만드는 게 꿈이죠(박남수)」, 『인천in』, 2019년 5월 31일자.

웹사이트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 홈페이지(<http://dwtubon.nodong.net/>)





제 4 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망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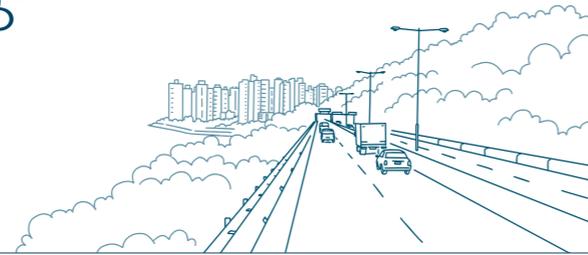
제1절 _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절 _ 안팎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제3절 _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시대로

제4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망의 확충

배 성 수(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 부장)



1945년 8월 광복이 되면서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과 일본 기업이 운영하던 군수공장은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 일본군이 철수한 조병창에는 미군이 주둔하였고, 일본 기업이 빠져나간 군수공장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임시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광복 직전까지 느린 속도로 추진되던 부평 지역 시가지 정비사업은 동력을 잃어버린 채 모두 중단되었다. 게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도시 시설 일부가 파괴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동안 전후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등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는 1962년까지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웠다.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광복 이후 중단되었던 부평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공장부지로 계획되었던 갈산동, 청천동 일대가 수출공업단지로 조성되는 등 부평구 일대는 정부 주도하에 도시의 윤곽이 하나 둘 갖춰져 갔다. 비어있던 공간이 가옥과 공장으로 채워지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학교와 병원, 시장 등 도시기반시설도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말 추진되다가 멈춰서 있던 서울-인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경인철도를 수도권 전철로 개편하는 등 서울과 부평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전통시대 소래산에서 시작하여 인천과의 경계를 이루며 계양산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

산줄기에 가로막혀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평구 지역은 1970년대 이후 도로망이 확충되고 철도와 지하철이 교차하면서 이제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요지로 자리매김했다.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

1. 광복 후 도시 정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30년대 말 부평역 일대로 군수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부평의 도시화는 1940년 조선총독부의 경인시가지계획 공포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경기도는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있었고, 인천부에서는 부평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다. 공장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인 수도와 전기가 보급되었고 공장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건설되는 한편, 부평역 앞으로 학교와 은행, 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부평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전시 통제하에서 자재와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추진했던 국가 차원의 사업은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했다. 독립이 되었어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3년의 미군정 기간을 거쳤고, 정부 수립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발한 6·25전쟁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은 어려운 시기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 예산 대부분이 전후 복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 서울의 도시 정비도 한동안 요원한 상황이었다.

도시 정비 및 도시계획을 위한 법령은 제정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하 「시가지계획령」)이 준용되고 있었다. 비록 도시계획 관련 법령은 정비되지 않았지만, 도시로의 인구 집중, 즉 도시화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남북분단과 6·25전쟁으로 월남을 택한 북한 주민은 농촌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던 도시로 몰려들었고, 때마침 불어 닥친 교육열로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에 있는 학교로 향했다.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기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6일 경상북도 포항과 김천 지역에 「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여 가로망과 공원 등의 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전국 24개의 도시에 새롭게 「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착공된 전국 28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가지의 계획적 조성보다 전후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인천시에서도 일제강점기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송의지구(대화지구), 송림지구, 부평1지구(소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54년에 재착수하였고,¹ 1955년 6월 23일에는 전쟁의 피해가 컸던 사동, 신생동, 답동 일대 10만 1,395㎡를 인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가받아 착공에 들어갔다.²

1950년대 말까지는 일제가 제정한 「시가지계획령」으로 간신히 버텨왔으나 1960년대 들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요구되었다. 5·16 군사쿠데타에 따라 들어선 군사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건축법」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다. 그와 동시에 1934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시가지계획령」을 폐지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50년대까지 도시의 정비에 준용되었던 「시가지계획령」 대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가지계획령」에 포함되어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주축이 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전히 별도의 법령 제정 없이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었고, 내용 면에서도 지주들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였던 환지에 대한 부분만 보강되었을 뿐, 큰 틀은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제정에 따라 전국의 중소도시에서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국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내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앞다퉈 추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포함된 토지구획정리 조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66년 8월 3일 건설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항을 분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했다. 새롭게 제정

1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756쪽.

2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379쪽.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를 토지소유자 및 조합,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행자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명기하여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 근간이 되는 환지 절차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환지에정지 지정, 환지 처분, 청산과 권리 조정 등으로 순서에 따라 상세히 명기하여 「도시계획법」의 환지 규정을 보완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시 개발과 정비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가로망 조성과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 등을 예산부담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네 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령」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인천 지역에서는 모두 45개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었고, 그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준공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존 시가지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도시의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시에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초기 소요되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 구조나 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축소되기 전까지 도시의 정비 및 개발에 사용되어 왔다. 이는 광복과 6·25전쟁 이후 국가 재정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³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흡수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의 정비와 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임범택,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형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3쪽.

2. 부평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 「시가지계획령」 고시 이후 부평구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1년 11월 인가된 소화지구(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7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평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번호	지구명	대상 지역	인가일	완료일	사업 면적
1	부평1지구	부평동	1941. 11. 5.	1970. 4. 14.	414,022
2	부평2지구	부평동, 부개동	1963. 12. 12.	1974. 1. 29.	180,050
3	부평3지구	청천동, 갈산동 등	1969. 2. 10.	1979. 6. 18.	604,981
4	부개지구	부개동, 일신동 등	1971. 8. 20.	1981. 4. 4.	268,913
5	십정1지구	십정동	1979. 7. 20.	1986. 4. 3.	143,922
6	십정2지구	십정동	1982. 11. 10.	1987. 12. 30.	144,994
7	십정3지구	십정동	1982. 3. 5.	1987. 11. 13.	92,348
8	경인고속도로 연변 고속5공구	청천동, 갈산동 등	1968. 1. 27.	1977. 8. 8.	829,178

(단위: 평)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1) 부평1지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시한 경인시가지계획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총독부는 경인시가지계획의 부평지구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면서 경기도를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시행청으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청은 인천부로 지정했다. 인천부는 사업계획과 자원 확보계획을 마련하여 총독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제출했고, 1941년 11월 5일 승인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인천부에서 사업비 150만 원을 투입하여 착수했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평역 동북쪽 일대 63만 평 중 1단계 사업으로 약 42만 평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택지와 가

로망,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인천부는 소화토지구획정리 1단계 사업의 1941년도 제1기분 공사 시공사로 공영조(工營組)를 선정하고 11월 8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업부지의 토지평가를 하여 사업 전 평정가액과 준공 후 평정예상가액까지 산출해 놓고 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환지(換地)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6·25전쟁 중이던 1952년 인천시에서 환지대상지를 공매하거나⁴ 대지 임차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서 광복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가 어느 정도는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광복 후 일본인 지주들이 철수하면서 적산으로 몰수된 토지가 많았고, 1949년 정부의 농지개혁과 6·25전쟁으로 토지소유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었다는 점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관계가 혼란했던 상황은 1962년 5월 사업 부지에 속한 세 필지의 답 2,072평에 대해 실소유주에게 환지사무정리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포기시켰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 소화택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당시 부평동 182, 185번지의 답 1,252평은 한국인 김종필, 194번지 820평의 답은 일본인 도쿠야마 이에하라(徳山家原)의 소유였다. 광복이 되면서 토지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겨 각각 추금용, 손희순, 이흥창의 소유가 되었고, 인천시는 1948년에 이들에게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가지정해 주었다. 이처럼 광복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기업과 일본인이 철수한 뒤 적산으로 처리되었던 토지나 한국인들 사이에 매매 등으로 소유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인천시가 환지예정지로 가지정해주고 있었다.

4 인천시,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 공매처분 보류신청에 관한 건」, 『토지구획정리관계철(승림지구)』, 1952(국가기록원, BA0139086).

표 2 1962년 5월 부평1지구 토지소유포기건 관련 토지소유주 변동 현황

지번	지목	면적	원 소유주 ⁵	광복 후 소유주	실소유주	비고
182	밭	860평	김종필(金鍾弼)	추금용	최석희	최석희에게 전매된 토지
185	밭	392평	김종필(金鍾弼)	손희순	최석희	최석희에게 전매된 토지
194	밭	820평	덕산가원(德山家原)	이흥창	이흥창	본인 소유

❖ 출처 : 인천시, 「인천농림 1141,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분배농지 보상금처리 상황조회」, 1965.9.24.(인천광역시 기록관)

그런데 182번지와 185번지 토지의 소유주 추금용과 손희순은 이 토지를 다시 최석희에게 전매한 상황에서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실경작자인 최석희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4항 ‘정부 등 공공단체가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매수할 수 없는 땅’이었음에도 전매되었고, 그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환지 지정을 받은 사람과 실소유주가 달라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인천시는 1962년 5월 14일 환지 사무정리상 보상금을 추금용과 손희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에게 토지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면서 상황이 정리되었다.⁶

이처럼 광복과 농지개혁, 6·25전쟁을 거치며 복잡하게 얽혀있던 토지소유권 문제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광복 후 더 이상 추진되지 않다가 1954년 9월 9일 6·25전쟁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려는 목적에서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기한을 1957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별다른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고, 1957년도가 되어서야 환지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준공 기한은 또다시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시는 환지를 위해 대상 부지의 지주들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부에 환지사무비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리고 환지에정지에 대한 설계 비용 마련을 위해 체비지를 지정하였다. 1960년에는 환지에정지 지정을 위해 측량과 설계에 들어갔다. 이미 도

5 인천부, 「소화지구토지대장」, 『소화토지구획정리공사』, 1942(국가기록원, BA139095).

6 인천시, 「인천농림 1141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분배농지 보상금처리 상황조회」, 1965.9.24.(인천광역시 기록관)

로망과 구획정리의 틀은 일제강점기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설계는 가곽의 조정 등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947년 항공사진⁷과 1959년 미군지도⁸의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일제강점기 공영조에서 시공한 1941년도 제1기분 사업은 부평역 광장과 로터리, 그리고 일부 대지의 조성과 도로 공사만 완료한 채 광복 직후 타절 준공되었다. 일본군이 철수한 인천조병창 자리로 미군이 주둔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수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일명 양키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광복과 6·25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던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의 일부는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들로 채워져 갔고, 한쪽으로는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업에 착수하였지만, 사진 <1947년 항공사진과 1959년 미군이 작성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서 보듯이 194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1959년 미군이 작성한 지도를 비교하면 10년 넘게 공사는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착수했어도 한동안은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토지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

7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8 애스컴 지도(Incheon Ascom Road Map)(부평역사박물관, 유물번호 97)

아야 했을 것이다.

1961년 인천시는 부지에 대한 행정 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공했다. 당초 계획은 1965년 12월 31일에 준공하는 것이었지만, 노점 및 불법 건축물 정리와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환지에정지를 지정 한 것이 1966년 1월 1일이어서⁹ 그 후에야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에서 작성한 환지에정지 지정조서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 중 일본인이나 국산자동차, 디젤자동차 등 일제강점기 부평에 공장을 두었던 일본 기업의 이름이 자주 보여 아직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1970년 1월 1일 인천시가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청산가격 계산서를¹⁰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산금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원 토지와 환지받은 토지 사이의 가격 차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70년 4월 14일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지면적 41만 4,028평의 환지처분을 마치고 준공되었다. 1941년 11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지 29년 만이었다.

9 인천시, 『부평1지구 환지에정지 지정조서』, 1966.1.1.(인천광역시 기록관)

10 인천시,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제1지구) 청산가격계산서』, 1970.1.1.(인천광역시 기록관)



❖ 1967년 공사가 한창인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¹¹

2) 부평2지구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1년 3월 21일 조선총독부가 경인시가지계획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명령을 내린 사업부지 62만 평 중 인천부가 제1단계 사업으로 인가받은 42만 평의 잔여 부지 20만 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인천부는 제1기분 사업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을 맞았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대한 착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63년 2월 21일 정부는 부평동과 부개동 일대 약 20만 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청으로 인천시를 지정하고 준공 기한은 1966

11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면서 인천시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사업 부지는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동쪽 부평동과 부개동의 일부, 사업 면적은 17만 9,441평이었다. 부평1지구의 동쪽 끝선인 장제로를 경계로 남쪽 동수굴다리에서 북쪽의 부광초등학교까지 원호를 그리며 수로를 배치하고 그 서쪽 부지에 가로망을 구획하고 택지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던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달리, 부평2지구 사업은 1965년 시작된 인천도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으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까지 사업비 6,235만 2,000원을 투입하여 11만 9,182평의 조성을 완료하여 66%의 진척률을 보였고, 착공 11년 만인 1974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3) 부평3지구

부평1·2지구와 달리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었다. 부평3지구의 경우 1965년 11월 상공부가 북구 청천동, 갈산동(현 부평구), 효성동, 작정동(현 계양구) 일대 21만여 평 부지에 대해 인가한 ‘인천수출산업공단’의 배후도시 조성 및 일제강점기 공업용지로 조성되었던 부지에 대한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수출공단에는 1966년 7월 5일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를 시작으로 1968년 9월까지 50개 기업체가 입주할 지정받았고,¹² 196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970년 3월에는 20여 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¹³ 부평 수출공단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늘어날수록 근로자 수도 증가하여 1982년 55개 기업에 1만 7,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¹⁴ 자연스레 부평 일대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 배후지역인 갈산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망과 택지를 조성하려 했다.

¹²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63~473쪽.

¹³ 「부평공단 가동 늘어 수출목표 달성 낙관」, 『매일경제신문』, 1970년 3월 16일자.

¹⁴ 인천직할시, 『인천 개항 100년사』, 인천직할시, 1983, 998~999쪽.

그러나 그보다는 일제강점기 경기도가 추진하다가 광복으로 중단되었던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구역에 대한 구획정리를 통해 가로망과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인시기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조성했던 공업용지에는 일본 기업의 공장을 불하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6·25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주둔하여 군부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기도로부터 부지만 매수하고 공장 건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아 방치되고 있는 토지도 상당수 존재했다. 정부는 수출공단 지정과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효성동과 청천동 일대의 인천수출공단에서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그리고 산곡동 일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업용지에 이르기까지 부평 지역에 공업벨트를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 부평3지구는 부평구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주로 택지와 가로망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택지조성 및 공장부지 건설이라는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 부평3지구 계획평면도¹⁵

¹⁵ 인천시, 「인천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부평3지구 가로망 변경에 따른 진정서 처리」, 1974.7.8.(인천광역시 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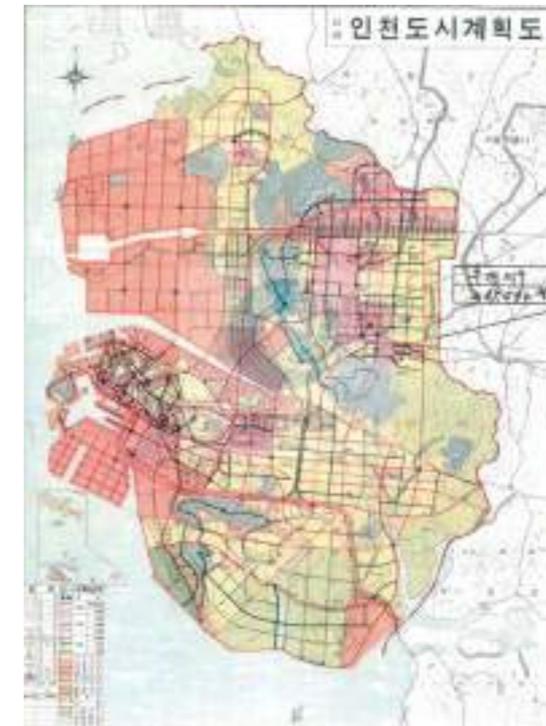
부평 수출공단의 입주가 막 시작될 무렵인 1968년 10월 5일 건설부는 공고 제115호로 부평3지구 토지구획사업의 시행 명령을 내렸다. 시행청은 인천시였고 대상 부지는 인천시 북구 부평, 청천, 갈산, 효성동 일대 60만 평에, 시행기간은 1972년 12월 31일까지였다. 1969년 2월 10일 건설부공고 제16호로 사업이 인가되는데 시행 면적은 64만 8,015평으로 약 5만 평가량 증가했다. 그해 12월 27일 인천시는 측량과 설계를 마치고 환지에정지를 지정했다.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준공기한이 계속 연장되었다. 일제강점기 공업용지로 조성된 부지에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기업들이 환지에정 토지에 대해 연이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진 자동차를 인수한 GM코리아의 부평테크 공장부지 중 일부인 2,792평이 부평3지구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환지 절차를 밟던 중 공장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141평의 토지가 세 명의 개인 소유임이 밝혀졌다. 그에 따라 1974년 7월 1일 GM코리아는 이 땅을 공장 소유의 다른 토지 545평과 교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¹⁶ 이 외에 인조 가발 제조업체인 동서양행에서도 공장 부지를 가로지르는 소방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만과 진정이 이어지면서 준공이 지연되었고, 결국 착공 10년 만인 1979년 6월 18일 사업이 완료되었다.

4) 부개지구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부지는 경인철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부평동과 부개동, 일신동 지역에 해당하며, 경인국도가 부지를 관통하고 있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의 약 5% 정도만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논과 수로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택은 대부분 조잡한 건물로 난립해 있었고,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데다 하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위생이 열악한 상태였다. 정부는 부개동 일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인국도 확장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4월 30일 「건설부 공고」 제39호로 부개동, 일

16 인천시, 「인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부평3지구 환지에정지 지정변경 신청 지연 통보」, 1974.7.5.(인천광역시 기록관)

신동 일대 40만 평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했다. 같은 해 9월 17일 「건설부 공고」 제101호로 인천시장에게 시행 명령을 내렸는데 사업 기간은 1972년 12월 31일까지였고, 시행 면적은 당초보다 10여만 평 축소된 29만 5,000평이었다. 1970년 5월 22일 인천시에서 제출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조레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¹⁷ 그해 10월에 다시 제출한 신청 역시 부지 위치 및 면적이 시행 명령 당시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렇게 신청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착수가 늦어졌고, 1971년 8월 10일 「건설부 공고」 제74호로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 인가가 떨어졌다. 사업 면적은 26만 7,590평으로 다시 축소되었고, 준공기일은 1973년 12월 31일이었다.



❖ 최초 사업인가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부개지구 위치도¹⁸

17 경기도, 「도시4324-400 인천도시계획 부개토지구획정리지구 시행인가 신청」, 1970.5.22.(인천광역시 기록관)

18 경기도, 「도시4324-400 인천도시계획 부개토지구획정리지구 시행인가 신청」, 1970.5.22.(인천광역시 기록관)

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 면적 26만 7,590평은 택지 8만 1,997평, 공업용지 9만 7,829평, 공공용지 8만 155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인천시 보조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체비지 매각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인천시는 1972년 3월 17일 환지에정지 지정계획을 공고했고, 1973년 3월 경기도에서 환지에정지 지정을 인가했는데 환지에정지 필지는 모두 1,904필지로 확보율은 40.7%였고, 체비지는 2만 5,000평으로 전체 부지의 약 10%에 달했다. 부개지구 역시 토지소유관계의 정리로 인해 계속 지연되다가 인가된 지 10년만인 1981년 4월 4일 사업을 완료했다.

5) 십정 1·2·3 지구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후 부평구 십정동에 동암역이 신설되면서 역 주변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통행량이 많아졌지만, 가로망이나 주거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역 남쪽으로 지나가는 경인국도는 동암초등학교 입구까지만 확장되었을 뿐이었고, 북쪽으로 주안 염전자리에 수출 5·6공단이 조성되었지만, 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주안 수출공단 근로자를 위한 택지 개발과 함께 동암역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개설, 경인국도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십정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다. 1978년 12월 5일 건설부공고 제137호로 십정동과 간석동 일대 20만 1,767평의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7월 20일 부지를 14만 6,114평으로 축소하여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준공 기한은 1982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인천시는 12월 31일 법령에 따라 십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공포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 십정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식¹⁹

한편 1980년 9월 25일 정부는 동암역 북광장 일대 15만 평을 대상으로 하는 십정2지구와 동암역 남쪽 일대 13만 평을 대상으로 하는 십정3지구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을 고시하고, 1981년 1월 21일 사업 시행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1982년 3월 5일과 11월 11일 십정3지구와 십정2지구의 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각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사업 면적은 당초보다 줄어든 십정2지구 14만 6,402평, 십정3지구 9만 1,086평이었다.

인천시는 당초 십정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동암역 남쪽을 지나가는 경인국도의 확장공사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려 했으나 사업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즉 왕복 2차선의 경인국도를 폭 35m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1만 5,000평의 토지가 필요했고,²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를 통해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자 했다. 사업 부지 중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는 토지는 3,827평, 건물이 28동에 508평으로 모두 4,335평이었다. 그런데 사업계획 결정이 지연되면서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겨 1980년 12월로 예정된 준공일도 맞추기 어려워졌다. 이에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 「구획정리법」에서 규정한 환지 절차를 따르고,

¹⁹ 부평구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²⁰ 「십정지구 구획정리 임야, 대지 등 14만평」, 『매일경제신문』, 1980년 7월 11일자.

만약 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일반보상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기공 승낙서'를 받았다.²¹

1980년 9월 25일 경인국도 석천-부평삼거리 간 확장공사 준공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건설부의 사업계획 결정이 고시되었지만, 아직 시행 명령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기공 승낙서'에 서명한 토지소유주와의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인천시는 기존의 조건대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8,4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한 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고 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800여 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이 결정된 만큼 사업 시행 인가 후 현금 보상이 아닌 환지 절차에 따라 환지하는 것으로 '토지기공 승낙서'의 내용을 수정한 뒤 토지소유주의 서명을 받았다. 이처럼 토지소유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착수했던 십정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6년 4월 3일 1지구 사업이 완료된 데 이어 1987년 12월 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 십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비교(왼쪽 1976년, 오른쪽 1987년, 1:5000 지형도)

21 인천시, 「건행410 십정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신청지구 내 경인국도 확장사업 편입 토지기공 승낙장취」, 1980.5.29.(인천광역시 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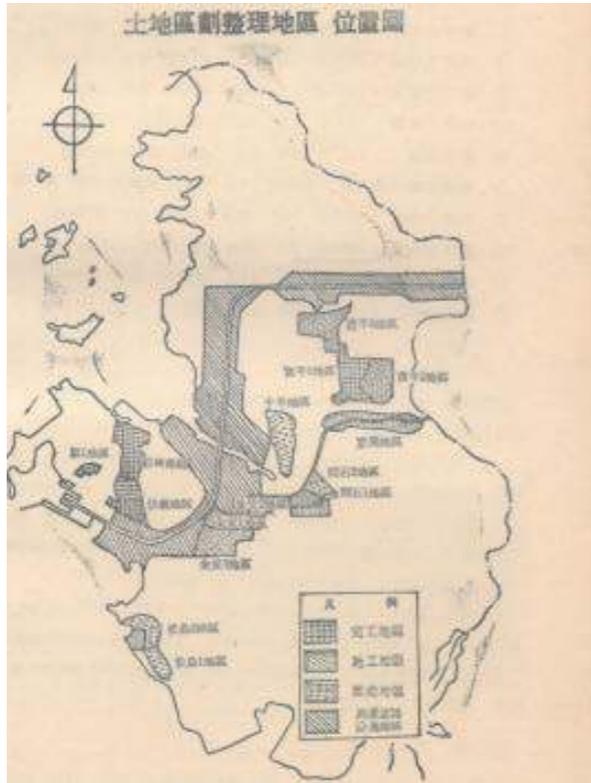
6)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연변지구 고속5공구

1967년 3월 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한 정부는 그해 11월 11일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인 지역 일대 1,100만 평 부지에 대해 5년 동안 43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광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²²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고속도로 연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통제하고 가로망과 택지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계획되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고속도로 부지와 주변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²³ 정부의 발표가 있는 직후인 11월 23일 건설부는 공고를 통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천군과 인천시, 서울시에 각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두 달 가량이 지난 1968년 1월 27일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했다.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행 명령이 있고 난 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시행이 인가되어야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시행 명령으로부터 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은 짧아야 4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시행 명령이 고시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업 시행이 인가되어 하루라도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당시 정부의 입장을 살필 수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 부지는 총 448만 1,912평으로 동쪽의 서운동에서 서쪽의 송의동에 이르기까지 14개 행정동을 거치는 구간이었고 준공 기한은 1971년 12월 30일까지였다. 인천시는 사업 부지를 모두 다섯 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했는데 부평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고속5공구로 삼산동 부천시 경계지점부터 서인천IC의 입구인 청천동까지였다. 고속5공구의 사업 면적은 122만 1,590평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구 중 두 번째로 넓었다. 그중 택지 면적이 87만 8,923평, 도로가 29만 9,672평으로 사업 대부분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택지조성과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5공구는 1965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던 수출공단 조성사업 부지와 겹쳐있어 다른 공구에 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빨랐고, 인천지구 고속도로변 토지구획사업 중 가장 이른 1977년 8월 8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22 「경인가도 광역구획정리」, 『동아일보』, 1967년 11월 11일자.

23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385쪽.



❖ 1973년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²⁴

| 제2절 | 안팎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1. 경인국도의 확장

광복 후 1960년대까지 부평구의 도로망은 일제강점기 말의 상황에서 크게 나아질 것이 없었다. 예로부터 서울 가는 길로 이용되었던 경인국도와 1940년대 추진되었던 공

²⁴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757쪽.

업용지 조성사업, 소화택지구획정리사업으로 건설된 일부 도로망, 그리고 총독부가 건설하다 중단된 경성-인천 간 국방도로 정도가 그나마 도로라 불릴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외에는 농로와 고갯길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 부평1지구(소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개를 비롯하여 부평2지구와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부평구 지역의 간선도로망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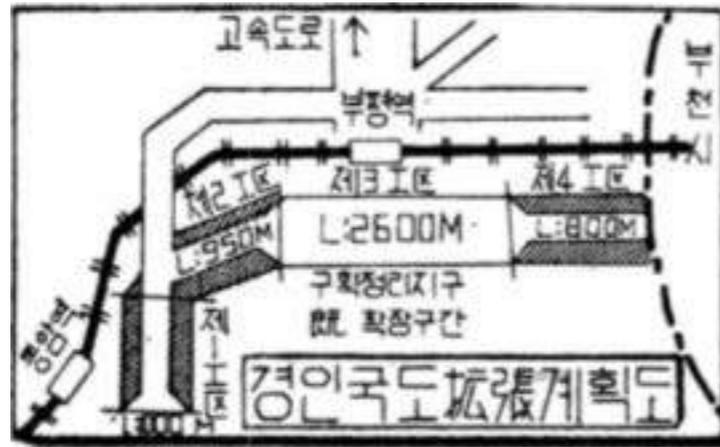
경인국도는 광복 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서울과 인천을 잇는 유일한 도로였다. 아래 '1948년경 동수역 인근의 포장된 경인국도'에서 보듯이 1948년 당시 부평구를 지나는 구간은 이미 포장이 완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서울로 진격할 때 이용되었던 길로 원통이고개 일대에서는 연합군과 북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 1948년경 동수역 인근의 포장된 경인국도(사진 하단축 Norb Faye)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1964년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인천시는 부평구 일대에 수출산업공단 조성 계획을 제출하여 상공부의 인가를 받

았다. 한편, 1962년도 재착수한 부평1지구와 1963년 착공한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평구의 택지와 가로망이 확충되었고, 인구도 나날이 늘어났다. 부평구 내에서의 간선도로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충되고 있었지만, 외부와의 연결도로는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기존의 경인국도 뿐이어서 주민과 공단 근로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경인국도를 따라 소사읍, 오류동, 영등포 등 이미 도시화되었거나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어 경인국도의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경인국도 확장 계획도²⁵

1970년대 들어 서울과 부천, 인천시 등 경인국도의 연변 도시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경인국도의 도로 폭을 3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천의 경우 1979년까지 해안동에서 간석오거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부평구 구간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1980년 인천시는 간석오거리에서 구산동 부천시계에 이르는 5.3km 구간에 대해 2년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했다. 당시 추진 중이던 부개지구와 십정3지구 토지구획정리구획사업을 통해 토지 매입비 6억 원을 절감

25 「인천시 경인국도 확장공사」, 『매일경제신문』, 1979년 12월 3일자.

하였고, 동수역에서 부개역 사이에 이르는 구간을 직선화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부평구 지역의 간선도로망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그 틀을 갖추어 갔다.



❖ 경인국도 확장공사 부평구간 준공식²⁶

2.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194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건설하려 했던 김포 신경성비행장에서 인천항까지 21.6km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비록 광복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광복 후 국방도로 또는 제2경인국도

26 인천직할시,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 1983, 187쪽.

라 불리며 인천 서북지역과 서울 서남지역을 이어주는 도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기점인 김포 비행장 인근이나 공사 중단 지점인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는 산업 시설이나 주거지가 아닌 그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실제 통행량은 많지 않았고 당초 계획처럼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지도 않고 있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물류를 원활하게 하자는 논의는 1961년 『대한토목학회지』에 게재된 이희준의 「경인지구 종합개발안」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 서울시 당산동 제2한강교 인근부터 인천시 율도까지 운하를 굴착하고 운하의 양쪽으로 차도를 두되 한쪽 차도는 고속도로로 건설해서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경인간 화물 수송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이듬해 6월 건설부는 「경인지구건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경인 지역의 공업용지 선정과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다.²⁸ 1965년 1월 경인특정지역개발계획이 고시되었는데 여기에 경인운하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경인간 고속도로 건설이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문제는 건설자금이었다. 고속도로는 물론, 운하 굴착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시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²⁹



❖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경인고속도로 기공식³⁰

결국 정부는 AI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20억 원의 차관을 도입하여 1967년 3월 24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5월 27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공사비용은 건설비 23억 3,300만 원, 용지보상비 5억 4,900만 원, 부대비 2억 6,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31억 5,000만 원에 달했고, 연인원 60만 5,000명이 건설에 동원되었다. AIB로부터 도입한 차관만으로는 건설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토지 매입비를 절감했다. 공사 구간은 영등포에서 인천항 입구까지 29.5km였고, 도로 폭 20.4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했으며, 내리(현 부천), 부평, 석남(현 서인천), 가좌 등 네 군데에 인터체인지(IC)를 설치했다. 당초 고속도로의 노선은 가좌동에서 인천교로 이어져 송림동 로터리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 도중 지금의 노선으로 변경되었다.³¹ 설계 속도는 시속 80~120km였으며, 요금소는 서울의 목동과 부천의 내리, 인천의 부, 가좌IC 등 네 곳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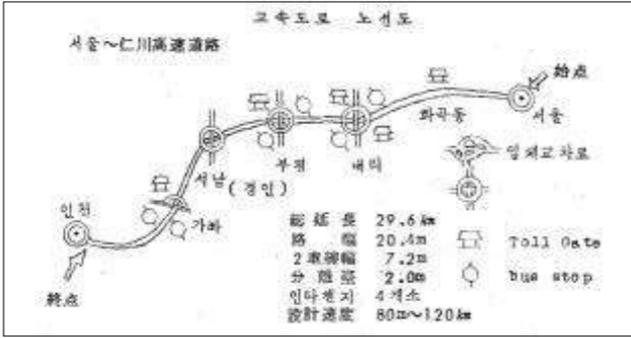
27 이희준, 「경인지구 종합개발안」, 『대한토목학회지』9(2), 대한토목학회, 1961, 1~6쪽.

28 노용보, 「경부고속도로의 탄생: 국토개발의 고속도로에서 박정희 고속도로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0쪽.

29 「도시비대와 교통중하」, 『경향신문』, 1964년 12월 19일자. 이 기사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756억 원으로 그중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69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자원을 못 대면 헛꿈'이라며 계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0 인천직할시,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 인천직할시, 1983, 187쪽.

31 김용하, 「길의 역사, 인천의 역사」, 『황해문화』25, 새얼문화재단, 1999, 86~87쪽.



❖ 경인고속도로 노선도³²



❖ 부평구에 설치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인천 요금소³³

내리IC(현 부천IC)에서 가좌IC 구간은 1940년대 건설했던 국방도로의 노반과 기초를 활용함에 따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착공한 지 불과 1년 9개월 만인 1968년 12월 21일 영등포에서 가좌동에 이르는 구간을 1차로 개통했다. 가좌동에서 신흥동 제2독 입구에 이르는 잔여 구간은 주안 염전과 갯골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969년 7월 30일에야 준공되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에 1시간 10분이 걸리던 서울-인천 간 거리가 20여 분으로 단축되었다. 처음부터 유료도로로 계획되었기에 개통 다음 날인 12월 22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했는데 차종에 따라 요금을 다섯

32 오석진,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85쪽.

33 인천직할시,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 인천직할시, 1983, 187쪽.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와 삼륜차의 고속도로 통행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오토바이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교통부는 1972년 6월부터 삼륜차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시켰다.

표 3 개통 당시 경인고속도로 통행 요금

번호	차종	서울-인천	부평, 내리	비고
1	오토바이 등 2륜자동차 퍼브리카 등 배기통 2개 이하 소형자동차	100	50	
2	중·대형 승용차	150	80	
3	2~4톤 보통화물차 소형승합 16인승 마이크로버스	200	100	
4	대형화물차 16인승 이상 합승버스	250	130	
5	트레일러	500	250	

(단위: 원)

❖ 비고 : 2020년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소는 인천요금소만 남아 있고, 개방식 요금제(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가 적용되고 있어 1종 경차는 450원, 1종(소형승용차)에서 3종(대형승합차와 2종 대형화물차)까지 일률적으로 900원, 4종(3축 대형화물차)과 5종(4축 이상 특수화물차)은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1960~1970년대 주안, 부평의 수출 공단이 활성화되고,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천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었다. 정부는 왕복 4차선이던 경인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1989년 9월 26일 우선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신월에서 부평사이 10.3km를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육군 공병대를 공사에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차량 2부제를 도입해서 정체를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로 정부 검토안은 무산되었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공사는 계획대로 1992년 7월 준공되었다. 나머지 구간인 부평에서 인천항 구간도 확장공사에 들어가 1993년 6월 부평-서인천 간 3.8km의 준공을 시작으로 서인천-가좌 간 4km(1997.6), 가좌-도화 간 2.9km(1998.12), 도화-용현동 종점 간 3.7km(1999.12) 등이 단계적으로 완료되어 전 구간이 왕복 6~8차선으로 확장되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는 동안 교통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경인 지역 상공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통행 요

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⁴ 게다가 같은 인천시 구역인데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요금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특히 부평IC 주변은 상하행선 진출입로마다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본선 상의 인천 요금소까지 더하면 모두 다섯 군데의 요금소가 있어 항상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는 요금소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고, 7개였던 요금소를 인천요금소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지했다. 그리고 부평IC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인천요금소를 서운동으로 이전했다.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평구 지역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부평 수출산업공단 입구로 IC가 생기면서 각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운반이 용이해졌고, 운송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부평IC 인근으로 고속버스 정류장이 신설되어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도 편리해졌다. 서울과 인천의 중점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가좌IC와 부평IC를 드나들며 정류소에 정차했기 때문에 주안공단과 부평공단의 근로자는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었다. 1971년에는 직행고속버스가 아닌 일반고속버스를 도입하여 고속도로 위에 마련된 정류소에서 승객의 승하차가 가능해졌고, 부평요금소 인근에 부평정류소가 설치되었다.³⁵ 1970년대 말 부평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평역 광장에는 삼화고속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 종점이 설치되기도 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부평구 동부 지역을 지나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89년 4월 27일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계획은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 11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건설을 위해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서울 외곽의 다섯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과 함께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처리대책」을 발표했다. 모

34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담」, 『매일경제』, 1989년 10월 3일자;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담하다」, 『경향신문』, 1990년 12월 15일자.

35 「28개소에 정류장 4월 1일부터 일반고속버스도 운행」, 『매일경제』, 1971년 3월 24일자.

두 120만 명의 인구가 입주할 수도권 다섯 개 신도시 사이의 교통이 서울 도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14.5km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였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2002)³⁶

부평구 삼산동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계양구 서운동에서 부천시 상동까지 이어지는 2.43km 구간으로 14공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14공구 건설공사에 드는 사업비는 총 1,300억 원, 시공자로는 두산건설과 고려개발이 선정되었고, 1994년 7월에 공사에 들어가 1998년 7월 24일 개통되었다. 그리고 1999년 김포-서운 구간과 장수-산본 구간이 개통되면서 민자(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건설 중이던 일산-의정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개통되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부평구 지역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졌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되던 다른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가능해져 부평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서울 외곽지역에 건설된 신도시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36 부평구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되었다. 부평 서북부와 공단에서는 기존의 부평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서운JC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동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구산동에 설치된 송내IC를 통해 바로 진입할 수 있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중심적인 명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새롭게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그 밖의 주요 도로

부평구의 남쪽과 서쪽은 소래산에서 만월산을 거쳐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산줄기로 막혀있고, 북쪽으로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동쪽에는 1999년 개통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이처럼 부평구는 사방이 산지와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중앙으로는 1899년 건설된 경인철도가 공간을 양분하고 있다. 그런 탓에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터널과 고가도로가 유독 많이 존재한다. 전통시대 인천과 부평을 이어주던 주 통로도 일신동 별리고개와 십정동 원통이고개 등 산줄기를 넘는 고갯길이었다. 광복 후 일신동에 군부대가 들어서며 별리고개는 길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원통이고개는 여전히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경인국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가좌동과 산곡동을 이어주는 장고개가 있지만, 역시 광복 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간석동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을 거쳐 부평2동 부평사거리로 넘어가는 만월로는 높고 험하여 1980년대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좁은 비포장 고갯길이었는데 1994년에 왕복 2차선 도로로 개통되었다.

1958년 1월 가좌동에서 주안염전과 갯골을 건너 도화동을 이어주는 인천교가 개통되면서 가좌동을 비롯한 서곶 일대 주민들은 인천 도심에 오가기가 편리해졌다. 인천교의 개통은 산곡동, 청천동 등 부평구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산곡동은 6·25전쟁전까지만 해도 장고개를 통해 가좌동과 연결되었는데 미군이 장고개

초입에 주둔하면서 해발 100m에 가까운 철마산(현 원적산)³⁷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철마산 고개에 도로를 낸다면 인천교를 거쳐 인천 도심까지 거리와 시간을 모두 단축시킬 수 있었다. 1964년 7월 말 산곡동 주민 한동규를 중심으로 철마산 관통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인천의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지원의 뜻을 밝혔다. 주민들은 일부 도로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제분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낸 데 이어 주한미군의 중장비 사용 협조도 이끌어냈다.



❖ 1965년 철마산 고갯길³⁸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인천시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도로 개통으로 인천 시내와의 교통이 원활해질 경우 부평시장 상권에 피해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³⁹ 1967

37 서구와 부평구 사이에 위치한 해발 196m로 2000년대 중반까지 철마산이라 불리다가 일제 잔재라 하여 원적산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다. 여기서의 개통 당시에 불리던 지명대로 '철마산 관통도로'로 표기한다.

38 한동규, 『나, 이 고개에 길을 내다』, 생각나눔, 2013, 44쪽.

39 한동규, 『나, 이 고개에 길을 내다』, 생각나눔, 2013, 40~119쪽.

년 1월 산곡동 주민 1,700여 명은 철마산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⁴⁰ 5월 3일에 있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천시는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철마산 관통도로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인천시의 착공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⁴¹ 주민들은 주한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중장비를 이용해 무작정 도로 굴착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산림법」 위반 등을 이유로 주민대표 한동규를 고소하여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⁴²

1969년 5월 유병택이 인천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해 10월에 있을 3선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각지에서 선심성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인천시는 철마산 관통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9월 들어 채석 작업과⁴³ 도로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을 시작하면서 공사에 들어갔다.⁴⁴ 건설 공사 및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1972년 10월 4일 산곡동과 가좌동을 잇는 총 연장 6km, 폭 20m의 철마산 관통도로가 개통되었다.⁴⁵ 도로의 개통으로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 부평구 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졌고, 산곡동과 가좌동의 도로 초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유입도 크게 늘어났다.

당초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철마산 관통 도로는 산곡동과 가좌동 사이의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준공된 지 9년 만인 1981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가 1985년 재개통했다. 2010년 4월 인천시는 도로로 인해 양분되어 버린 원적산(구 철마산)과 함봉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 건설에 들어가 2012년 11월에 준공함으로써 현재 도로 정상부는 생태터널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한편 1994년 인천시는 지역의 균형 개발과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문학산과 만

40 「부평-인천 간 가로막는 철마산 관통 진정」, 『매일경제』, 1967년 1월 1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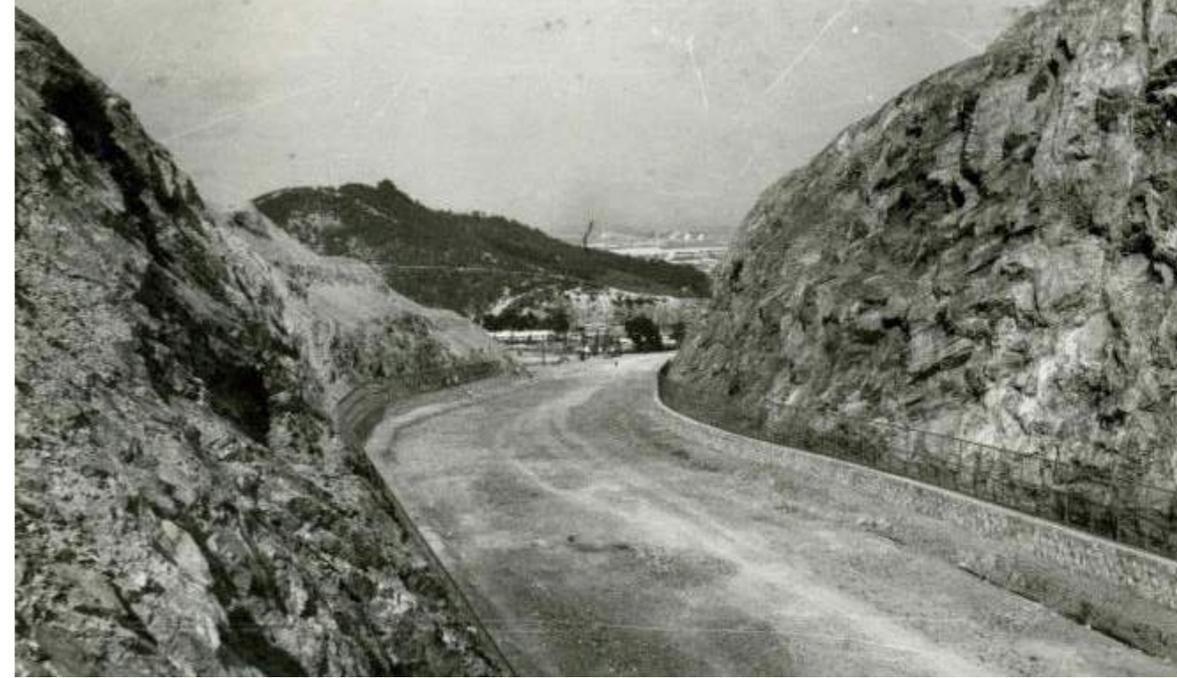
41 「公約, 空約 5.6월의 백일몽, 그 행방」, 『동아일보』, 1967년 6월 27일자.

42 한동규, 『나, 이 고개에 길을 내다』, 2013, 167~183쪽.

43 인천시, 「건설 410 철마산 관통도로 개설을 위한 협조요청」, 1969.9.17.(인천광역시 기록관).

44 인천시, 「건설 410 철마산 관통공사에 따른 발파허가 의뢰」, 1969.9.18.(인천광역시 기록관).

45 「철마산도로 개통 인천-부평 단축」, 『매일경제』, 1972년 10월 4일자.



❖ 개통 직후 철마산 관통 도로(출처 : 화도진도서관)

월산, 철마산 등 세 곳에 터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⁴⁶ 그중 만월산과 철마산에 건설되는 터널은 부평구에 건설되는 터널이었다. 철마산터널(현 원적산터널)은 산곡동, 청천동 등 부평구 서북부 지역과 서구 석남동을, 만월산터널은 동남부의 부개동, 부평동과 남동구 간석동, 만석동을 각각 연결하여 두 지역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남동구와 부평구 사이에는 간석동에서 부평농장을 거쳐 부평사거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의 만월로가 있었지만, 왕복 2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간석동 일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1972년 왕복 4차선으로 개통하여 6차선으로 확장된 철마산 관통 도로가 있었지만, 산곡동과 가좌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의 재정만으로는 세 군데의 터널 건설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민자 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1996년 7월 18일 만월산터널 민자 사업자로 대림산업 등 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46 「만월산 등 3곳 터널 건설」, 『조선일보』, 1993년 10월 21일자.

1. 경인철도에서 수도권 전철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경인선을 비롯한 철도 운영은 미군정 및 과도정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해 화차의 연료로 사용되던 석탄의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열차 운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1946년 2월 1일부터는 석탄 사정의 악화로 전 구간에 걸쳐 열차 운행이 감축되었는데 경인선은 하루 2회 왕복에 그쳤다. 이처럼 석탄 공급에 따라 열차운행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1947년이 되어서야 종전의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인선에 6개 열차를 신설하여 하루 14회 왕복하는 등⁴⁸ 철도 운영이 정상화되는 듯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하여 열차는 다시 멈춰 서버렸다. 특히 폭격으로 인한 철도의 파손이 심각했는데 세 개의 선로가 지나던 한강철교는 모두 파괴되어 서울 수복 후 하나의 선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난민의 복귀와 주민의 이동을 위해서 철도의 복구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어서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9월 19일 인천-부평 간 열차 시운전을 시작으로 경인선부터 복구에 들어갔다. 연합군의 긴급 복구 작업으로 10월 23일 한강의 임시 교량이 개통되었지만, 하나의 교량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 경인선 등의 노선을 운행해야 했기에 서울-인천 간의 열차 운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57년 7월이 되어서야 한강철교가 완전히 복구되었고, 경인선 열차도 급행 2회를 포함해서 하루 14회 왕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출자한 (주)만월산터널이, 같은 해 10월에는 철마산터널 건설공사 사업자로는 금호건설 등 네 개 업체가 공동출자하는 (주)철마개발이 각각 선정되었다. 먼저 공사에 들어간 곳은 철마산터널로 2000년 11월 7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착공하였으며, 1년 뒤인 2001년 12월 11일 만월산터널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철마산터널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2004년 5월 철마산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어 터널의 명칭을 천마터널로 변경하였고, 개통 후인 2009년 5월 다시 원적산터널로 이름을 바꾸었다. 천마터널은 2004년 6월 23일 개통식을 개최하고, 20여 일간의 무료 시범 운행 기간을 거친 뒤, 7월 10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2034년까지 30년간의 민자 운영 기간에 들어갔다. 총 연장 2,269m 중 터널 길이는 1,040m이고, 진입구간은 왕복 6차선, 터널 구간은 편도 2차선의 쌍굴로 건설되었다. 개통 당시 통행료는 경차 350원, 승용차와 32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700원,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가 1,000원으로 책정되었고, 2009년 7월부터 승용차기 준 통행료가 8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월산터널도 2005년 7월 5일 개통식을 갖고 7월 30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며 역시 30년간의 민자 운영 기간에 들어갔다. 총 연장 2,871m 중 터널 길이는 상행선 1,538m, 하행선 1,541m의 쌍굴로 진입 구간과 터널 구간 모두 편도 3차로로 건설되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700원으로 원적산터널과 동일했고, 마찬가지로 2009년 7월 인상되었다.



❖ 만월산터널 축조공사 기공식⁴⁷

47 부평구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48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하,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110쪽.

49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536~539쪽.



◆ 경인선 복선 개통식⁵⁰

한강철교의 복구공사가 완료되고 철도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면서 교통부는 1962년 전국 열차 시각을 조정했다. 특히 경인선 열차의 경우 각 열차의 발차 시간을 동일시각제로 적용하여 인천역은 매시 20분에, 서울역에서는 매시 45분에 열차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별도로 열차시간을 알아보거나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져 열차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한편 서울-인천 간의 열차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열차 증편이 요구되었지만, 단선 선로인 관계로 더 이상의 증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인선 복선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인천항 제2독 건설공사가 착공되면서 향후 화물 수송량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철도청은 1963년 11월 20일 동인천-영등포 간 28.7km의 노반 건설공사에 착수하면서 경인선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었다. 1964년 12월 30일 동인천역에서 주안역 사이의 복선화 공사가 마무리되

50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go.kr/>).

었고, 1965년 9월 18일 동인천-영등포 간 개통식을 가지면서 경인선 모든 구간이 복선화되었다. 경인선 복선화로 인해 동인천역에서 서울역까지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해졌고, 철도청은 1968년 1월 30일 경인선의 열차시각을 조정하여 인천역 발차 일반열차 1일 22회 왕복, 동인천역 발차 급행열차 1일 13회 왕복 등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열차는 하루 왕복 35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경인선의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을 되찾은 1960년대부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기 직전인 1973년까지의 경인선 인천 구간 다섯 개 역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을 5년 단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인천역은 화물 수송량이, 동인천역은 여객 이용량이 가장 많은 역이었다. 부평역의 경우 화물 수송과 여객 이용이 각각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광복 후 부평구 지역은 인천의 부심으로서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산업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1973년의 수치를 보면 5년 전에 비해 부평역을 이용하는 여객은 1일 평균 3,000명가량, 연간 화물 수송량은 약 30만 톤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이 분산되었던 결과로 보인다.

표 4 1963~1973년 경인선 인천 구간 각 역별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

(단위: 년·명·톤)

구분	지구명	1963		1968		1973	
		1일 평균	계	1일 평균	계	1일 평균	계
여객	인천역	5,352	1,953,309	5,440	1,985,895	5,521	2,015,238
	동인천역	14,692	5,362,423	26,049	9,508,000	26,635	9,721,644
	제물포역	3,578	1,305,950	3,921	1,431,410	33,089	12,077,577
	주안역	628	229,243	3,286	1,199,485	3,134	1,144,127
	부평역	8,826	3,221,405	17,528	6,397,772	14,644	5,345,356
화물	인천역	239	87,244	6,900	2,518,730	3,714	1,355,658
	동인천역	303	110,760	396	144,730	253	92,539
	제물포역	0.07	28	2.3	837	2.1	770
	주안역	130	47,461	213	77,838	612	223,352
	부평역	1,105	403,172	1,617	590,411	780	284,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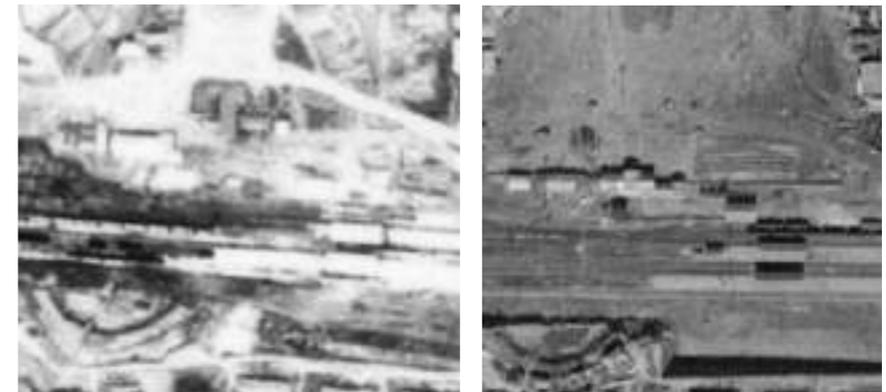
◆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팽창에 따라 야기되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난이 가장 심각했다. 정부는 수도권 철도의 전철화를 검토하여 1971년 4월 7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경인선 전철화 사업 착공식을 거행했다. 당시 전철화 공사에 착수한 수도권 철도 구간은 경부선의 서울-수원 간 41.5km, 경인선의 구로-인천 간 27km, 경원선의 용산-성북 간 18.2km 등 총 86.7km였다. 서울-청량리 간 7.8km 구간은 서울시에서 지하철로 건설하였고 착공 3년 만인 1974년 8월 15일에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식을 가졌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경인선 인천 구간으로는 기존의 다섯 개 역에 더하여 십정동에 동암역이 건설되었고, 그 후 백운역, 도원역, 간석역, 부개역, 도화역이 추가로 건설되어 현재 인천 구간에는 11개 역이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서울 외곽에서도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해지자 서울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철로 연결되는 수도권 도시들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인천은 1980년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992년 200만 명을 넘어섰고, 부천의 경우 전철 개통 직전인 1973년 소사읍에서 부천시로 승격할 당시 6만 5,000명이던 인구가 1976년 10만 명을, 1986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천과 부천을 합하여 25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중 다수가 서울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경인전철에는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동인천-구로 간의 복선 철도를 복복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991년 11월 24일 부평역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공사에 들어갔다. 1999년 1월 29일 부평-구로 간 14.9km의 복복선 공사가 완료되었고, 부평-용산 구간으로는 주요 역만 정차하는 직통열차를 운행하였다. 2002년 부평-주안 간 공사가, 2005년 12월 21일에는 주안-인천 간 6.5km의 공사가 준공되면서 경인선 모든 구간의 복복선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철은 일반열차와 급행, 특급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1) 부평역

6·25전쟁 후 교통부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역사 건물의 신축과 보수에 착수했고, 인천 구간에서는 1957년 10월 부평역을 시작으로 12월 동인천역, 1960년 9월에는 인천역사(仁川驛舍)가 신축되었다. 아래 <1947년 부평역사와 1967년 부평역사의 변화된 모습>에서 왼쪽 1947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부평역은 플랫폼 북쪽으로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마도 1934년 개축한 건물과 1940년 증축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른쪽 1967년 항공사진 속 부평역사는 1947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부평역사는 6·25전쟁 당시 파괴되어 없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957년 10월 10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부평역사가 신축되었다.⁵¹



❖ 1947년 부평역사(좌)와 1967년 부평역사(우)의 변화된 모습⁵²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후 부평역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기존 100평 규모의 역사 건물로는 전철 이용객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철도청에서는 1981년 4월 역사 신축공사에 들어가 착공 7개월 만인 11월 23일 준공을 보았다. 신축 부평역사는 기존 규모의 네 배가 조금 넘는 414평으로 지어졌다.⁵³ 한편 철도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민간 자본

51 「부평역사 신축」, 『조선일보』, 1957년 10월 6일자.

52 인천광역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53 「부평역사 신축 준공」, 『매일경제』, 1982년 11월 23일자.

을 유지해 철도역을 상업, 업무, 숙박 등 복합시설로 운영하는 민자복합역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89년 3월 서울역 민자 역사 운영을 시작으로 4월에는 인천백화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동인천역 민자 역사가 문을 열었다. 그 후 철도 이용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철도역은 어김없이 민자 역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용객이 많았던 부평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2년 7월 22일 서울역, 동인천역, 영등포역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민자 역사 건설공사에 착수해서 2000년 2월 21일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4,884평의 신축 역사가 준공되었다. 역사 내에는 대형 할인매장과 음식점, 극장 등이 입주하여 부평 지하도상가와 이어지는 부평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1972년 부평역사(국가기록원, CA02383879)

한편 부평역 앞으로 넓게 펼쳐진 4,500평 규모의 광장은 1940년대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1기분 공사 때 조성된 것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역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 지하도 상가와 부평시장이라는 상권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철이면 각 정당의 유세장으로 활용되거나 주요 정치인의 시국 강연회 등 각종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다. 민자 역사가 들어선 뒤 일부 공간이 도로로 점

유되어 광장의 면적이 축소되긴 했지만,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도 촛불집회 등 민의를 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1987년 9월 26일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시국강연회⁵⁴

2) 동암역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암역은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신설된 역이다. 수도권 전철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1973년 2월 철도청은 전철화 구간에 신설되는 12개 역을 발표했다. 그중 경인선 구간에는 총 7개 역이 신설되었는데 동암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이전부터 주안역과 부평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 십정동과 간석동 일대의 주민들은 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1967년 6월 제7대 총선을 앞두고 김해두 인천 시장은 간석동 일대에 간이역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선거 공약에 그치고 말았다.⁵⁵

1970년 6월 인천시는 간석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민이

⁵⁴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go.kr/>).

⁵⁵ 「인천시 두 곳에 간이역을 설치」, 『경향신문』, 1967년 6월 1일자.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도권 전철 개통에 맞춰 이곳에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철도청에 요구했고, 1973년 동암역 설치가 확정되었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후 논과 밭이 대부분이던 동암역 일대는 십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 택지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었다. 십정동과 간석동 일대의 택지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난 데다 가좌동 일대의 공단 근로자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동암역 이용객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동암역 이용객 수는 수도권 전철 인천 구간에서 동인천역을 제치고 부평역과 주안역 다음으로 올라섰다. 이용객이 늘면서 인천지하철 건설을 계획할 당시 수도권 전철의 환승역으로 검토된 적도 있었다. 특히, 가좌동 일대의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북광장 일대로는 주점과 음식점들이 들어서 먹자골목이 형성되었다.

동암역은 전철 개통 당시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1983년 8월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신축 당시의 역사는 역무실과 매표소, 개찰구가 2층 구름다리 위에 있어 전철을 이용하려면 계단을 올라가 매표와 개찰을 한 후 다시 플랫폼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998년 경인선 복복선 건설 공사 당시 기존 역사 철거와 역사 신축공사를 함께 추진했는데 2001년 10월 17일 신축된 역사는 1층 역사로 진입하여 매표와 개찰 후 플랫폼으로 오르는 구조로 개선되었다.



❖ 1980년대 초 동암역 남부역(사진 박근원,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3) 백운역

1984년 산곡동 일대로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확정되고 1만 5,000가구의 입주가 예정되면서 인천시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철도청에 제출했다. 철도청에서는 그해 7월부터 백운역 건설 공사에 들어가 11월 20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역 북쪽으로 1970년대 초 백운기업에서 지은 단독주택단지를 백운주택이라 부른 것에서 연유하여 역명을 백운역으로 붙였다. 신축 당시 부안고가교(현 백운고가) 아래의 역사에서 플랫폼으로 직접 진입하여 구름다리를 통해 상하행선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2001년 경인선 복복선 공사 당시 다시 지은 역사는 구름다리 위에 역사를 두고 매표와 개찰 후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백운역 준공식(사진 박근원,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한편 2010년 8월 인천시는 백운역 남쪽과 북쪽의 유휴 공지 1만 5,647㎡에 환승 버스 정류장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운역 광장 조

성공사에 착수하였다.⁵⁶ 이는 부평사거리에서 신촌사거리로 이어지는 부안고가교 개보수 공사와 함께 실시되었던 것으로 2014년 1월 준공되어 현재 백운역 광장은 주차장과 시민 휴게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4) 부개역

1981년 4월 완료된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가 주택 단지로 조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인철도 북쪽 부개2동, 3동에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시작하여 부개동 일대의 교통난이 예상되었다.⁵⁷ 1992년은 3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1991년 9월 12일 인천시는 수도권 전철 경인선 구간에 부개역과 염빙역(현 간석역), 운동장역(현 도원역) 등 세 곳의 전철역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월 29일 철도청에서는 부개역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지만 3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착공은 물론 역사 위치도 선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유지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단과 재착공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간석역과 도원역에 비해 준공이 2년이나 늦어졌다. 결국, 1996년 3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변 도로나 주차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준공하여 주민들의 비난을 사야만 했다.

56 「동인천, 부평, 백운역 주변 시민쉼터 광장 조성」, 『경인일보』, 2010년 1월 15일자.

57 「인천 부개, 논현, 도림동 택지개발」, 『한겨레신문』, 1993년 1월 14일자.



❖ 대통령 선거 후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된 부개역(『동아일보』, 1994년 1월 12일자)

표 5 수도권 전철 경인선 부평구간 각 역별 이용객 현황

(단위: 년명)

구분 연도	동암역		백운역(1984.11.)		부평역		부개역(1997.11.)	
	1일 평균	총 이용객	1일 평균	총 이용객	1일 평균	총 이용객	1일 평균	총 이용객
1976	5,374	1,961,808	-	-	19,809	7,230,292	-	-
1981	17,669	6,449,381	-	-	82,207	30,005,824	-	-
1986	33,219	12,125,212	20,208	7,376,053	121,369	44,300,000	-	-
1991	94,299	34,419,000	26,049	9,508,129	151,904	55,445,000	-	-
1996	107,253	39,147,509	20,975	7,655,764	106,277	38,791,110	-	-
2001	60,568	22,107,606	28,359	10,351,108	100,750	36,773,650	26,360	9,621,545
2006	52,306	19,091,904	20,457	7,466,856	80,877	29,520,240	24,986	9,119,808
2011	47,763	17,433,668	18,762	6,848,154	67,896	24,768,724	21,726	7,929,825
2016	47,501	17,337,910	18,460	6,737,826	83,230	30,379,130	20,840	7,606,627

❖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2. 지하철 시대의 도래

1991년 12월 인천시는 인구 2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세 개 노선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계양구 상야동에서 송도신도시를 잇는 1호선과 검암동에서 남동공단까지 건설되는 2호선, 그리고 인천대공원에서 송림동과 가좌동을 돌아 서울지하철 7호선과 연결시켜 온수역에 이르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2008년까지 모두 완공하여 시민의 발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아울러 행정 지원을 위해 인천지하철기획단(훗날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로 개칭)을 발족시키고 1992년 4월 1호선의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설계 과정에서 당초 상야동에서 계산동, 산곡동, 동암역, 연수동을 거쳐 송도신도시 26.4km 구간으로 계획했던 노선이 공항철도 환승역에서 시작하여 계산동, 부평역, 간석오거리, 연수동, 송도신도시까지 이어지는 25.2km 구간으로 변경되었다.⁵⁸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인천 도시계획에 참여해 왔던 지역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특히 경인전철의 환승역이 동암역에서 부평역으로 바뀐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인천지역 최대 교통 인구를 가진 부평역을 환승역으로 한다면 최악의 교통마비 상태가 올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⁵⁹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노선의 최종 결정은 사전에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로 확정된 것이라 밝혔다.

인천시는 설계 단계에서 인천지하철에 투입될 차종을 폭 2.75m, 길이 17.5m, 높이 4m 규모에 열차 1량당 정원이 124명인 중량(中量) 전철로 결정했다.⁶⁰ 이는 서울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열차보다는 조금 작고, 부산 지하철과 비슷한 규모로 인천시는 그 이유를 운영요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첨단설비를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와 함께 굴현동에 7만 4,000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차량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58 「인천 도시전철 노선 대폭 변경 새 공항전철-경인로 연결」, 『한겨레신문』, 1992년 9월 10일자.

59 「인천 도시철도-경인전철 환승역, 전문가들 "부평 부적당" 재고 요구」, 『동아일보』, 1993년 7월 3일자.

60 「인천지하철 중형 차종으로」, 『동아일보』, 1993년 1월 29일자.

1993년 7월 5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교대 입구부터 북인천세무서 사이 1.22km 구간에서 첫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굴현동 차량기지에서 동막역까지 23.17km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에 들어갔다. 그중 부평구의 공사 구간은 1-5공구에서 1-9공구까지 총 여섯 개 공구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인천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부평 구간 공사 현황

공구	구간	거리	착공일	준공일	설치역
1-5	북인천세무서 - 부평세관	1,475	1993.12.31.	1999.12.30.	갈산역
1-6	부평세관 - 부평구청 사거리	1,537	1993.12.31.	1999.12.30.	부평구청역
1-7	부평구청 사거리 - 삼능	1,608	1995. 4. 8.	1999.12.30.	부평시장역
1-7-1	부평정거장(환승)	70	1994.12.31.	1999.12.30.	부평역
1-8	삼능 - 부평삼거리	1,196	1994.12.12.	1999.12. 9.	동수역
1-9	부평삼거리 - 간석오거리	1,209	1994. 8.18.	1999.12.30.	부평삼거리역

출처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4, 2002, 395쪽.



❖ 1997년 10월 16일 부평역 지하철 공사 붕괴 사고 현장⁶¹

61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공사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공사 기간 중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1997년 10월 16일에는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다. 1999년 10월 6일 인천지하철 1호선은 6년 3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동막역에서 박촌역 사이의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고, 12월 7일 굴현역까지 추가로 개통되었다. 설계 때 확정된 역은 모두 22개였는데 굴현동 차량기지에 굴현역이 추가되면서 모두 23개 역이 되었다. 개통 당시 운영에 들어간 역은 22개 역으로 미개통 역이던 계양역은 공항철도가 개통된 2007년 3월 23일부터 환승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환승역은 계양역(공항철도), 부평구청역(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역(경인전철), 인천시청역(인천지하철 2호선), 예술회관역(인천지하철 3호선), 원인재역(수인선) 등 모두 여섯 개 역으로 계획되었는데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는 예술회관역을 제외한 다섯 개 역이 환승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 간 6.5km의 송도연장선을 개통했다. 2005년 2월 착공하여 4년 4개월 만에 개통된 송도연장선은 원래 2009년 10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8월부터 시작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하여 4개월 일찍 개통한 것이다. 2020년 12월 12일에는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간 0.8km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인천지하철 1호선의 운영구간은 30.2km로 늘어났고, 송도신도시에만 7개의 역이 추가되어 총 30개 역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0년 11월 11일에는 계양역에서 이어지는 6.8km의 검단연장선이 착공되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지하철 1호선의 30개 역 중 부평구에는 갈산, 부평구청, 부평시장, 부평, 동수, 부평삼거리 등 모두 여섯 개 역이 위치한다. 갈산역은 부평 수출공단과 한국GM 공장 인근에 있어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부평구청역의 주 이용객도 한국GM 공장 근로자들과 인근의 부평구청, 북구도서관, 여성재단 직원과 민원인들이다. 부평시장역과 부평역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하도 상가로 연결된 데다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 등 대규모 상권에 인접해 있어 쇼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동수역은 가톨릭성모병원의 방문객을 제외하곤 이용객 대부분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이는 부평삼거리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표 7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 구간 각 역별 이용객 현황

(단위: 년명)

역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1일 평균	총 이용객						
갈산		6,103	2,227,695	14,585	5,323,568	17,805	6,498,885	17,986	6,564,950
부평구청		12,074	4,407,023	13,684	4,994,789	12,395	4,524,317	15,185	5,542,373
부평시장		11,181	4,081,059	15,517	5,663,597	17,765	6,484,229	22,566	8,236,637
부평		8,329	3,040,020	10,308	3,762,385	11,949	4,361,371	14,659	5,350,620
동수		5,500	2,007,357	6,529	2,383,029	6,917	2,524,875	8,206	2,995,021
부평삼거리		4,312	1,574,012	4,151	1,515,133	4,306	1,571,536	5,340	1,949,181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시 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2000년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서울시 구로구 은수동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까지 연장시키자는 논의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은수역에서 부천시 상동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우선 부천시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인천시 구간은 2005년 7월 착공하였다. 총 공사 구간 10.2km 중 인천시 구간은 부천시 경계선으로부터 길주로를 따라 부평구청에 이르는 2.8km였다. 당초 2011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부천시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19개월 지연된 2012년 10월 25일 개통되었다. 이 구간에는 모두 9개 역이 설치되었는데 인천 구간에 해당하는 역은 삼산체육관역, 굴포천역, 부평구청역 등 세 개 역이었다. 이 역의 명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인천시에서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표 8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 구간 각 역별 이용객 현황

(단위: 년명)

연도	구분	삼산체육관역		굴포천역		부평구청역	
		1일 평균	총 이용객	1일 평균	총 이용객	1일 평균	총 이용객
2013		9,620	3,511,630	13,040	4,759,622	16,244	5,929,202
2014		10,880	3,971,185	15,761	5,752,717	19,116	6,977,420
2015		10,605	3,870,950	17,122	6,249,353	20,902	7,629,261
2016		10,744	3,921,727	17,995	6,568,216	21,545	7,863,950
2018		10,314	3,764,830	18,822	6,869,943	21,323	7,782,837
2019		10,603	3,870,028	19,200	7,008,095	21,727	7,930,492

출처 : 서울교통공사(<http://www.seoulmetro.co.kr/>).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2007년 8월 인천시는 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노선을 청라지구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년 10월 30일 1단계로 부평구청에서 석남동까지 4.2km 구간을 연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2021년 상반기에 개통된 석남동 연장 노선에는 산곡역과 석남역이 신설되었고, 석남역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지하철 노선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 기능이 비교적 침체되어 있던 산곡동, 청천동 일대의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청라연장선 건설공사가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간 10.7km 구간에 7개 역이 설치되는 청라연장선은 2021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7년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외에도 부평구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건설될 예정이다. 2009년 경기도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건설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에서 제안된 세 개 노선 중 부평구 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를 연결하는 49.9km의 B노선이었다.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노선은 경제적 타당성(B/C) 지표가 0.33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경제적 타당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B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1km로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변경 계획이 2019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GTX B노선은 송도에서 인천시청과 부평역을 지나고 부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에 이르는 구간으로 모두 13개 정거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GTX는 지하 40m 이하 깊이의 대심도 터널에서 시속 180km로 운행하여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TX B노선은 2022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개통할 계획인데 부평역은 경인전철, 인천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역으로 이용된다. 이미 인천의 교통 요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평구이지만, GTX B노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仁川市史)』 상·하,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인천직할시, 『인천 개항 백년사(仁川開港 100年史)』, 인천직할시, 1983.
 인천직할시,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仁川開港 100年)』, 인천직할시, 1983.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한동규, 『나, 이 고개에 길을 내다』, 생각나눔, 2013.

논문

- 김용하, 「길의 역사, 인천의 역사」, 『황해문화』25, 1999.
 노용보, 「경부고속도로의 탄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희준, 「경인지구종합개발안」, 『대한토목학회지』9(2), 1961.
 오석진,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부평사
富平史





제 5 장

공동주택의 변화 : 아파트 등장과 정착, 확산

제1절 _ 부평구와 아파트

제2절 _ 1970년대 : 주택의 집단화와 아파트의 등장

제3절 _ 1980년대 :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등장과 정착

제4절 _ 1990년대 : 아파트 단지의 확산과 신시가지 조성

제5절 _ 부평 아파트의 등장, 정착, 확산

제5장 공동주택의 변화: 아파트 등장과 정착, 확산

박진희(호서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 제1절 부평구와 아파트

인천의 주요 도시인 부평구는 오랜 시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899년 경인철도 개설과 함께 부평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부평역 인근에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군수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고, 광복 후 주둔한 미군들은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시설들을 그대로 접수하면서 부평미군기지, 에스컴 시티(ASCOM CITY)를 건설하였다. 1960년대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터를 잡고, 수출공단이 조성되면서 부평구는 또 한 번 도시 구성에 변화를 겪는다. 철도, 고속도로, 공장, 미군기지 도시의 산업화와 함께 부평구의 공간은 변화하였고, 도시를 구성하는 주거 양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중 아파트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차지하며 확산되어갔다.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도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단위 주거가 적층된 아파트의 규모와 형태는 기존 자연발생적인 주거와는 양식과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도시에 삽입되었을 때 기존의 도시조직과 다른 규모와 형태는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현재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흐

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파트는 도시가 발전하고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도시화와 함께 등장한 아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의 등장, 정착, 확산의 과정을 도시적인 맥락에서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평구의 경우 1980년대 현대아파트의 등장이 주거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다. 도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 현대아파트를 기점으로 도시의 조직과 경관은 눈에 띄게 변해나갔을 것이다. 아마 현대아파트 이전에도 소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유형이 단지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경관은 더욱더 많이 변해갔을 것이다. 본 원고는 그 변화의 흐름을 탐색하여 양상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선 1980년을 기점으로 전후 10년씩 30여 년간의 공동주택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아파트가 등장하고 정착하여 확산되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우선 부평구 전체의 지도를 펼치고 시작을 하였다.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데이터를 입힌 GIS 지도를 통해 1970, 80, 90년대별로 공동주택의 분포가 드러내는 지리적 특성을 우선 탐색한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나가기 위해 데이터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유형을 따라가면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들의 도시적 상황과 변화 추이를 따라가본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이 밀집되기 시작한 도시, 사회적 배경을 들여다보고 도시와 공동주택의 관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 안에서 현재 실존하는 건축물들의 유형을 추출하여 그 실체에 대해 탐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70~90년대까지 부평구라는 도시의 변화와 아파트의 변화의 관계를 엮으며 부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논고의 가지는 목적이자 의미이다.

1.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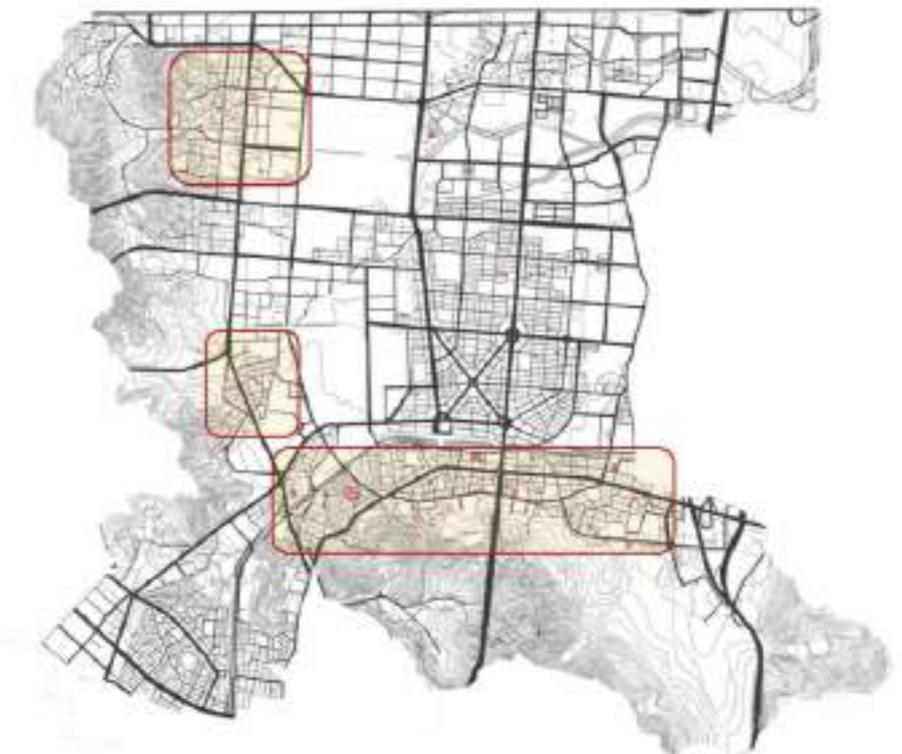
1970년대 공동주택의 분포를 보면, 경인전철 남쪽의 부평동, 부개동, 일신동 일대와 경인고속도로 남쪽의 청천동에서 공동주택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집단화된 주택단지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1970년대는 문화주택, 국민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이 단지 형태로 들어선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단독주택지의 집단화가 나타난 산곡동을 포함해 1970년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 부평구 공동주택의 높이를 표현한 GIS 지도



❖ 1970, 1980, 1990, 200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을 표현한 지도



❖ 1970년대 건립 공동주택 분포(2019년 데이터 기준)

2. 공동주택 밀집지

1) 청천동



❖ 197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청천동은 경인고속도로의 남쪽에 위치하며 부평수출산업단지와 한국GM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공동주택들이 들어선 곳은 행정동상 청천1동 지역인데, 장수산 아래 마장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분포가 남쪽의 산곡1동으로 이어진다. 청천동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지로 확대되었다. 1941년 산곡동에 자리한 일본 육군 조병창 근무자들을 위한 일부 소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부평의 요처를 차지한 미군부대의 영향으로 군인들이 거주할 주택들이 본격적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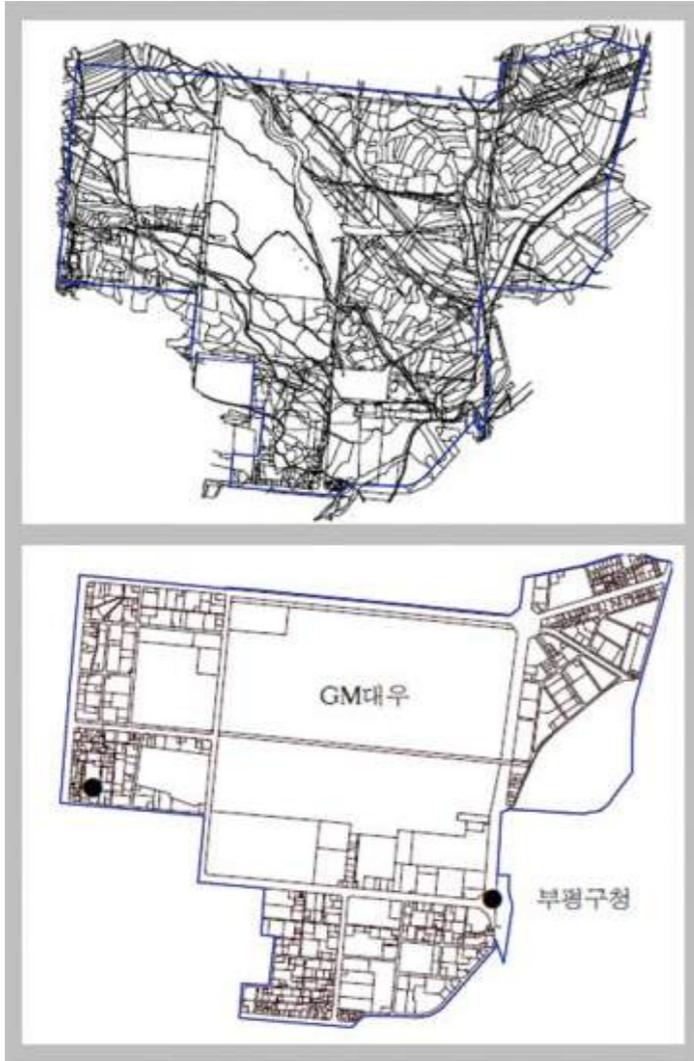
청천1동의 마을 형성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지로 확대되었다. 청천1동에는 일제시기 조병창 사택으로 이용한 '검정사택'과 일본인 간부들이 기거하는 다다미방 사택이 자리를 잡았고, 해방 이후 조병창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일 자리를 찾는 외지인이 청천1동으로 모여들면서 무허가 건물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청천1동 인근에 공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묘지 터에 주택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청천동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부평수출공단의 조성이다. 경인고속도로는 부평뿐 아니라 인천의 산업근대화 추진을 앞당긴 도시 요소이다. 이와 관련 인천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² 인천은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변의 토지구획정리를 시작하였다. 경인공업지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서둘러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고, 1967년 3월 착공하여 1969년 7월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연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우려한 정부는 1967년 11월 11일 서울-인천 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결정 고시하였고, 그중 청천동에 해당하는 부평3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1969년부터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9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토지구획정리와 함께 청천동에 생긴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부평에 수출공업단지가 들어선 것이다.

논과 밭이 대부분이던 조그만 마을 청천동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청천2동에 수출공단과 자동차공장이 자리한 후 일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거지로 입지를 굳혀나갔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지대와 인접한 주거지였던 청천동에 공동주택이 등장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1 정연학, 「청천1동 주거문화」,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162~163쪽.

2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2017, 56~57쪽.



❖ 부평3지구(1969.2.10.~1979.6.18.),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2017)

197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을 보면 장수산 아래쪽, 청천사거리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장수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청용연립, 광명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은 1978년에 준공되었는데, 현재(2020년 기준)는 재개발 진행 중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모두 2층의 벽돌구조 건물이다.

청천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청천아파트, 동쪽에는 삼일연립과 미성빌라가 현재 위치하고 있다. 삼일연립과 미성빌라는 청천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다.



❖ 1970년대 건립 청천동 공동주택(1985년 항공사진에 표시)

1978년 12월에 준공된 2층 규모의 삼일연립은 총 5개동으로 사선의 가로를 따라 배치가 되어 있으나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정일빌라, 부원연립이 들어서면서 삼일주택과 함께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였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미성빌라 역시 1978년에 완공된 벽돌구조의 건물로 2동짜리이다. 1980, 90년대 바로 인접하여 명성연립과 우주빌라가 들어서면서 평천로152번길을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저층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현존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1978년을 시작으로 청천동에 2층의 벽돌구조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밀집되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1985년 항공사진과 현재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필지의 크기나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삼일연립과 미성빌라(1985년 항공사진)



❖ 삼일연립과 미성빌라(2019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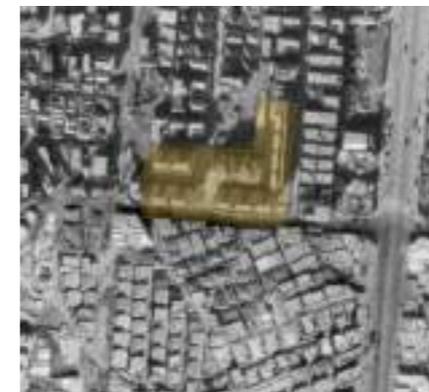
❖ 삼일연립(2020.12.1.)

이 시기 주목할 것은 5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가 청천동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아파트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천아파트는 부평구에 현존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라

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아파트로 당시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분양 광고를 했었다. 청천아파트는 5개동으로 구성되는데 1개동은 가로에 면해 동쪽을 향하고 있고 4개동은 모두 남향을 취하고 있다. 분양 광고를 보면 14평형으로 초기에는 4개동이 계획되었다. 4개동은 1978년 11월 24일, 1개동은 1982년 11월 8일 준공되었으며, 앞서 밝혔듯이 4개동은 14평형, 51.1㎡이고 추가 건립된 1개동은 67.9㎡이다.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인접한 대지들에 큰 변화가 없이 도로만 정리되고 5층의 청천아파트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자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장수산 아래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완공된 이후 청천아파트 주변의 경관은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 청천아파트 분양 당시 조감도(『조선일보』, 1978년 6월 18일자)



❖ 청천아파트(1985년 항공사진에 표현)



❖ 청천아파트(2019년 항공사진에 표현)



❖ 청천아파트(2020.12.1.)

2) 산곡동

산곡동은 1970년대 이전에도 논밭과 함께 화랑농장 주택지, 근로자 주택지와 같은 집단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던 곳이다. 이러한 곳에 다시 한번 단독주택이 집단으로 들어서게 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군기지 옆에 자리하고 있던 미군형무소의 이전과 다른 하나는 주택용지 조성사업이다.

산곡동 근로주택지가 위치하던 대지의 맞은편 길주로 북쪽에는 미군형무소가 있었

다. 이곳에 위치하던 미군형무소가 1970년대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문화주택단지³가 들어섰다. 단독주택이 단지 형태로 들어선 것은 산업화와 함께 당시의 부평구에 인구가 집중되던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군형무소가 빠져나간 산곡1동에 들어선 단독주택 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가 산곡3동에도 들어선다.



❖ 197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앞서 청천동에서도 언급했듯이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공업화 정책으로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산곡동 317번지 일대에는 부평국민주택이라 하여 5만 9,901㎡의 부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였다.

³ 통상적으로 문화주택이라고 하면 일제시기에 지어진 주택을 이야기한다. 이곳이 왜 문화주택단지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헌과 기사에서는 이곳을 문화주택이라고 칭하고 있기에 본 논고에서도 문화주택단지로 명시한다.

표 1 1979년경 조성된 일단의 주택용지

지구명	위치	면적(㎡)	결정(일자)	시행자 사업기간	현재상황
공무원 연금주택단지	북구 가좌동 127번지 일원	271,080	건고 제165호 '71.3.31	총무처 '73.12~'74.11	현재 서구 가좌3동, 가좌중교 우측 우신 프라자, 현대APT, 태화APT 일원
동일주택단지	남구 간석동 508외 27필지	20,970	인공 제639호 '75.10.28	김주하 '76.1~'77.3	현재 남동구 간석1동, 상인천여중 좌측 주택지 '동일공원' 이라는 명칭에서 동일 주택단지를 추정할 수 있음
부평국민주택	북구 산곡동 317-2외 25필지	59,091	경고 제133호 '76.5.31	이상덕	현재 부평구 산곡3동 산곡남 초교 남측
간석APT	남구 간석동 511외 6필지	23,719	경고 제132호 '78.4.3	태평양건설(주) '78.5.~'80.4	현재 남동구 간석1동, 송림저층아파트 단지였으나 1998.2 재건축사업승인. 2003.7 입주되어 현재 현대홈타운 고층 아파트화 되었음

❖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2017, 81쪽.

1970년대 들어서 화랑농장에 외지 철거민들이 수용되며 마을 경관에 변화가 생겼다. 1975년 중랑천이 철거되면서 발생한 철거민들이 각지로 분산수용되었는데, 그중 한 곳이 화랑농장이었다. 『매일경제』(1976.6.23.)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천 무허가 건물 철거 주민에게 인천시에서 국민주택 225동을 건립하여 분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설부에 국민주택 건립사업승인을 받아 인천 북구 산곡동 317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1975년 발생한 철거 난민으로 1975년에 44가구가 십정동에 이미 입주했고, 나머지 225가구가 1976년 산곡동 화랑농장에 입주하기로 계획된 것이다.⁴

국민주택단지가 단독형 단지의 집단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 유사한 시기 산곡동에도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국민주택단지 바로 맞은편에 화랑연립이 들어섰다. 1979년 준공된 화랑연립은 당시 많이 지어지던 연립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2층의 벽돌구조 4개동이다. 당시의 화랑연립의 분양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4 손민환, 「지난 기억을 깬다」,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부평역사박물관, 2019, 40~41쪽.

내부시설은 단독주택식 구조

특허품 연탄보일러

주방, 욕실은 온수보일러

입식주방, 싱크대 및 찬장, 수세식 양변기 등⁵

공동주택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의 삶은 이질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화랑연립의 분양 광고에서는 단독주택의 이점과 현대식 공동주택의 이점을 고루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 그러한 공간 구조를 내부에 담기는 어려웠겠지만 단독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생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어찌보면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홍보하고자 했던 의도로서 당시 주거 양식의 전환기를 얼핏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국민주택과 화랑연립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산곡동 대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와 현재의 항공 사진을 보면 청천동보다 산곡동 일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장로 개설이 필지에 변화를 주었고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국민주택단지의 일관성도 많이 깨진 모습이다.



❖ 국민주택단지와 화랑연립(1985년 항공사진)



❖ 국민주택과 화랑연립(2019년 항공사진)

5 『경향신문』, 1979년 10월 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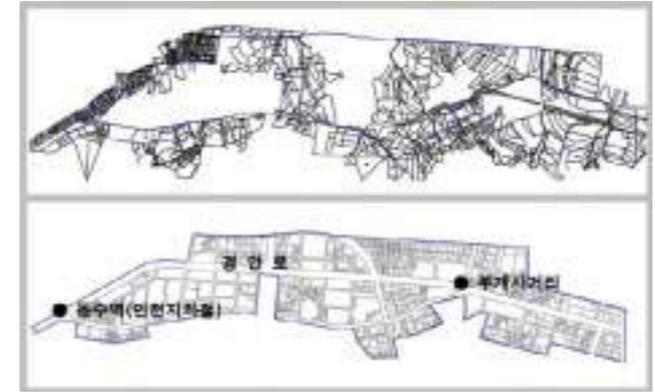
3) 부개지구(부개역 남부 부평동, 일신동 일대)



❖ 197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1970년대 공동주택 분포를 봤을 때, 분포의 양상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은 부평역을 지나가는 경인철도 아래 부평동, 일신동 일대였다. 당시의 인천 도시계획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장되던 시기였다. 앞서 청천동의 1970년대 상황은 1960년대부터 조성된 고속도로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영향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정리됐다면, 경인전철 남쪽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로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부평의 경우 경인국도변 부평역-부개역 남부를 부개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하였다.⁶ 부개지구는 현재의 부평6동부터 부개1동, 일신동까지를 포함한다. 197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에 분포를 보면 부개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쪽의 부평2동에도 공동주택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2017,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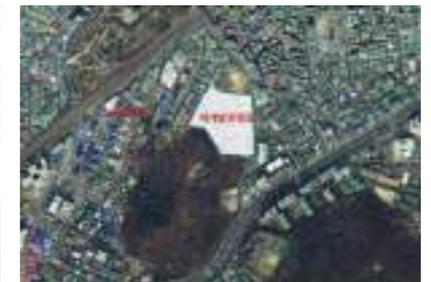


❖ 부개지구(1971.8.20.~1981.4.4.),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2017)

부평2동은 삼릉마을을 포함하는 부평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백운역과 동수역 두 개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도 주거지였던 삼릉마을에 1970년대 들어섰던 공동주택 중 최근까지 근린공원(희망공원) 주변으로 창휘연립, 안암아파트, 금강연립, 전인연립, 태원연립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사이 재개발이 진행되어 현재는 창휘연립만 남아 있다. 당시 연립주택들은 모두 1978년에 조성되었고, 12월 준공이 대부분이다. 안암아파트는 1979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철근콘크리트의 5층 구조로 110세대(19평형 90세대, 26평형 20세대)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청천아파트(1978)와 함께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지어진 5층 아파트의 시초를 보여 준다.



❖ 창휘연립, 안암아파트, 태원연립, 전인연립
(1985년 항공사진)



❖ 창휘연립과 재개발지(2019년 항공사진)



❖ 안암아파트 분양 광고 (『동아일보』, 1979년 5월 12일자)



❖ 목련연립, 목련아파트(1985년 항공사진)

부평2동의 동쪽부터 부개지구가 시작된다. 2019년 자료를 보면 경인로와 장제로가 교차하는 동소정사거리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공동주택이 모여 있다. 경인철도와 인접한 북서쪽에는 목련아파트와 목련연립이 함께 조성되었던 곳이다. 현재는 재개발 진행 중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목련연립과 목련아파트는 여러 필지에 걸쳐 함께 조성되어 있었다. 604-39에 들어선 목련연립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총 6개 동이 자리했다. 인근 606-3에도 3개 동이 위치해 있었다. 9개 동 모두 2층의 벽돌구조로 분양 당시 광고를 보면 21평, 23평, 26평, 31평형으로 구성되었다. 광고⁷에서 ‘맨손아파트식’, ‘고급자재 사용’, ‘방3.5 입식주방 욕실’과 같이 고급지고 현대화된 주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철역에서 1분 거리’로 ‘서울과 인천의 출근이 용이함’이라는 말로 역과 가까이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강하게 내세운다. 1974년 시행된 수도권 전철화 계획과 함께 경인철도가 전철화되면서 부평역 인근 대지의 입지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목련연립이 들어서고 약 반 년 후인 1979년 5월 바로 인접하여 목련아파트가 들어선다. 연립과 차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층이 한층 높아진 3층이라는 점이다. 층과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름은 연립에서 아파트가 되었다.

7 『조선일보』, 1978년 4월 23일자.

동소정사거리의 남동쪽에는 목련연립과 비슷한 시기인 1978년 12월에 조성된 대원연립과 바로 이듬해 조성된 삼본아파트가 위치하고 현재 남아 있다. 대원연립은 목련연립과 마찬가지로 2층의 벽돌구조 총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본아파트는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주동 3동이다. 1978~1979년 약 2년여 동안 동소정사거리 일대에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 대원연립, 삼본아파트 외(1985년 항공사진)



❖ 대원연립, 삼본아파트 외(2019년 항공사진)

부개지구 동쪽으로는 일신동이 위치하는데 1970년대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남쪽의 부개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부일종합시장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있다. 일신시장이라고도 불리는 부일종합시장은 1982년 개설된 시장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다. 처음부터 시장의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동네의 조그만 슈퍼들이 자리하던 곳에 다양한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⁸ 시장 주변으로 중화연립, 삼화연립, 삼성연립과 같은 연립주택들이 존재한다.



❖ 부일시장과 공동주택(1985년 항공사진)



❖ 부일시장과 공동주택(2019년 항공사진)

경인로에서 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시장 입구에 바로 면해서 105-4에 중화연립 2개동이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위치(109-17)에 다른 2개동이 위치한다. 위치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모두 1979년 6월 23일에 준공한 건물로 건물에 대한 정보는 109-17번지의 건축물대장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건물에도 '중화'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중화연립은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장길과 면하고 있는 주동의 1층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중화연립(109-17) 맞은편에는 삼화연립 2개동이 위치한다. 시장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 삼성연립(105-9)이 위치한다. 2개동 모두 2층의 벽돌구조인데 시장과 면하는 주동의 1층은 상가용으로 이용된다. 일신동의 공동주택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⁸ 인천투어 홈페이지(https://itour.incheon.go.kr/TK_30000/TK_33400/TK_334R0.jsp).

과 결합하면서 1층에는 시장길을 따라 상가가 들어서는 상가아파트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보면 시장과 함께 도시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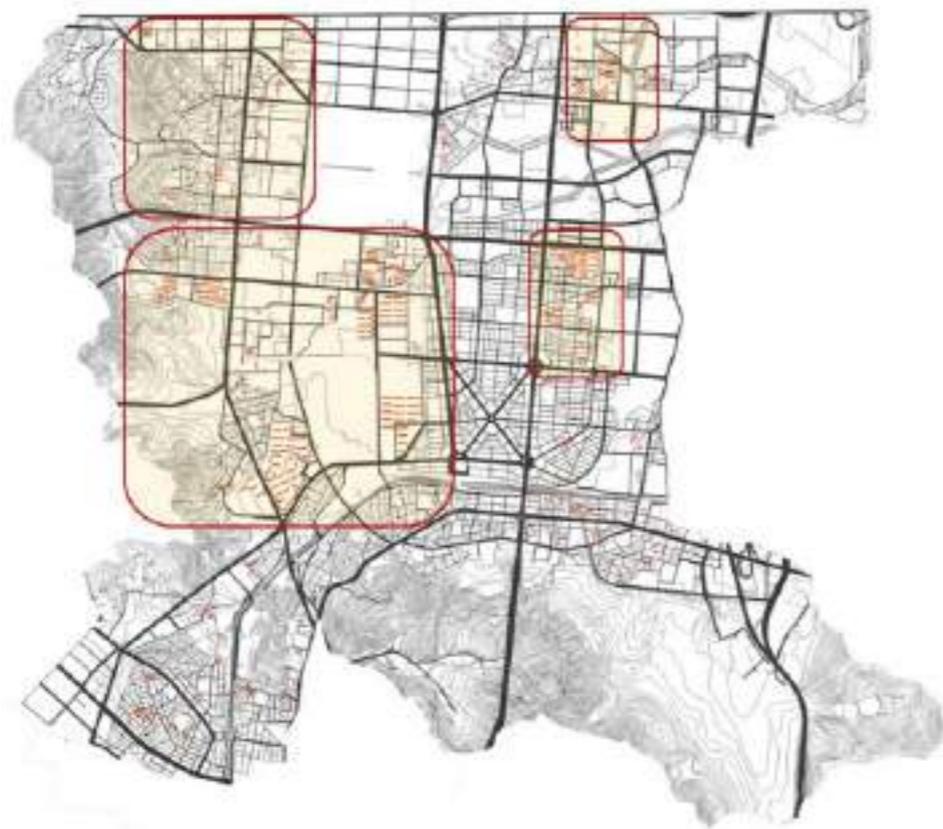
❖ 삼성연립(2020.12.1.)

| 제3절 | 1980년대 :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등장과 정착

1. 분포

198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의 분포를 보면 1970년대보다 공동주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동의 규모가 커지고 단지화된 성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을 법정동별로 다시 구분해 보면, 먼저 앞서 70년대에 공동주택의 등장이 눈에 띄게 보였던 청천동과 부개지구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중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된 부개지구(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에 아파트로 인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양이 늘고 그사이 소규모 아파트도 등장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조직에 맞춘 소규모 아파트들이었고 필지가 크지 않다 보니 아파트 층의 변화도 크게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분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 분포 지도에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은 삼산동과 부개동 쪽이다. 경인고속도로 아래 삼산동 쪽으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길주로와 인접한 부개동 쪽으로는 일련의 아파트 단지가 남측을 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보이는 지역은 산곡동과 산곡동에 바로 인접한 부평동(행정동 부평1동)이다. 대규모 단지의 형태가 들어선 것이 바로 드러난다. 밀집지의 특성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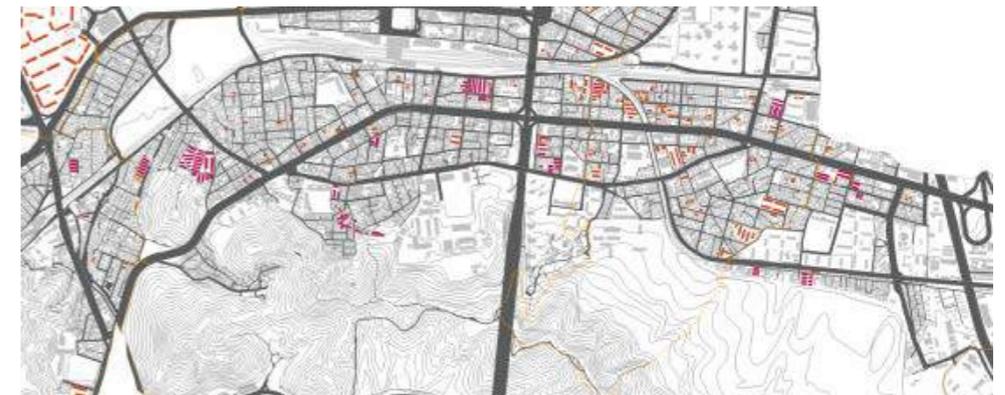


❖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분포(2019년 데이터 기준)

2. 공동주택 밀집지

1) 청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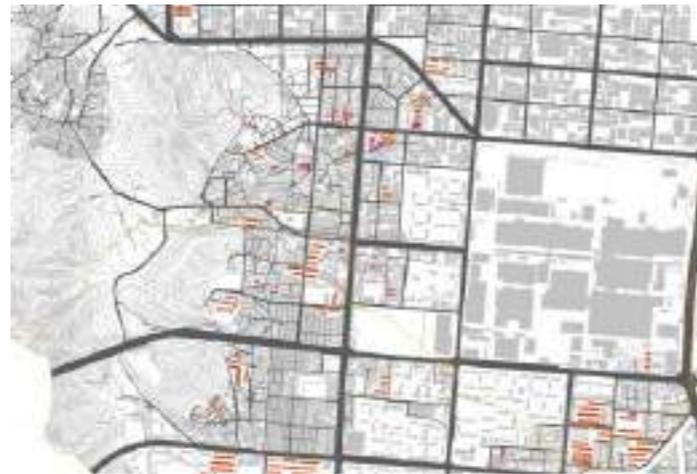
1970년대 말 들어서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1980년대 들어서 양적 증가를 보인다. 부개역 남부 부평동, 일신동과 마찬가지로 청천동의 경우 기존 조직의 변화 없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삽입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지어진다.



❖ 1970년대,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 부개역 남부(2019년 데이터 기준)

청천동의 경우 1970년대에 이어서 2층 연립주택이 지속적으로 들어섰다. 2층 규모의 벽돌구조 연립주택 2개 동부터 많게는 6개 동까지 모여서 조성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1982년 12월 1일 준공된 장미연립(19-14번지)과 부원연립(173-13번지) 등이 있다. 두 공동주택은 모두 197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과 모두 인접하여 들어섰다.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연립주택의 형태와 함께 이 시기 청천동에 들어선 공동주택은 점점 5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형태를 보인다. 영남아파트(48-347번지, 1986.5.17. 준공), 대진아파트(236번지, 1985.5.17. 준공), 미도아파트(236-5번지, 1980.2.27. 준공), 삼익아파트(300번지, 1986.11.20. 준공), 동양아파트(397번지, 1982.12.16. 준공) 등이 이 당시 조성된 공동주택이다. 1970년대 처음으로 지어진 5층 아파트인 청천아파트도 1개동이 추가되어 5개 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중 영남아파트는 최근까지 존재했으나 현재 재개

발 진행 중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70년대부터 시작된 장수산 아래 지역은 주로 5층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청천동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도시조직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들어선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되어 실체를 알 수 없는 건물들이 많지만, 연립주택과 5층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주거지는 경관에 큰 변화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출공단 조성 이후 이 지역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 1970년대,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 청천동(2019년 데이터 기준)



❖ 1970,1980년대 조성된 5층 아파트(출처: 『장수산 맑은내마을, 부평 청천동』, 2016. 발체 사진 위에 위치 표현함)

대진아파트, 미도아파트, 삼익아파트는 한국GM 남쪽에 위치하고 부평동, 산곡동에 지어진 1980년대 아파트 단지들과 인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아파트는 청천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부평동과 산곡동 아파트 단지들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이 지역은 1970년대 부평3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곳이다. 이곳에 들어선 아파트 중 규모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삼익아파트의 등장이다. 삼익아파트는 19평형 165세대, 21평형 120세대, 25평형 90세대로 총 375세대로 구성되었고 주거동 2개 동과 상가동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가 15층 규모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주택과 차별화된다. 공동주택의 높이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15층의 아파트이다 보니 처음으로 층별로 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층별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미도아파트, 대진아파트, 삼익아파트



❖ 삼익아파트 조감도(출처: 『매일경제』, 1985년 9월 14일자)

2) 부개동

1970년대 공동주택이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1980년대 들어서 공동주택이 눈에 띄게 들어선 곳은 삼산동(행정동상 삼산1동)과 부개동 북쪽 영역(행정동상 부개3동)이다. 그중 부개동에 들어선 단지들은 남향 배치의 주동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보여 눈에 띈다. 하지만 모두 다른 민간업체에 의해 조성된 단지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 육일아파트(1988.11.29. 준공). 대진아파트

(1988.11.29. 준공), 대동아파트(1988.10.29. 준공), 동아아파트(1988.11.19. 준공), 뉴서울 아파트(1989.12.27. 준공)⁹ 4개 단지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 1970년대,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 삼산동(2019년 데이터 기준)



❖ 1970년대,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 부개동(2019년 데이터 기준)



❖ 육일아파트, 대진아파트, 대동아파트, 동아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선 1986년과 1989년 3년 사이의 부개동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1980년대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택지조성계획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다. 이 시기 부개동 일대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인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변화를 표현한 지도¹⁰와 항

⁹ 일부 주동은 한 번에 준공이 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준공을 받았다. 이 경우 최종 준공일을 기재하였다.

¹⁰ 인천광역시,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2004,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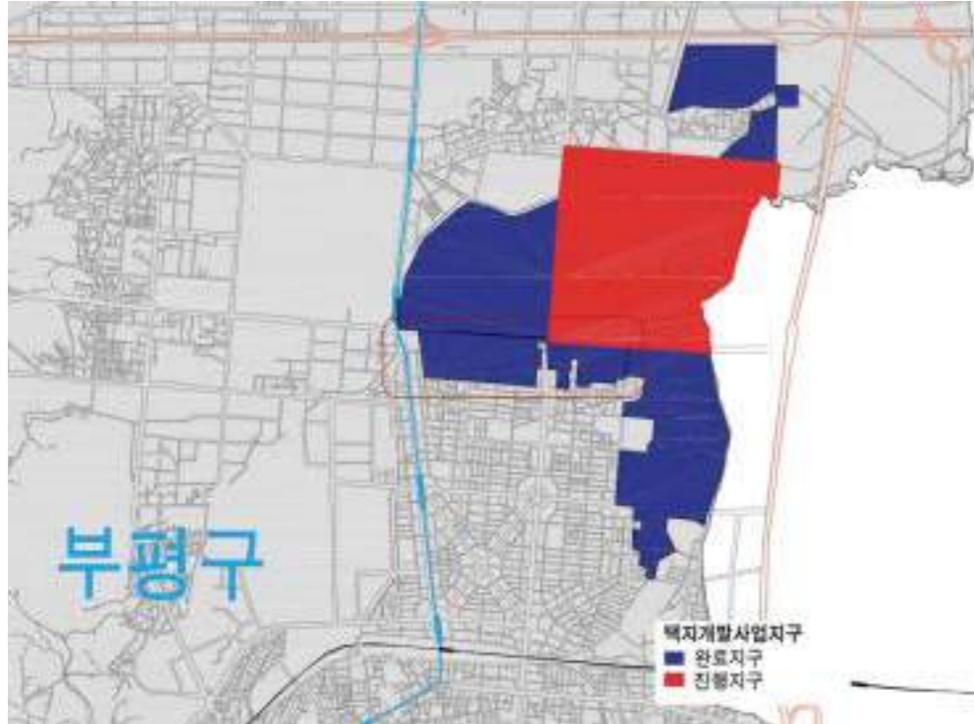
공사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 1980년대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부평구 부개동과 부평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으로 현재 길주로와 충선로를 경계로 주거지의 구획이 명확해진 것이 보인다. 장제로를 중심으로 동쪽(부평동)에는 저층 주거지가, 서쪽(부개동)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 현재는 단지들의 북쪽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역을 부평역으로 홍보했었다. ‘부평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대동아파트 홍보), ‘전철역에서 현재 가장 가까운 아파트’(육일아파트 홍보)와 같이 당시 조성되는 아파트들은 부평역과 근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 1986년 항공사진



❖ 1989년 항공사진



❖ 부평구 택지개발사업지구(출처 : 인천광역시,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2004.)

아파트의 규모를 보면 육일아파트, 대진아파트, 대동아파트, 동아아파트는 모두 6층 규모의 아파트이고 뉴서울아파트만 15층 규모로 들어섰다. 당시 뉴서울아파트는 18평, 19평형 1,140세대로 ‘정부의 200만 호 서민주택 공급계획에 부응하여 부평 부개동에 유일한 고층 임대아파트 1,140세대를 건설’이라는 문구¹¹로 임대를 목적으로 20평형 이하의 소형 평면을 공급한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층 정도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시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15층의 아파트는 고층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드러난다.



❖ 뉴서울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 『조선일보』, 1989년 2월 17일자)



❖ 대동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 『동아일보』, 1988년 7월 8일자)



❖ 육일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 『조선일보』, 1988년 4월 2일자)

11 『조선일보』, 1989년 2월 17일자.

3)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



❖ 1970년대,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 :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2019년 데이터 기준)

198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 준 지역은 산곡동과 바로 인접한 부평동(행정동상 부평1동)이다. 1978년 건설부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집단 택지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5개 시급 도시에 아파트 지구를 확정하였는데, 그중 산곡지구의 12만 5,000㎡도 포함이 되었다.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외의 건축 행위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거지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된 것이다.¹² 또한 산곡동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해온 미군기지의 변화와 함께 그 주변으로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산곡동은 조병창 일대의 땅이 일부 반환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었다.¹³

12 『매일경제』, 1978년 9월 15일자.

13 이연경, 「도시공간과 건축」,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I, 부평역사박물관, 2019,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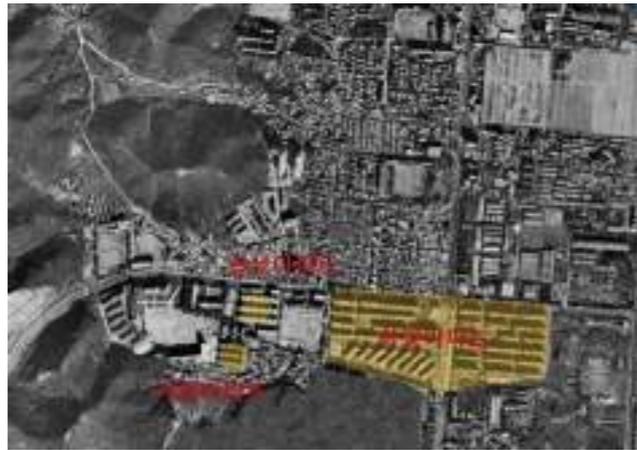
1980년대 조성된 현존 아파트 단지 분포를 보면 일제강점기 조성된 산곡동 근로자주택 남쪽 길인 원적으로 아래로 한양아파트, 삼보아파트, 재원아파트가 모여 있고, 서쪽 원적산 아래로 동원아파트와 금산아파트가 조성되었다. 원적산 아래에 위치한 금산아파트는 1984년 12월 29일에 준공되었고, 동원아파트는 1989년 5월 19일 준공되었다. 2~3개 동의 소규모 아파트로 금산아파트는 5층, 동원아파트는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배치가 용이한 평지가 아닌 산 아래 경사지에 지어져서인지 당시 통상적으로 짓던 남향이 아니라 지형에 맞추어 배치된 모습이다. 1989년 항공사진을 보면 더 많은 소규모 아파트들과 주택들이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던 듯하다.



❖ 198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한양아파트, 삼보아파트, 재원아파트는 원적으로 남측에 위치하고 산곡중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에 한양아파트가 서쪽에 삼보아파트와 재원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원적으로와 관련된 변화를 보면 1972년에 산곡동 원적으로에 철마산 광통 도로 조성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철마산 광통 도로가 생기면서 부평과 인

천(구시가지)의 거리는 15km에서 5km로 단축되었고, 시간으로 보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다.¹⁴ 이러한 변화는 현재 한양아파트, 삼보아파트, 재원아파트의 입지적 가치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989년 항공사진



❖ 2019년 항공사진



◇滿陽이 仁川산곡동에서 분양할 산곡아파트.

❖ 한양아파트 조감도(출처: 『매일경제』, 1984년 11월 9일자)

산곡동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가장 먼저 진출한 업체는 한양아파트이다.¹⁵ 한양아파트를 건설한 한양주택은 서울 한양아파트의 건립 이후 지방 도시의 아파트 사업에 착수했는데, 부산과 인천지역을 주요 지역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했고,¹⁶ 1982년 산곡동의 대지 2만 5,000여 평을 확보하였다.¹⁷ 1984년부터 준공을 시작하여 1988년까지 전체 단지가 완성된 한양아파트는 총 1,500세대가 들어서는 5층 규모의 대규모 단지였다. 남향의 아파트들이 먼저 준공되고 남측의 남동향 아파트들이 추후 조성되었다. 마장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위치하였던 단지 중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1단지가 재건축되면서 현재는 720세대, 22개동이 남아 있다. 1,500세대 규모면 당시 지어진 5층 아파트 단지 중에서 큰 규모에 속한다. 당시 분양 광고에서는 전 주동을 다 남향으로 배치하는 그림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남측의 주동은 남동향을 취하고 있다. 아파

¹⁵ 『매일경제』, 1984년 10월 10일자.

¹⁶ 『매일경제』, 1980년 7월 18일자.

¹⁷ 『매일경제』, 1984년 10월 10일자.

¹⁴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85쪽.

트가 들어서면서 한양쇼핑 및 주민편의시설이 같이 조성되었다. 한양쇼핑은 동쪽과 서쪽의 아파트 단지 중심부인 마장로 근처에 조성되었다.

단지 내 편의시설로는 한양쇼핑센터,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코트 등이 설치됩니다.¹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가를 포함한 편의시설이 주거 공간과 같이 조성되는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의 집단건설 시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근린 계획 기법이 정착된 시기이다.



❖ 삼보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동아일보』, 1985년 10월 25일자)

재원아파트는 1984년 12월로 한양아파트가 들어선 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준공되었다. 5층 7개 동으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짓는 국민주택

18 『경향신문』, 1983년 5월 23일자.

이었다.¹⁹ 바로 이듬해부터 삼보아파트가 1985, 1986년에 준공되었다. 전부 남쪽을 향하고 있는 4개 주동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분양 광고를 보면 한양아파트와 가까운 점, 교육 시설과 상업 시설과 인접한 점,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과 밀접한 환경인 점을 고루 홍보하고 있다.

주변에 한양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초밀집지역
 단지에서 300m 이내 초·중·고등학교(7개 학교) 및 한양쇼핑, 백마시장이 있음
 철마산 줄기의 상큼한 공기가 펼쳐진 쾌적한 환경
 시내버스 8개 노선, 시외버스 3개 노선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²⁰



❖ 1980년 건립 공동주택 : 현대아파트(2019년 데이터 기준)

19 『조선일보』, 1984년 11월 24일자.

20 『동아일보』, 1985년 10월 25일자.

1984년 한양주택, 한국도시개발, 한신공영, 우성건설 등 유망한 건설사들이 산곡동에 진출하여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였다. 이들 업체가 1984년 당시 확보한 부지는 모두 18만여 평이었고, 계획아파트는 8,000가구였다.²¹ 건설사들이 몰려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이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변화는 산곡3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현대아파트는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건립을 통해 아파트 건설사업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조성한 아파트 단지이다.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는 현대건설이 별도로 설립한 사업체로 아파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1973년 만든 회사이다.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차가 준공된 시기가 1976년이다. ‘압구정 모래밭에서 신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한국도시개발은 ‘현대아파트’란 네임밸류를 내세워 지방으로 눈을 돌렸고 부평의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다. 더군다나 1980년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여 민간의 아파트건설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인천의 도시계획 연혁집』에 따르면, 1978년 건설부는 산곡동 310 일원 12만 5,000㎡를 아파트 지구로 결정했고 인천시는 1984년 이 부지를 1984년 33만 7,030㎡로 확대 지정·고시하였다.²² 한국도시개발은 약 10만 평 되는 이 부지를 확보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최대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였다. 이 중 과거 미군부대가 위치하던 땅도 포함이 되어 있다. 부평3동 신촌 앞에 미군부대가 차지하던 땅은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제9공수특전여단이 들어왔다가 1983년 이전을 하면서 현대아파트 부지에 포함된다.²³

자연과 호흡을 함께하는 전원적인 생활을 선택하십시오.

자연이 숨 쉬는 곳. 호봉산 기슭의 부평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체인으로 부평 현대아파트 단지 내 대규모 쇼핑센터를 비롯, 단지 주변의 명문학교, 교통시설, 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현대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모든 분

들에게 편리한 생활의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²⁴

먼저 조성되기 시작한 한양아파트가 아파트 단지의 시작이라고는 하나 5층 규모였다면 현대아파트는 단지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컸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15층 아파트를 단지로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당시 남향 배치 일색이던 단지들 사이에서 중정을 형성하는 클러스터 배치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른 단지들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건립 규모는 모두 42,200여 가구로 27평에서 52평까지 다양한 평형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대단지인 까닭에 쇼핑·위락·교육 모든 것을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초기에 내세웠다.²⁵



❖ 현대아파트 조감도(출처: 『매일경제』, 1984년 7월 4일자)

하지만 평형계획은 분양을 시작하면서 변경이 생겼다. 아직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았던 인천에서 미분양되는 곳들이 있었던 것이다. 1985년 5월에 분양을 시작한 인천시 가좌동 현대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는 상황 속에서 부평 현대아파트 사업은

21 『매일경제』, 1984년 10월 10일자.

22 『인천신문』, 2007년 8월 8일자.

23 김현석, 「신촌의 공간, 역사, 사람」,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69쪽.

24 『조선일보』, 1985년 8월 28일자.

25 『매일경제』, 1984년 10월 10일자.

강행이 되었다.²⁶ 현대아파트는 급기야 대형을 줄이고 소형을 늘리는 전략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다. 당시 부평에는 대형 평면보다는 소형 평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를 크게 늘려서 당초 45% 정도로 공급할 예정이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를 69% 수준으로 늘렸다. 1985년에 분양된 현대아파트는 27평형 300가구, 31평형 450가구, 38평형 26가구, 46평형 204가구 등 모두 1,190가구로 계획하였다.²⁷ 한편으로는 1988년 분양 당시에는 서울 거주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부평 현대아파트가 수도권에서의 마지막 청약 기회라고 판단한 서울 거주자들이 몰린 것이다.²⁸



❖ 현대아파트(2020.12.1.)

26 『매일경제』, 1984년 7월 26일자.

27 『매일경제』, 1985년 2월 9일자.

28 『동아일보』, 1988년 10월 21일자.



❖ 1980년 건립 공동주택 :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 등(2019년 데이터 기준)

산곡동에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있다면 부평동에는 동아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법정동은 서로 다르지만 두 단지는 모두 미군기지와 인접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동아아파트는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4,500세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6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 1단지 아파트는 15층 규모의 아파트로 평형별로는 22평형, 28평형, 31평형, 43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주동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역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만큼 상가·공공시설 등 부대시설이 함께 건설됐다.

동아아파트 북쪽으로는 대림아파트가 1989년 12월 준공되었다.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와 유사한 15층 규모로 전 주동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대림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대림자동차 공장부지가 있던 땅이다. 대림산업은 인천 부평동 64-20일대 대림자동차 공장부지 1만 7,000여 평을 확보하여 아파트 1,500~1,600가구를 짓기로 한 것이다.²⁹ 그 부지는 1979년 조성된 공업용지에 공업단지인 기아기연(주)이 자리하던 곳인데³⁰ 기아기연이 1982년 대림그룹으로 넘어지면서 대림자동차 공장부지로 이용되다가 아파트 건설 붐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듯 산곡동과 부평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은 서울과의 근접성이었다. 경인전철화 사업 이후 부평역 인근 대지의 가치가 올라갔으며 산곡동 단지 개발 이후 백운역이 신설되는 계획이 생기자 아파트 건설사들은 서울과 인천이 같은 생활권임을 내세워 홍보하였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인천에 거주하면서도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베드타운’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 동아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 『매일경제』, 1985년 8월 6일자)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시 북구 산곡동이지만 웬만한 서울 시내 번두리보다 빨리 서울 시내에 들어올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패턴은 인천보다 서울 생활권에 더 밀접하다.³¹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부평동 아파트 단지는 부평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며 서울시청까지는 전철로 45분 걸린다.³²

또한 당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지을만한 큰 토지를 더 이상 찾지 못한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였다.³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한 부개동의 택지 개발지에 아파트 단지군(옥일아파트, 대진아파트, 대동아파트, 동아아파트, 뉴서울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이후 미군기지와 한국GM 주변에 있던 땅들이 반환되거나 공장부지가 비워지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지어졌다.

| 제4절 | 1990년대 : 아파트 단지의 확산과 신시가지 조성

1. 분포

199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1980년대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산곡동 남쪽(산곡3동)을 중심으로 서쪽의 부평동(부평1동)과 산곡동 북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확산된 점이 두드러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지역은 부평구 서쪽의 부개동 일대로 1970, 1980년대는 주택이 없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길주로 북쪽의 갈산동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된 점이 눈에 띈다. 이 지역들을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한다.

29 『매일경제』, 1988년 1월 29일자.

30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84쪽.

31 『매일경제』, 1984년 10월 10일자.

32 『매일경제』, 1985년 3월 14일자.

33 『경향신문』, 1988년 9월 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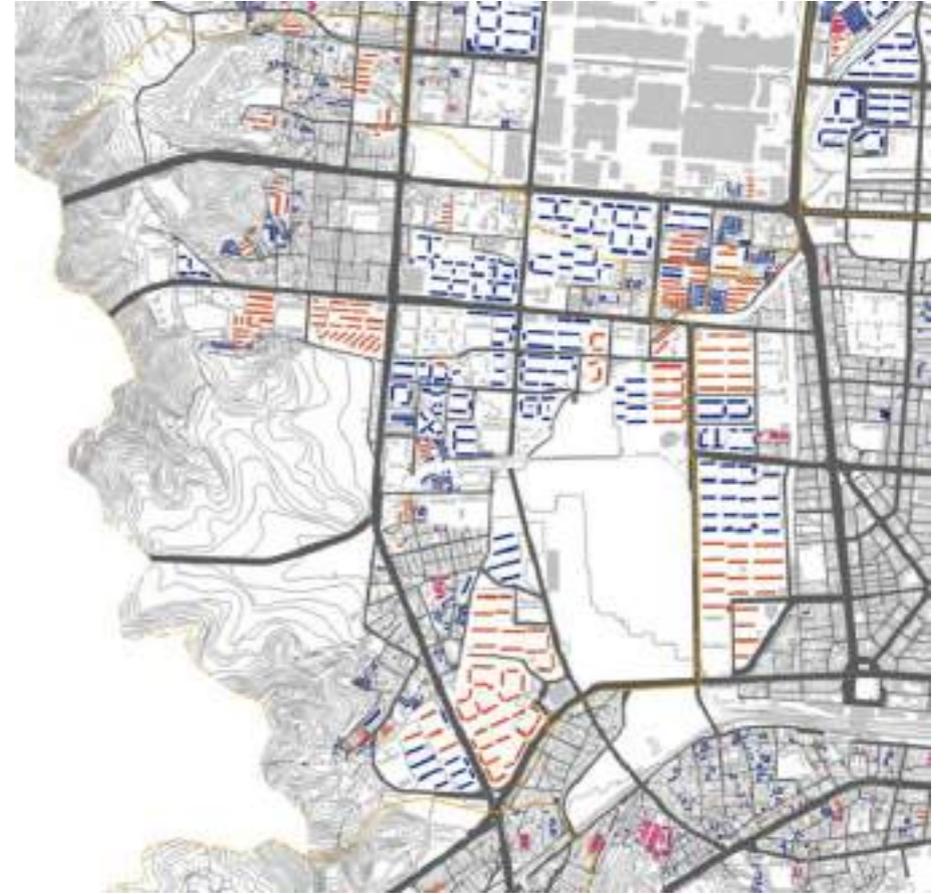


❖ 199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2. 공동주택 밀집지

1)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

산곡동과 부평동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림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준공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나타난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의 조각이 완성되었다. 현대아파트 남쪽 일부 동과 동아아파트 북쪽의 20여 개동이 추가 준공되면서 미군기지 양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게 된다. 1996년 7월 준공된 동아2단지아파트는 2,100여 세대로 총 22개 동이다. 층이 다양하게 조성되었는데, 일부 주동은 20층으로 건립되어 도시경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의 영향은 백화점의 건립으로 더욱더 단단해졌다.



❖ 1970, 1980, 1990년대 건립 공동주택 :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2019년 데이터 기준)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1987년 9월, 663평의 식품전용매장이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주변 부지를 매입해 지상 5층, 지하 3층의 건물을 증축하여 1990년 '백화점 현대타운'을 개점하였고, 1991년 2월, 금강개발이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대백화점 부평점'을 재개점했다.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는 현대건설이 유통업을 전담할 회사의 필요성을 느껴 1968년 설립된 경일육운에 4,000만 원을 출자, 명칭을 바꾼 회사다. 현대백화점 부평점은 지금은 '2001 아울렛'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³⁴

³⁴ 김현석, 『신촌의 공간, 역사, 사람』,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69쪽.

이렇듯 1991년 2월 백운역 앞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현대백화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서 같은 해 11월 동아그룹이 동아시티백화점을 개장하면서 대형백화점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의 부평시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다. 지하 3층, 지상 5층(총
 면적 9,957평)에 1,800여 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던 현대백화점과 지하 3층, 지상 6
 층(총면적 8,530평)에 6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동아시티 백화점³⁵은 당시 부평 일대
 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평역과 백운역 일대 반경 2km 이내에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같은 1,000세대에서 4,500세대 되는 대규모 아파
 트 단지가 들어선 데다가 거주하는 계층도 중·상류층으로 변화가 생겼고 대형백화점까
 지 집적을 하자 이는 부평역 일대의 경관을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 백화점의 등장과 상권변화(출처: 『경향신문』, 1992년 11월 6일자)



❖ 현대백화점(출처: 『경향신문』, 1992년 11월 6일자)



❖ 동아시티백화점(출처: 『경향신문』, 1992년 11월 6일자)



❖ 1986년 항공사진: 산곡동 내 농경지



❖ 1996년 항공사진: 농경지를 채운 현재

35 『경향신문』, 1992년 11월 6일자.

산곡동의 북쪽으로 점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농경지와 공장부지가 대부분이던 땅은 아파트 단지를 짓기에 좋았을 것이다. 1980년대 조성된 대림산업이 대림자동차공장 자리에 대림아파트를 세운 것처럼 경남기업이 건립한 경남아파트도 대우자재 공장부지 3만여 평을 확보해 지은 것이다.³⁶ 1976년 조성된 산곡동 국민주택단지의 위쪽부터 원적로를 넘어 현재 한국GM 주변까지의 땅은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로 채워졌다. 그렇게 확장되어간 아파트 단지는 산곡동과 부평동, 청천동이 서로 접하는 그 일대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이미 산곡동에 진출한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건설을 이어나갔고 경남아파트, 한화아파트, 금호타운, 청천푸르지오 등 아파트 건설에 이름난 업체들이 속속 모여들어 아파트를 지어나가면서 도시적 형태도 변해갔다. 1992년 12월 부평동 동아아파트에서 산곡동 우성아파트 간 폭 20~30m, 길이 850m의 도로가 개설되었고³⁷ 그 이전에 마장로도 개설이 되어 이 일대의 도시적 조직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 1986년 항공사진(도로개설 전)



❖ 1993년 항공사진(마장로, 부영로 개설)

36 『매일경제』, 1988년 1월 29일자.

37 『매일경제』, 1992년 8월 24일자.



❖ 산곡5차현대아파트 분양 광고(출처: 『동아일보』, 1993년 7월 13일자)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15층은 기본이었으며 20층 이상의 아파트들도 적지 않았다. 평형대가 커졌고 남향의 배치를 벗어나 주동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중정을 형성하는 클러스터 배치가 주를 이루었다. 길지 않은 시간 아파트는 또다시 도시경관을 바꾸어 나갔다.

이렇게 단시간 고층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가면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과 일조권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최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을 들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갈수록 심해져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천동 259 일대 15층 아파트 4개동 510가구를 짓고 있는 쌍용아파트의 경우 인근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파일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들어 2억 원을 요구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공사까지 방해하는 바람에 1개월이나 작업이 늦어지다가 지난 17일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북구 산곡동 294 일대에 15층 9개 동 1,68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우성아파트의 경우 인

근 부성아파트 주민들이 실력 행사로 맞서 결국 부성아파트 도색 공사를 해주고 2,95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³⁸

이러한 반응은 아파트 단지가 가지는 폐쇄성과 단지들끼리의 경쟁 구도를 보여 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미분양에 시달리던 건설회사들이 기존의 아파트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여 경쟁하던 시기이다.

‘짓고 나면 팔리는 시대 갔다.’ 건설사들 차별화 전략 승부수

인천 청천아파트를 공급한 (주)대우는 부역을 과감하게 남향에 배치하고 거실 옆에 널찍한 통유리로 창을 내고 밝은 느낌의 부역을 만들었다. 또한 넓은 공간을 차지하던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고 대신 12개의 테마정원으로 옥외환경을 꾸몄다. 응기정원, 어린이 채소원, 향기가 진한 식물로 이루어진 방향원, 약초원, 야공성 식물로 달의 모양을 만든 계수나무 동산, 주민들이 손님을 초대해 즐길 수 있는 가든 파티장 등이 조성되었다.

인천 산곡 금호타운도 씨름장, 정자, 놀이마당, 체육시설, 유실수 정원, 조형물 등으로 테마정원을 꾸몄다.³⁹

2) 갈산지구, 부개지구

기존의 공동주택 밀집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채워져 가면서 확산을 하는 동안 부평시장 서쪽의 부개동과 북쪽의 갈산동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농경지에 신시가지가 조성된 것이다. 서울의 택지가 바닥나면서 외곽이나 지방으로 새로운 땅을 찾던 건설사들은 공공과 함께 개발하는 합동택지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⁴⁰ 1990년대 민간과 주공이 합동개발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 활성화되

면서 부대복리시설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던 현재는 도시기반시설로 제공하게 되었다.



❖ 1990년대 건립 공동주택(2019년 데이터 기준)

갈산동의 갈산지구는 1989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에 착수하였다. 갈산동 일대 65만 7,105㎡의 면적에 7,7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3만 800여 명의 인구를 수용

38 『매일경제』, 1989년 8월 23일자.

39 『경향신문』, 1995년 11월 20일자.

40 『매일경제』, 1988년 4월 25일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을 같이 공급하고자 단독주택 277가구, 아파트 7,430가구로 계획을 하였다. 또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분양과 임대를 섞었다. 임대는 13-18평형, 일반분양 23~24평형으로 임대 2,410가구, 국민주택 2,940가구, 일반분양 2,080가구로 구성되었다. 부지 전체의 49%가 주택용지이고, 나머지 51%가 공공시설 용지로 어린이공원 8개, 근린공원 2개,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같이 들어섰다.⁴¹ 갈산동에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준공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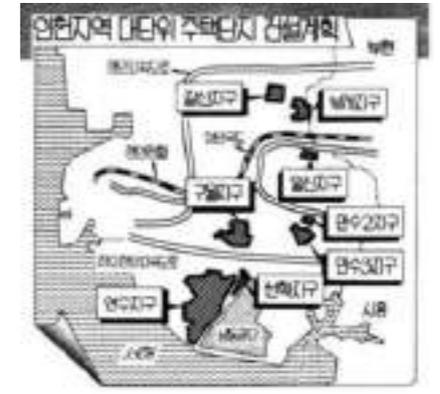
부개동의 부개지구는 기존에 농지였던 부개동 32 일대 60만 9,000㎡(18만 4,000평)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여 택지로 개발한 것이다. 개발면적 중 66.5%인 40만 5,100㎡가 주택건설용지로 공급되어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발면적의 나머지는 상업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되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완충녹지가 함께 조성된 것이다.⁴² 이제는 주거가 주 용도인 아파트 단지에 부대복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도시 내 복합용도를 구상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설계적 개념이 90년대 주거계획에서 정착된 것이다.

7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되었는데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가 혼합되어 조성되었다. 계획 당시의 규모는 주공아파트 7,000여 가구, 민영아파트 3,000여 가구 등 약 1만여 가구의 아파트로 계획을 하였다. 1, 3, 5, 7블럭에는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6블럭에는 18~25.7평, 2, 4블럭에는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를 배분하여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를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였다.⁴³

7,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갈산지구와 1만여 가구를 수용하는 부개지구가 서로 이웃하여 지어지면서 부천과의 경계에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었다.



❖ 1990년대 건립 공동주택 : 갈산지구 (2019년 데이터 기준)



❖ 인천 지역 대단지 주택단지 건설계획 (출처: 『경향신문』, 1991년 5월 15일자)



❖ 1990년대 건립 공동주택 : 부개지구 (2019년 데이터 기준)

41 『경향신문』, 1991년 5월 15일자.

42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4일자.

43 『경향신문』, 1994년 2월 17일자.

| 제5절 | 부평 아파트의 등장, 정착, 확산

부평의 아파트에 대한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시기 별로 공동주택의 분포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이 등장하고 단지라는 형태로 정착하고, 도시 전반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197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을 보면 수출공단의 조성, 경인전철화, 토지구획정리와 같은 도시적 변화가 일어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주거지 내에 삽입이 되면서 기존의 조직을 거스르지 않는 형태이거나 새로 토지가 조성된 부지 내 소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주택을 집단화되는 과정을 보면 단독주택을 단지로 조성하는 단계에서 위로 적층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두 개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2층의 벽돌구조인 연립주택에서 5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아파트가 함께 건립되면서 아직 아파트 구조·시공기술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5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아파트가 소규모로 형성됐던 시기로 보인다.

1980년대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정부의 아파트 지구 지정이 확대되어 아파트건설이 용이했다는 것과 인천과 서울의 교통망이 구축되어 갔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미군기지 주변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아파트 건설로 입지를 키운 유명 건설사들(한양, 현대, 동아, 대림, 우성, 경남 등)이 빈 땅을 찾아 부평으로 진출을 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다. 아파트 단지는 5층의 단지에서 15층으로 고층화되어 갔으며, 남향의 배치가 고착화 되었는데 그나마 현대아파트는 직각 배치로 변화를 주었다. 주거 공간과 함께 상가가 들어서고 일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최대 규모인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완공하였고, 서로 경쟁적으로 백화점까지 건립하면서 미군기지를 가운데 두고 일대의 도시적 상황과 경관은 더욱 변해갔다. 산곡동의 농경지와 공장 이전부지는 현재들로 채워졌고 이제 높이는 20층을 넘어 25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민간업체들의 경쟁 속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마장로와 부평로가 개설되면서 이 일대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 부개지구 조성전 부개동 일대(출처: 『경향신문』, 1994년 2월 17일자)



❖ 1990년 항공사진



❖ 1996년 항공사진

신시가지 조성이다. 갈산동과 부개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었고 LH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와 민간의 아파트,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함께 지어지며 농경지는 주거지로 변해갔다. 부천과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따라 있던 농경지가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부평과 부천과의 경계는 더욱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렇듯 부평구의 아파트는 도시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왔다. 주거 유형은 도시와 함께 변화하고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이해해야 하고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이해해야 한다. 본 논고의 아파트 이야기를 통해 부평의 도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I, 부평역사박물관, 2019.
인천광역시,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인천광역시, 2004.
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1883~2014) 제2편 성장』, 인천광역시, 2017.

신문

- 『매일경제』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제 6 장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

- 제1절 _ 해방 이전 상권 형성과 변화
- 제2절 _ 해방 후 부평의 시장
- 제3절 _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6장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¹⁾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부평시장은 비단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의 단일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지만,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 문화의 거리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부평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장들이 뻗어 있는데, 길로 혹은 면으로 이어져 있어 각 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각 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가 따로 존재하며 시장 구역과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상가 위치가 동일한 것도 아니다. 이에 두 개 상인회에 동시 가입한 상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각 시장을 구분하기보다는 쉽게 통칭하여 '부평시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평리단길이 위치한 부평 문화의 거리는 여타의 전통시장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평시장의 형성과 관련된 자료를 문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 부평역사박물관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평시장에 대한 학술조사를 마치고 학술총서(『삶의 터전, 부평시장』 I·II, 2020)를 간행한 바 있다. 이 학술총서에 수록된 조사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대개 시장이 그렇듯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좌판 형식의 재래시장으로 시작되었기에 초기 역사와 관련된 문헌이 전무한 형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지만, 시장의 형성보다 상인회 설립 시기가 훨씬 늦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상인들의 구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뒤, 각 시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부평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평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표 1 부평전통시장 일반 현황(2020)

(단위: 개명)

시장명	점포 수						종사자 수				
	직영	임대	자가	빈 점포	노점상	계	상인	종업원	노점상	기타	계
부평깡시장	10	118			52	180	118	65	52		235
진흥종합시장	17	36				53	50	68			118
부평종합시장	32	164			204	400	210	170	204		584
부평 문화의 거리	11	170	21		10	212	192	134	10		346

❖ 출처: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1. 전통시대 부평부의 장시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니는 길(路)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선(線)이고, 그 선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장(場)이다. 전통시대 장(場)이라는 개념은 행상들이 모여서 교역하는 곳이었다. 기록상 신라 490년(소지왕 12) 경주에서 재화 유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로는 더 이전에 원시적인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임은 당연하다.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며 장(場)은 향시(鄕市), 장시(場市) 등으로 발달하였다. 전통시대 장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연구가 축적된 바 있다. 시대에 따라 시장의 형태와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무언가를 매개로 하여 교역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근대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은 아니었다. 각 지 자료에 의하면,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부평부(부평군)에 거주하는 인구



❖ 『전통시대 부평부의 장시(『경기읍지』(1871년경) 「부평부지도」 위에 도안)

는 대략 1만 명 내외였다.² 전통시대 부평부의 범위가 현재의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부 지역을 포함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부평구의 행정구역에서 사는 인구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더욱이 전통시대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던 읍치가 지금의 계양구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 역시 계양구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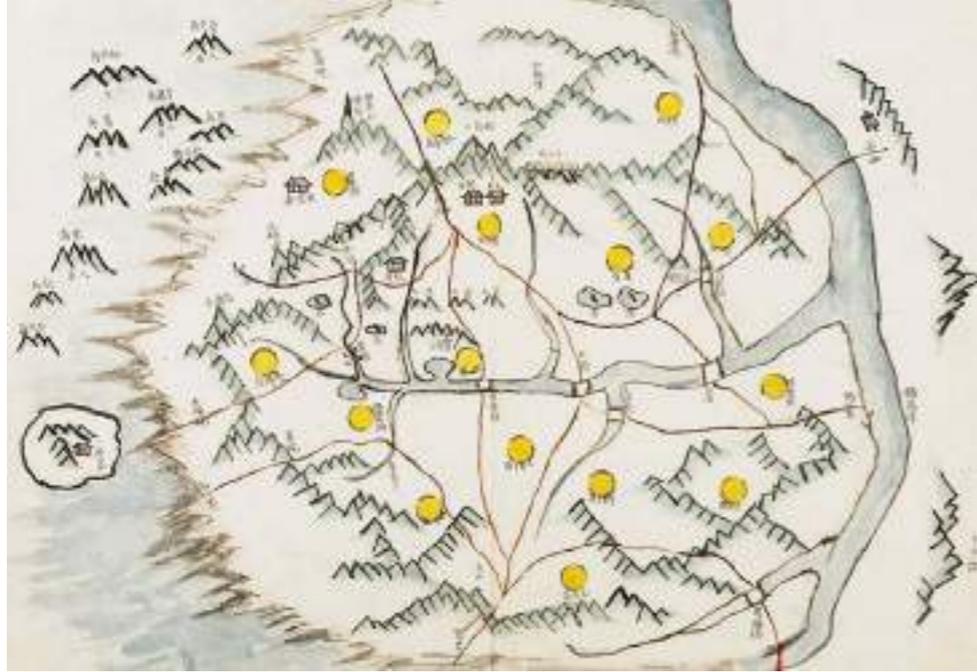
5일장으로 대표되는 전통시대의 장시는 부평부에도 존재했다. 『부평부읍지』(1842)에서는 발아장(3·8일), 기탄장(당시 폐지), 신기장(당시 폐지)이 있다고 했고, 『여도비지』(1856)에서는 발아현장(3·8일), 황어장(3·8일)이 있다고 했다. 『부평부읍지』(1871)에서는 발아장(3·8일), 기탄장(4·9일, 당시 폐지), 신기장(2·7일, 당시 폐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위 장시들은 전통시대 행정구역인 부평부에 소재했을 뿐, 현재의 부평구에 소재한 것은 아니었다. 황어면에 소재한 발아장, 황어장은 지금의 계양구 관내이고, 수탄면에 소재한 기탄장은 지금의 구로구 관내이며, 석천면에 소재한 신기장은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 관내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부평부의 북쪽인 황어면에 발아장과 황어장이 있었고, 부평부의 동남쪽에는 기탄장, 부평부의 남쪽에는 신기장이 있었다. 19세기에 들어 기탄장과 신기장은 이미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전통시대 현재의 부평구 관내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이용하여 교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모임의 장소가 현재의 부평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평구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장시, 즉 발아장, 황어장, 기탄장, 신기장 등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시장이나 보부상의 활동으로 인한 교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인철도의 등장 이전, ‘부평’이라는 지명은 14세기부터 계양산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그 일대의 지역을 아우르는 단어로 계양산 아래 ‘부평부’(현 계양구 부평초등학교에 관아 일부가 남아 있다)를 중심으로 짜인 공간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어왔다.

2 1760년(『여지도서(輿地圖書)』)-총 15개면 2,923호, 1만 898명(남자 4,928명, 여자 5,970명); 1842년(『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총 15개면 3,164호; 1871년(『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총 15개면 2,757호, 7,996명(남자 4,577명, 여자 3,419명); 1899년(『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총 15개면 3,054호, 1만 1,534명(남자 6,399명, 여자 5,135명).



❖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에 수록된 지도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부평구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평동 일대는 오히려 부평부의 중심에서 먼 외곽 지역에 속한다. 한말(韓末)까지 현재의 부평동 일대는 부평군(富平郡)의 동소정면(同所井面) 대정리(大井里)에 속하였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였을 이곳 마을의 규모는 10~20호 정도가 작은 군락을 이루었을 것이라 짐작되며, 굴포천 부근의 넓은 습지는 논으로 개간하여 쓰이기도 하였다.³ 동소정면은 부평 읍내(현재 계양구 계산동 일대)와 인천의 읍내(현 미추홀구 문학동 일대) 모두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농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평 지역의 전통적인 상거래 공간으로는 대표적으로 황어장(黃魚場)이 있다. 현재 계양구 장기동에 위치하였던 황어장은 누런 잉어의 산지라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5일장으로 운영되어 잡화나 곡물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우시장(牛市場)으로 유명하였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황어장터는 1910년대에는 더욱 확장되

3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1, 2007, 82쪽.

어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다.⁴ 황어장은 계양산 주변으로 형성된 부평의 중심지, 그리고 한강의 물길을 이용한 교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이었다.

2. 근대 부평의 중심지 이동과 상권 변화

현재 부평역 앞에 펼쳐진 넓은 상업 구역은 현재까지 부평구 제일의 상권으로 꼽힌다.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부평역 일대에서도 부평1동과 부평4동에 걸쳐있는 전통시장은 지역 상권의 파급력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상업 시설이다.

부평의 상업적 성장은 경인선의 영향이 크다. 경인철도는 1899년에 인천부터 노량진, 이어서 1900년에는 남대문까지 개통되어, 서울과 인천 간의 이동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했다. 사람과 화물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하나의 거점이 된 부평역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던 전근대시기 부평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1899년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부평역이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당시의 부평역 부근은 전통적인 중심지에 해당하는 계양산 일대에 비하면 매우 한적한 농촌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평의 지역 구조는 근대적 교통수단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부평역은 지역 내 교통의 거점이 되어 부평 읍내와의 확장 도로가 연결되어 기존 시가와의 육로를 통한 연결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인천과 경성을 잇는 육로인 경인로(京仁路)가 경인선을 따라 부평역 부근을 거치게 되면서, 현재의 부평동 일대는 교통의 이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요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인천 개항 초기, 개항장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전통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개항장으로 몰려든 것은 조선 사람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외국의 외교관, 상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개항장으로 모여들었다.

개항장 인근의 인구 증가는 시장의 발달로 이어졌다. 한적했던 어촌 마을 제물포에

4 계양사편찬위원회,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 2011, 127쪽.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의 교역할 시장이 자연 발생하였다.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장 또한 다양했다. 푸성귀전, 어시장, 배다리시장 등 상설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전통적인 5일장을 대체하게 되었다.

『매일신보』 1915년 2월 14일자⁵에는 개항장 인근의 대표적 시장인 배다리시장의 활성화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다리시장(우각리시장)에 가서 시찰하여 본 즉 어찌면 그 같이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들었는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나무바리나 혹은 내왕하던 우각동 마루터기에서부터 삼마장 거리나 되는 배다리까지 각 촌의 어른, 아이는 물론 하고 행인이 연락부절하였는데 빈손으로 가는 자는 하나도 볼 수 없고 모두 손에 주렁주렁 이것저것 들고 가는 자도 있고 짐을 진 자도 있으며 소에 잔뜩 실은 자도 있어 병긋병긋 웃으며 부리나케 나가는 (낮)빛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우각리에 있는 배다리시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연락이 끊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배다리가 우각리, 금곡리, 송림리 등의 중심에 해당하여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에 배다리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에 이 시기 부평구에는 시장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다. 1899년 경인철도의 개통 당시 부평역이 개설되었음에도 부평역 일대조차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농촌과 염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인천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인천의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그들은 대부분 개항장 인근에 일 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었고, 부평에는 큰 인구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이후 조선의 시장은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제

5 「인천의 회일(晦日)」, 『매일신보』, 1915년 2월 14일자.

개편 속에서 단일적이고 근대적인 상품유통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⁶ 조선총독부의 시장 관리는 조선 전반의 유통업에 대한 근대적 관리임과 동시에 상업적 지배를 뜻하였는데, 1914년 「시장규칙」⁷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을 관리하여 조선의 상업을 정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시장규칙」은 허가제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주로 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전통시장은 공영화되고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종래의 장시들은 ‘구식 시장’이 되었다.

표 2 일제강점기 시장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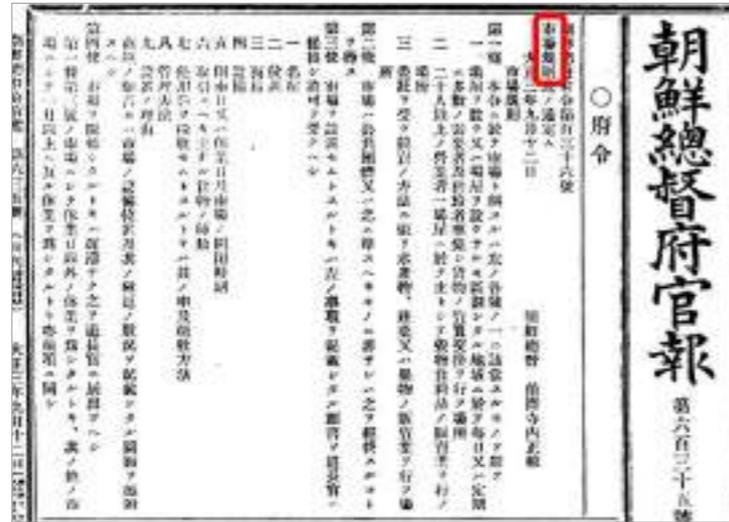
1호 시장	시장건물(場屋)을 설치하거나 시장건물을 설치하지 않고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화물을 매매·교환하는 장소.
2호 시장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시장건물에서 주로 곡물 식료품을 판매하는 장소.
3호 시장	위탁을 받아 경매에 의해 화물을 판매하는 장소.
4호 시장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영업자가 모여서 견본이나 상표(銘柄)로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장소.

1호 시장은 전통적인 장시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신설된 시장까지 포함하는데, 조선인들이 상거래를 하였던 거의 모든 시장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2호 시장의 경우는 건물에서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곡물이나 식료품을 판매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의 소매(小賣)시장 대부분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1호와 2호 시장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보통 ‘공설시장’이라 함은 1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2호 시장이 될 수도 있었다. 한편 1919년부터 지방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설소매시장’에 대해 ‘2호 공설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굳어지면서, 시장 설치의 주체와 영업행위에 대한 관변의 개입 정도에 따라 1호 시장과 2호 시장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3호 시장은 수산물이나 청과물을 위탁, 경매하는

6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265쪽.

7 『조선총독부관보』 제635호, 대정 3년(1914) 9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36호.

어시장 혹은 청과물 시장을 의미한다. 주로 일본인 거주자들이 많은 지역의 고급 생선과 청과물을 취급하였으며, 일본인이 경영하는 영리회사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4호 시장은 취인소(取引所)나 현물시장 등을 말한다.⁸



❖ 「시장규칙」 제정이 명시된 관보(『조선총독부관보』 제635호)

조선총독부는 「시장규칙」을 통해 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관청의 허가과 지방행정청의 시장 경영을 원칙으로 두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시장 분류에서 지방행정관청이 직접 시장건물을 설치하고 시장에 판매인을 지정·임대하며 영업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그 의미가 굳어진 ‘공설소매시장’ 혹은 ‘2호 공설시장’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시장규칙」만으로 조선 전역의 시장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었으며, 근대 이후에 생겨난 시장 또한 개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전체 시장 거래액에서 공설소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대에 불과하였으며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하였다. 시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공설소매시장을 이용

8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271~274쪽.

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계층이 적었기 때문이었다.⁹

그럼에도 1930년대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2호 시장’, 즉 공설소매시장의 설치 요구가 빗발쳤다. 도시의 문화 시민을 위한 근대적 상업 공간이며, 발전하는 우리의 도시에 필연적인 시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설시장은 수도, 공원, 운동장, 화장장 등 근대 도시의 필수적인 시설이자 도시 안에서 사회계층을 나누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1호 시장’, 즉 전통시장은 일제강점기 전체 시장 거래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극복의 대상,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부평역 일대의 변화는 193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평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인선은 1933년 하루 13회, 화물열차는 4회 운행하면서, 경성과 인천 간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¹⁰ 또한 1934년 『동아일보』 12월 27일 기사에는 부평역사(驛舍)의 신축 소식을 알리면서 전기 가설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때부터 부평역에도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의 역 중에서는 가장 늦게 공급된 셈이지만, 부평역이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역(驛)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평역 일대에 도시화의 바람이 분 것은 1930년대 후반 공업화의 영향이었다. 1930년대 조선공업화 정책의 기초 속에서 부평은 대규모 공장지대의 적격지로 일찍이 선점되었다. 조선의 중심지인 경성과 항구 인천의 사이에서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존의 시가지보다 저렴하고 넓은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9년 4월 경인시가지계획을 통해 공업용지와 주택용지가 설정되었으며, 부평역 앞에 조병창을 비롯한 각종 군수공장이 입주하면서, 현재의 부평동은 한낱 농촌에서 일약 주목받는 공업도시로 급부상하였다.

1943년 6월 18일자 『매일신보』는 공업도시화가 진행되는 부평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당시 부평의 도시화 진행 상황과 계획을 묘사하면서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급성장한 도시의 모습을 ‘조선 도시발전사상 획기적인 기록’ 혹은 ‘불원한 장래에 대 경성으로부터 자용’을 겨룰만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9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175쪽.

1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1, 2007, 255쪽.

약진(躍進) 부평특집(富平特輯)¹¹

한촌에 불과하던 부평 금일엔 일약 대공도

부평은 원시 부천군 부내면의 일부로서 지난(距今) 6, 7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으로서 생업을 삼는 호구 약 6백여 호 인구, 겨우 9백여 인(人)에 지나지 못하는 일개 적막한 한촌(寒村)이었던 것이다.

그러든 것이 소화 14년(1939년) 4월 경인시가지계획이 도(道) 당국으로부터 발표되자 부천군 부내면은 동(同) 계획의 부평 부평지구로 지정되어 공업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구획정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부터 돌연(俄然) 급속한 발전을 보이며 소화 15년도(1940년) 4월에 이르러서는 인천부로 편입되어 부평지구는 소화정(昭和町) 외 11개정(町)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을 보았고, 이어서 각 공장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다. 교육 시설로도 새로 소화동·서(昭和東西) 양(兩) 국민학교 외에 소화고등여학교 등이 신설, 개교하게 되었다. 날개 돋친 듯 부쩍부쩍 늘어가는 부평은 한 해가 겨우 필락 말락 하는 동안에 벌써 인구 8만 여를 헤이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 식산(殖産), 한은(漢銀), 저은(貯銀)의 지점, 금조(金組) 등이 있게 되고, 의원 시설로 5개 병원이나 오고, 그 밖에 사회 시설로도 공설시장, 부영주택 59호, 공회당, 공설운동장, 청년도장(靑年道場) 등이 서게 되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화가 개통되어 그 초속도적(超速度的) 눈부신 발전이 세인의 이목을 끌며 불과 4, 5년간의 짙막한 역사로 금일의 변화(繁華)를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 도시발전사상에 일대 획기적 기록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웅장한 건설 도상(途上)에 있는 부평! 신흥 도시 대(大) 부평의 위용이 불만하지 않은가. 이로 미루어 본다면 불원(不遠)한 장래에 대(大) 경성으로부터 자웅을 결(決)할 시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랴? 하물며 이번(今次) 전쟁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병참기지로써의 중대성이 날로 고조되어가는 금일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부평에 진실한 면목은 아직도 오히려 내일(明日)에 찾음이 타당하리하다.

11 『매일신보』, 1943년 6월 18일자.

3. 공설시장 설립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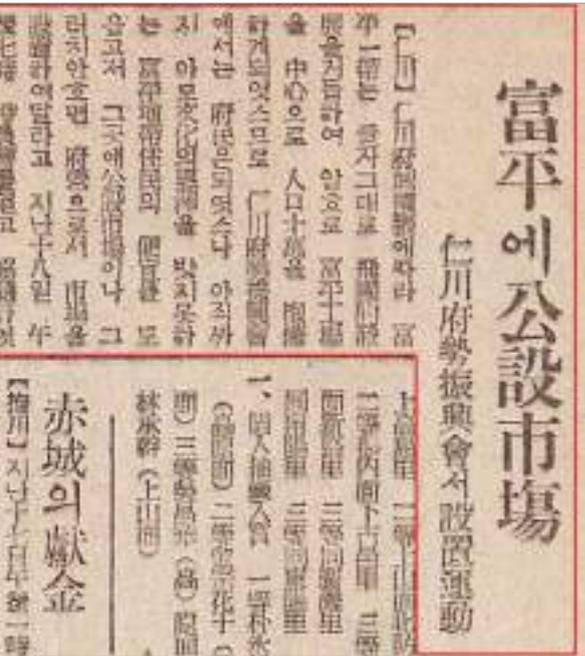
1940년대 부평은 각종 공장의 입주와 공장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인구 10만 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는 거주자들이 일용품을 살 수 있는 상업 시설이 필연적이다. 또한 다수의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과 시장 공간을 통제하는 등 시장의 관리 규제가 필요하였다. 단기간에 인구가 밀집된 1940년대의 부평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공업을 기반으로 노동자가 몰린 부평역 일대에서 요구하던 시장은 조선 전통의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근대 이전의 시장은 물자 이동의 주요 거점에서 필요한 물자 위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주로 상인이었다. 근대 이후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요구되는 시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이나 생필품을 그때그때 살 수 있는 상설시장이어야 했다.

공업을 위한 ‘뉴타운’ 부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재 부평동과 근접한 공간에 ‘시장’이 등장한다. 1941년 7월 20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 부세진흥회는 급진적으로 늘어난 부평의 주민들을 위한 공설시장이나 인천부가 운영하는 시장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 건의는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3년의 기사에서도 공설시장은 여타 사회 시설과 함께 설치될 예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¹²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기존 인천부의 영역에 거점을 두고 청과물 판매업을 하던 인천 청과주식회사가 해방 이전 부평출장소를 설치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언급¹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부터 부평역 일대에 상업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2 「한촌에 불과하던 부평 금일엔 일약 대공도」, 『매일신보』, 1943년 6월 18일자.

13 「수급의 적정 기하고저 청과회사 부평출장소」, 『대중일보』, 1948년 6월 12일자.



부평에 공설시장(公設市場)

[인천] 인천 부역확장(府域擴張)에 따라 부평 일대는 글자 그대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인구 10만을 포용하게 되었으므로, 인천 부세진흥회에서는 부민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평지대 주민의 편의를 도읍고져 그곳에 공설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영(府營)으로서 시장을 설치하여 달라고 지난 18일 오후 7시 역원회(役員會)를 열고 협의하였는데, 머지않아 각 관계방면과 절충하여 유치하리라 한다.

❖ 부평 공설시장 설치 운동 관련 신문 기사(『매일신보』, 1941년 7월 20일자)

1940년대 부평에서 요구하였던 공설시장은 바로 '2호 시장'이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새롭게 개설되는 공설시장은 기존의 의미보다는 노동자들을 위한 상설시장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다. 이전의 공설소매시장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일본인 봉급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용품 소매시설이었다고 한다면, 부평 지역에 새로 만들 공설시장은 대규모의 공업지대를 건설함에 따라 모여드는 공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¹⁴ 당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는 1937년의 영등포 공설시장과 1944년 영등포 제2공설시장, 1936년 인천부 송현리 일용품시장 등이 있다. 이후 1940년대 전시 체제기 아래 공설소매시장은 물가조절과 배급을 위한 조직으로써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¹⁵

14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181쪽.

15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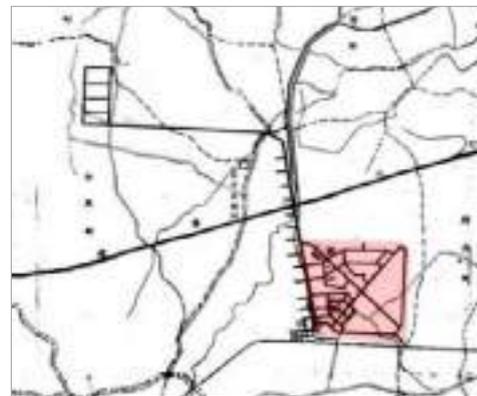
표 3 1937년 제1·2호 시장 중 공설상설시장

소재지		1호 시장		2호 시장			
도	부	명칭	도	부	명칭		
경기도	경성부	마포시장	경기도	인천부	인천부공설제1일용품시장		
		영등포시장			인천부공설제2일용품시장		
	인천부	인천부공설송현정일용품시장					
전라북도	군산부	군산시장		개성부	도교일용품시장		
		산상정시장			당교일용품시장		
전라남도	목포부	남교동간이시장				양성일용품시장	
제주도		주성시장		목포부	남교동공설시장		
경상북도	대구부	남문시장	전라북도	광주부	명치정시장		
		마산선정시장			광주어매시장		
	마산부	부정시장	순천군	순천공설시장			
경상남도	울산군	오동동시장	경상북도	대구부	동문정시장		
		방어진상설시장			부산진시장		
		방어진시장			부평정시장		
		통영시장			본정시장		
평안북도	신의주	신의주시장	경상남도	부산부	목도시장		
		함흥부			초량정시장		
함경남도	함흥부	황금정시장	함경남도	평양부	수창정시장		
		유락시장			대신정시장		
		흥남읍			익주정시장		
	함주군	구룡시장			황해도	해주부	해주공설시장
		내호시장			평안남도	평양부	사창공설시장
		연포시장					수정공설시장
북청시장	행정공설시장						
이원군	신청시장	평안남도	평양부	선교리공설시장			
	이원읍시장			류정공설시장			
	군선시장			신양공설시장			
단천군	단천읍시장	함경북도	나진부	인흥리공설시장			
	여해진시장			나진제1시장			
	신암동시장			나진제2시장			
함경북도	청진부	포항동시장					
		신흥동시장					

❖ 출처 : 조선상공회의소, 『경제월보』 275, 276호(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 17, 2011, 224쪽에서 재인용)

한편 일제 말기에 현재 부평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도로 구획이 확정되었다. 1940년부터 부평 지역을 관할하게 된 인천부에서는 부평역의 앞을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인천부의 계획상으로는 부평의 중심지가 될 곳은 부평역 앞의 대로를 사이에 두고 조병창과 대치하는 지역인 지금의 부평시장 일대였다.

1942년 부평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한 배수간선(配水幹線) 부설 공사 계획에 따르면 배수로(配水路)는 시장로터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지금의 도로와 일치하고 있다. 이 공사는 경인간의 신(新) 공업지대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부평 지역에서 공장 및 주택에 공급하기 위한 수리(水利) 시설이 부족하므로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으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1942년부터 5개년 계속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물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은 ‘부평역 부근’과 ‘조병창에 관계하는 주택 방면’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부평역의 부근은 부평역의 앞에 현재 시장로터리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 조병창에 관계하는 주택이란 부평출장소를 넘어 위치하는 산곡동 일대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공사가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때 부평역 앞의 모습이 대강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평시장과 그 주변 도로의 모습이 이 당시에 설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 1940년대 부평의 배수간선공사 도면
(출처: 『인천부 부평지내 배수간선 부설 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



❖ 현재 부평역 앞 도로(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6 『인천부 부평지내 배수간선 부설 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국가기록원, CJA0003613).

‘한촌에 불과하던 부평 금일엔 일약 대공도’¹⁷

… 부평은 한해가 겨울 될락말락하는 동안에 벌써 인구 8만 여를 헤아리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 식은(殖銀), 한은(漢銀), 저은(貯銀)의 지점, 금조(金組) 등이 있게 되고, 의료시설로 5개 병원이 나오고, 그밖에 사회 시설로는 공설시장, 부영주택 59호, 공회당, 공설운동장, 청년도장 등이 서게 되었다.

1941년 7월 20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 부세진흥회는 급진적으로 늘어난 부평의 주민들을 위한 공설시장이나 인천부가 운영하는 시장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는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3년 6월 18일의 기사에서도 공설시장은 여타 사회 시설과 함께 설치될 예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공설시장은 기존의 재래시장의 이용자와는 달리 새로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군수 기지로 변모해 가는 부평에 유입된 공업 노동자들이 상설로 이용하도록 계획된 시장이었다. 전시체제하 여타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된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물가조절과 배급을 위해서 활용될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제강점기 부평에 공설시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설시장이 설치되었으나 기록이 부재할 가능성도 있다.

17 『매일신보』, 1943년 6월 18일자.

1. 양키시장(블랙마켓)의 호황

부평은 경성과 인천이 가깝다는 이점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신흥 공업도시로 주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최대의 상권을 지닌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 시민이 서울의 상점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인천시는 해방 이후 급성장하는 도시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업의 성장은 지지부진하며 상업 시설은 영세성을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자체 평가를 해왔다.¹⁸ 인천의 상권이 형성되기보다는 서울의 상권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규모나 시설,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영세한 인천 상권에 대한 해명임과 동시에 더딘 발전에 대한 변명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부평 지역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인천의 중심지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더 짧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인천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천의 인구 수와 더불어 도시민들을 위한 시장 또한 늘어났으나, 부평의 경우에는 더딘 도시 성장으로 인하여 상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양키시장에서 주로 유통되었던 미제 화장품(출처: 부평역사박물관)

18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1960년대 초 인구의 집중도에 따라 인천의 시장 분포는 당시의 인천 중심지에 해당하는 중구와 그 주변 행정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구 7만 명에 달하던 부평 지역은 비슷한 인구 수에 해당하는 인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공인된 시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1950년대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부평역 앞의 지역의 주요 상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¹⁹ 현재의 부평 문화의 거리 인근에는 속칭 양키시장이 들어섰다. 미군의 군납 물품과 군인 지급 물품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나와 판매되었고, 품질 좋은 상품에 많은 시민이 몰려들었다고 전한다.

당시 부평의 모습을 대표하는 상업으로는 양복점이 있다. 미국에서 양복을 비싸게 맞추는 대신 한국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양복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기지촌 주변으로 양복점이 성행하게 되는 것은 전국 공통의 현상이었다.²⁰ 1959년의 조사 자료인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에 수록된 부평동의 양복점 및 양화점(洋靴店)은 10개소이다.

표 4 1950년대 말 부평동의 양복점 및 양화점

이름	주소	이름	주소
미화양복점 (美和洋服店)	부평동 235	제일라사 (第一羅紗)	부평동 248
백조양복점 (白鳥洋服店)	부평동 235	대성라사 (大成羅紗)	부평동 325
서울양복점 (서울洋服店)	부평동 235	영미양복점 (永美洋服店)	부평동 235
자유양복점 (自由洋服店)	부평동 235	서울양화점 (서울洋靴店)	부평동 235
삼성양복점 (三星洋服店)	부평동 235	신성근양화점 (申成根洋靴店)	부평동 235

❖ 출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한국산업은행, 1959.

19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26쪽.

20 「기지촌은 어디로 흐르나」, 『참세상』, 2008년 8월 16일자

부평의 양복점은 대체로 ‘부평동 235번지’에 형성되어 있었다. ‘부평동 235번지’는 과거의 주소로, 현재 부평 문화의 거리 북쪽에 해당한다. 지금도 실이나 옷감을 취급하는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이다.

1950년대 부평의 양복점이 미군기지 주변인 신촌이나 삼릉 일대가 아니라 부평대로 너머 현재의 부평 문화의 거리 부근에 자리를 잡은 것은 시장의 영향일 것이다. 1960년대 이전, 비록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부평에도 지역의 도시민들을 위해 일용품을 사고파는 공간인 시장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표 5 1960년대 초 인천의 지역별 인구와 시장의 분포

지역명	동명	인구 수	시장
중부출장소	중앙동, 해안동, 향동, 신포동, 내동 등	27,883	중앙도매시장 분장 신포시장(일용품, 어시장) 송월시장 신흥시장(일용품, 신탄시장)
북부출장소	만석동, 송월동, 화수동, 송현동 등	77,693	중앙도매시장 송림분장 공설 중앙시장 송림시장 화수시장 수문통시장
동부출장소	금곡동, 송림동 등	70,864	중앙도매시장 송의분장 송의시장 학익시장
남부출장소	송의동, 용현동, 학익동 등	64,918	중앙도매시장 송의분장 송의시장 학익시장
부평출장소	부평동, 산곡동, 계산동 등	75,981	중앙도매시장 부평분장
남동출장소	만수동, 장수동 등	14,590	
서곶출장소	백석동, 검암동, 가정동 등	11,743	
문학출장소	관교동, 문학동, 연수동 등	9,238	
주안출장소	도화동, 주안동, 간석동 등	32,144	
	합계	430,054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1963.

상업이 발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부평이지만, 상업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상주·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주요 지점에 상업 시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1960년대 이전 부평 상권은 부평역 앞 조병

창 자리를 차지한 미군 부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통 외국군 기지에 주변으로 형성되는 촌락을 일컫는 ‘기지촌’은 현재 행정동상으로 부평2동과 3동에 해당하는 삼릉과 신촌 일대에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군 PX에서 나온 물건들을 파는 ‘양키 시장’이 형성되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이나 상점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미군기지를 배후에 두고 부평역 앞에 형성된 촌락을 일컫었던 일명 ‘다다구미’(현 북인 천우체육관 인근)는 신촌과 삼릉에 비해 한국인이 주로 드나드는 지역이었다.²¹

2. 공설시장의 설치와 외면

1948년 인천시에서 구획정리를 시행한 후 부평동 542번지에 공설시장을 설치하였다.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의 북쪽에 해당한다. 이때의 공설시장은 1943년에 설립 예정이었던 공설시장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으나, 시장의 공설화에 대한 요구가 관철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1948년 설치된 공설시장은 장사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사라져 주택지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공설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와 맞물려 부평역과 가까운 지금의 문화의 거리 일대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²²

공설시장의 실패 원인에 대해 부평의 향토사학자 조기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공설시장이 건설될 무렵 부평 사람들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공설시장을 외면하고 부평역도 가깝고 기왕에 건물이 세워진 ‘신용동’과 연결될 수 있는 부평 4동 207, 211, 212번지 넓은 곳을 택하여 새로운 시장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²³

21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76쪽.

22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238쪽.

23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238쪽.

1940년대 말 현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북쪽의 공설시장이 외면받은 이유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 자체에 대한 도시민들의 거부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1940년부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어지는 혼란 상태에서 한국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상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 원조 물자와 밀수 물자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산업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방 이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력 저하로 상업계 전반에 상품이 부족한 상태였다.²⁴ 그런데도 당시 한국의 상업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기에서 농공업 분야에 흡수되지 못한 많은 인력이 상업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상업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없는 많은 사람이 오로지 생활고의 극복을 위하여 준비도 없이 상권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시장에서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몰락하는 반면, 노점 상인들의 장사가 더욱 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때의 「시장법」을 그대로 운용하던 정부는 될 수 있으면 공설시장을 추구하여 시장에 관한 통제와 관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만큼 상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노점 상인들은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았으며,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서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점포 상인보다 많은 수의 노점 상인들은 소비자와의 접근도가 높은 명당을 찾아 자리를 이동하여 길거리에 노점을 펼치면서 지역의 상권을, 그리고 당시의 물자 유통의 실권을 장악해나갔다. 결과적으로 허가받은 상업 시설은 노점보다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도 멀고 가격 측면으로도 매력적이지 못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외면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상업이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제의 「시장규칙」을 토대로 제정된 당시의 시장법이 허술했던 점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법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였으며, 시장 운영과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점포를 내어 운영하는 시장,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장이 노점 상인과 그들의 상업 공간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파다하였으며, 허가

한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간의 마찰은 비단 부평만의 일은 아니었다.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물건을 팔기 시작한 도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점 혹은 노점이 생겨나는 것은 1950년대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당시 새롭게 정비된 장터에서의 상업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과 전쟁 이후 경제적 기반 없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무허가 시장이 도시민들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이미 확립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허가 시장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일부 무허가 시장을 인정해 주고, 대신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1940년대 말 부평 공설시장의 실패는 오로지 부평역과의 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부평의 상권이 오로지 부평역 앞에만 형성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평여자고등학교 앞 대로변의 사거리인 ‘수도사거리’는 부평동 542번지(부평문화로)의 공설시장보다 부평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평역 앞보다 일찍 형성된 상권으로서 부평시장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부터 부평역 일대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먼저 개발된 곳은 부평역 앞, ‘신용동’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이다. 그러나 부평역 앞부터 실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점포들은 좀 더 북쪽의 수도사거리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인과 부유한 조선인들은 부평역 일대에, 그리고 많은 조선인은 수도사거리의 점포를 이용하였다.²⁵

인천시 주도로 설치한 공설시장과 별도로 부평 지역 상인들은 현재의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자유시장 인근에 행랑식 점포를 줄지어 만들고 이종석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부평시장조합을 구성하였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홀대를 받았던 공설시장과는 다르게 부평시장조합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많아 점포와 노점이 줄지어 섰고, 많은 사람이 모여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부평시장이라 불렀다. 부평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설시장은 제대로 개점도 못 하고 폐쇄되었다.

24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한국의 시장상업사』, (주)신세계백화점 출판부, 1992, 276쪽.

25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237쪽.

3. 청과물 도매시장

1948년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가 개장하였다. 1948년 6월 12일 대중일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부터 신설되어 운영 중이었던 인천청과주식회사의 부평출장소가 폐쇄된 이래로 부평 지역에서는 청과물을 취급하는 경매시장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안정적인 청과물 공급을 위하여 청과주식회사의 부평출장소를 다시 개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부평출장소는 1948년 6월 19일에 개방하기로 결정되었다.

수급의 걱정 기하고저 청과회사 부평출장소 오는 19일부터 신설 개방²⁶

인천 청과주식회사에서는 일본정치시대에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부평출장소가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쇄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 당국 과 교섭이 성립되어 재개하기로 되었다. 즉 동(同) 회사에서는 6만에 가까운 부평 일대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부식물인 소채를 비롯하여 과물 등을 경매 시장이 없는 까닭에 때로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폐단이 있어, 이 같은 점을 시정하고 수급의 걱정을 기하고저, 장소를 설치코저, 모든 준비를 진전중이었는데, 드디어 오는 19일부터 출장소의 문을 열기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同) 회사 상무 김원권(金元權)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채와 과물의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정한 가격을 수립함으로써 인천부의 일환인 부평 주민의 가정경제 확립의 도움이 되고자 출장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도 아래 신설출장소가 번창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6 『대중일보』, 1948년 6월 12일자.

인천청과주식회사는 동인천역 부근에 해당하는 인현동에 거점을 둔 청과물산회사로, 1930년대 일명 '채미전 거리'에서 청과물 도매시장이 형성되면서 도매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한편 인천청과주식회사는 1940년대 후반 부평에 청과시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도 세운다. 장소는 부평영화극장의 옆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안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부평영화극장은 현재 부평 문화의 거리의 남쪽에 해당한다.

부평 청과시장 신설계획 추진 중²⁷

부평에 청과시장이 새로 생긴다. 시(市) 상무계에서는 이번 부평영화극장 옆 공지(空地)에 청과경매시장을 신설하고 주민들에 싼 값으로 채소 및 과일 등을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신축 공사 입찰을 불일 시행할 것이라는 바, 공비 일체는 인천청과회사에서 부담하고 운영도 동(同) 회사에서 맡기로 되었다고 한다.

부평에는 '중앙도매시장 부평분장(分場)'이 설립되기도 했다. 인천 중구 인현동에 본장(本場)을 둔 중앙도매시장은 부평분장 외에도 송의동, 송림동에 각각 분장을 두었다. 중앙도매시장은 1951년 6월 22일 마련된 「중앙도매시장법」에 1도시 1시장 원칙에 따라 법정 도매시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부산, 대전, 전주, 군산, 대구, 목포 등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중앙도매시장법」(1923년 제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규정이 허술한 탓에, 이미 전국 대도시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위탁 상의 유사 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인천 중앙도매시장은 1953년 9월 28일에 도매업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으며,²⁸ 부평분장의 경우에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그 존재가 확인된다.²⁹

27 『대중일보』, 1949년 10월 13일자.

28 「청과 도매업 허가」, 『인천공보』, 1953년 10월 28일자.

29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4. 새시장과 구시장

1940년대 후반, 유명무실한 공설시장은 개장도 제대로 못 하고 사라졌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평시장과 청과시장은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들어서는 공설시장, 부평시장, 청과시장 외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다. 1952년경 조종옥은 부평 부평동 360, 370번지 일대에 자비를 들여 목조 2층 건물 6동에 점포 50개를 지어 운영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예전의 부평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인 새시장으로 불렀고, 부평자유시장 방면은 자연스레 구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현재도 운영하는 새시장약국(부평동 229-14)은 그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새시장약국은 현재 부평종합시장에 속해 있는데, 새시장은 현재 부평종합시장 중 일부 지역에 형성되었다. 새시장약국은 새시장의 초입에 있는데, 약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구시장의 구역이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1년여 년의 고생 끝에 시장이라는 형식을 갖춘 새시장이지만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입주자가 없었다. 1950년대 새시장의 점포들은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가로 변해 갔고, 이 일대에서 자유시장만이 근근이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제3절 |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

흔히 부평 구민들이 말하는 부평시장역 인근의 시장은 부평자유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 문화의 거리 등을 통칭한다. 좀 더 범위를 넓게 보면 부평 문화의 거리도 포함된다. 박물관에서 처음 조사를 진행할 당시인 2018년 부평자유시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이 장에서는 이들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평자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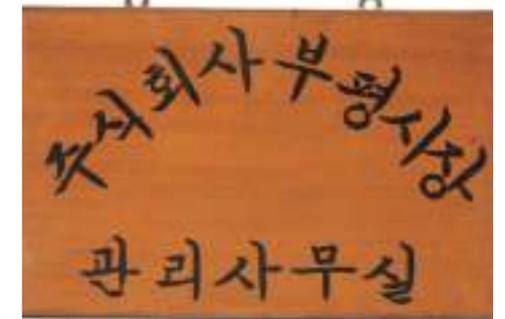
1950년대, 김영길, 서신호 등은 공설시장, 새시장은 개점 휴업과 다른 없는 상태였고 부평시장 역시 발전의 가능성이 없음을 예견하고 부평동 210번지(대정로)에 또 다른 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자유시장'이라 이름 지었다. 홍인균을 자유시장의 조합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였다.

자유시장의 설립으로 부평시장의 상권이 자유시장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사실, 부평시장과 자유시장은 지리적으로 연결된 구조였는데 부평시장의 동쪽 편에 자유시장이 들어선 것이었다. 자유시장은 부평 상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1962년 6월 7일 '부평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시장이 인천시 공설시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기존의 부평시장은 이미 조합이 해체된 상태였고 상권은 자유시장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그 이름마저 자유시장에 빼앗겨 버린 꼴이 되었다.³⁰

그러다가 1971년 공설시장이었던 부평시장이 폐지되면서, 1971년 5월 6일 부평자유시장으로 개칭하고 사설시장이 되었다.



❖ '1962년 (주)부평시장'의 등록된 부평자유시장
(출처: 부평자유시장 상인회)



❖ 주식회사 부평시장 관리사무실 현판

30 조기준, 『지명유래지: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239~240쪽.

표 6 1970년대 부평의 시장 및 상업 시설의 변화

(단위 : 년·㎡·㎡·개)

연도	구분	시장명	형태	주소	면적	건평	점포 수	시장 설치일
1969		부평시장	공설	부평동 225	1,719		46	1962. 06. 07.
1970		부평시장	-	부평동 225	1,719		51	1962. 06. 07.
1971		부평시장	사설	부평동 225	589		65	1962. 06. 07.
		부평진흥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52	1,700		120	1971. 12. 10.
1972	전 연도와 동일							
1973		부평시장	사설	부평동 225	350		47	1962. 06. 07.
		부평진흥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52	3,944		164	1971. 12. 10.
		영림상가	사설	부평동 235	262		51	1973. 06. 16.
1974		부평시장	사설	부평동 225	350		65	1971. 05. 06.
		부평진흥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52	3,944		266	1971. 12. 10.
		영림상가	사설	부평동 210-3	262		51	1973. 06. 16.
1975	전 연도와 동일							
1976	전 연도와 동일							
1977	전 연도와 동일							
1978		부평진흥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52	1,408	1,500	164	1971. 08. 17.
		부평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25	364	532	47	1971. 05. 06.
		부평백화점	사설	부평동 192	282	400	80	1978. 06. 22.
		대도백화점	사설	부평동 153	137	137	55	1978. 12. 22.
		부평수퍼마켓	사설	부평동 210	98	98	1	
		한남슈퍼마켓	사설	부평동 192	80	64	1	
		백마슈퍼마켓	사설	산곡동 96	65	48	1	
1979		부평진흥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52	4,646	4,950	164	1971. 08. 17.
		부평자유시장	사설	부평동 225	1,201	1,756	47	1971. 05. 06.
		부평백화점	사설	부평동 192-7	931	1,320	80	1978. 06. 22.
		대도백화점	사설	부평동 153	1,436	749	55	1978. 12. 22.
		부평종합상가	사설	부평동 229	2,129	4,419	200	1979. 01. 16.
		부평로지하상가	사설	부평동 241-1	3,402	3,402	190	1979.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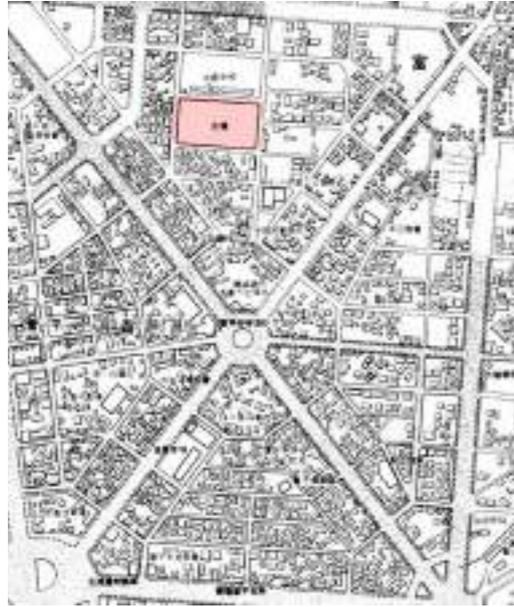
❖ 철거 진행 중인 부평자유시장

부평자유시장 주위로는 포목 가게, 한복 가게 등이 주를 이루었고, 시장 내부에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순대국밥집이 즐비하였다. 2018년 부평자유시장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2. 진흥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은 사설화된 부평자유시장과 더불어 1970년대 초에 공인된 시장이다. 현재 부평동 252-52번지 일대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부평깡시장과 종합시장, 그리고 과거 청과물 도매시장 자리에 건설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지만, 자유시장과 더불어 부평시장 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971년 기존의 공설 부평시장은 사설 시장으로 거듭나면서 재정비를 거쳐, 공식적인 면적이 1,719㎡에서 절반 이상인 589㎡로 줄어들었다. 한편 부평시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시장인 진흥종합시장이 등장하는데, 규모 면에서 기존의 부평시장보다 훨씬 큰 편이었다.



❖ '시장'이라고 표기된 진흥종합시장(1977년 지도)

진흥종합시장은 '진흥종합상가'라고도 한다. 도로나 공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난 시장이 아니라, 1970년대 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건물 안의 공간을 임대하여 점포가 입주한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상가 건물은 1971년에 사용 승인이 났으며, 처음부터 공인 등록된 시장으로 출발하였다. 건물은 가·나·다·라 등 총 4개 동으로 구분되는데, 중앙 통로를 통해 분할되어 총 8개의 건물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진흥시장은 1982년 2월 주식회사 진흥종합상가를 설립하였

고, 1987년에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에는 진흥종합상가의 이름으로 상인회를 등록하였다.³¹

1977년 지도에서 진흥종합시장은 '시장(市場)'으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다. 1986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청과물시장과 진흥종합시장의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청과물 도매시장은 넓은 부지의 반을 나누어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외에서는 노점상들로 북적였다. 진흥종합시장은 1980년대에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햇빛을 가리는 차양을 둔 모양이다. 시장의 서쪽 대로변에는 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고 있었는데, 동쪽의 대로는 노점상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흥종합시장은 1976년 1월 27일에 한천길을 중심으로 하는 도매업자 단체인 부흥실업에 인수되었는데, 주식회사 부흥실업이 창립되는 1976년 4월 1일보다 앞선 일이었다.³² 그리고 진흥종합시장 또한 부흥실업에서 운영한 청과물 도매시장과 성격이 비슷하였다.

31 김번욱, 『2012년 부평 진흥종합시장의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소, 2012, 43쪽에서 재인용.

32 대인농산 홈페이지(<http://www.daeinnongsan.co.kr/>)에서 회사 연혁을 발췌하였다.



❖ 진흥종합상가 입구(출처: 부평구청)

진흥종합시장은 상가 건물을 활용하여 물건을 쌓아놓고 팔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위 다른 시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물품이 아닌 도매용 물품을 주로 판매하였는데, 공산품·건어물·육류 등 청과물을 제외한 품목의 도매업을 주로 취급하여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종합시장과 그 옆 청과물 도매시장은 하나의 종합적인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였다. 대규모 부지에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놓고 도매하는 지금의 대형마트, 혹은 도매형 마트와 같은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청과물 도매시장과 진흥종합시장은 서로 판매 품목을 보완하면서, 일용품을 사러 오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품목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렇게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옆으로 잡화나 건어물, 육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이 자리를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도매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편리함을 위한 공간 배치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물자가 모여드는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부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맞은편의 구월도매시장, 그리고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의 청과물도매상가를 지나 형성된 일용잡화물 전문상가 등이 있다.³³

3. 부평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시장 등록으로 치면 이 일대의 시장 중 가장 느린 축에 속한다. 부평종합시장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시점은 상인회는 2006년이고, 인정시장 등록은 2007년이다. 하지만 시장이 처음 형성된 시기는 더 앞설 것으로 판단된다. 상인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개설은 1950년대라고 적혀 있다.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을 했던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960~1970년대에도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이 성행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단속반과의 마찰이 잦았다고 한다.



❖ 부평종합시장 입구(출처: 부평구청)

33 「서울 청량리 일용잡화상가 "이사철 새살림 장만 적소」, 『경향신문』, 1992년 8월 19일자.

부평종합시장은 부평강시장, 진흥종합시장과 맞닿아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세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로, 400여 개에 달하는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 취급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으로 모든 것을 다 파는 부평 최대의 시장이다.

부평종합시장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대형마트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배수관 정비와 아케이드 설치의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희망프로젝트'로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에 선정되기도 했다.

4. 부평강시장



❖ 부평강시장(파란 박스)과 옛 부흥실업 도매시장(빨간 박스, 현재 건영캐스빌 아파트)(출처: 다음지도)

부평강시장은 속칭 '깡'을 부르던 곳이었다. '깡'은 경매를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과거 이곳에서는 청과물 경매가 열렸기 때문에 깡시장이라 이름 붙였는데, 경매 기능이 사라진 현재도 그 명칭이 이어지고 있다.



❖ 부평강시장 주 출입구(2019년)

부평강시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으로부터 부흥오거리에 이르는 대로변을 기준으로 남쪽에 길게 위치한다. 경매가 열리던 청과물 공판장은 현재 건영캐스빌 아파트 자리로, 경매 기능의 이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강시장에서는 경매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경매장 인근에서 값 싸고 신선한 청과물이 도매, 소매로 유통되던 모습이 남아 있다.

부평강시장에는 여러 출입구가 있으나 부평강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길을 건너면 보이는 부평신협 우측 통로가 주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길은 현재 건영캐스빌 아파트로 통하는 길인데 예전에 건영캐스빌 아파트 자리에 공판장이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길이다.

여러 시장이 모여 있는 특성상 각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특히 부평강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건영캐스빌의 좌측과 북측 일대가 부평강시장의 범위로, 대지면적은 1만 2,748㎡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부평강시장의 점포 수는 총 180개로, 직영 10개, 임대 118개, 노점상 52개로 구성되어 있다. 직영보다는 임대와 노점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중

사자 수는 총 235명으로, 상인 118명, 종업원 65명, 노점상 52명 등이다.³⁴ 평균 1개 매장에 1.3명이 종사하는 셈이다. 노점상의 경우 1개 점포 당 1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다른 시장과 비교해 보면 진흥종합시장 2.2명(53점포, 118명), 부평종합시장 1.5명(400점포, 584명), 부평 문화의 거리 1.6명(212점포, 346명)에 비해 매장당 종사자가 확연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부평강시장의 점포 등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크지 않고 1인 점포가 많은 까닭이다.

표 7 각 시장의 점포 수와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시장명	점포 수						종사자 수				
	직영	임대	자가	빈 점포	노점상	계	상인	종업원	노점상	기타	계
부평강시장	10	118			52	180	118	65	52		235
진흥종합시장	17	36				53	50	68			118
부평종합시장	32	164			204	400	210	170	204		584
부평문화의거리	11	170	21		10	212	192	134	10		346

언제부터 부평강시장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시작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시장 건립을 위한 행정 자료나 회의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을 듯하지만, 대개 상인회는 시장이 형성된 후 한참의 시간이 흘러 조성되기 때문에 시장의 역사를 문서로 증명할 길은 더더욱 없다.

부평강시장의 기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 인천청과주식회사의 부평출장소 설

34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부평전통시장 일반 현황」 자료를 참고하였다.

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대개 부평깡시장의 기원을 부흥실업에서 운영하던 청과물 경매 시장으로 소급하곤 하는데, 위치는 다르지만 부평시장이 청과물 중심의 유통이 되었던 것은 해방 이전부터였다.

먼저 부평에 청과물 경매시장을 설치한 것은 인천청과주식회사였다. 1929년 창립한 인천청과주식회사는 인현동에 인천청과시장을 두었다. 인천청과주식회사는 인천부에 허가를 받은 공설 청과물시장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부평에도 출장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의 걱정 기하고저 청과회사 부평출장소 오는 19일부터 신설 개방³⁵

인천 청과주식회사에서는 일본정치시대에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부평출장소가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쇄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 당국과 교섭이 성립되어 재개하기로 되었다. 즉 동(同) 회사에서는 6만에 가까운 부평 일대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부식물인 소채를 비롯하여 과물 등을 경매시장이 없는 까닭에 때로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폐단이 있어, 이 같은 점을 시정하고 수급의 걱정을 기하고저, 장소를 설치코저, 모든 준비를 진전중이었는데, 드디어 오는 19일부터 출장소의 문을 열기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同) 회사 상무 김원권(金元權)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채와 과물의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정한 가격을 수립함으로써 인천부의 일환인 부평 주민의 가정경제 확립의 도움이 되고자 출장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도 아래 신설출장소가 번창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인천청과회사의 부평출장소는 ‘일본정치시대’, 즉 일제강

35 『대중일보』, 1948년 6월 12일자.

점기에 설치되어 많은 성과를 내었다. 부평출장소 설치와 관련된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도인천(工都仁川)을 부르짖으며 일제의 야욕을 위한 병참기지로 변모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 초반의 일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부평 일대의 공업화, 군수산업화로 인하여 부평 지역에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며 일상용품과 청과물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성업하던 부평출장소가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해방으로 인한 혼란과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러던 중 1948년 6월 19일, 인천청과주식회사는 부평출장소를 다시 열기로 계획하였다. 그 목적으로 ‘소채와 과물의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정한 가격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인천부의 일환인 부평 주민의 가정경제 확립의 도움’이 되기 위함을 들었다.

부평 청과시장 신설계획 추진 중³⁶

부평에 청과시장이 새로 생긴다. 시(市) 상무계에서는 이번 부평영화극장 옆 공지(空地)에 청과경매시장을 신설하고 주민들에 싼 값으로 채소 및 과일 등을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신축 공사 입찰을 불일 시행할 것이라는 바, 공비 일체는 인천청과회사에서 부담하고 운영도 동(同) 회사에서 맡기로 되었다고 한다.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는 단순한 사무실 개념이 아닌 청과물 경매시장을 부평에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49년 인천시에서 현재 부평 문화의 거리 남쪽에 청과경매시장 신축 공사를 실시하였고,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와 이후 운영권도 인천청과주식회사에서 맡기로 했다.

1957년 동구 금곡동에 인천원예협동조합(현 인천원예농협)이 설립되었다. 7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인천원예협동조합은 10월 17일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고, 11월 8

36 『대중일보』, 1949년 10월 13일자.

일 등기를 마쳤다. 금곡동에 사무소 및 공판장이 설치되었는데, 조합원 103명이 출자하였고 출자 불입금은 5,700원이었다.³⁷

인천원에협동조합은 인천청과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 청과물을 주로 유통하였다. 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인천원에협동조합 특징은 공판장이었다. 공판장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청과물이 경매되어 인천 전역으로 유통되었다.

인천원에협동조합은 등기 이후 인천 각 지역에 공판장을 설치하였다. 등기와 동시에 직할공판장(훗날 동인천공판장으로 개칭)을 개장하였고, 이후 1959년 11월 1일 송림공판장을, 1960년 1월 1일 송의공판장과 부평공판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와 인천원에협동조합 인천공판장은 양립이 쉽지 않았다. 둘 다 청과물 경매 기능을 하였고, 인천청과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원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었다. 다음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도매권 쟁탈권 - 인천원협과 청과사(靑果社)³⁸

요즘 인천원에협동조합과 인천청과주식회사 사이에 청과시장 도매대행권을 둘러싸고 이권 쟁탈전이 심각하게 전개되어 소관 당국인 인천시에서는 문제가 복잡이 묘해짐에 따라 가부(可否)를 결정 못하고 농림상공 양부에서 면질을 내어 해결책을 촉구 중 청과상인과 생산자 측 농민들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용인 즉, 인천청과주식회사에서 시내 인현동 소재 청과시장과 부평분장 등 2개처를 10여 년간에 걸쳐 사용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집산되는 청과 및 소채는 연간 6억 환 이상이 도매 중개되고 있는바 총 도매액을 기준으로 과실은 1천분의 1, 소채는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인천시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다.

37 인천원에협 홈페이지(<http://www.icwy.com/>)를 참고하였다.

38 『조선일보』, 1959년 2월 14일자.

그런데 전기 청과회사에서는 작년 12월 22일자로 인천시에 정약갱신신청을 내게 되자 인천원협 측에서는 그 익일인 23일에 청과도매시장 대행계약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천시의회에 대행권을 부여해달라는 청원을 하여 양자간에 이권쟁탈전이 발단되고 원협 측에서는 또다시 1월 16일자로 이영모 씨를 필두로 2,049명에 동의 날인한 진정서가 시 당국에 제출되자 주무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던 중 지난 1월 31일 24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 통과되어 2월 2일에 집행부인 시로 통과 통보를 하게 되므로 주무자들은 문제가 중대함에 비추어 속의 끝에 양자가 서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중앙도매시장법 제5조 및 제 18조 2항에 대한 법적견해를 상공농림 양부에 각각 질의 중 양부에서도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법제실에 의뢰하여 공정한 법의 해답을 요청 대기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귀추가 자못 주목을 끌게 함은 물론 가장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는 청과도매업체와 원협 사이에 암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자 및 일반 농민들은 공평한 해결을 요망하고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1959년 인천원에협동조합과 인천청과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인천내 청과시장 도매대행권 분쟁이 심화되었다. ‘도매대행권’이라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청과물 도매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인천청과주식회사에서 인현동 소재 청과시장과 부평분장(현 부평출장소) 2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6억 환 이상을 중개하였다. 그에 대한 사용료로 과실은 1/1,000, 채소는 3/1,000이 책정되어 인천시에 납부하는 형식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2월 22일 인천청과주식회사에서 이 도매대행권을 인천시에 갱신 신청하자, 바로 다음 날인 23일 인천원에협동조합에서 대행 계약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천시의회에 청원을 하였다. 이어 인천원에협동조합에서는 2,049명의 동의를 얻은 진정서를 제출, 1959년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그 결과가 인천시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인천원에협동조합과 인천청과주식회사가 도매대행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자 상공부와 농림부에 질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60년 1월 1일 인천원예협동조합은 부평공판장을 개장하며 청과물을 유통하였다. 이때의 위치는 부평동 192-7로, 시장로터리에서 남서쪽 방향이었다. 이후로 인천에서 청과물 경매시장은 인현동과 부평동이 큰 축이 되었다.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의 개장으로 인하여 부평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전국에서 집산된 청과류와 이를 매매하기 위해 몰려든 상인,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자.

수 만 주민의 소채와 청과를 다루고 있는 인천시 부평동부동 소재의 원예협동조합 위탁판매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산자와 상인 및 소비자들이 들끓어 언제나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 주변에 공중 변소의 시설이 없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뇨를 하여 더운 날씨에 악취를 마구 발산케 하는 실정에 있다.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심지어 소채 하치장에까지 방변을 하여 극도로 불결, 불쾌감과 비위생적인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자각 없는 자의 탈선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중 변소의 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시급한 설치를 바란다.³⁹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중변소의 시설이 없어서 채소 하치장에까지 비위생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평공판장 인근의 노점이었다. 청과물을 경매하는 부평공판장 주위에서는 경매 받은 물건을 대량 혹은 소량으로 떼다가 파는 상점들이 생겨났는데, 이 중에는 건물을 갖춘 상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노점에서 파는 상점도 있었다. 노점 상인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게 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을 판매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판장 인근은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971년 8월 5일 북구청(현 부평구청)과 노점 상인들 간의 노점 철거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1년 11월 1일, 당시 신설 중이었던 진흥자유시장(현 진흥종합시장)으로 부평공판장과 함께 노점 상인들이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위치보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1974년 11월 1일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은 불과 3년 만에 다시 부평동 150-24로 이전하였다. 현재의 인천원예농업 부평시장지점 자리다. 1993년 12월 20일 부평공판장을 증·개축하였다. 2001년 4월 10일 부평공판장은 폐쇄되었고, 경매 기능은 신설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삼산공판장으로 이어졌다.

앞서 살펴본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와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은 과거 부평시장에서 청과물 경매를 도맡았다. 그런데 이들의 공판장 위치는 현재의 부평깡시장과는 거리가 멀었고, 부평시장로터리 인근에 있었다. 물론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이 지금의 진흥종합시장에 들어온 일도 있었지만 그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다시 부평시장로터리 인근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부평깡시장의 기원이라 말하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있다.

부평깡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상인들에게 부평깡시장의 기원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부흥실업주식회사다. 한천길은 1968년 부평동 152번지(현 롯데시네마 인근)에 부흥상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를 위탁 받아 운영하였다. 1973년경 한천길은 동업자를 규합하여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부흥실업주식회사이다. 부흥실업주식회사는 부평동 252-29(현 건영캐스빌 아파트) 자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였다. 이 도매시장에서는 청과물 경매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는 잠시지만 인천원예협동조합이 진흥종합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였다. 따라서 공설인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과 사설인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나란히 운영되면서, 부평의 청과물들은 이곳을 거쳐야 유통이 될 지경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이 시장로터리 쪽으로 다시 이전하였으나, 부흥실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청과물 도매시장은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하면서 오히려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39 「공중변소 시설, 더 많이 짓도록」, 『조선일보』, 1963년 6월 19일자.



❖ 부흥실업 청과물 도매시장(1970년대)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일대에는 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 청과물을 다시 도매로 유통하거나 소매로 유통하는 상점들이 도매시장 주변을 형성했다. 사람들은 부흥실업주식회사의 ‘부흥’을 따서 이 일대를 부흥시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는 1980년 사옥을 준공하고 제1판매장을 신축, 제2판매장을 신설하였다. 1981년 5월 청과부류 도매시장 개설을 허가 받고, 다음 달인 6월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1976년 12월 26일 부흥실업주식회사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상인 36명이 46만 원을 출자해 설립한 부흥실업새마을금고는 부흥실업 청과물 도매시장, 진흥종합시장, 제일시장 상인 등 많은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1990년 2월 1일 부흥실업주식회사는 건영농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로 김성기가 취임하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부흥실업새마을금고 명칭 또한 건영종합새마을금고로 변경했다. 1994년 기준 회원 수 2,300여 명에 자본금이 205억여 원에 달할 정도였다. 1994년 1월 11일 건영농산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입주하면서 부평깡시장의 ‘깡’을 외치는 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평깡시장’이라는 명칭은 2007년 11월 6일 부평깡시장이 인정시장이 되면서 공식화되었다. 부평깡시장의 기원은 청과물 공판장과 그 주위에 형성된 도소매 상가, 노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등록은 2007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역사는 그보다 더 위로 소급된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부평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 부평깡시장 상인회 김남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장사를 시작한 지 햇수로 40년이 되었는데, 사실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시작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평시장에서 쌀장사를 하셨대. 지금 문화의거리 근방 어디인데 이미 없어져서 정확하지도 않고 좀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 초반에 쌀가게를 하셨다고 들어어.

건영캐스빌 자리에 부흥실업주식회사라 있었어요. 도매시장 이름이 부흥실업주식회사. 그런데 사실 부흥실업이라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부평에 원예협동조합이라고 있었거든. 부흥오거리에 있던 원예공판장은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중도매인으로 등록을 하셨어. 방송에서 보면 수산시장 같은 거에서 경매할 때 모자에 걸어놓고 쓰고 손으로 막 하잖아. 그런 직업인데, 아버지께서 7번 중도매인을 하셨어요. 7번 번호를 부여 받은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게를 ‘7번 상회’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공판장 있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번호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번 사람들은 나가서 유사 업체, 이를 떼면 조그만 공판장을 또 만든거야. 원예협동조합처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거는 아니고, 197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헤쳐모여서 부흥실업주식회사를 만든거지. 이를테면 사설,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 다 원예공판장에 들어가던 사람들이야.

부흥실업에서 건영캐스빌 자리에 들어서서 중도매인은 부흥실업에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이 자리가 도매시장이 되었어. 물건을 깔고 경매를 하는 거야. 최고가에 낙찰되는데, 그것을 옛날에 ‘깡 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순수 한국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렸어. 당시 경매장 주변에 다 과일이나 채소 파는 상인들이 모여든 거지.”⁴⁰

40 김남제 인터뷰, 2018년 7월 4일 진행.



❖ 건영시장 가로환경정비(1994.11.15.)

인터뷰에 따르면, 부평시장에는 인천원예협동조합 공판장과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시설 도매시장이 있었다. 인천원예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사람 몇몇이 부흥실업을 차려 지금의 건영캐스빌 자리에 도매시장을 만들었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도매시장에는 경매가 이루어졌고, 경매장 주변에는 청과물을 도소매하는 상인들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부흥실업주식회사는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이 또한 김남제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여덟 명인가 부흥실업을 하다가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거야. 맨날 투닥거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도매시장 땅을 팔자고 한 거지. 처음에 투자했던 것보다 땅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나눠 갖자고 된 거야.

이걸 건영이라 곳에서 사서 한때는 건영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건영에서는 여기서 시장을 계속 하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했어. 여기가 서울보다 땅값이 싸니까 잘하면 대박난다고 해서 건영에서 이걸 산 거야. 사서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시장을 운영해보니까 수입이 좀 짹짹하거든. 이름도 부흥실업에서 건영농산으로 바꾼 거지. 임대 수수료가 꽤 썼어. 수입이 괜찮다보니까 아파트를 바로 짓지 않고 몇 년을 더 했지.

1994년인가 구월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겼잖아. 거기로 건영농산이 갔다가 지금은 이름은 대인농산으로 바꿨어. 아직도 있어.”

건영농산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꾼 부흥실업주식회사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면서 도매시장이 있던 자리는 건영의 계열사인 건영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게 된다. 1995년 당시 아파트 분양 기사를 살펴보자.

[분양소식] 건영, 인천 부평시장 주상복합건물내 상가 분양⁴¹

건영건설(대표 정기택)이 인천 부평동 부평시장에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내 상가 2백97개 점포와 아파트 1백6가구에 대한 분양을 7일부터 시작했다. 대지 1천7백49평에 지하3층-지상14층(연면적 9천5백53평)으로 건립되는 부평건영주상복합건물은 지하1-지상3층에 상가가 4-14층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연면적이 5천2백70평에 달하는 상가는 평당분양가격이 4백만원-1천3백만원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아파트는 25평형이 66가구, 37평형이 40가구이며 평당 분양가격은 25평형이 2백70만원, 37평형이 2백80만원이다.

건영은 마감재를 9%옵션수준으로 설치하지만 분양가는 기본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영복합건물은 지하철1호선 부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부평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건영건설은 지상 14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여기에 상가 297개 점포와 아파트 1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분양 광고를 낸 지 1년이 안 된 1996년 8월 건영건설이 법정 부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부도 이후 아파트를 짓다가 말았고 건영건설의 매각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아파트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펜스가 세워졌다.

41 『한국경제』, 1995년 11월 14일자.

당시 부평깡시장의 분위기는 활기를 잃었다고 한다. 건영농산의 도매시장이 구월동으로 떠날 때 상인들이 함께 구월동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 상권이 위축되었다. 그 자리에 들어서기로 한 아파트는 분양이 원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 펜스가 세워지고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흥물이 되었다. 더욱이 1995년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이어 인천 제2농산물 도매시장인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다. 그 당시만 해도 비는 가게들이 많았다고 한다.

건영건설의 채권 은행인 서울은행(2002년 하나은행에 합병)은 건영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회사에서 건영 인수 협상 의사를 밝혔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건영캐스빌이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위에 펜스가 세워지면서 펜스 바깥쪽으로 노점이 형성되었다. 문제는 2002년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이었다. 아파트 측에서는 펜스를 걷어내고 주변을 정비하려 했고, 이 때문에 노점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아파트 측과 노점과의 싸움이 빈번해졌다.

이때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만들고 정식 시장으로 등록을 했다. 2007년의 일이다. 기존의 친목회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워 상인회를 만든 것이다. 주변 상인들을 규합하여 상인회를 만들고 관공서에 시장 등록을 해야 했다. 이때 예전에 경매를 하던 도매시장에서 외치던 소리, ‘깡’을 기억하고 있다가 ‘부평깡시장’이라고 등록했다. 이제 경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상인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건영캐스빌 아파트 건설 모습(1996. 5. 22.)

5. 부평 문화의 거리

1990년대 중후반 대형 유통 기업이 출현하자 부평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쇠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부평시장번영회 산하에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부평시장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들은 시장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부평시장번영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지역 상인 156명의 서명을 받아 부평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한 진정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하였다. 부평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고, 1998년 2월 문화의 거리를 완공하였다.⁴²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부평대로에서부터 시장로터리까지 270여m 길이의 거리로, 이 구역을 중심으로 양옆에는 상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대어 부평의 ‘평’을 딴 ‘평리단길’ 역시 부평 문화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진(출처 :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⁴²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부평역사박물관, 2020, 66쪽.



참고 문헌



단행본

- 계양사편찬위원회,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 계양사편찬위원회, 2011.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부평역사박물관, 2020.
 부평역사박물관, 『삶의 터전, 부평시장』 I·II, 부평역사박물관, 2020.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조기준, 『지명유래지: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한국의 시장상업사』, (주)신세계백화점 출판부, 1992.
 한국산업은행,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한국산업은행, 1959.

논문

- 조선상공회의소, 『경제월보』275·276(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17, 2011)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 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3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사료

-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42)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71)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
 『여지도서(輿地圖書)』(1760)
 『인천부 부평지내 배수간선 부설 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국가기록원, CJA0003613).



- 인천광역시, 『인천공보』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신문

- 『대중일보』
 『매일신보』

웹사이트

-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
 인천원예농협(<http://www.icwy.com/>)





제 7 장

부평 문화의 거리와
지하도상가

제1절 _ 부평 문화의 거리

제2절 _ 부평 지하도상가

제7장 부평 문화의 거리와 지하도상가

김 래 영(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1절 | 부평 문화의 거리

1. 현황과 특성



❖ 부평 문화의 거리 전경(사진 홍승훈)

‘문화의 거리’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이 한국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¹ 1998년에 조성된 부평 문화의 거리는 부평시장에 포함된 재래시장으로 부평구 부평문화로80번길 6-7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금강제화에서부터 시장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말한다. 주변 지역에는 전통시장인 부평 깡시장, 자유시장, 진흥종합시장, 청과부평시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 지하도상가가 있으며, 주위에 음식점, 카페, 의류매장 등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인철도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과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환승정류소가 있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천 최대 상권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항상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총 길이가 270m, 상가 간의 거리 폭은 15m이다. 거리의 양측에는 폭 4m의 보행로가 있으며, 폭 7m의 가로 중심부에는 분수대, 야외무대, 벤치 등 각종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건물들은 대부분이 상가로 활용되고 있으며 4층 이하의 중저층 규모이다. 1층은 의류·신발매장, 핸드폰 판매점, 간단한 스낵류를 파는 음식점 등 쇼핑 위주의 상점이 주로 입점해 있다.



❖ 부평 문화의 거리 초입(좌)과 보행로(우)

1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의 거리 : 계획과 실제』, 문화체육부, 1996, 120~121쪽.



❖ 음식 노점(좌)과 야외무대 및 쉼터(우)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2층은 게임방, 카페, 미용실, 부동산, 노래방, 음식점 등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매장이 있다. 매장 내부는 업종 변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물은 대부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다.



❖ 부평 문화의 거리 안내도(출처: 부평홍보관 문화의 거리 홈페이지)

부평 문화의 거리는 <부평 문화의 거리 안내도>에서 보듯이 A, B, C 3개의 존으로 나뉘며 면적은 1만 3,921㎡이다. 조성 초기에는 B존만이 해당되었지만, 2000년대 후반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출범한 후에는 A존과 C존에 있던 상점까지 상인회에 가입하면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상점은 노점을 포함하여 총 168개로 의류·신발 등 패션 관련 상점이 가장 많으며 전체 상점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음식점이 24%(40개), 가정용품이 14.9%(25개)의 비율을 보인다.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초기인 1999년에는 노점을 제외한 122개의 상점 중에서 의류점이 43개(32.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생활용품점이 22개(18%), 음식점이 21개(17%)였다. 당시에 의류점과 일상용품점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은 문화의 거리가 재래시장 내에 있었고, 거리가 조성된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문화의 거리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 현재는 음식점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시민들이 부평 문화의 거리를 쇼핑만이 아니라 친목 도모, 여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젊은 층의 취향을 담은 평리단길이 조성되면서 청년들의 창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부평M스타가요제는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문화의 거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 주말마다 개최되는 부평프리마켓은 청년 창업자에게는 손수 제작한 제품을 공개하는 실험적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평소에 접하지 못한 특색 있는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선정되어 지역 특산물 개발, 지역 관광 유치 등 관광과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한평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말마다 이동식 카트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평식당을 새롭게 운영하였다.

2 손장원·윤덕준·이동배, 「제3분과 도시 및 단지계획 : 인천시 부평문화의 거리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9(1), 대한건축학회, 1999, 365쪽.



❖ 부평M스타가요제(좌)와 부평프리마켓(우)(출처: 부평 문화의 거리 블로그)

2. 조성 과정

부평 지역의 상권은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1990년대 이후로 인근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고 지하도상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은 상권 쇠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³ 재래시장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매 구매가 어렵고 동선(動線)이 복잡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1999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지하철 1호선은 상인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른 구월동과 계양, 연수 등 신시가지로 상권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부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기까지 일대는 노점이 난립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통행의 장애가 있었으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상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노점으로 인하여 같은 업종의 상점들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런 노점의 문제도 ‘문화의 거리’ 조성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⁴

3 홍인옥,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는 노점상 문제 -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47, 한국도시연구소, 2000, 42쪽.

4 박종숙, 「상인들이 일군 문화의 거리」, 『국토』239, 국토연구원, 2001, 113쪽.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전 모습(출처: 새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민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8)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부평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시장 거리가 상인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것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점차 많은 상인이 그 취지에 공감하였다. 즉 거리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소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고 편하게 시장을 찾아오고 이를 통해 상권도 점차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아울러 문화 공간이 부족한 부평 지역에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결국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목적, 지역공동체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 제공, 공공의 거리에 대한 생활공간 확보 등의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부평시장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996년 4월에 ‘부평시장 변영회 산하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이하 상가변영회)를 조직하였다. 부평시장 상가변영회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건물주들로 이루어졌으며, 노점, 주차 등 거리 전체의 혼란스러움이 상인들 스스로 생각해도 ‘힘오스러울 정도’였기에 거리 질서 유지 및 향후 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상인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⁵

5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25쪽.

같은 해 7월에는 지역 상인 156명의 서명과 함께 ‘낙후된 부평시장을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부평시장 중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하였다. 부평구청은 노점 정비에 따른 여론의 악화 및 강한 반발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상가번영회는 구청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을 위해 노점상연합회와 1996년 11월 7일과 8일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 양측 대표들 간의 공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평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부평구청은 1997년 2월에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확정하였다. ‘부평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금강제화에서 시장로터리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재래시장 상권의 구심적 역할을 통한 부평 경제 활성화를 조성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7년 10월 1일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1998년 3월에 문화의 거리를 완공함으로써 부평 문화의 거리가 탄생하게 되었다.⁶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50여 개의 가로수, 벤치,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며, 아스팔트 도로는 붉은 벽돌로 대체되었다. 또한 지상의 모든 전기 시설물들이 지중 매설됨으로써 일단 이전과는 다른 현저히 쾌적한 거리가 되었다.



❖ 1997년 부평 문화의 거리 기공식(좌)과 1998년 부평 문화의 거리 준공식(우)(출처 : 부평구청)

6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거리조성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0, 9~10쪽.



❖ 1998년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후 모습(출처 : 부평구청)

이러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상인들 스스로가 교통 통제, 거리 청소, 각종 행사에 자원하여 문화의 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⁷ 1999년 1월에는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협의회(이하 문발추)’가 결성되었다. 상가번영회가 상가 건물주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구하였다면 ‘문발추’는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의 거리 조성 방법과 노점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 문화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부평 지역 풍물패인 ‘너나’의 공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계양지부’에서 개최한 시민노래자랑과 영화 상영, 부평구청과 문발추가 공동 주최한 한여름 밤의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였다.⁸

7 인태연,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상인의 손으로 만든다」, 『주민과 상인이 만들어 가는 우리 거리 광진구 마을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00, 4쪽.

8 인태연,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상인의 손으로 만든다」, 『주민과 상인이 만들어 가는 우리 거리 광진구 마을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00, 10~11쪽.



❖ 1999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좌)와 1999년 경품대축제 행사(우)(출처 : 부평구청)

3.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친 절반의 성공

1) '주체와 문화'가 사라진 문화의 거리

조성 초기의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지도 상승과 시민들의 도보 편의성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쇼핑, 휴식, 문화 그 어 느것으로도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지 못했고, 행정의 관심 부족은 '문화의 거리'와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지역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았다. 더군다나 상점의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였고, 노점상과의 빈번한 마찰로 상인들마저 추진 의욕을 상실하면서 부평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순번을 정해 '문발추' 상인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담당하기로 한 약속은 강제성이 약하다 보니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거리 시설물의 사후 관리 역시 소홀하게 다뤄졌는데 분수대 고장, 바닥 포장재 파손 등에 대해서 행정의 관심도 미약했다. 거리 조성 당시, 거리 내 차량 규제 장치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초기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점상 상가의 물건이 길가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거리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 여러 가지 제반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문화의 거리에

맞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⁹ 쏟아져 나왔다. 문화의 거리 조성 초기의 혼란한 상태는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거리를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이어지지 못한 채 이 거리가 주인 없는 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¹⁰ 결국 주체의 부재는 거리를 걷는 시민,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던 상인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공간이 되었다.¹¹

2) 노점상과의 갈등과 해결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가장 큰 변수는 노점의 처리 문제였다. 문화의 거리 조성 이전에 부평시장 중앙로에는 100여 명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었고, 그중 의류 판매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음식물, 농수산물, 잡화 등이 있었다. 주변 상점과 거의 유사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 상인 간의 갈등은 시한폭탄과 같았다.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상가번영회와 노점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후에 노점상의 재배치 여부였다. 상가번영회는 노점의 완전 철거를 요구한 데 반해 노점상들은 전원 재배치를 주장하였다.¹² 상인과 노점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핵심 문제였던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부평구청, 상가번영회, 노점상연합회 등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상인들은 노점의 전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대신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노점을 선별하자고 제안하였다. 결국 핵심 쟁점은 문화의 거리 조성 후 노점을 어떻게 입점시킬 것인지, 즉 어떠한 선별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입점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9 손장원·윤덕준·이동배, 「제3분과 도시 및 단지계획 : 인천시 부평문화의 거리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9(1), 대한건축학회, 1999, 366쪽.

10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거리조성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0, 15~19쪽.

11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거리조성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0, 38쪽.

12 홍인욱,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는 노점상 문제-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47, 한국도시연구소, 2000, 46쪽.



❖ 1997년 노점 단속 모습(출처: 부평구청)

상가변영회는 재입지할 수 있는 노점의 자격 심사 기준으로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산 정도, 둘째, 노점을 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셋째, 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였다. 상가변영회는 부평구청 측에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였다. 99개 노점 적치물을 조사한 결과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점상이 60%가 넘었으며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노점상이 18명이나 되었다.

표 1 부평 문화의 거리 부지 내 노점상의 연간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 개·%)					
구분	5만 원 이하	5~10만 원	10~20만 원	20만 원 이상	합계
개수	59(59.6)	22(22.2)	11(11.1)	7(7.1)	99(100)

1997년 당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월 소득 22만 원 이하, 가구당 2,800만 원 이하의 재산임을 고려하여 노점상 선발을 위한 재산세 기준을 7만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부평구청에서는 7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만 원을 재입지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부평 거주 여부와 3년 이상 영업한 자를 또 다른 기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48명을 재입지할 수 있는 노점상으로 선정하였다. 재산세 납부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에는 큰 금액이었으나 입점 노점의 사유화 금지, 즉 노점의 양도, 매매, 담보제공 등 권리 설정 승계 행위 금지라는 또 다른 대책의 수립으로 합의

가 이루어졌다.¹³ 더불어 노점판매대는 도로 폭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으며, 노점상은 인접한 상점 주인으로부터 허락된 장소 내에서만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노점 허용 사례 기준을 부평구청에 제안하였다. 상인들의 주장에 부평구청은 노점의 영구적 설치를 불가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허용된 노점 외의 다른 노점은 입점시키지 않겠으며, 입점 시에도 「도로법」으로 인근 지가를 적용하여, 계약 형식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또한 업종 선택에서도 상가변영회와 협의하여 구역별로 노점을 선별하여 입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1998년 3월에 부평 문화의 거리가 완공되자, 선발된 노점 48점은 폭 15m 거리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구청에서 제작한 가로판매대는 상가변영회에서 요구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이었으며 물건 진열이나 판매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 노점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1차 제작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차로 제작한 가로판매대도 고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점상은 영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비닐 커버로 전면을 감싸고 퇴근하였다.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후 노점(출처: 부평구청)

13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68~73쪽.

14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75~76쪽.

처음 시장의 침체 문제를 제기하며 노점의 24시간 적치물을 금지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애초에 노점상 역시 그 문제를 인정하였으며 영업을 끝난 후에 판매시설의 이동에 합의를 본 사항이기도 하였다. 문발추는 1999년 3월에 개최한 2차 협의회에서 방치된 노점 판매시설의 이동과 관련하여 현재 고정식으로 설치된 노점판매대를 이동식으로 바꾸고 영업을 끝난 후에는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¹⁵

그 후 상인과 노점상은 문화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문발추는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에 버려지거나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을 주민 참여를 통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평공원 조성 사업을 문화의 거리에 도입하면서 상인과 노점상 사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한평공원을 조성하면서 노점상과 상인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해 10월 문발추 총회에서 노점상의 회원 가입이 정식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건물주와 임대 상인, 그리고 노점상이 공식적인 협의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문발추의 사무국장에 노점 상인이 선출되기도 하였다.¹⁶ 이제 노점상들도 부평 문화의 거리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3) 시민단체 ‘도시연대’와의 협업

부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문발추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마을 만들기와 걷고 싶은 도시’라는 영역에서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였다. 도시연대는 총 8차례에 걸친 지역 답사, 상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면접조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부평문화의 거리를 사례로」라는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5 홍인옥,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는 노점상 문제 -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47, 한국도시연구소, 2000, 46쪽.

16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52~53쪽.



❖ 조성 당시 한평공원(출처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민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8)

문화의 거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는 하였으나 도시연대가 부평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평 구민들이 실제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는지였다. 문화의 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시민들의 거리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 실제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거리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시민들의 방문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이 체감하는 소득 감소는 재래시장 이용률 하락과 IMF외환위기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결과로 거리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문화의 거리가 쇼핑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통로가 아닌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노점, 자동차 주차와 주행, 주변 상점들이 내놓은 상품의 진열로 개방된 공간의 공공성이 침해받고 있었다. 또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으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다. 행사 추진에도 행정과 상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단순한 참여자로서 의견을 반영할 어떠한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거리 시설물들은 ‘거리 이용의 편의성 제공’과 ‘거리 이미지의 창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앉을 수 있는 벤치, 환경 조각물, 분

수대의 설치하는 사람들을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거리로 끌어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연대는 부평 문화의 거리가 조성 초기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치가 퇴색되었지만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¹⁷

도시연대는 부평 문화의 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인, 노점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속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공론화하여 지역 협의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주체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10월 7일에 부평문화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 상인, 노점, 행정기관 등의 주체들은 문화의 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었다. 2001년 2월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다시 워크숍에 모인 상인과 노점상은 거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행사들은 대부분 지역 정체성이 부재한 일회성 행사에 머물렀다. 따라서 도시연대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는 대규모 축제가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달 상인들이 스스로가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축제를 시도하자’고 제안하였다. 2010년에 개최한 ‘노을자~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축제는 상인, 노점상,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매개로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축제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보물찾기 문제들을 ‘직접’ 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품을 준비하였다. 노점상들은 부평 문화의 거리 축제를 위해 하루 동안 장사를 접고 자리를 내주었다. 지역단체들은 각각 하나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¹⁸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중앙 통로를 내어준 노점상들도 부평 문화

17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부평문화의 거리를 사례로」, 1999, 23~37쪽.

18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노을자~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2001, 85~87쪽.

의 거리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었다.

2007년 초반 문발추는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조성 사업을 부평 문화의 거리에도 추진하였다.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을 마친 노점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커다란 음식 노점을 매일같이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동이 편리한 노점은 3블록으로, 음식 등 먹거리 중심의 이동이 쉽지 않은 노점은 4블록으로 자리를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떨어져 있던 음식 노점을 한 공간으로 몰아놓고 위치를 재정리하자 4블록에 문화예술의 거리 계획과 실제 넓은 공터가 생겨났다. 그 자리에 한평공원을 조성하면서 상인과 노점상은 다 같이 화단에 흙을 담아 야생화를 심었고, 노점상연합회에서는 작은 나무 두 그루를 기증하였다.¹⁹

한평공원을 계기로 노점상과 상인 간의 관계는 더 큰 진전을 이루었다. 10년 동안의 활동이 누적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면서 노점상은 정식으로 문발추에 가입할 수 있었고 문화의 거리 상인 모임에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²⁰

4) 모두가 주인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 만들기

1996년 4월에 부평시장 상인들 중에서 문화의 거리 주변 상가의 건물주들이 주축이 되어 ‘부평시장 번영회 산하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상가번영회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이를 통한 지역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라는 사회적 측면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 1999년에 문화의 거리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부평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임대 상인들까지 포함하여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 협의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상가번영회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문발추는 상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기존의 상가번영회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였다기보다 활동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발추의 가치는 임대 상인과 건물주의 이상적 결합을 통해 임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초대 집행부를 결성하였고 스스로 거리의 주인으로 나섰

19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한평공원』, 2007, 17~25쪽.

20 (사)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큰 흐름 속에 녹아들다」, 『2009 한평공원 이야기』, 2009, 36~38쪽.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¹

2008년 11월에 문발추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이하 상인회)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문발추 자체로는 「재래시장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인회로 조직을 변경한 것이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건물주, 임대 상인, 노점상이 포함된 3자 협의체의 상인회가 결성되었다. 상인회 결성을 계기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유치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영원한 미완의 공간으로

2008년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를 다양하고 특화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와 마을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부평 문화의 거리는 재래시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상가거리를 시민의 공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다양한 세력들과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소통은 도시 공간의 왜곡을 바로잡고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행정이 자신들의 지역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가장 빠른 동력이 되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인과 노점상 교육을 통한 주체 설정,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 설치, 생활공간에 녹색 교통체계 제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인과 시민 간의 협력 구축, 전국 재래시장 상인과의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상인교육(좌)과 어린이 재래시장 탐방(우) 모습(출처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8)

아울러 문화의 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모차·장애인을 위한 1층 경사로 설치, 소규모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한평공원 만들기, 배전함 디자인하기, 옆 골목으로 뺀 어 나가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경사로 사업은 공공 공간의 가치를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보행 약자를 존중하고자 상가마다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다. 또 시장의 장보기 문화를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보자는 의견이 확대되어 문화의 거리 4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였다. 2009년에는 도시연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한평공원의 취지를 살려 2차 한평공원을 만들었는데 배전함 큐브 2개 설치, 한국 전통 정원 조성, 대리석 휴게의자 설치 등 디자인부터 공사 감독까지 시민들이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옆 골목 뺀어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의 거리 영역을 확대하여 정체된 옆 골목을 살리고자 조명, 바닥,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간판과 건물 외벽에 변화를 주었다.²² 이러한 노력 끝에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했던 도시 재생 지원 사업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21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52~53쪽.

22 인태연, 「살고 싶은 마을 '부평문화의 거리'와 주민이 참여한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08, 104~106쪽.

부평 문화의 거리는 2008년에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의 시범 거리로 선정되었다. 공간 디자인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외무대 도색, 분수대 교체, 노면 보수, 노점판매대 제작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변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고 높은 시설물은 최대한 낮춰 개방형 가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상인회와 구청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후에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가장 큰 성과는 이동식 가판대와 파라솔에만 의지하던 음식 노점에 사시사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고정식 캐노피를 설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하여 전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처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배전함은 알록달록한 조형물 큐브로 감싸고 겉면은 부평 문화의 거리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이미지를 부착하였다. 또한 상인들의 성금으로 제작한 분수대는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바닥분수로 교체하였다. 대신에 분수대의 동판과 초석은 문화의 거리 시작과 상징조형물로서 기록하기 위해 남겨두었고 현재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²³ 부평 문화의 거리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2009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 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일상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애쓴 시민과 그 공간에 수여하는 것으로 상인회와 부평구청이 민관 협력의 틀을 갖춰 시민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사로 설치 ❖ 옆 골목 뻗어가기(바닥과 간판 정리) ❖ 2차 한평공원 조성 모습

(출처 : 『싸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인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8)

23 「부평문화의 거리 '사람의 거리」,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8일자.



❖ 2009년 정돈된 음식 노점 모습(출처 : 부평구청)

부평 문화의 거리는 2015년 4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서 사업비 4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골목형 시장의 개막으로 주말마다 풍성한 행사가 열렸으며 골목길의 조명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벽화를 그려 문화의 거리를 여성이 걷기 좋은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²⁴ 그중에서 의류, 홈패션, 음식 등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프리마켓의 도입은 대내외적인 호평과 인기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²⁵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연이어 선발되었다.



❖ 수도시설과 배전함(출처 :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안내 홈페이지)

❖ 문화의 거리 상징물이 된 분수대(출처 : 부평구청)

24 「부평 문화의 거리 주말마다 '변신」, 『경인일보』, 2016년 4월 12일자.

25 「부평 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 개막」, 『인천일보』, 2016년 4월 12일자.

상인회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쇼핑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프리마켓 상설화, 특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후미진 장소에는 벽화와 조명,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였다.²⁶

‘평리단길’은 부평의 ‘평’과 ‘리단길’이 합쳐져 붙여진 이름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 방향에 있는 좁은 골목길이다. 예전에는 조명도 어둡고 노면 정리가 되지 않아 사람들의 이동이 뜸했고 유흥업소가 모여 있어 우범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영업 부진으로 유흥업소가 점차 사라지고, 2017년부터 청년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들어와 직접 가게를 꾸렸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였다.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이색적이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 옷가게 등이 늘어나면서 평리단길은 요즘 유행하는 사진 찍기 좋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독특한 업종 개발로 부평 문화의 거리의 메인 스트리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특히 주말마다 운영하는 ‘프리마켓’과의 시너지 효과도 커서 가족과 주부들이 주로 찾던 거리에 젊은 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벤트를 통한 외적인 볼거리와 편의시설,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치중했다면, 평리단길은 문화의 거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 여성 친화의 거리 조성(좌)과 벽화와 CCTV 설치(우)(출처 : 부평구청)

26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남녀노소 즐길 문화형 시장으로 도약」, 『중앙일보』, 2017년 4월 27일자.



❖ 평리단길

2020년, 부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지 어느덧 22년이 흘렀다. 타 지역의 문화의 거리 사업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부평 문화의 거리는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무관심, 거리를 점거하던 노점상의 반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의문을 품은 시민들은 작은 공간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상인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난한 시간을 함께하며 스스로가 ‘거리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상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부평 문화의 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중심 도로를 벗어나 옆 골목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부평 문화의 거리를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상인들의 도전과 꿈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미완의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1. 현황과 특성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심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주택 부족, 교통난, 공공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지하보도, 지하도상가 등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이후 지하철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전쟁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의 역할과 부족한 지상 공간을 활용하여 상권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더욱이 지하철이 대중교통으로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보행 통로 기능과 결합하여 지하도상가가 중요한 상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고루 갖추고 있어 기존 재래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업 공간으로서 급성장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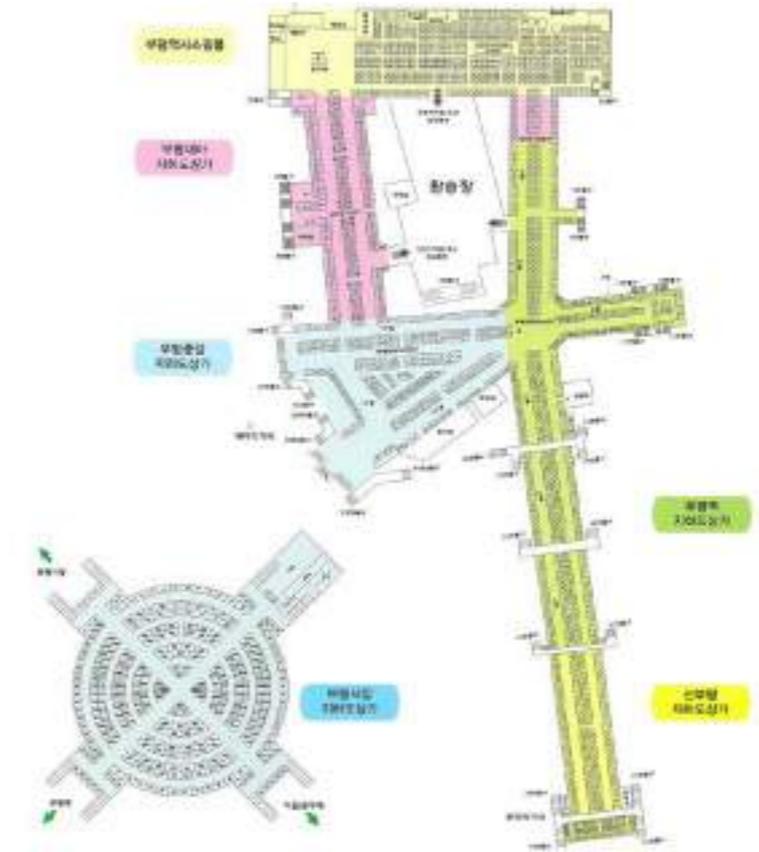
인천은 1971년에 새동인천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1998년에 부평대아지하도상가까지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건립되었으며 총면적 9만 2,309㎡, 3,681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²⁷



❖ 부평 지하도상가 지상 및 지하 출입구



²⁷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를 참고하였다. 지하도상가의 준공 연도, 면적, 점포 수 등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 수치로 통일하였다.



❖ 부평 지하도상가 배치도(출처 : (사)인천광역시장지하도상가연합회, 『올 댓(All that) 인천지하도상가』, 2010)

인천의 3대 역세권이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부평역 인근에는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총 5개의 지하도상가가 조성되어 부평역 상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부평역사와 연결된 부평역사 쇼핑몰에서 부평대로 방향으로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부평중앙지하도상가, 부평역지하도상가, 신부평지하도상가의 4개 지하도상가가 연속적으로 뻗어 있으며 부평역으로부터 약 600m, 신부평지하도상가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평시장지하도상가가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다.

5개 지하도상가의 총면적은 3만 2,153㎡로 현재 1,361개의 점포가 있으며 그중에서 부평역지하도상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면적에서 점포는 38.3%, 통로는 40%, 계단, 편의시설 등의 기타 면적은 27.7%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 점포의 면적은 평균 9㎡(2.7평)이며 상가 사이의 통로 폭은 지하도상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

나 평균 4.8~5.2m이고 출입구는 총 41개가 설치되어 있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 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²⁸

표 2 부평 지하도상가 시설 현황

(단위: m²·개)

구분	준공 연도	면적	점포 수	주요 업종
신부평지하도상가	1978.8.31.	3,408	186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음반, 수선, 팬시
부평시장지하도상가	1980.3.22.	5,179	298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음식, 수선
부평역지하도상가	1986.9.10.	9,580	421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음식, 금은, 팬시
부평중앙지하도상가	1989.6.30.	6,164	247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수선, 팬시
부평대아지하도상가	1998.11.16.	7,822	209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음식, 팬시

❖ 출처: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부평 지하도상가는 지상 점포와 비교해 매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점포의 업종도 절반 이상이 저가 의류 판매 업종이고,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의 일상잡화, 전자통신 기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매장 규모가 크고 고가 전문 매장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상 상가와 뚜렷하게 비교되는 특징이다.²⁹ <표 3>을 보면 지하도상가의 주요 고객층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지하도상가의 상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적 소비 욕구가 강한 청소년 및 청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트렌드가 반영된 저가의 업종들이 지하도상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²⁸ 「부평 지하상가, 국내 최대 지하 쇼핑센터로 자리매김」, 『아시아투데이』, 2016년 7월 27일자.

²⁹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634쪽.

표 3 부평 지하도상가 연령대별 방문 현황

(단위: %)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율	23.9	40.4	15	9.5	7.0	4.2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 2015.

표 4 부평 지하도상가 방문 목적

(단위: %)

방문 목적	쇼핑	친교	환승	업무·귀가
비율	60.8	26.7	7.6	4.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 2015.

<표 4>와 같이 사람들은 부평 지하도상가를 쇼핑, 친교, 환승, 업무·귀가 등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그중 쇼핑이 6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환승이나 업무·귀가 등의 목적이 12.4%로 낮은 비율을 보여 당초 지하도상가를 설립했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였던 통로의 역할이나 보안을 위한 방공호의 기능이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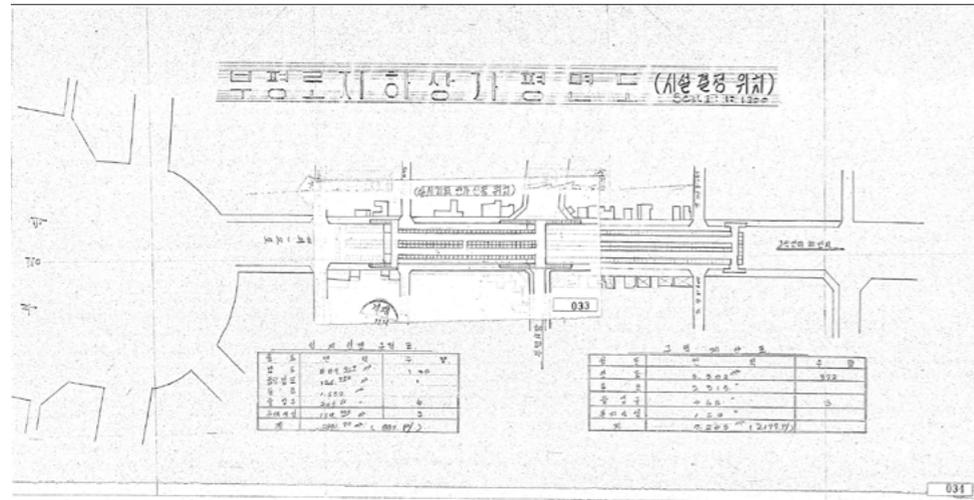
2. 조성 과정

부평의 지하도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에서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지하도상가의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대신에 일정 기간 점포를 무상 또는 유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 비용을 보상받았다.

1) 신부평지하도상가³⁰

신부평지하도상가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출공업단지 등이 조성됨에 따라 상업 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된 부평 최초의 지하도상가이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부평역사와 지하도로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부평역과는 300m 떨어진 부평대로에 독자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1977년 10월 10일에 (주)인천개발공사(대표 : 심관식)는 인천시 부평구(당시 북구) 부평동 224-1번지에 '부평로지하도겸상가'라는 명칭으로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였다. 지하도상가 조성을 통해 높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부평역을 배경으로 도심지 재개발을 촉진하고 비상시에는 국방상 지하대피시설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지하도 건설로 협소한 보도 통행의 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부평역과 백마장을 연결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신부평지하도상가 평면도 당초 계획안(1:1,200)(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30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1977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사업시행승인 등 2건」, 1977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착공보고 등」, 1977년 12월 15일.



❖ 신부평지하도상가 착공식(출처 : 부평구청)

당초 계획서상의 지하도상가의 총면적은 2,932㎡이고 점포 면적은 1,015㎡(점포 889.9㎡, 종합상가 124.9㎡), 통행로는 1,755㎡(통로 1,552㎡, 출입구 205.6㎡), 전기실, 기계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은 159.6㎡이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주)인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였고, 점포 입주금과 시 보조금으로 일부를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반 점포는 130개로 점포당 면적은 6.7㎡(204평), 점포 단가는 463만 원이었고, 종합 점포는 15개로 단가는 200만 원이었다.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 7,200만 원이 포함되었다. (주)인천개발공사에서 전반적인 설계와 공사를 주관하고 인천시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졌다. '부평로지하도겸상가'는 1977년 11월 25일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1978년 8월 31일에 준공을 완료하였다.



❖ 신부평지하도상가 준공식(출처 : 부평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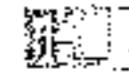
완공된 지하도상가는 인천시로부터 당초 허가된 면적 2,932㎡보다 476㎡가 증가한 3,408㎡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신부평지하도상가 평면도 당초 계획안>을 보면 부평역 부근의 종합 점포가 백마장 부근의 종합백화점으로 위치가 이동하면서 면적이 확장되었고, 대신에 종합 점포 자리에는 일반 점포 9개가 추가되어 총 139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빠져있던 종합백화점 자리의 점포는 2차 추가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1978년 3월 이후에 51개의 점포를 재분양한 것으로 보인다.³¹

최종적으로 총 190여 개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86년에 부평역지하도상가가 조성되면서 신부평지하도상가와 연결을 추진하였고, 통로에 위치한 4개의 점포가 철거되어 점포 수는 186개가 되었다. 시공사였던 (주)인천개발공사는 1992년까지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오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새롭게 구성된 상인협의회에 관리권을 양도하고 명칭도 '부평로지하도점상가'에서 '신부평지하도상가'로 변경하였다.



❖ 신부평지하도상가 평면도 당초 계획안(1:200)(출처: 인천광역시 기록관)

31 「광고」, 『동아일보』, 1978년 3월 10일자.



❖ 신부평지하도상가 평면도 최종안(1:200)(출처: 인천광역시 기록관)

절찬리에 매진! 130점
富平路地下商街 分讓
2차 추가 종합백화점

수익매정일 78. 4. 30

주요특성 및 장래성
 ○ 30년 계획이후 개발은 막대한 이익
 ○ 200평의 퍼시픽스카이빌딩 복합쇼핑몰
 ○ 당초계획면적(4,500평) 중실용 면적(2,500평)까지 입주가능
 ○ 면적표: 200평까지

구분	1차	2차	3차	합계
면적(㎡)	1,800	1,800	1,800	5,400
실용면적(㎡)	1,000	1,000	1,000	3,000
점포수	130	130	130	390

(주)인천개발공사
 (仁川市投資集團)
 전화 7-3230 7-3229 7-3228 전장 5-2988

❖ 신부평지하도상가 2차 추가 분양 광고(출처: 『동아일보』, 1978년 3월 10일자)

2) 부평시장지하도상가³²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부평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당시 부평 상권의 중심지였던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지하도상가였다. 인천에 있는 15개 지하도상가 중에서 로터리라는 도로 지형의 특성이 반영되어 유일하게 원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³³



❖ 착공 전 부평시장로터리 전경(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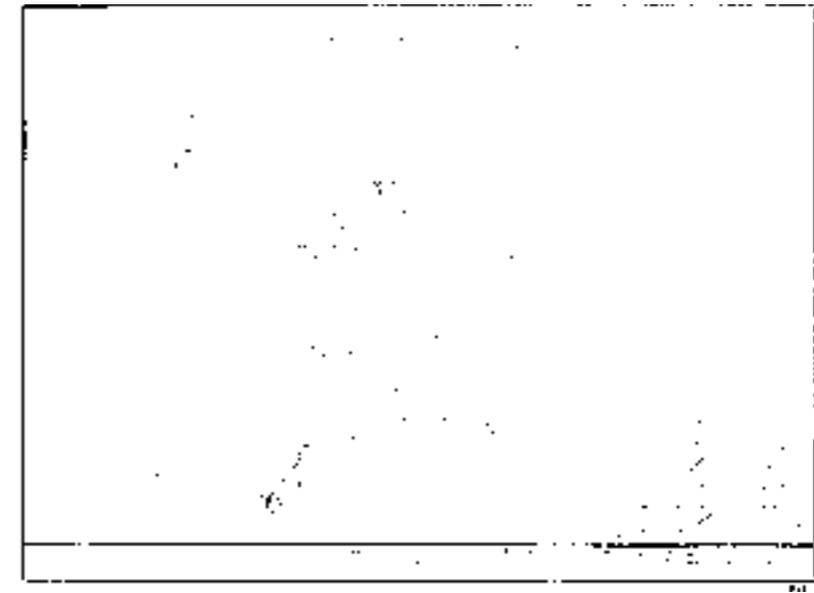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로터리에서 뚫린 육거리 중 도로가 넓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부평구청 방향, 부평오거리 방향, 굴다리 방향, 부평역 방향으로 총 8개의 출구를 내었다. 중심부에는 백화점처럼 사방이 개방된 쇼케이스 형태의 가판대를 두고 주변에 원형으로 띠를 둘러 점포를 조성하였다. 지하도상가의 총면적은 5,179㎡로 계단실 4개 276㎡, 기계실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484㎡, 통로 1,981㎡, 점포 1,514㎡로 6.74㎡ (2.04평) 크기의 점포 190개가 설치되었고 중앙에는 1,195㎡ 규모의 진열대 4개를 두었다. 점포와 점포 사이의 통로 폭은 4~5m이다. 총 공사비는 21억 2,000만 원으로 민방위

32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실시계획인가 외 1건」, 1979년 5월12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준공처리 외 2건」, 1980년 6월 26일.

33 (사)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올 댓(All that) 인천지하도상가』, 2010, 10, 28쪽.

지원금 1억 4,000만 원, 민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³⁴ 인천시와 (주)부흥기업이 공동 시행사가 되었다. 시공사는 대한종합건설주식회사로 1979년 5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지하도상가의 분양은 1979년 3월 20일부터 시작하였는데 당시 지하도상가가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약에 통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받았다. 총 분양가는 858만 원으로 점포의 업종은 귀금속, 의류, 잡화, 피혁, 약국, 스포츠용품, 제과점, 안경, 완구, 한복, 화장품, 다방, 과일, 전자제품, 각종 식품 등이었다.³⁵

190개의 일반 점포 분양이 1차로 마감되었고, 중심부에 위치한 백화점식의 쇼케이스 점포는 2.5~3.9평 정도 규모로 개조해 2차 분양을 시작하였다.³⁶ 분양가는 1차로 분양한 점포보다 저렴한 410~550만 원으로 총 106개의 점포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분양이 끝난 후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1980년 3월 22일에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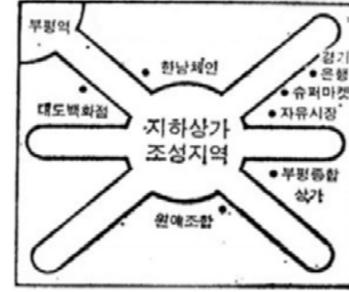


❖ 부평시장지하도상가 평면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34 「부평로터리 지하도개통」, 『매일경제』, 1979년 12월 21일자.

35 「광고」, 『동아일보』, 1979년 7월 19일자.

36 「광고」, 『경향신문』, 1979년 9월 3일자.



❖ 투시도(좌)와 위치도(우)(출처 : 『경향신문』, 1979년 9월 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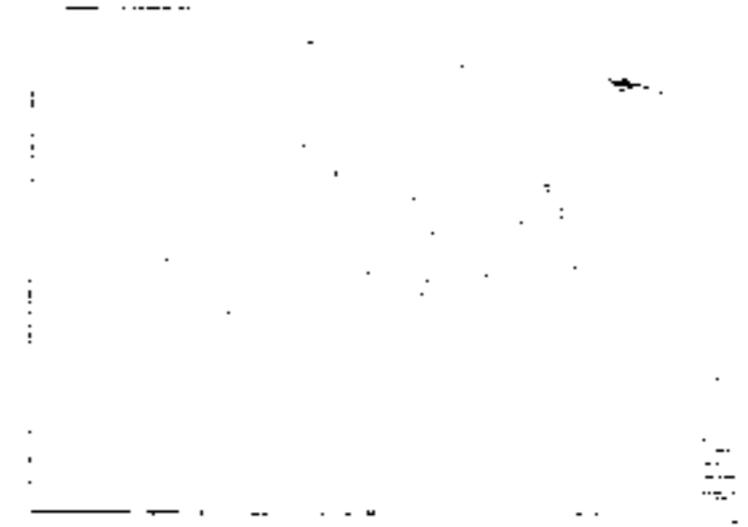
3) 부평역지하도상가³⁷⁾

1984년 8월, (주)부평성일로지하상가(대표 : 허민행)는 기존에 조성된 신부평지하도상가를 연결하여 부평역 방향으로 길이 301m, 대한극장 방향으로 길이 84m 규모의 지하도상가 조성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였다. 초기 계획 면적은 9,090㎡로 세부 면적은 일반 점포 3,244㎡, 종합 점포 229㎡, 통로 3,881㎡, 계단 1,187㎡, 부대시설 546㎡이었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 자본으로 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인천시의 승인 허가가 떨어지자 부평의 세 번째 지하도상가의 공사는 1984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주)부평성일로지하상가는 공사가 진행 중인 1985년 11월에 당초 허가받은 면적에서 490㎡가 증가한 9,580㎡로 면적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지하도의 통로 폭을 5m에서 5.2m로 늘리고 출입구를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기 위해서였다. 상가와 상가 간의 통로 폭이 좁고, 복잡한 도심지에 출입구가 근거리로 위치하면 보행인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쏟아짐에 따라 내린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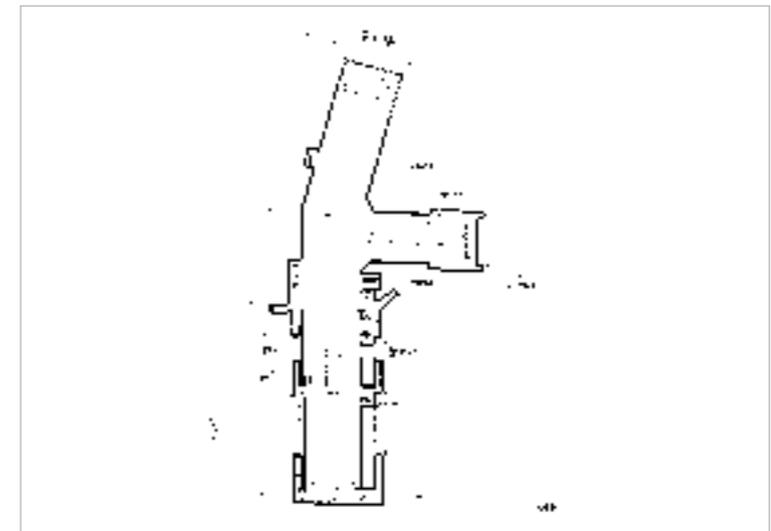
결국 통로 면적은 3,881㎡에서 4,413㎡로 당초보다 532㎡로 대폭 증가하였고 계단 등 부수 공간은 1,074㎡로 113㎡가 감소하였다. 사업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도 연장되어 결국 1년 9개월 만인 1986년 9월 10일에 지하도상가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부평성일로지하상가는 부평의 네 번째 지하도상가인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의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평성일로1차지하도상가라는

37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겸상가) 사업시행허가 외 3건」, 1984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3건」, 1985년 12월 30일.

명칭을 줄곧 사용하다가 2001년에 1차 리모델링 공사로 관리업체가 교체되면서 부평역 지하도상가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 부평역지하도상가 평면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 부평역지하도상가 배치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4) 부평중앙지하도상가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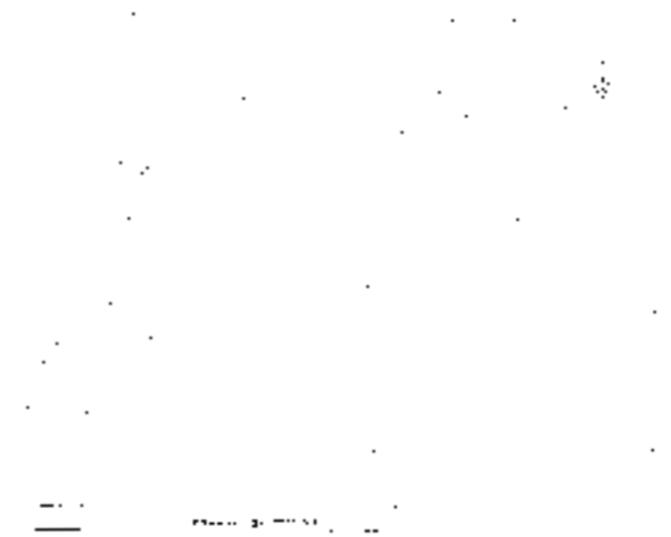
부평역지하도상가가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인 1986년 11월, (주)부평성일로지하상가(대표 : 허민행)는 인천시에 지하도 확장을 위한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 공사 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다.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는 지금의 부평역지하도상가 중앙홀을 중심으로 굴다리오거리와 부평시장로터리 방향의 두 갈래 도로에 각각 길이 100m의 지하도상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부평역지하도상가가 신부평지하도상가와 이어지면서 백마장 방향과 대한극장 앞까지 지하도로가 조성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불균형적이었고 서울 방향과 시장로터리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민방위 시설로서의 역할, 도시 공간의 확대, 시민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하고 인락한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지하도상가의 2차 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 부평중앙지하도상가 평면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38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2건」, 1988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변경허가, 관보게재 외 2건」, 1988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3건」, 1989년 5월 27일.



❖ 부평중앙지하도상가 배치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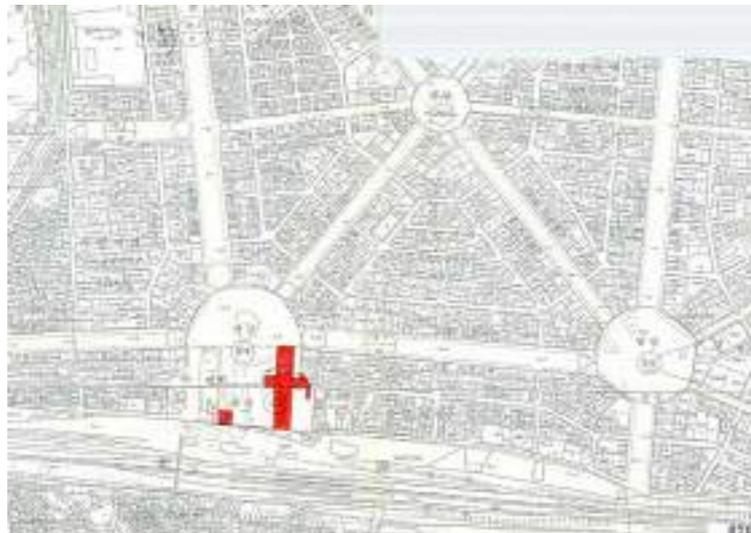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의 면적은 전체 6,068㎡로 통로 2,730㎡, 점포 2,191㎡, 계단 521㎡, 부대시설 625㎡이었다. 1987년 9월 21일에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공사 기간 중 출입구 일부를 증축하여 96㎡로 면적이 증가하였고 준공일도 3개월 연장된 1988년 8월로 변경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민주화운동 시위, 대통령 선거 및 13대 총선으로 공사 현장이 유세장으로 이용되면서 공기가 촉박해지자 준공 시기를 1988년 10월 3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하게 되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출입구 계단 부분에 보도 폭이 좁아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지상 보행 도로 폭을 0.3~0.9m까지 확보하는 추가 공사와 상가와 계단 사이 잔여 공간을 활용한 창고 공간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시설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준공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평역지하도상가와 2차 상가를 연결하는 중앙홀 부근의 상점 소유주의 강력한 반발로 철거가 지연되었다.

결국 준공 시기가 연장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3개월이나 늦어진 1989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완료할 수 있었다. 당초 분양권을 얻고 1988년 8월부터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상가 입주민들은 개점의 지연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한 점포당 2,090만 원의 분양금을 지불한 238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지연 등 당초 입주계약 조건이 사실과 달라

지자 분양회사 측과 허가 당국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³⁹ 결국 인천시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부평중앙지하도상가와 부평역지하도상가의 연결 통로에 있는 10개의 점포를 철거하고 나서 1989년 12월 27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는 2004년에 관리·운영 주체가 바뀌자 부평중앙지하도상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 부평대아지하도상가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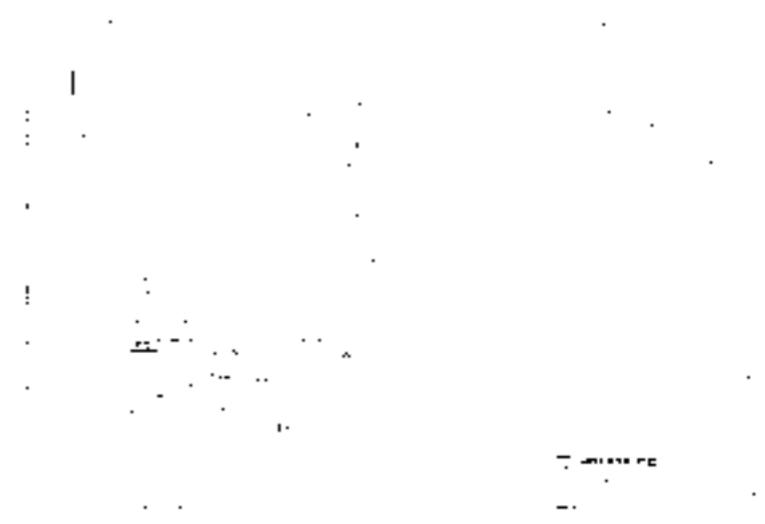
부평의 지하도상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조성된 부평대아지하도상가의 건립으로 부평역사 쇼핑몰과 부평중앙지하도상가, 부평역지하도상가, 신부평지하도상가의 연결이 추진됨으로써 부평시장지하도상가를 제외한 4개의 지하도상가가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9년에 철도청은 경인선 복복선 전철 건설에 맞추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던 부평역 대합실을 현대적인 대규모 역사로 바꾸고자 하였다.



❖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위치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39 「점포분양 7개월 늑장」, 『매일경제』, 1989년 3월 25일자.

40 인천광역시 기록관, 「부평대아지하도가 무상사용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내용 검토 의뢰」, 200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부평대아지하도가 개보수공사 관련」, 2004년 3월 29일.



❖ 부평대아지하도상가 평면도 당초 계획안(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주)대아개발(대표 : 구홍회)은 철도청으로부터 부평민자역사의 개발을 승인받아⁴¹ 연면적 4만 9,203㎡,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부평역사 쇼핑몰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평역사 쇼핑몰은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대규모 쇼핑 공간을 비롯하여 각종 음식점, 영화관, 마트, 병원 등의 상업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부평역사 쇼핑몰의 설계를 준비하면서 기존 지하도상가와 부평역과의 연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부평역사 쇼핑몰의 신축과 함께 기존 지하도상가를 잇는 새로운 지하도상가를 조성하여 부평역, 지하도상가, 부평역사 쇼핑몰을 하나로 연결하여 시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규모 판매시설과 거대 상권을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침내 1990년 11월에 인천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을 승인받았다. 총면적은 3,539㎡, 상가 면적 1,626㎡, 공공보도 1,561㎡, 부대시설 352㎡로 부평대합실과 부평중앙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길이 126m의 지하도상가, 부평역사 쇼핑몰, 부평역지하도상가를 이어주는 길이 24.5m의 지하도상가를 계획하여 연결 접점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41 「부평민자역사 착공」, 『연합뉴스』, 1992년 7월 22일자.



◆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평면도(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건립예산은 전액 민간 자본으로 (주)대아개발에서 사업비 65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었고 공사 예정 기간은 1990년 5월부터 1992년 7월이었다. 주차장은 부평역사 쇼핑몰의 옥외주차장 시설에 추가적으로 39대의 주차면 수를 조성하여 지하도상가의 주차시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부평역 부근의 교통량 증가 추세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였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평역 광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옥외주차장의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옥외주차장 예정 부지인 연탄공장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철거가 요원해지자 지하도상가의 주차장을 옥외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부평중앙지하도상가와 부평역 대합실을 연결하는 지하도상가 상부에 지하 1층을 조성하여 4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면적도 증가하여 상가가 있는 지하 2층은 4,425㎡, 주차장인 지하 1층은 1,628㎡로 6,053.9㎡가 늘어났으며 사업비도 6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1992년 8월, (주)대아개발은 인천시에 장애인용 리프트와 계단 신설, 쓰레기 집하장 면적 증설 및 위치 변경, 옹벽에 접하는 상가의 전용면적과 근린시설 규모 확장에 따른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다. 변경계획을 검토 중이던 인천지하철건설본부는 대아지하도상가의 건립을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과의 환승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중

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천지하철 건설과 병행 추진 또는 완공 후 추진하도록 지하도상가 건설 사업 중지를 요청하였다. 지하도를 심도 25m로 시공할 때 연약토층(매립층)이 지하도상가와 평행하게 통과하게 되어 기존 지하도상가에 대한 침하, 균열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주)대아개발과 인천지하철건설본부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하도로와 철도 간격을 10m에서 20m로 확보하고 지하철 노선과 지하도로가 평행토록 배치하였다. 또한 부평역 광장 지하도로 공사 후에는 지상 녹지 공간은 지하철본부에서 시공하도록 하고 국철과 인천지하철과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면적도 증가하여 지하 1층 2,203㎡, 지하 2층 4,632㎡로 총면적이 6,835㎡가 되었으며 점포 수도 203개로 1개가 늘어났고 주차면 수도 41대에서 48대로 추가되었다.

그 후 각종 변경계획을 거쳐 총면적 7,822㎡, 점포 209개를 점유하게 된 부평대아지하도상가는 부평역사 쇼핑몰의 조성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인천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1998년 11월 16일에 임시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평역사 쇼핑몰과 지상의 조경 시설이 완료된 후 2000년 4월 12일에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 부평대아지하도상가 평면도 최종안(출처 : 인천광역시 기록관)

3.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과 활성화 사업

부평의 지하도상가는 모두 인천시의 공유재산에 속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 조성 당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겨주었다. 대신에 공사를 주도했던 민간기업은 지하도상가의 분양권을 가질 수 있었고, 별도의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자본금을 환수하였다. 임차인들은 지하도상가 일부의 점유권을 분양받아 점포 운영을 정해진 기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지하도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은 2001년까지 부평구청에서 담당하였으나 2002년 4월부터 인천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인천시설공단은 부평의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인천시 15개의 지하도상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개별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및 상가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지하도상가가 조성된 지 20여 년이 흐르자 다변화된 쇼핑 문화를 반영하고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당초 지하도상가는 주민 대피시설로서 방공호의 기능이 주목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업 시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지하도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환기시설이 없어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냉난방, 소방, 전기, 화장실 등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상황이었다. 무상 임대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지하도상가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 신부평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전 모습(출처: 「부평역 지하 공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평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계기로 시설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탁한 공기를 정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고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소방안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 지하도상가의 소방, 전기, 조명, 냉난방,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각종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편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다. 공사에 대한 비용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공평하게 분할하여 부담하였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에는 지하도상가를 다시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였고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 매년 일정 금액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표 5 부평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시기 및 사용 기간

구분 상가명	당초 사용 기간	1차 리모델링		2차 리모델링		연장 사용 기간	관리업체
		연도	사업비	연도	사업비		
신부평 지하도상가	1978.8.~2004.1.	2004	32			2005.3.~2025.1.	(주)신부평 지하상가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1980.3.~2003.3.	2003	2.6	2016	12	2018.10.~2026.3.	(주)부흥기업
부평역 지하도상가	1986.8.~2001.8.	2001	64	2014	95	2014.10.~2029.11.	(주)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989.7.~2004.6.	2004	54			2004.11.~2025.11.	(주)부평중앙 지하상가
부평대아 지하도상가	1998.11.~2017.4.	2016	100			2017.10.~2037.9.	(주)대아기업

❖ 출처: (재)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올 댓(All that) 인천지하도상가」, 2010;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5개의 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은 무상 사용 기간 만료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던 부평역지하도상가에서 시작되었다. 상인들은 매장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최종 64억 원의 금액을 모아 2001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그 후 2014년에 9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2차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2029년까지 15년 동안 유상 사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 부평역지하상가 리모델링 후 개장 행사(출처: 『세인트광역시지하상가연합회, 『을 땀(All that) 인천지하상가』, 2010; 부평구청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2003년에 2억 6,000만 원의 성금으로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16년에 2차 리모델링을 위해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용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다. 2004년에는 신부평지하도상가가 32억 원, 부평중앙지하도상가가 54억 원을 모아서 리모델링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용 기간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부평대아지하도상가는 2016년에 100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실시했으며, 2037년까지 20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지하도상가 현대화 시설 구조 개선에 발맞춰 2002년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임차인, 시민단체, 인천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조례에 의거 관리청이 부평구청에서 인천시로 변경되었으며, 임차인 중심의 관리 법인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상인들이 주도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도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 중심이 아니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2006년에 부평중앙지하도상가는 지하도상가로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산을 지원받아 부평 지하도상가 전 지역 안내도 및 안내지 제작, 패션쇼, 페스티벌, 미술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또 1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와 매장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상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인대학'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상인대학에서는 선진적인 판매방식과 매장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배워 실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상인영어회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과 2007년에 부평중앙지하도상가와 부평역지하도상가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 후 부평중앙지하도상가는 2010년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유공상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고객선 지키기와 공동마케팅 우수 시장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과 시장경영진흥원장 표창도 받았다. 부평역지하도상가는 2010년과 2012년에 공동마케팅 우수사례 시장경영진흥원상을, 건설사업설계 경제성 부문에서 인천 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국비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18억 원의 쇼핑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하도상가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객 서비스와 편의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부평역지하도상가, 신부평지하도상가, 부평중앙지하도상가, 부평대아지하도상가의 4개 지하도상가를 묶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며, 모든 것이 모인다'는 의미를 가진 모두몰(modoomall)로 명칭을 바꾸고 지하도상가를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두몰을 상징하는 모모와 두두라는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 지하도상가 곳곳에 설치함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그 밖에 인터넷 네트워크 강화, 출입구 모두몰 이미지 통일, 웹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외국인 유치홍보실을 운영하고 있다.⁴²



❖ 상인대학 졸업식(좌)과 패션쇼(우)(출처: 부평구청)

42 「부평지하상가, 복합쇼핑문화공간 변신」, 『한국경제』, 2017년 11월 27일자.

하지만 부평시장로터리에 위치한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4개의 지하도상가와 떨어져 있다 보니 연계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어 빈 점포가 늘어나게 되었다. 부평구청에서는 부평시장지하도상가와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 내 빈 점포 가운데 30곳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점포 임대료와 창업 활동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대부분의 점포가 폐업을 하였다.



❖ 부평모두물 포도존과 부평시장지하도상가 청년몰(출처 : 부평구청)

4. 상생을 통한 새로운 도약

인천의 지하도상가가 타 지역과 다른 점은 합법적으로 점포의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하였고, 임차인 부담으로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한 후에 상가 법인에 관리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20년 범위 내에 연장하여 재위탁을 했다는 점이다. 2002년에 제정된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해두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난다며 2007년부터 인천시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위탁 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자는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에는 인천시의회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를 요구받았고, 2018년 10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조례 미개정, 양도·양수 및 전대에 따른 임차인 부담이득, 개·보수 공사를 통한 사용 기간

연장,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⁴³ 결국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자인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불법 전대차 계약을 해소한 뒤 시와 점포 상인이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상가 관리 운영의 재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등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17년 만인 2020년 1월 31일에 통과되었다.

문제는 개선 과정에서 최근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전차 상인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전 조례에서도 권리금 설정은 불법이었지만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 관행으로 설정된 만큼 시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권리금이 사라지게 되어 권리금만큼의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⁴⁴ 대신에 인천시는 해결 방안으로 최초 임차인의 불법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 후에 전면 금지하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5년간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인,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구하는 중이다. 더불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 및 법률의 제도적 보완과 상가 활성화 종합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도상가의 조례는 합법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시와 상인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21세기 언택트(Untact)시대에 걸맞은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43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상정」, 『이뉴스투데이』, 2019년 8월 12일자.

44 「박남춘 시장,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불가피」, 『인천투데이』, 2018년 11월 8일자.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용하·이인재, 『부평역 지하 공간 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도시계획연구실, 2002.
- 도시재생사업단,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 우수 사례집)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이야기』, 국토해양부, 2011.
-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의 거리 : 계획과 실제』, 문화체육부, 1996.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 부평문화의 거리를 사례로」, 1999.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09 한평공원 이야기』, 2009.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1999.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0.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민과 상인이 만들어 가는 우리 거리 광진구 마을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00.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2001.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한평공원』, 2007.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민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8.
- (사)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올 댓(All that) 인천지하도상가』, 2010.
- 석중수, 『부평역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3.
- 석중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와 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2.
- 이소영,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2009.

논문

- 박종숙, 「상인들이 일군 문화의 거리」, 『국토』239, 국토연구원, 2001.
- 손장원·윤덕준·이동배, 「제3분과 도시 및 단지계획 : 인천시 부평문화의 거리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9(1), 대한건축학회, 1999.
- 홍인옥,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는 노점상 문제 -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47, 한국도시연구소, 2000.



신문

- 『경인일보』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아시아투데이』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 『이뉴스투데이』
- 『인천일보』
- 『인천투데이』
- 『중앙일보』
- 『한국경제』

기타

- 부평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2017년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부평구청, 2017.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1977년 10월 20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사업시행승인 등 2건」, 1977년 11월 24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착공보고 등」, 1977년 12월 15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실시계획인가 외 1건」, 1979년 5월 12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준공처리 외 2건」, 1980년 6월 26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겸상가) 사업시행허가 외 3건」, 1984년 10월 4일.
-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3건」, 198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2건」, 1988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변경허가, 관보게재 외 2건」, 1988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사업시행변경허가 외 3건」, 1989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부평대아지하사가 무상사용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내용 검토 의뢰」, 200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기록관, 「부평대아지하사가 개보수공사 관련」, 2004년 3월 29일.

웹사이트

부평 문화의 거리(<http://www.bcstreet.com/main/>)
부평 문화의 거리(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bp>)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www.icbp.go.kr/open_content/publicity/)
인천시설공단(<http://www.insiseol.or.kr/>)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안내(<https://www.goodplace.or.kr:8444/>)

인터뷰 및 자문

김문곤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고문위원(2019년 6월 21일)
라중훈 (주)부평중앙지하사가 관리실장(2020년 8월 22일)
박원용 (주)부평역지하사가 기획실장(2020년 8월 22일)
인태연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2019년 3월 2일)



부평사
富平史



제 8 장 — 부평의 오래된 가게

제1절 _ 남창문구사

제2절 _ 회락춘

제3절 _ 용방앗간

제4절 _ 성안상회(삼천리자전거 대리점)

제5절 _ 차밍

제6절 _ 신일상회

제7절 _ 영광상회

제8절 _ 봉다방

제8장 부평의 오래된 가게



최 병 훈(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부평의 오래된 가게는 대부분 부평구 제일의 상권으로 꼽히는 부평역 앞의 넓은 상업 구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성장은 경인철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인철도는 1899년에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개통되어 서울과 인천 간 이동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부평역은 그 길목에 있던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공간을 상공업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경인철도의 개통은 계양산 일대였던 부평의 중심지를 지금의 부평역 인근으로 옮겨오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부평 지역 상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인철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원인으로는 공업시설의 등장과 미군부대의 주둔을 들 수 있다. 인천육군조병창 및 관련 군수공장과 같은 공업시설의 등장과 한국전쟁 후 미군부대의 주둔은 주변 인구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부평의 상권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부평구에 소재한 오래된 가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가게 창업주들은 미군기지 근처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평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은 경인철도를 통해 서울에서 구입해 온 경우가 많았다. 즉, 인구의 급증과 교통의 발달이 부평 인근의 상권 형성을 촉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가게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포(老鋪)'로서 지역 상권을 지탱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를 둔 가게 중에서 1971년 이전에 창업하여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창업주가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곳을 오래된 가게로 선정하였다. 점포의 소재지가 이동하더라도 부평구 내에서 이전하였을 경우 오래된 가게에 포함시켰다. 오래된 가게의 선정 기준은 1971년 이전으로 조사완료 시점에서 50년 내외로 운영된 가게로 삼았다. 마지막 봉다방은 예외적으로 조사하였는데, 봉다방의 경우 1975년에 개업했음에도 그 업종의 특수함을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오래된 가게의 기준에는 해당하나 가게주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가게도 많았으며, 그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 제1절 | 남창문구사



❖ 남창문구사

어린 시절 필자는 등갯길에 항상 문방구를 들렀다. 딱히 필요하거나 살 물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기한 물건이나 장난감은 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고, 쫓드거나 아폴

로 같은 각종 과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룻길에는 문방구 앞 앓은뱅이 오락기 앞에 앉아 새치기 하는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동네 문방구의 역할을 일정부분 편의점이 대체하고 있어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문구점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광복이 되던 해 부평시장 골목에 문을 연 남창문구사 또한 지금도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가게이다. 70년 넘는 시간동안 한결같은 자리에서 동네 문방구에 각종 문구류를 납품해 왔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꼭 필요한 문구류를 파는 부평의 오래된 가게이다.

1. 복이 들어오다

초대 창업주 임덕용 사장은 고향 충청남도 충주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광산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임덕용 사장은 이듬해 장마로 집이 떠내려가는 고난까지 겪으면서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임덕용 사장의 서울 생활도 그리 쉽지는 않다. 상경하면서 겨우 마련한 돈도 소매치기를 당했고, 이후 한강물을 떠서 농사를 짓는 곳까지 전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날랐지만 그 품삯은 항상 부족했다. 그러던 임덕용 사장에게 기회가 닿은 곳이 부평의 미쓰비시(三菱) 공장이었지만, 광복으로 공장이 폐쇄되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고심 끝에 부평시장에 좌판을 깔고 화장품인 ‘딱분’을 팔았다. 복잡한 시장 통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딱분~, 딱분~”을 외쳐야 했고, 그 덕에 어떤 날은 입이 부어오르기도 했다. 장사는 잘 되었지만, 몸이 고달파 그만두려 고민하던 차에 좌판 부근의 점포가 매물로 나왔다.

큰 맘 먹고 가게를 매입한 그는 화장품 대신 노트를 팔기 시작했다. 점차 품목을 넓혀 문구류뿐 아니라 벽지, 장판 심지어 단추와 실까지 팔았다. 가게가 생겼으니 가게 이름을 정해야 했다.

가게의 방향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남쪽으로 창을 내면 복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남창상회’로 가게의 이름을 정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들면서 아들과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가게에 매달렸다.

그러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임덕용 사장은 자신의 형제들(6남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났다. 그 혼란한 시기에도 임덕용 사장은 노트와 연필 등 문구류를 리어카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대구에 도착한 그는 가져온 물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부평으로 돌아온 임덕용 사장은 다시 ‘남창상회’를 열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남창상회는 당시 경찰제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품별로 가격이 상이하였다. 그래서 임덕용 사장은 학기 초마다 현금을 싸들고 문구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 단체로 주문하곤 했다. 그렇게 도매로 들여온 물건에 약간의 이득을 붙여 팔았는데, 그 가격을 항상 유지하였다. 그런데 점차 부평의 문구점은 하나둘 늘어갔고, 그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일부 가게에서는 이들을 남기지 않고 팔아 남창상회의 물건은 점차 쌓여갔다.

그러던 1973년 10월 석유 파동이 발생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1975년에 이르러 성장률은 6.5%로 더 떨어졌고, 물가는 24.7%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이렇게 물가는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다른 문구점의 물품가격 또한 수직상승하였다. 그러나 남창상회는 오히려 문구류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시기의 큰돈을 벌게 되었다. 이 때 마련한 돈은 이후 남창상회의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택한 길은 끝장을 봐야겠다

현재 남창문구사는 임덕용 사장의 며느리 조광자 사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1943년 서운동에서 태어난 부평 지역 토박이다. 조광자 사장은 어른들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시집을 오게 되었다. 학교 다니며 물건을 사곤 했던 곳에 시집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시집 온 이듬해인 1966년부터 임덕용 사장과 함께 문구점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사장은 물론 종업원도 매장의 물건 가격을 모두 외워야만 했다. 성실한 종업원도 있었지만, 농땡이 치거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었다. 환갑이 가까운 임사장에게 매장관리는 이제 버거운 일이 되었고, 주변의 권유로 며느리 조광자 사장에게 매장 관리를 맡겼다. 하나둘 물건의 가격을 외우고, 속 썩이는 종업원을 관리하며 차근차근 일을 배웠던 그때의 경험이 50년 가까이 남창문구사를 운영해 온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가게의 운영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문구사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임덕용 사장을 찾아 오기가 생기기기도 했고, 일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이 장갑을 사러 왔는데, 가게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택한 길은 끝장을 봐야겠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손님들에게 성심성의껏 대하기 시작했다. 물건을 보기만 하고 사가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메모를 해 놔다가 집에 돌아가서 왜 그냥 돌아갔는지 분석하고, 부족한 점은 스스로 반성하며 고쳐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입소문을 타고 부평지역은 물론 멀리서도 남창문구사를 찾는 손님이 늘어났다.

여름에는 새벽 6시에 문을 열었고, 밤 11시가 되면 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5시간만 더 달라고 신에게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유류파동으로 큰 이득을 보았고, 1974년 낡고 비좁은 가게를 떠나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문구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가게이름을 바꾸고 간판까지 제작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남창문구를 찾기에 다시금 간판을 걸 수밖에 없었다.

3. 오래 남는 것이 가장 강한 것

지금까지 부평시장에는 20여 개의 문구점이 생겨나고 사라졌다. 오랜 시간동안 남창문구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만의 운영철학이 있기에 가능했다.

첫째, 철저한 매장관리와 제품 관리이다. 매장의 청결도는 가게의 이미지로 직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집안 청소는 거르더라도 매장 청소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또한, 계절마다 잘 팔리는 상품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다른 문구점보다 한 발 더 빠르게 확보하여 고객들이 찾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았다.

둘째, 가격대비 높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가게에 들이지 않았고, 아무리 친한 단골의 부탁이라도 품질이 떨어진다면 절대 거래하지 않았다.

셋째, 돈을 떠나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지금은 일요일에 쉬고 있지만, 1995년 이전에는 휴무일 없이 하루에 17시간동안 문을 열어 고객들이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가게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거래처와도 상호간에 두터운 신뢰를 쌓게 되어 지금도 100개가 넘는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다. 조광자 사장은 약속어음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주변 상가와 달리 현금 위주 결제로 신용을 쌓아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남창문구사는 이제 백화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물품이 있는 곳이다. 특히 조광자 사장이 고집스럽게 철학을 지켜온 것이 가게를 확장하고 유지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공서 및 학교들이 조달청을 통해 대량 일괄 납품 제도로 물건이나 학용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광자 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한다. 학창시절 남창문구사를 찾던 학생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아직도 장사하시나며 인사를 하고 갈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조광자 사장은 현재는 사명감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남창문구사에는 없는 게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한다. 손님들이 남창문구사의 물건으로 공부하여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래서 조광자 사장은 이득이 적어도 좋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것이다. 조광자 사장은 아직 가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남창문구사를 지켜나갈 것이라 답한다. 앞으로도 부평시장 한켠에서 정직함을 나눌 남창문구사를 기대해본다.



❖ 회락춘

짜장면을 비롯한 중국요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 중 하나이다. 졸업식이면 반드시 먹었던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 가는 날, 회식하는 날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음식이었다. 한때 마라탕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이렇듯 친숙한 중국요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짜장면의 고향은 대개 중국 산둥성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오둥 출신이다. 자오둥은 '자오저우(膠州)' 동쪽 지방으로 지금은 칭다오 일대의 옛 지명이다. 근대화 이후 인천의 항만과 철도 등의 노역에 종사했던 산둥 쿨리(苦力)들의 출신이 대부분 이 자오둥 출신이었다. 때문에 화교의 요리사들은 이 쿨리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특히 값이 싼 면 요리가 주로 팔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짜장면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짜장면과 중국요리를 부평에서 오랫동안 판매하였던 가게가 있다. 산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게는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익숙한 중국요리를 팔고 있다. 이 가게의 이름은 '모임이 즐거운 곳'이라는 뜻을 가진 '회락춘(會樂春)'이다.

1. 1억원을 벌어들이는 가게

가게를 처음 열었던 유문의 사장은 1900년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산둥성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유문의 사장에게 있어 고향은 좁은 곳이었다. 이에 유문의 사장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했고, 결국 산둥을 떠나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미 산둥성의 사람들은 한반도에 많이 이주하였었기 때문에 유문의 사장에게 있어 익숙한 경로였다. 서울에 도착한 유문의 사장은 곧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벽돌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업하였다. 사실 그는 서울을 거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벽돌공장은 곧 적산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유문의 사장은 공장장을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공장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향 산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자, 유문의 사장은 수원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문의 사장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였던 벽돌공장의 공장장까지 그만둔 후 그의 생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결국 적당한 곳에 식당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적국이었고, 때문에 전쟁 중에 화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식당은 화교가 할 수 있었던 일 중 하나였다.

그렇게 식당을 차리기로 한 유문의 사장의 다음 고민은 '어디에 가게를 여는가'였다. 사실 그는 가게의 위치를 현재 좋은 자리보다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러한 곳이 상대적으로 경쟁도 덜하고, 장기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게의 위치를 알아보던 그는 1951년 우연히 부평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전 일제강점기 시기의 부평은 일제의 육군조병창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던 곳이었다고 한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인 1945년 9월 미군은 인천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그 중 미 제 24군수지원사령부에서 인천 상륙 후인 9월 16일 조병창을 접수하고, 이곳을 애스컴 시티

(ASCOM City)라고 이름 붙이면서 잠시 주둔하였다. 1949년 잠시 철군하였던 미군은 한국 전쟁 발발 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다시 부평에 주둔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4후퇴로 인해 다시 부평에서 철군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반격에 성공하면서 다시 부평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군이 부평에 주둔한다는 소식은 유문의 사장으로 하여금 이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 미군을 상대로 중국집을 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곧 유문의 사장은 부평으로 건너와 지금의 위치에 가게를 차렸다. 가게 이름은 '1억원을 벌어들이는 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억춘'이라고 지었다.

가게를 열고나니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다. 가게가 위치했던 곳이 당시 백마장시장의 입구였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때문에 처음 유문의 사장이 주 고객으로 예상했던 미군들뿐만 아니라 백마장에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찾았다고 한다. 특히 근처에 위치하였던 서부극장(이후 '백마극장'으로 명칭 변경)에서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사람들은 꼭 일억춘을 방문했다. 서부극장의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던 연기자들과 스태프들도 일억춘을 회식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가 부러웠는지 원래 공갈빵을 만들어 팔았던 이웃이 일억춘이 장사가 잘되는 모습에 덩달아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할 정도였다고 한다.

2. 모임이 즐거운 가게, 봄을 잇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대 유치부 사장은 유문의 사장이 한창 일억춘을 운영하고 있었던 1956년에 태어났다. 원래 유 사장은 가게를 이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유 사장이 초등학교이었던 시기 아버지인 유문의 사장이 중풍으로 쓰러졌고 결국 얼마못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후계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데다가 어머니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유치부 사장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식당에서 잡일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9년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일억춘이 있던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속 식당일을 해왔던 유치부 사장이었지만 쉽사리 아버지의 가게를



❖ 회락춘 내부

이어받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거듭된 고민 끝에 아버지의 가게를 다시 잇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일억춘이 있던 자리에는 '아강춘'이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아강춘의 사장은 유 사장에게 춘(春)이라는 글자를 버리지 말아 달라 부탁했다. 유 사장은 아버지의 가게 이름에도 춘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봄(春)을 답했다. 그리고 유 사장은 아버지가 바랐던 1억원의 가치보다는 '모임이(會) 즐거운(樂) 곳'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락춘'이라 가게 이름을 정하였다.

회락춘을 개업한 후에도 일억춘 때와 같이 장사는 잘 되었다. 유치부 사장은 특히 1980년대가 최대 호황기였다고 기억한다. 가게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들르는 손님이 많았고, 부평공단의 공장들에서 회락춘을 회식장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유치부의 사장의 기억으로는 삼익약기나 부평의 각종 베어링 공장들이 주로 회락춘을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부평공단의 공장들이 점차 아파트로 변화하고, 삼익약기 또한 2011년 충북 음성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공장의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베어링 공장의 직원들은 아쉬운 마음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공장이 이전하는 곳으로 가게도 같이 이전하자고 제의했을 정도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즐거움이 넘치던 가게였다. 지금은 이 때와는 달리 회식장소로 회락춘을 찾는 사람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다른 모임이 회락춘을 찾아온다고 한다. 이름 덕분인지 회식이 없어진 그 자리에 각종 친목계의 모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3. 세월을 이겨온 가게, 그리고 재개발



❖ 건물만 남은 백마극장

곡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1950년대 사람들로 붐벼왔던 거리는 이제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공간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백마극장은 지금은 건물만 남아 그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단골손님이 줄어들고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유치부 사장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시기를 즈음하여 유치부 사장의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고 한다. 이 시기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장사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지금의 가게 자리에 임대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세를 주었던 1년 동안 세입자는 가게의 구조를 바꾸면서 원래 가게의 흔적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유치부 사장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곧 산곡동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유치부 사장이 평생을 함께해온 회락춘 건물도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 회락춘을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물과 함께 여기서

그만두게 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는 별개로 회락춘의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나갈 의지는 가지고



❖ 회락춘 내의 초재진보

장사가 잘 되던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회락춘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골이었던 베어링 공장은 이전하였고, 삼익악기도 1996년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2011년에 본사가 이전하면서 그전에 회락춘을 찾았던 많은 단골들은 줄어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산

있다고 한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도 회락춘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 벽에 큰 글씨가 적혀있다. 중국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재진보(招財進寶), 재물을 부르고 귀중한 것이 들어온다는 글자이다. 이렇듯 회락춘은 어느 중국집과 다름없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과 같이 우리의 곁에 있었다. 특별함이 아닌 친숙함으로 세월을 이겨내고 자리를 지킨 가게인 것이다. 지금 회락춘의 운명이 여기서 사라질지 혹은 계속 이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임이 즐거운 이 가게에서 재물과 귀중한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길 염원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 제3절 | 용방앗간



❖ 용방앗간

흔히들 방앗간이라고 하면 떡이나 약과, 쌀, 그리고 곡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상점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용방앗간을 방문하기 전, 필자 역시 소분되어 수북히 쌓여 있는 다양한 떡과 곡물 등을 떠올렸다. 하지만 용방앗간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떡보다는 미숫가루나 고춧가루, 참기름 등이 더 눈에 띄는 곳이었다. 이에 오랜 기간 부평역 앞을 지킨 이곳, 용방앗간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1. 부평에 자리 잡은 '용'



❖ 용방앗간 대기줄이 섰을 거리

리를 잡았고,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부평으로 모이게 되면서 유해정 사장도 부평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다.

유해정 사장이 처음 열었던 가게는 방앗간이 아닌 국숫집이었다. 주변에는 유해정 사장뿐만 아니라 국숫집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1958년 '용국수'를 개업한 그는 국수를 뽑아서 팔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국숫집들이 한데 모여 국수공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국숫집들은 일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남긴 기계와 물품은 유해정 사장이 맡게 되었다. 그들이 남긴 기계와 물품을 두고 고민하던 유해정 사장은 고민 끝에 방앗간을 하게 되었고, 1963년 그렇게 '용방앗간'이 부평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1963년에 개업한 방앗간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부평의 손님들은 물론, 저 멀리 박촌이나 굴현에서도 용방앗간을 찾았다. 당시에는 고무대야에 쌀을 불러 온 사람도 많았고, 직접 손수레를 끌고 노는 손님도 있었다. 특히 명절만 되면 손님들이 몰려와 방앗간은 정신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손님이 너무 많아 가게 옆 차도까지 대기줄이 있어 경찰이 교통정리를 도와 주기도 했다고 한다.

손님들이 주로 구입한 것은 떡이었는데, 옛날에는 명절이나 잔칫날에는 어김없이 떡을 해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한 말, 두 말씩 사갔다고 한다. 떡을 많이 팔다보니 떡의 종류는 다양했다. 절편이나 인절미, 시루떡, 굴떡, 바람떡 등이 주요 상품이었다고 한다.

부평에 '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가게를 열었던 것은 1958년이였다. 처음 가게를 열었던 유해정 사장은 대전의 신탄진 출신이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전역 후 부평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게를 열었다. 유해정 사장이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부평에 자

2. 평범하지 않은 방앗간



❖ 용방앗간 내부

유형 사장이 '용방앗간'을 이어받은 지는 20년이 넘었다. 어렸을 때부터 가게 일을 도우면서 일을 배웠던 그는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배웠고, 19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앗간 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형 사장이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는 상황이 예전과는 달랐다.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잔칫날에 떡을 만들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떡집이나 떡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떡을 간편하게 사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사장은 더 이상을 떡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가게도 변화해야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방앗간을 떡집과 동일하게 여기지만 사실 떡집은 방앗간의 일부분일 뿐 방앗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형 사장이 찾은 해답은 옛날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대부분 떡을 만들지 않고 사가기 때문에 빵거나 만들어서 파는 것을 주로 하게 된 것이다. 곡물이나 약재를 가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용방앗간은 요즘 손님들이 가져오는 곡물이나 약재를 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준다. 떡을 맞추려는 손님보다 가루를 빵거나 즙을 내려는 손님들이 많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미숫가루를, 가을에는 김장을 위한 고춧가루를 빵으러 오는 손님들로 붐빈다.

이렇듯 단순히 곡물이나 약재의 가루나 즙뿐만 아니라 호박즙, 양파즙, 붕어즙과 같은 다

양한 건강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게를 가득 채운 기계들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떡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설에는 떡국 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명절에는 어김없이 방앗간은 바쁘게 돌아간다.

한자리에서 가게를 5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다. 단골들의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골들이기도 하다. 유형 사장은 이러한 단골들이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 가족을 대하듯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대하고, 또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단골들은 용방앗간이 없어지면 안 되니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며 쉽게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3. 부평의 방앗간

방앗간은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농사와 직결된 공간이었고,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였다. 당시에는 방아를 이용하여 주로 곡식을 빵아 가루로 만든 다음 가공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였다. 밥에 비벼먹는 참기름, 김장에 사용하는 고춧가루, 떡국에 들어가는 떡 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방앗간은 떡집이 되었다. 쌀을 가져가 떡을 빵아주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주로 소분하여 포장된 떡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방앗간의 모습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용방앗간 주변 또한 처음과 다르게 많이 변하였다. 가게 주변은 정비되고, 많은 카페가 들어섰다. 그럼에도 용방앗간은 변하지 않았다. 용방앗간은 여전히 미숫가루와 고춧가루를 빵아주고 있으며, 여전히 명절에는 떡을 만들어 팔고 있다. 용방앗간이 변하지 않아, 찾는 단골들도 변하지 않는다. 다른 가게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단골들이 항상 찾는다고 한다. 이렇듯 주변이 변화는 와중에도 용방앗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형 사장은 아이들이 가게를 맡겠다고 하면 넘겨줄 의향은 있지만 아이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용방앗간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용방앗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성안상회 전경

그 옛날 자전거는 사람들에게 쓰임이 많았다. 걷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동수단이었던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통학을 위해, 회사원들에게는 출퇴근을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 자전거를 사용하였다. 이렇듯 사람들과 밀접했던 것이 자전거였다. 교통의 요지였고, 시장이 밀집해있던 부평역에서는 자전거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고,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팔았던 가게가 있다. 바로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인 성안상회이다.

1. 황해도 피난민의 자전거 가게

성안상회를 처음 열었던 박호영 사장은 1922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박호영 사장은 고향인 황해도 재령을 떠나 서울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서울로 급하게 피난을 오게 된 그는 당시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했던 곳 중 하나였던 영등포의 신길동에 자리를 잡았다. 피난민이었던 박호영 사장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고민 끝에 하이테크 산업이라 여겨졌던 자전거 기술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는 자전거에 자전거의 부속품을 싣고 서울·부천을 비롯하여 김포나 강화까지 출장을 다니며 장사를 하였다. 그렇게 배달을 다니던 중 친구의 권유로 부평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친구의 권유가 있긴 했지만 부평은 서울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부평은 경인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영등포와 비교적 가까웠고, 또 당시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평에 자전거 가게를 열었다.

박호영 사장은 가게를 열면서 가게 이름을 천광상회(天光商會)라고 지었다. 천도교 신자였던 박호영 사장은 천도교의 ‘천’자를 따왔고, 천도교가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자를 따왔다고 한다. 혹은 다른 의미로는 서울에서 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게의 이름도 ‘천광상회’였다. 도움을 받았던 가게가 커지길 바라는 마음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었다. 이후 가게의 이름을 보성운업사(普成輪業社)로 바꾸기도 하였는데, 이 이름 또한 천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천도교에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이후 천도교 신자들은 ‘보성’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박호영 사장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가게의 이름을 ‘보성운업사’로 바꾼 것이다.

당시 자전거는 1944년 일본에서 귀국한 학산 김철호(鶴山 金喆浩) 회장이 설립한 경성정공(京城精工, 기아산업의 전신)에서 1952년에 처음 만들어 냈다. 이 자전거는 ‘3000리호’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기아산업에서 만들어진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로 불리게 되었다. 자전거 가게를 열면서 ‘삼천리자전거’를 판매하였기에 사람들은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으로 불렀다.

당시 부평에 산재했던 대부분의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은 부평에서 자전거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완성품을 판매하는 유일한 가게였다.

2. 모두가 필요했던 자전거

처음 성안상회가 문을 열었던 곳은 지금의 인천지하철 1호선인 부평시장역 근처였다고 한다. 당시 성안상회의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였다. 특히 가게 근처에 위치하였던 부평의 시장 상인들은 자전거가 필요하였다. 모든 상점들이 자동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시절

이었으므로, 자전거로 떡이나 유리 등 많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다. 또한 학생들도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다. 특히 효성동이나 갈산동, 계산동 등 먼 곳에서 살았던 학생들은 부평역을 통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는 학생들의 필수품이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성안상회는 동네에 이른바 ‘자동차 공업사’ 같은 역할을 했던 가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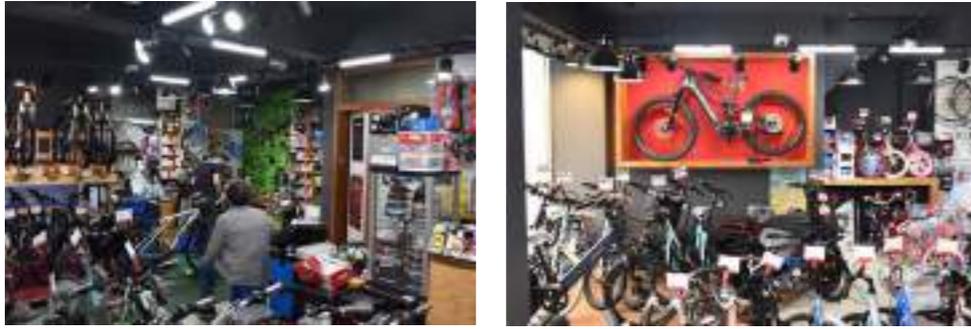
또한 가게의 위치가 부평우체국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의 집배원들도 많이 찾았다고 한다. 당시 집배원들은 국가에서 지급했던 노란 자전거를 이용하여 편지를 배달했는데, 부평에서 이 노란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했던 곳이면서 동시에 집배원의 자전거가 고장이 발생하며 전담으로 수리했던 곳도 성안상회였다.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점원도 3~4명을 두었다고 한다.

이렇듯 가게가 호황을 이루면서 가게의 규모를 점차 늘려갔다. 부평시장역 부근 여러 군데를 거쳐 지금의 하나은행 부평지점이 위치한 곳에서 1971년 지금의 가게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였다. 당시 구입했던 가게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2층의 왜식건물이었다. 가게의 위치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었는데, 이 정류장을 통해 사람들이 김포·강화를 오갔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다.

3. 생계를 위해 이어받은 가게

1972년 박호영 사장이 건강 악화로 사망하면서 가게는 아내였던 김명주 사장이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다. 김명주 사장은 박호영 사장이 썼던 가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그래서 작명소에 가서 지어 온 이름이 ‘성안상회’였다. 이 이후로 가게의 이름은 지금까지 ‘성안상회’로 불리고 있다.

김명주 사장은 1932년 평양 상원군에서 태어났다. 김명주 사장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향을 떠나 서울 신길동으로 피난을 왔고, 그 곳에서 박호영 사장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게를 이어 받은 김명주 사장은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게를 계속 운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자전거 기술자를 두었다고 한다.



❖ 성안상회 내부

이 기술자들은 출퇴근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기술이 있었던 젊은이들을 데려와 김명주 사장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자전거 조립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기술자들에게 자전거의 기술을 맡겼던 김명주 사장은 대신 영업 쪽을 맡아 가게를 운영하였다.

그렇게 이어져오던 가게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83년 즈음이었다. 둘째 아들이었던 박홍순씨가 군대를 제대한 후 돌아와 기술자의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상주했던 기술자가 박홍순씨의 제대 시점에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명주 사장과 박홍순씨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가게의 명칭은 김명주 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홍순씨가 가게를 운영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산악자전거가 소개되었다고 한다. 이에 성안상회에서는 부평에서 처음으로 산악자전거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어느 정도 산악자전거의 보급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당시 산악자전거는 국내산이 없었고, 대부분 수입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박홍순씨는 1990년대 산악자전거연맹의 창설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또한 국내 MTB 경기의 심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고, 산악자전거연맹의 총무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박홍순씨는 자전거에 대한 열정으로 가게를 운영하였고, 많은 활동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던 것이다.

4. 항상 자전거와 함께하는 가게

그러나 2016년 2월 성안상회에 위기가 닥쳐온다. 성안상회를 지탱해 오던 박홍순 씨가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박홍순씨의 형 박유순씨는 가게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당시 박유순씨는 민주노총 중앙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가게를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 김명주 사장 또한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박유순씨는 사표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박유순씨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익숙하게 접해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방과 후나 방학 때에 같이 수리도 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일은 꾸준히 해왔었다. 취직 이후에도 주말이나 시간이 관찮을 때 동생을 도와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계속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게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게를 60년 넘게 운영해오다 보니 가게의 운영은 여러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1978년 12월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적도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으로 레저스포츠의 붐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자전거의 수요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호황을 맞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언택트 레저스포츠가 유행하면서 자전거의 매출이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경우 2019년에 비해 3~4배 이상 팔린다고 한다.

박유순씨는 자전거는 환경과 건강에 있어 매우 편리한 물건이라고 한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자전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단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매연과 도로 파임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자전거를 제시



❖ 성안상회의 전기자전거

하는 것이다. 박유순씨는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차량 통행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제5절 | 차밍



❖ 차밍 전경

옷은 한기나 열기로부터 체온을 유지해주고 먼지·세균·해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옷의 종류를 통해 성별·종교·관습을 구분하기도 하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옷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상품이며, 옷을 파는 상점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평 문화의 거리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의류점이 많

이 자리하고 있다. 트렌드의 변화가 급변하는 현대에 발맞추어 많은 의류점이 개업을 했고, 또 사라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의류점이 있다. 부평에서 오랫동안 매력적인 의류를 판매한 상점 ‘차밍’이 바로 그곳이다.

1. 매력적인 양품점의 탄생

차밍의 창업주인 김애희 사장은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52년 부산에 자리를 잡았던 그녀는 19세였던 1958년 처음 부평에 발을 디뎠다. 당시 편찮으셨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돕기 위해 상경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평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부평에 머물기 시작한 김애희 사장은 약 7년 동안 가톨릭 성당 신부님의 비서로 일을 하었다고 한다. 이후 27세에 결혼한 이후에는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옷가게를 창업하였다.

당시에는 한복과 달리 서양의 옷을 파는 곳을 양품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시기의 부평에는 이러한 양품점이 차밍을 비롯하여 ‘20세기양품점’, ‘경희양품점’, ‘유신양품점’ 등 4군데가 있었다고 한다. 김애희 사장이 창업했을 당시 처음 가게의 위치는 부평문화로 68 인근이었다고 한다. 가게 이름은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던 ‘차밍’이라고 했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의 가게 이름은 다른 가게와 차별성을 가졌다고 한다. 지금이야 차밍이라는 이름이 자주 쓰이지만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이름이었다.

처음 차밍에서는 남성복, 아동복, 숙녀복 등 다양한 옷을 팔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옷을 구입하기 위해 부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게마다 붐볐고, 차밍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님이 너무 많고, 옷을 불티날 정도로 많이 팔려, 직원을 2~3명을 쓸 정도였다고 한다.

3년 정도 가게를 운영했던 김애희 사장은 1971년 근방의 가게로 확장이전하였다. 그렇게 이전한 곳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가게였으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게를 옮긴 이후로는 주로 숙녀복만 취급하였다고 한다. 손님들은 주로 아가씨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다. 주로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았는데, 물건만 내놓으면 금방 소진되었다.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와 자정에 첫 식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날 김애희 사장은 “집에 가 수저를 들면 너무 힘들어 놓칠 만큼 바빴다.”고

기억하고 있다.

김애희 사장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접 남대문에서 옷을 구입해 왔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옷을 구입하는 것도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새벽에 부평역에서 첫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보면 가끔 경찰이 장물아비로 착각해 잡기도 하였으며, 서울에서 삼화고속을 타려고 하면 기사양반이 짐이 많다며 안태워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김애희 사장은 옷돈을 쥐어주거나, 담배라도 사주며 간신히 타기도 했고, 여의치 않으면 택시를 타고 부평으로 오기도 했다. 매력적인 양품점 이면에는 김애희 사장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2. 개성을 찾아주는 매력적인 가게, 차밍

김애희 사장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브랜드 의류가 보급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다고 한다.

양품점이 4군데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평에는 갖가지 브랜드 의류점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이들은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나 각종 판매전략으로 옷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반 양품점으로는 당해내기 어려웠다. 부평 사람들의 옷을 책임졌던 양품점은 점차 브랜드 의류점에 자리를 내주고 하나하나 사라져 갔고, 결국 차밍만 남았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가게를 지켜오면서 김애희 사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장사는 늘 기복이 있기 때문에 호경기나 불경기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가게와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랜 기간 차밍을 운영한 비결이라고 한다.



❖ 차밍 내부

김애희 사장은 장사하면서 배운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애희 사장은 방문하는 손님마다 자기 옷 고르듯이 옷을 골라준다고 한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개성을 찾고 그 개성을 사랑해야 남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옷은 이러한 개성을 찾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운영 철학 덕분에 단골들은 여전히 부평을 지나갈 때면 꼭 들르는 곳이 차밍이라고 한다. 처음 아가씨들이었던 그들은 점차 50대, 60대, 70대로 옷이 바뀌어 갔다. 당시에 아동복을 입었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되어 손자·손녀와 함께 3대가 같이 가게를 방문하기도 한다. 이렇듯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과 쌓은 신뢰와 인간적인 정이 차밍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한다.

김애희 사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개업했을 때 같이 장사했던 이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는 계속 장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나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고 한다. 때문에 오늘도 가게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야쿠르트 하나씩 손에 쥐어준다.



❖ 신일상회 전경

시장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구하기 위해 누구나 찾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지금은 시장의 역할을 대형마트가 대신한다고들 하지만 시장 특유의 분위기나 느낌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시장은 우리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1948년 부평에 처음으로 공설시장이 개장한 이래 오랜 세월동안 부평시장은 부평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왔다. 시장에 대한 여러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금 그래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을 지탱해 주는 수많은 가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가게들 속에서 ‘부평진흥시장’의 시작과 현재를 항상 같이하는 가게가 있다. 그 가게들 중 하나가 바로 신용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가게, 신일상회이다.

1. 어려웠던 시절 행상으로 시작한 장사

신일상회를 창업한 신원범 사장은 193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원범 사장은 원래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해군으로 입대를 하였다. 해군 생활 중에 부사관으로 임관하려 하였으나 결국 제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신원범 사장은 부평에 사촌누이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평으로 상경하였다. 사촌누이는 미군부대의 쓰레기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신원범 사장은 당시 미군부대의 쓰레기는 먼지 말고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군부대의 쓰레기도 입찰을 받아서 버렸다고 한다.

사촌누이는 그 중에서도 먹고 남은 잔반과 먹을 만한 부분을 추려내어 죽처럼 끓였던, 이른바 ‘꿀꿀이죽’을 팔았다고 한다. 1964년 경향신문에서는 이 꿀꿀이죽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이 마을은 약 7백여 가구의 극빈촌으로 이북피난민이 많이 산다. 멀리 동두천(東豆川)서 오는 ‘꿀꿀이죽’까지 합쳐 하루 평균 10~13 ‘드림’을 소비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못 사서 굶어 늘어난 경우가 있다는 하소연. 담배꽂초, 휴지(무엇에 썼는지도 모름) 등 별의별 물건이 마구 섞여 형언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 반액체를 갈구해야만 하는 이 대열. 그들은 돼지의 피가 섞여서가 아니다. 우리의 핏줄이요 가난한 이웃일 따름이다.”¹

이러한 꿀꿀이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의 식당에서 잔반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사촌누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 고향에 있던 신원범 사장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이렇게 신원범 사장의 부평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도 오래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2년 정도 그렇게 사촌누이를 돕던 어느 날 그 쓰레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졸지에 직업을 잃어버린 신원범 사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상과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1964년 즈음이었다고 한다.

신원범 사장이 행상과 노점을 하면서 팔았던 물건은 그릇이었다. 그릇 중에서도 특히 양

1 『경향신문』, 1964년 5월 20일자.

은그릇을 팔았는데, 당시 제일 잘 팔렸던 그릇이 양은그릇이었다고 한다. 그 시기에 결혼을 하면 혼수에 꼭 필요했던 것이 양은그릇이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음식과는 다르게 양은그릇은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안 날 수 없었다고 한다.

2. 진흥종합시장에 뿌리 내린 신일상회



❖ 진흥종합시장 입구

행상과 노점으로 그릇을 팔던 신원범 사장은 1970년 대규모 노점단속으로 위기를 맞는다. 당시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행상이나 노점에 비해 비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고 길거리의 노점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했다고 한다.

부평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부평 문화의 거리가 된 곳이 당시에는 노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가게의 상인들도 일부러 노점을 만들어 내가 파는 상황에 이르렀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결국 1970년 구청에서 노점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점 상인들이 단속에 저항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모두 체포해 가면서 거리는 텅 비게 되었다고 한다.

노점이 사라진 자리에 목재를 수입해 팔았던 박정구라는 서울 사람이 시장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시장이 지금의 진흥종합시장이라고 한다. 1971년 진흥종합시장이 지어지자 드문드문 하나둘 가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게세가 비쌌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가정집의 전세 가격이 7만 원 정도였는데, 진흥종합시장의 가게세는 40~44만원이었다고 한다. 신원범 사장도 그릇을 팔며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합쳐 가게세를 내고 진흥종합시장에 가게를 냈다. 가게의 이름은 '신용을 제일로 한다.'는 의미로 '신일상회'라고 지었다.

초기에는 계속 그릇 장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릇의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신원범 사장은 그릇이 있던 자리를 서서히 식료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진흥종합시장 옆에 바로 깡시장, 즉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건영캐스빌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원래는 농산물도매시장이었다고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배추와 같은 야채를 도매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그릇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야채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에 야채를 비롯한 식료품을 들여놓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슈퍼라고 부르는 구멍가게가 50m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흔하였다. 구멍가게를 운영했던 소매상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일상회를 찾았다. 그렇게 식료품도매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달하는 물품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시기에 차를 사고 면허를 취득하여 배달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김포까지도 배달을 다녔다고 한다. 구멍가게에서 원하면 어디든 배달을 다녔다.

가게가 이렇게 잘되다보니 신원범 사장은 이 시기를 신일상회의 전성기로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항상 넉넉하고 풍족했다고 한다. 호주머니에는 항상 현금으로 200~300만원씩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 추석 명절에는 하루 매출 700만원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전성기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 신일상회의 세월을 함께 한 돈통



❖ 신일상회의 세월을 함께 한 칠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출의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던 농산물도매시장도 1994년 1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그 쪽으로 거의 다 이사를 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가게들도 2000년 12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면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갔다. 당시 신원범 시장은 '이제 하향길로 접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1990년대에는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배달을 다녔던 구멍 가게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시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던 신일상회로 들어오는 손님도 줄어들었다.

3. 신일상회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옛날에는 가게로 가득 들어차 있던 진흥종합시장도 지금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느껴진다. 진흥종합시장 자체가 시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범 사장은 가게의 문을 직접 열고 닫는다고 한다. 평생을 함께 해온 가게이기에 직접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지금은 가게 대부분의 일을 아들인 신용준 씨가 맡아서 하고 있다. 머지않아 곧 가게도 물려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용준씨는 전통 시장의 구조나 형태가 획일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편리함과 친절함을 갖춘, 부평만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줄 수 있는 가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 신일상회 전경



| 제7절 | 영광상회



❖ 영광상회 전경

건어물은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용된 먹거리로 추정된다. 원삼국시대에 동옥저에서 물고기를 조세로 이용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른 시기부터 건어물이 제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려시대에는 건어물이 진상품으로 많이 공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명태·조기·청어·명치·새우·전복·홍합 등의 어패류를 건어물로 만들어 내륙지방에까지 널리 유통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건어물은 오랜 기간 식재료로 이용되었다. 어패류의 저장이 어려운 시절 어패류 공급원으로 건어물이 자주 사용되기도 했다. 명태를 말린 북어는 제사상에 필수적으로 올랐던 음식이었고, 북어포나 대구포는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애용되었다. 특히 조기를 말린 굴비는 고급 반찬 취급을 받았다.

부평에는 이러한 건어물을 오랫동안 판매해온 곳이 있다. 건어물 전문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부평진흥시장'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건어물을 판매해온 곳이다. 가게 이름은 초대 사장의 고향 이름에서 따왔다. '영광상회'가 바로 그곳이다.

1. 운명과의 다툼이었던 건어물 장사

영광상회를 처음 개업한 김호섭 사장은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이었다. 그는 고향에서는 마을 청년회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기대를 품고 상경하였다고 한다. 맨몸으로 상경한 그는 결국 1968년 외가 친척의 연고가 있던 부평에 자리를 잡았다. 외가 친척이 운영하던 병방동의 정미소에서 일을 했던 그는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계속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부평 미군기지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일 또한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 김호섭 사장은 장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고 보니 어려운 일이 많았다. 우선 품목을 정하는 것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물건을 떼서 어디에 팔 것인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떠올린 것이 고향 근처의 '목포역'이었다. 그는 목포역과 서울역을 오가며 장사를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품목은 건어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김호섭 사장은 약 1년 동안 한 달에 20여일을 그렇게 목포와 서울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건어물 장사를 시작한 김호섭 사장은 당시 장사를 하면서 얻은 조언으로 부평에 건어물 노점을 시작하였다. 주로 굴포천이나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에서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을 판매했다고 한다. 그러던 1970년 구청의 노점단속으로 장사를 이어가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부평진흥시장이 문을 열자 그동안 모은 종자돈으로 4평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었다. 가게의 이름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호섭 사장의 고향을 따서 '영광상회'라고 지었다.

2. 최고의 건어물로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릴 정도였는데, 그 배경에는 영광상회가 신선한 건어물을 직접 판매하였다는 것이 있었다. 김호섭 사장은 영광상회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쌓아온 정보와 인맥으로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신선한 건어물을 구할 수 있었다.

김호섭 사장은 그렇게 구한 건어물을 직접 부평으로 운반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람들이 신선한 건어물을 얻

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김호섭 사장은 이문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였기에 신선한 건어물을 싸게 판매하여 고객관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 때의 영광상회의 하루는 새벽에 건어물을 대량으로 받아 소량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수북수북 박스에 쌓인 건어물들은 부평 각 지역의 소매점으로 팔려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다. 그렇게 아침을 보낸 후부터는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았다고 한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손님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밤에 잠을 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장사가 잘되었기에 즐거웠던 시간으로 회상한다.

김호섭 사장의 뒤를 이어 영광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낙현 사장은 여전히 영광상회의 물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아버지 곁에서 일을 배웠고,



❖ 영광상회 내부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좋은 품질로 신뢰를 쌓은 거래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락시장이나 중부시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물품의 질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김호섭 사장이 늘 언급하였던 '최고의 물품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념은 영광상회의 자부심으로 작용하였다.

3. 영광상회의 오늘



❖ 영광상회에서 판매하는 건어물

예전에는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건어물을 구해오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중부시장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에서도 건어물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건어물을 받는 간격도 예전에는 하루에 한번 받았다면 지금은 이틀에 한번 꼴로 간격이 늘었다.

게다가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고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

면서 찾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은 영광상회의 건어물을 인정하기에 계속 찾아오지만, 젊은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주차문제와 같은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 사장은 흑여 젊은 손님이 찾아오면 좋은 상품을 내보이고 설명하여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영광상회는 지금도 주변 시장과 소매점에 건어물을 공급하는 중간 도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흥종합시장에 50년의 노하우를 가진 건어물 전문 도매상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각 가정에서 손쉽게 건어물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력 상품은 오징어채와 미역, 김 등이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견과류 등의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다.

| 제8절 | 봉다방



❖ 봉다방

우리나라에 커피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개항 이후에 여러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거나 머물렀던 외국인들에 의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당시 커피는 일반 백성들은 입에 댈 수도 없는 귀한 음료였다. 때문에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과 특권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기호품이었다. 그러나 점차 외국인들이 묵던 호텔에서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무역을 담당하던 상인들이 커피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입에 댈 수 있는 사람도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듯 개항과 함께 들어온 문물이었던 커피는 점차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는 해방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군부대에서 던져주던 인스턴트커피와 양키시장에서 흘러나온 원두커피는 서민들에게 서서히 스며들었고,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에 커피 문화가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주변이 커피 전문점으로 빼곡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개성 있는 소규모 커피숍까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늘날 카페처럼 화려하거나 사람들로 북적이진 않지만 정감 있고 낭만 넘치는 다방이 있다.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45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그 옛날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을 간직하고 있는, 조금은 허름하지만 따뜻한 다방, 부평 산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봉다방' 이다.

1. 미군부대 앞 세탁소에서 다방을 열기까지

봉다방 최정숙 사장은 경기도 오산 출신으로 군 장교였던 남편을 만나 포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9년 즈음 돈을 벌기 위해 인천 부평으로 올라와 터를 잡고는 세탁소를 열었다.

당시 산곡동에는 미군부대와 공수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특히 산곡동 한양2단지 아파트와 금호이수마운트벨리아파트 인근에는 캠프 그랜트(Camp Grant)가 위치하고 있었다. 한때 금호이수마운트벨리아파트부터 대림아파트 부근까지 군용비행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정숙 사장은 이 미군부대와 공수부대 앞에서 세탁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군인이나 미군을 상대로 군복을 세탁 해주고 월별로 값을 치르는 일명 '달빨래' 일을 15년간 해왔다.

하지만 점차 군부대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당시 다방을 하면 먹고 살

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1974년 이 곳 산곡동 백마장 시장 골목에 처음 다방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1960년대까지의 다방은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은 아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방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절망과 허무를 딛고 살아



❖ 봉다방 사용 찻잔세트(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남은 사람들이 삶을 확인하고 위안하는 장소'였다면, 1960년대에는 '나라 살림이 여전히 피폐한 시절, 수많은 무직자가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 갈 데 없이 모여드는 집합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방의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 1960년대 후반이었다. 이 시기의 다방은 주로 문화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규모도 이전에 비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방에 대한 인식 또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다방전성시대를 열게 되었고, 다방은 곧 동네의 사랑방이자 만남의 장소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방 문을 열면서 최정숙 사장은 가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부평에 있는 한 작명소를 찾았다. 그 때 작명소에서는 '근본 소(素)'에 '만날 봉(逢)'자를 써서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의 '소봉(素逢)'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왜인지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어감이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어 '소'자는 떼어버리고 '봉'다방 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봉다방이 문을 열고 영업을 오랫동안 잘 되니 당시 주변에서 '봉'자를 따서 다방 이름을 짓는 곳도 여럿 되었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봉다방은 최정숙 사장과 함께 아직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2. 손님들의 아지트

동네 손님들의 아지트로 발길이 잦았던 봉다방의 호황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 산곡 시장 주변에는 가게들도 많았고 유동인구가 많았던 덕에 봉다방을 찾는 손님들도 꽤 많았다. 다방에나 와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으레 커피를 마시러 다방으로 가곤 했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손님들의 발걸음도 잦았다. 봉다방 주변으로도 7-8군데 정도 되는 다방들이 더 있었다



❖ 봉다방 사용 찻잔세트(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고 하니 그 때에는 다방 문화가 꽤 인기 있었던 모양이다.

당시 여러 종류의 국산차와 커피를 메뉴판에 걸었지만 꾸준하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은 메뉴는 설탕과 함께 내어 놓는 커피와 각종 몸에 좋은 재료에 계란 노른자 한 알을 띄운 진한 쌍화차였다.

이곳을 찾던 많은 단골손님들은 이제 최 사장 보다 연세가 많아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 간혹 옛 생각에 아직도 봉다방을 찾는 손님들이 계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인이나 예술인들도 봉다방을 종종 찾아 그림 작품이나 시 또는 글을 써서 선물로 건네기도 하였다. 아직도 봉다방 벽면 한 켠에는 그 때 선물로 받은 옛스러운 그림과 글이 세월을 품은 채 남아있다.

잘 나가던 봉다방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삐삐와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다방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옛날에는 다방이 약속을 잡거나 전화 연락을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었지만 삐삐나 휴대폰이 발달하게 되면서 굳이 다방까지 와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긴 생활방식, 취미, 오락문화 등의 변화와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난립해 있던 다방이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탓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한몫했다. 이는 시대의 필연적인 변화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방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 봉다방에서 사용한 공중전화기(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보급된 커피자판기도 다방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에 다방이 아닌 자판기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커피자판기는 빠르게 늘어나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15만 대가 보급되었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다방은 이제 어르신들만 찾는 공간으로 점차 변화해 갔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동시에 길 건너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북적이던 백마장 시장 상권이 죽고 유동 인구 또한 현저히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사람들이 쉬어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낭만을 즐기던 손님들의 아지트 봉다방은 이렇게 조용해지게 되었다.

3.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45년 째 한 자리에서 한 간판을 걸고 아직도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최정숙 사장의 운영 철학이자 비결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방 일을 그저 만만하게 커피 한 잔 파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최 사장은 남모름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았다. 그러한 탓에 다방 사장으로서 매사에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방을 운영하며 받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쉽사리 표현할 수 없어 늘 혼자 속으로 삭여야 했다.

그럴 때마다 ‘늘 내가 살기 위해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되뇌곤 하였다.

손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만큼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었다. 다방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손님들이 다방을 찾는 것보다 더 반가운 것이 직원들이 제 때에 출근하는 것이었다.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마담이나 아가씨들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거나 돈을 달라고 떼쓰기도 하며, 미리 가불로 월급을 받고는 도망가는 일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다방에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 종업원 아가씨들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폐기하고 눈 감아 주기도 하였다. 딸 같고 여동생 같은 종업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히 이를 덮었던 것이다.

다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자면 소설로 몇 권은 썼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최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긍정적으로 나아가자는 운영철학이 아직도 봉다방을 지키는 힘이 아닐까 싶다.

산곡 시장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는 연세가 많은 최 사장의 체력이 언제까지 뒷받침될지는 모르겠지만 45년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봉다방의 온기가 오래토록 계속되기를 바란다.

찾아보기

(사)인천수출산업공단	13	경인철도	192
(사)한국수출산업공단	1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4
6·25전쟁	164, 197	경제재건축진회	24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69, 79	공단심의위원회	29
GTX	213	공도인천	309
IMF외환위기	148	공동주택	219
건어물	405	공설소매시장	282
건영농산주식회사	314	공설시장	285
검단·강화 산업단지	61	공영조	169
경남아파트	262	광명연립	224
경성공작소	45	구로수출공단	25
경인고속도로	26, 189	국가산업단지	25
경인공업지대	68	국가재건최고회의	25, 28
경인국도	182	국민운동본부	134
경인선	197	국민음식	382
경인시가지계획	117	국민주택	221
경인천철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9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40	굴포천살리기	128

금강연립	233	대한마이크로	130
금산아파트	247	도시개발5개년계획	36
금호타운	262	도시개발법	167
기네스북	348	도시계획법	164
기탄장	277	도요타자동차	72
남동국가산업단지	61	동광리어	76
남대문시장	397	동서식품 장학회	107
남일금속	135	동서식품㈜	100
남창문구사	378	동아시티백화점	260
노동운동	116	동아아파트	242
노점상	333	동암역	203
노점상연합회	330	동양아파트	239
노포	376	동원아파트	247
농지개혁법	170	두령	139
뉴서울아파트	242	디자인센터	85
닛산	71	떡집	389
다방	411	레저스포츠	394
단독주택	228	로얄TOTO㈜	111
대동아파트	242	로얄앤컴퍼니(주)	109
대림아파트	255	로터리	171
대우자동차	69	막걸리	91
대원연립	235	막걸리 박물관	98
대진아파트	239, 241	만월산터널	195

모주	91	보령공장	70
목련아파트	234	보성운업사	392
목련연립	234	봉다방	410
문구류	379	부개역	206
문방구	377	부개지구	176, 237
문화주택	221	부원연립	225, 239
문화주택단지	229	부일종합시장	236
미국GM코리아	69	부평 문화의 거리	274
미군수지원사령부	21	부평1지구	168
미도아파트	239, 241	부평2지구	173
미성빌라	224	부평3지구	174
민주화운동	116	부평IC	190
박노정	71	부평M스타가요제	327
박정희	31	부평공단	29, 118, 119
반도상사	125	부평공장	70
발아장	277	부평공판장	312
방공호	346	부평국가산업단지	12, 68
배다리시장	280	부평국민주택	229
백마극장	386	부평강시장	274
백운역	205	부평대로	350
백운주택	205	부평대아지하도상가	360
병원노조	144	부평로지하도검상가	352
병참기지	309	부평부	277

부평분장	297	산업구조조정	119
부평성일로2차지하도상가	360	산업선교회	122
부평수출공단	43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106
부평수출산업단지	222	삼릉마을	233
부평시장	202	삼보아파트	247
부평시장로터리	354	삼본아파트	235
부평시장번영회	319	삼산농산물도매시장	313
부평시장조합	295	삼성연립	236
부평시장지하도상가	347	삼원섬유 노조	124
부평양조장	94	삼익아파트	241
부평역	201	삼익약기	109
부평역사 쇼핑물	363	삼일연립	224
부평역지하도상가	347	삼천리자전거	391
부평자유시장	295	삼화연립	236
부평제1수출공단	12, 13	상가번영회	339
부평종합시장	274	상설시장	285
부평중앙지하도상가	358	새나라자동차	22, 45, 69
부평진흥회	32, 37	새동인천지하도상가	346
부평프리마켓	327	새한자동차	69
부흥실업	302	서곶지구	39
부흥실업주식회사	313	서부극장	384
비철금속공단	15, 26	성안상회	391
산별노조	123	소성주	91

소화지구	168	양품점	397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168, 202	영광상회	406
수도사거리	295	영남아파트	239
수출공단	13, 25, 181	올림포스호텔	56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	26, 50, 183	외곽순환고속도로	185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	119	용방앗간	387
수출주도공업화 정책	23	우리마당	140
수출촉진위원회	25	욱일아파트	241
숙녀복	397	워크아웃	78
시장규칙	282	원두커피	409
신기장	277	원적산터널	196
신부평지하도상가	347	원통이고개	183
신일상회	400	유승원	43
신진공업사	72	육거리	354
신진자동차	69	윤갑노	43
신한제분공장	45	의류점	397
십정3지구	179	이어령	325
쌀막걸리	96	이화주	91
쌍용자동차	78	인천기계공업단지	12
쌍화차	412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128
안암아파트	233	인천노동회관	140
에스컴 시티	218	인천백화점	202
양키시장	171, 290	인천상공회의소	28

인천성모자애병원	154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55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	32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144
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 후원회	41	전국병원노동조합의회	155
인천시설공단	36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55
인천양조장	93	전국우수수장박람회	367
인천원예협동조합	309	전인연립	233
인천지역노동자연맹	127	전태일	12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139	전통시장	274, 368
인천지역대공장노동연대모임	143	정일빌라	2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27	제1·2·3기계공단	26
인천지하철	210	제1수출공단	26
인천청과주식회사	285	제2수출공단	26
인천택주합동제조회사	91	제너럴모터스(GM)사	154
일억촌	384	제재공단	26
자전거	391	조기준	38
장미연립	239	조선시가지계획령	165
장시	276	㈜대아개발	362
재래시장	340	㈜대한염업공사	60
재벌기업	36	㈜동보	76
재원아파트	247	㈜부평성일로지하상가	356
재일교포	25	주안국가산업단지	12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148	주안염전	192
전국미군중업원노동조합	121	㈜에스에이치글로벌	76

㈜인천개발공사	350	커피믹스	101
중국요리	382	커피자판기	413
중부시장	408	코로나	72
중앙도매시장법	297	크라운	72
중화연립	236	태연물산	136
지하도상가	325, 346	태원연립	233
진흥자유시장	313	토지구획정리사업	164
진흥종합시장	27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5, 167
창원공장	70	평리단길	274, 344
창휘연립	233	프리마	102
채호	43	한국GM	22, 69
차밍	397	한국경제인협회	24
천광상회	392	한국노동연구소	140
철마산	194	한국노총	123
철마산터널	195	한국인테리어화학	51
청과시장	298	한국크리스탈공업사	51
청라 주행사험장	86	한권의 책	140
청라경제자유구역	86	한남정맥	192
청라지구	212	한독금속	135
청용연립	224	한미음재단	87
청천아파트	224	한양아파트	247
청천푸르지오	262	한화아파트	262
취입률	20	한스코퍼레이션(주)	76

현대백화점	260
현대아파트단지	219
회랑연립	230
황어장	278
회락촌	382

부평사
富平史

집필위원(가나다순)

김래영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박인옥 (사)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진희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부장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
최병훈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부평사 3-2권

부평의 산업과 사회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ISBN 979-11-5698-336-1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